

軍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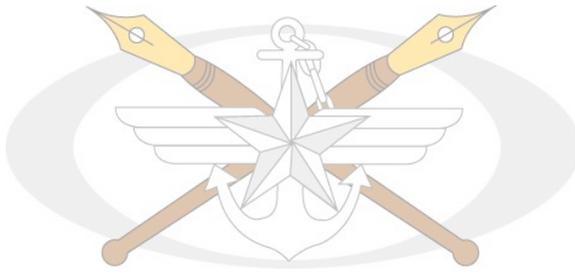


제 88 호 2013. 9

- 고려 태조대 6위 설치와 군제 운영
-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 한국군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분석으로 본 미래 발전방안 연구
- 지중해문명의 종언(레판토해전을 중심으로)
- 영국 갈리폴리 원정작전(1915년)의 패인(敗因) 고찰
- 인도-버마전역과 중국원정군
-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침공을 억제한 스위스 방위전략의 특징과 교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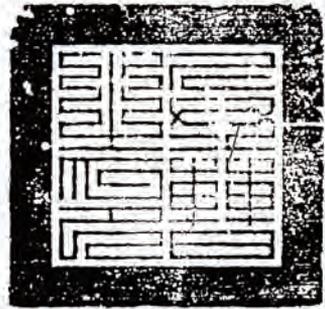


표지그림

虎旗(조선후기. 營門밖 양편에 세우는 군기로서 검은색 바탕에 날개 달린 호랑이가 화염을 쥐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軍史

第 88 號
2013. 9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軍史

第 88 號

2013.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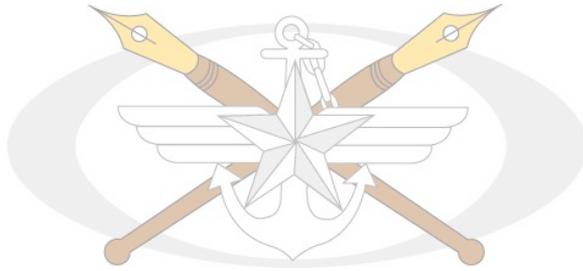
目 次

- | | | |
|-----|--|-----------|
| 1 | 고려 태조대 6위 설치와 군제 운영 | 김종수 |
| 33 |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 이강수 |
| 61 |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 조수룡 |
| 97 |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 KMAIR·김인수 |
| 127 | 한국군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분석으로 본
미래 발전방안 연구 | 손승호 |
| 163 | 지중해문명의 종언 - 레판토해전을 중심으로 - | 김응중 |

- 185 영국 갈리폴리 원정작전(1915년)의 패인(敗因) 고찰 이내주
 - 영국군 수뇌부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터키군의 실상(實狀)을 중심으로 -
- 217 인도-버마전역과 중국원정군 기세찬
- 253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이기덕·이선규
 -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 291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침공을 억제한 스위스 방위전략의
 특징과 교훈 김용빈

부
 록

1. 연구소 동정
2. 자료기증 및 자료이용 안내
3. 신간도서 소개
4. 『軍史』誌 투고안내
5. 연구윤리에규



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 태조대 6위 설치와 군제 운영

김 종 수*

1. 머리말
2. 태조 2년 6위 설치
3. 태조대 6위의 구성
4. 태조대 군제의 운영
5. 맺음말

1. 머리말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사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던 조선시대의 학자 놀재 양성지는 세조 원년(1455)에 올린 상소문에서

우리 본조(本朝)는 … 조종(祖宗)의 공과 덕이 전조(前朝:고려)에 양보할 것이 없고 가법(家法)의 정대함은 그보다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조(前朝) 병제(兵制)의 훌륭한 점은 비록 오늘에 와서도 쉽게 견줄 수 없을 것입니다.¹⁾

*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사학과 교수

1) 『世祖實錄 권1, 세조 원년 7월 戊寅. ‘我本朝 … 朝功宗德 無讓前朝 而家法之正 則遠過焉 但前朝兵制之盛 雖今日或未易擬也’

라고 고려 병제의 우수함을 칭찬하였다. 고려의 군사제도는 조선의 그것에 비해 훨씬 훌륭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양성지가 칭찬한 고려의 군제는 2군 6위로 대표되는데, 2군 6위의 기틀을 마련한 시기가 태조 왕건 때이다.

태조대는 500년 고려왕조 군제의 큰 틀을 마련한 시기였다. 이때 만들어진 군제는 조종(祖宗)의 전장(典章)으로서, 고려후기까지 비록 약간의 제도의 첨삭은 있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태조대에 설치된 6위는 후에 2군이 첨가되어 2군 6위가 되었고, 이것은 고려 말 8위로 칭해진 이후²⁾ 조선초기에 10위로 증편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는 5위제로 개편되었다. 태조대의 군제는 고려와 조선시기를 합쳐 대략 700년의 역사에 그 영향을 미친 셈이다.³⁾ 그런데 지금까지 태조대 군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조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나왔지만, 태조대 군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⁴⁾

태조대 군제에 대한 연구가 부실한 이유는 사료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사료도 연구자들의 선입관에 의해 부정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조 2년(919) 6위 설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서 무려 4군데에서 나오지만, 연구자들은 6위가 태조대에 설치되었을 리 없다고 이를 간단히 부정하였다. 이렇게 6위 설치가 부정됨에 따라 후삼국통일 전쟁 과정에서 나타나는 태조대 군인의 구성, 평시체제와 전시체제의 운영 등 군제에 관한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즉 태조대에 운영된

2) 『高麗史』 77, 百官 2, 西班. ‘至恭讓王時 二軍六衛 並稱八衛’

3) 임진왜란 중 혼련도감의 설립으로 5위제적인 군제는 해체된다. 이에 대해서는 拙著, 『朝鮮後期 中央軍制研究』, 혜안, 2003. 참조.

4) 태조대 군제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과 저서 참고.

李基白, 「高麗京軍考」, 『高麗兵制史研究』, 一潮閣, 1968.

洪承基, 「高麗初期 中央軍의 조직과 역할-京軍의 성격-」, 『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鄭景鉉, 「高麗 太祖代의 御軍部에 대하여」, 『韓國學報』13, 1987.

鄭景鉉, 「高麗前期 二軍六衛制 研究」,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鄭景鉉, 「Ⅲ. 군사조직 1. 경군」, 『한국사13 - 고려전기의 정치구조-』, 국사편찬위원회, 1993.

군제는 사료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사료도 잘못된 사료라고 부정됨에 따라 그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2장에서 기존에 제기된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을 비판하고자 한다. 6위 설치 부정론을 부정함으로써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음을 강조하려 한다. 3장에서는 태조대 6위를 구성하는 군인들의 면모와 출신 등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태조대 6위 군인들은 이후 세병제(世兵制)에 따라 자손 대대로 군인 신분을 물려주게 된다. 따라서 태조대 군인의 성격에 대한 규명은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기도 하다.⁵⁾ 그리고 4장에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를 둘러싼 태조대 군제의 운영과 군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전기에는 군인 세력을 적절히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기원이 태조대에 있었다. 태조대 군제는 500년 고려왕조의 기틀을 확립하고 고려전기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으며, 이후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주제라고 생각한다.

2. 태조 2년 6위 설치

고려전기의 중앙군은 2군 6위의 형태로 편제되었다. 2군은 응양군(鷹揚軍)과 용호군(龍虎軍) 등 2개의 군(軍)이고, 6위는 좌우위(左右衛), 신희위(神虎衛), 흥위위(興威衛), 금오위(金吾衛), 천우위(千牛衛), 감문위(監門衛) 등 6개의 위(衛)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2군 6위 중 6위가 2군보다 먼저 설치되었다. 『고려사』, 백관지에는 2군 6위의 연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5)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에 대한 논쟁은 권영국, 「고려전기 중앙군의 성격」, 『한국 전근대사의 주요 쟁점』, 역사비평사, 2002. 참조.

4 軍史 第88號(2013. 9)

(태조) 2년에 6위를 설치하였다.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을 비치하였다. 후에 응양(鷹揚)·용호(龍虎) 2군을 설치하여 6위의 상위에 있게 하였다.⁶⁾

6위가 설치된 것은 태조 2년(919) 때의 일이고, 2군은 6위보다 상위의 부대이지만 그 설치시기는 목종 5년(1002) 이후였다고 한다. 그런데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다음과 같이 『고려사』, 세가와 병지, 『고려사절요』 등에서도 발견된다.

- (태조) 2년 춘 정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지를 정하여 궁궐을 짓고, 3성(省) 6상서관(尙書官) 9시(寺)를 설치하였다. 시전(市廛)을 세우고, 방리(坊里)를 구분하였으며, 5부(部)를 나누고 6위(衛)를 설치하였다. (『고려사』 권 1, 세가 1, 태조 2년 정월)
- 태조 2년 정월 6위를 설치하였다. (『고려사』 권 81, 병제)
- (태조) 2년 춘 정월 송악의 남쪽에 도읍지를 정하고, 그 군(郡)을 승격시켜 개주(開州)라 칭하였다.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구분하였으며 5부를 나누고 6위를 설치하였다. (『고려사절요』 권 1, 태조 2년 정월)

이와 같이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는 『고려사』, 백관지, 세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 총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다. 한 가지 사실을 『고려사』에서 이처럼 여러 군데에 중복 서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를 통해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된 것은 특기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고려시기 군제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고려병제사연구』를 저술한 이기백 교수는 목종 5년(1002)에 6위가 창설되었다고 주장하였다가⁷⁾, 다시 성종 14년(995) 경에 6위가 완비되었을 것이

6)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7) 李基白, 「高麗 京軍考」, 앞의 책, 67쪽.

라고 주장하였다.⁸⁾ 정경현 교수 역시 “고려의 중앙군이 태조 2년부터 6위로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고려사』 편찬자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6위의 중앙군제는 당나라의 12위 병제를 바탕으로 한 병제였다. 그러나 태조대라고 하면 왕조의 창업기인 동시에 전란의 시대라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직 중국식 제도들을 수용할 만큼의 안정되고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고, 또 “태조대의 역사는 출병과 전투에 관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위(衛)의 실재를 방증할 만한 구체적 단서는 전혀 없다. 만일 6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출전 무장들 가운데 반드시 6위의 무직(武職)을 지닌 인물이 있을 법도 한데도 무지 그런 사례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또한 고려에 3성 6부 9시와 같은 중국식 정치기구들이 설치된 것도 사실은 태조대가 아니라 성종대의 일이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건대, 태조대의 중앙군은 6위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⁹⁾라고 주장하고, 이기백 교수와 같이 성종 14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고 추정하였다.

위와 같이 『고려사』의 태조 2년 6위 설치설은 정경현 교수에 의해 체계적으로 부정되었는데, 그 논거는 모두 4가지이다. 첫째,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이다.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셋째, 태조대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다.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는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이상 네 가지 이유에서 정 교수는 태조 2년 6위 설치설을 부정하고 있다.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의 기반이 되는 이 네 가지 논거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된 것은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라고 하지만, 『고려사』와 『고려사절요』는 조선시기 세종~문종 대에 걸쳐 십여 명에 이르는 춘추관 수사관(修史官)들이 합동으로 편찬한

8) 李基白, 「高麗 二軍·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 앞의 책, 79쪽.

9) 鄭景鉉, 「Ⅲ. 군사조직 1. 경군」, 앞의 책, 1993, 271~272쪽.

역사서이다.¹⁰⁾ 『고려사』의 세가,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는 모두 다른 사람이 편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¹¹⁾ 이들 역사서 각각에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들을 편찬한 사람들이 모두 함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려시기에 작성된 원사료에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편찬자들이 술이부작(述而不作)의 원칙에 따라 이것을 그대로 기술하였을 것이다.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군사조직을 6위로 나누는 것과 같은 군제 개편은 여유 있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군인들을 몇 개의 부대를 나누어 통솔하는 것은 군사 운용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894년(진성여왕 8) 궁예는 양길의 병력 일부를 받아 복원을 출발하여 명주(강릉)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리가 3,500인으로 증가하자 이들을 14대(隊)로 나누고 금대·검모·혼장·귀평·장일 등을 사상(舍上:부장)으로 삼았다고 한다.¹²⁾ 아직 국가를 만들지도 못한 궁예는 병력이 대폭 증가하자 즉시 이들을 14대로 편제하고, 각각의 부대에 부장(部長)을 임명하여 군사조직을 재정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투시의 기동성과 분산성, 집중성을 높이고, 단위부대 중심의 독자적인 전투수행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¹³⁾ 따라서 궁예의 정치, 군사체제를 이어받은 왕건이 태조 2년에 군사조직을 6위로 개편하는 것과 같은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손자병법』에서 “많은 병력을 통솔하는 것을 적은 병력을 통솔하듯이 할 수

10) 『文宗實錄』 권12, 文宗 2년 2월 庚申 條에 『高麗史』 修史官들의 명단이 나온다.

11) 邊太燮, 『「高麗史」의 研究』, 三英社, 1982, p.44. 변태섭 교수는 여기서 “(고려사) 列傳과 紀·志·年表를 작성한 젊은 史官들의 分科가 어떠한지 알 수 없다. 梁誠之가 地理志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밖의 分담은 지금으로서 알 길이 없다. 文宗 즉위년 10월 庚辰에 藝文館提學 李先齊가 高麗史目形止案에 수록된 兩界軍의 編成을 소개한 것으로 보아 刪潤을 맡았던 그가 兵志와 관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라고 쓰고 있다.

12)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乾寧元年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金大·黔毛·斯長·貴平·張一等 爲舍上[舍上謂部長也]’

13) 신성재,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p.21.

있는 것은 분수(分數:군사편제) 때문이다.”¹⁴⁾라고 하듯이, 군사조직을 몇 개의 하위 부대로 나누어 통솔하는 것은 군사편제의 기본적인 사항이다. 수천 명의 군인들을 6위 등의 군사편제로 나누지 않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

셋째, 태조대 사료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어, 태조 2년 6위의 설치가 의문시된다고 했는데, 태조대뿐만 아니라 고려초기의 사료는 소략하기 짝이 없다. 이것은 『고려사』, 황주량(黃周亮) 열전에 “지난 시기에 거란병이 경성을 함락시키고 궁궐에 불을 질러 서적이 모두 다 잿더미로 화하였다”¹⁵⁾라고 하듯이, 현종 초 거란병이 개성을 함락시키고 궁궐에 불을 질러 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성종 목종 등 7대에 걸친 실록이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황주량이 왕명을 받아 각지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7대 사적’을 편찬하여 왕에게 바쳤다고는 하나 원본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고려초기의 기록은 부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태조대에는 장군 이외에 그 아래 장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고려초기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는데,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된 것을 알려주는 4가지 사료 가운데, 유독 『고려사』, 세가에서만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에는 이런 기록이 없다. 따라서 『고려사』 세가에서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된 것이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한 사료의 문제점을 가지고 나머지 사료 모두를 부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려사』, 세가의 태조 2년에 수록된 3성 6부 9시에

14) 『孫子兵法』, 勢篇. ‘凡治衆如治寡 分數是也’

15) 『高麗史』95, 列傳 8, 黃周亮. ‘初契丹兵 陷京城 燒宮闕 書籍盡燬 燼 周亮奉詔 訪問擬撰集太祖至穆宗七代事跡’

관한 내용만 잘못 기재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외에 나머지 기록들, 즉 태조 2년에 시전을 세우고 방리를 구분하였으며 5부를 나누는 등의 기록은 사실일 가능성이 많다. 태조대에 시전을 세웠다는 것은 『삼국유사』, 왕력(王曆)편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경진년(920)에 유암(乳岩) 밑에 유시(油市)를 세웠다. 따라서 지금 풍속에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유하(乳下)라고 한다.¹⁶⁾

『삼국유사』의 위 기록에서는 시전을 유시(油市)라 칭하고 경진년(920)에 세웠다고 하므로, 태조 2년(919)과는 1년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태조 2년에 시전을 세운 사실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 태조 2년에 방리를 구분하고 5부를 나누었다는 기록들은 학계에서 대체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¹⁷⁾ 따라서 『고려사』, 세가의 3성 6부 9시를 제외한 나머지 기록들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므로 태조 2년에 6위를 설치하였다는 기록도 사실일 수 있다.

이상에서 태조 2년 6위 설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기존에 제기된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의 4가지 논거를 비판해 보았다. 사실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은 『고려사』, 세가, 백관지, 병지와 『고려사절요』 등 고려시기 사서의 총 4군데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를 간단히 잘못된 사료라고 도외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역사가는 사료가 자신의 역사상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잘못된 사료라고 간주하기보다는 사료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 그 의미를 더 천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조 2년 6위 설치 부정론은 후대에 2군 6위가 완비된 형태를 보고 태조 2년에 그러한 형태의 군제가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전기의 2군 6위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령(領)에 상장군, 대장군,

16) 『三國遺事』 1, 王曆 1, 太祖. '庚辰 乳岩下 立油市 故今俗 利市 云乳下'

17)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94쪽.

김창현, 『고려 개경의 구조와 그 이념』, 신서원, 2002, 114쪽.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 비평사, 2002, 115쪽.

장군 등의 장관(將官)과 정5품 중랑장~품외(品外) 대정에 이르는 경군(京軍), 그리고 지방에서 번상하는 외군(外軍)이 결합한 체계적인 군제이다. 중앙정치제도와 지방제도의 정비가 완료되고,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군사제도인 것이다. <표 1>과 같은 2군 6위의 편제와 정원은 2군이 설치된 다음, 종래 6위의 편제와 정원을 재조정하여 완성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표 1> 2군 6위의 편제와 정원

2군6위	領	將官			京軍(府兵)						계	外軍		계	기타
		上將軍 정3품	大將軍 중3품	將軍 정4품	中郎將 정5품	郎將 정6품	別將 정7품	散員 정8품	校尉 정9품	隊正 품외		保勝軍	精勇軍		
鷹揚軍	1	1	1	1	2	2	2	3	20	40	72				
龍虎軍	2	1	1	2	4	10	10	10	40	80	158				
左右衛	13	1	1	13	26	65	65	260	520	1,016	10000	3000	13000		
神虎衛	7	1	1	7	14	35	35	140	280	548	5000	2000	7000		
興威衛	12	1	1	12	24	60	60	240	480	938	7000	5000	12000		
金吾衛	7	1	1	7	14	35	35	140	280	548		6000	6000	役領1	
千牛衛	2	1	1	2	4	10	10	40	80	158				常領1	海領1
監門衛	1	1	1	1	2	5	5	20	40	80					
계	45	8	8	45	90	222	222	223	900	1800	3,518	22000	16000	38000	

典據: 『高麗史』 77, 百官 2, 西班.; 81, 兵 1, 軍制.

그런데 <표 1>과 같은 형태의 2군 6위가 나타나기까지, 6위제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군인의 수와 관등, 계급 등에서 여러 차례 변화가 있었다. 우선 고려 초 6위의 군액은 여러 차례 증감이 있었다. 성종 원년(982)에 올린 최승로 상서문의 시무책에는 군인 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¹⁸⁾

우리 조정의 시위 군졸들은 태조 때에는 다만 궁성을 숙위하는 일뿐이어서 그 수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광종 때에 와서 참소를 받고 장관과 재상들을 주책(誅責)하였으며, 스스로 의혹이 일어나서 군인의 수를 증원하되 주군(州郡)에서 풍채 좋은 자들을 선발하여 입시(入侍)하게 하고,

18) 李基白 외, 『崔承老上書文研究』, 一潮閣, 1994.

이들을 모두 내주(內廚)에서 식사하게 하였습니다. 당시 여론은 이것을 변잡하기만 하고 이로운 점이 없다고 하였으며 경종 때에 와서는 비록 약간 감원하였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그 수가 많습니다.¹⁹⁾

광종 때에는 태조대에 비해 시위 군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경종 때 약간의 감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즉 고려 초에는 <표 1>과 같이 군인의 수가 확정되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변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초 군인의 관등과 계급도 <표 1>과 같지 않았다. 『고려사』, 백관지에 “건국 초기의 관계(官階)는 문·무를 나누지 않았다.”²⁰⁾라고 하듯이 태조대에는 아직 관계상으로는 문무가 분리되지 않았다. 문무관 모두 ‘대광(大匡), 대승(大丞), 대상(大相), 원보(元甫), 원윤(元尹), 좌윤(佐尹), 정조(正朝), 정위(正位), 보윤(甫尹)’이라는 고려초기 관계를 받았다. 따라서 이 시기 군인들은 <표 1>과 같이 ‘상장군, 대장군, 장군, 중랑장, 낭장, 별장, 산원, 교위, 대정’ 등의 군 계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광~보윤’에 이르는 고려초기 관계를 받았다. 그리고 태조대 군인의 등급도 ‘상장군~대정’과 같이 9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다. 태조대 군인이 어떤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지 사료가 없어 알 수 없지만, 경종 원년(976)에 발표된 시정전시과에는 무반은 단삼(丹衫)으로서 5등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²¹⁾, 9등급은 아니었다. 따라서 후대에 완비된 2군 6위의 형태를 보고 태조대에 그러한 6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후에 성인이 된 모습만을 보고 어린아이 때의 그를 성인인 그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적절하지 않다. 태조 2년에 설립된 6위는 아직 2군 6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 못하였고, 이후 수많은 군제 개편을 거쳐 2군 6위제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19) 『高麗史』 93, 列傳 6, 崔承老. ‘我朝侍衛軍卒 在太祖時 但充宿衛宮城 其數不多 及光宗信讒 誅責將相 自生疑惑 增益軍數 簡選州郡有風彩者 入侍 皆食內廚. 時議以爲繁而無益 至景宗朝 雖稍減 泊于今時 其數尚多’

20) 『高麗史』 77, 百官 2, 文散階. ‘國初官階 不分文武’

21) 『高麗史』 78, 食貨 1, 田柴科. ‘武班 丹衫以上 作五品’

3. 태조대 6위의 구성

태조대부터 중앙군 6위는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²²⁾ 무관은 복무에 대한 대가로 국가로부터 토지(수조권)와 녹봉을 받는 군인이었고, 농민군은 양인 농민들이 군역의 의무로서 번차에 따라 번상하는 군인이었다. 무관은 도성에 거주하여 경군(京軍)이라고 하였고, 농민군은 지방에 거주하면서 번상 근무하여 외군(外軍)이라고도 하였다. 그런데 태조대에는 아직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와 지방제도가 미숙하여 지방 농민들에 대한 군역 징발과 동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태조 17년(934) 국왕은 예산진(禮山鎭) 조서(詔書)에서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나갔고, 여자들도 부역에 동원되었다.”²³⁾라고 하여 후삼국시기 군역 행정의 가혹성을 토로하였지만, 이 시기 농민들은 대체로 지방군에 동원되었고, 중앙에 올라온 번상 농민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즉 태조대의 6위는 무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도성에 상주하면서 전문적인 군사 기술을 익힌 무관이야말로 국가와 정권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군사력인 것이다.

태조대 무관들은 마군(馬軍)으로도 불렸다. 이들은 일반 보병에 비해 기동성과 충격력이 훨씬 뛰어난 병력으로서 고도의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이었다. 즉 태조대 무관들은 거의 대부분 말을 타는 마군으로서 6위의 주축을 이루고 있었다. 실제로 태조대에 최고의 정치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은 대부분 기장(騎將), 마군장군(馬軍將軍)이었다. 개국 1등공신인 홍유 배현경 신승겸 복지겸, 개국 2등공신인 능식(能植), 그리고 후삼국 통일전쟁의 최고 수훈자였던 유금필 등은 모두가 마군장군이었으며, 개국 2등공신으로서 통일전쟁기에 북방지역의

22) 고려시기 중앙군이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拙稿, 「高麗·朝鮮初期의 府兵」, 『歷史教育』 69, 1999.; 「高麗時期 府兵制의 運營과 그 原則」, 『歷史教育』 73, 2000. 참조.

23) 『高麗史』 2, 世家 2, 태조 17년 5월. ‘男盡從戎 婦猶在役’

축성사업과 변방수비를 전담하다가 통일 직후 재신(宰臣)이 된 염상(廉湘)은 마군대장군이였다. 또한 태조 즉위 직후에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처형된 이혼암과 환선길도 마군대장군의 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들이였다.²⁴⁾ 태조대 중앙군은 무관 신분의 마군이 병력의 주축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후삼국 시기 고려가 후백제의 각 성을 공략할 때는 마군이 중심이 된 중앙군이 출동하여 전쟁을 치르고, 성을 공략한 이후에는 소수의 무관만을 남겨놓아 지방 농민으로 구성된 지방군을 통솔·관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태조 11년(927) 11월 오어곡성의 함락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견훤이 날랜 군사를 뽑아서 오어곡성(烏於谷城)을 함락시키고 수졸(守卒) 일천 명을 죽이니 장군 양지(楊志)와 명식(明式) 등 6인이 항복하였다. 왕은 제군(諸軍)을 구정(毬庭)에 모이게 하여 6인의 처자를 제군 앞에 조리돌리고 기시(棄市)하였다.²⁵⁾

이 기사를 통해 오어곡성에는 장군 양식, 명식 등 6명의 장군 장교와 수졸(守卒) 수천 명이 주둔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양식, 명식 등 6명의 장군·장교는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군인 수졸들을 통솔·관리하는 책무를 맡고 있었다. 이 6인이 견훤에 항복하자 태조 왕건은 도성에 거주하던 처자들을 붙잡아 제군(諸軍) 앞에서 처형한 것이다. 한편 중앙에서 파견된 장군·장교가 무단으로 성을 이탈하면 지방군들은 흩어지고 성은 적의 수중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즉 태조 원년(918) 6월,

(이혼암은) 궁에 말년에 군사를 거느리고 웅주(熊州)를 습격하여 점령하고 있다가, 태조가 즉위한 소식을 듣고 가슴 속에 화심(禍心)을 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도성으로 올라왔다. 이에 사졸들은 대부분이 도망쳤으며 웅주는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²⁶⁾

24) 鄭景鉉, 「高麗前期의 保勝軍과 精勇軍」, 『韓國史研究』 81, 1993, 51쪽.

25) 『高麗史』 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26) 『高麗史節要』 1, 태조 원년 6월; 『高麗史』 127, 列傳 40, 叛逆 1, 伊昕巖.

라 하여, 이혼암이 태조 왕건이 즉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웅주(熊州)를 이탈하여 도성으로 올라오자 사졸들이 도망쳐 웅주가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한다. 10년 후인 태조 10년(927) 4월 태조 왕건은 직접 중앙군을 이끌고 웅주를 다시 공격하였다.²⁷⁾

태조대 중앙 정부는 고려 왕조에 협력하는 호족이 직접 다스리는 지방을 제외한 각 성(城)과 군현에 무관을 파견하여 관리하게 하였다. 또 만약 고려에 귀부한 호족이 그 지방을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무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하도록 하였다.²⁸⁾ 그런데 무관이 적에게 항복하거나 이탈하여 성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그 성은 이후 재차 중앙군의 공격대상이 되었다. 후삼국시기 지방 군현들은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강의 실력자에게 귀부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반부상반(叛附相半)²⁹⁾하는 주현(州縣)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은 각 지방 호족들의 요구와 희망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교력과 포용력도 필요하였겠지만 무엇보다 강력한 중앙군의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태조대 중앙군은 후삼국 통일과 고려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무력적 기반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태조대 중앙군인 6위를 구성하는 군인의 성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6위 군인들은 첫째, 궁예정권의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태조 왕건 본인이 궁예정권 군인 출신이고, 또 앞에서 언급한 개국공신들도 대부분 궁예정권 군인 출신이다. 개국 1등공신인 홍유·배현경·신승겸·복지겸 모두 궁예 말년 기장(騎將)이었다.³⁰⁾ 태조 왕건이 918년 6월 홍유 등의 추대를 받아 궁궐로 들어올 때 궁문 앞에서 북치고 떠들며 기다리는 자가 10,000여 인이었다고 하는데³¹⁾, 이들 중 상당수는 궁예정권의 군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궁예정권

27) 『高麗史』 1, 世家 1, 太祖 10년 4월 乙丑. ‘王攻熊州不克’

28) 황선영, 「고려초기 役分田의 성립」, 『나말여초 정치제도사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93쪽.

29)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 叛附相半’

30) 『高麗史』 92, 列傳 5, 洪儒. ‘弓裔末年 與裴玄慶·申崇謙·卜智謙 同爲騎將’

31)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6월 乙卯. ‘先至宮門 鼓噪 以待者 亦萬餘人’

군인들의 출신도 다양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94년(진성여왕 8) 궁예는 양길의 병력 일부를 받아 복원을 출발하여 명주(하슬라, 강릉)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무리가 3,500인으로 증가하자 이들을 14대(隊)로 나누었다.³²⁾ 이 3,500명의 군인 속에는 양길에게서 받아온 초적의 무리도 있었고, 또 신라 북진(北鎭)의 군사들도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³³⁾ 궁예는 특히 북진의 군사들과 같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훈련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장군(將軍)’이라 칭하고, 신라 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

한편 궁예정권의 군인에는 패강진 출신 군사도 상당수 있었다.³⁴⁾ 패강진은 신라 선덕왕 3년(782) 예성강 이북지역에 설치되어 9세기 말 궁예의 세력권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백년 이상 존속한 군진(軍鎭)이다. 패강진 지역은 군진을 중심으로 하는 특수한 행정구역이면서, 또한 국경 수비 담당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이곳의 주민을 군사적 편제로 조직하여 강력한 군사적 지배·지휘체계가 성립되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이 지역에서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신흥의 토착 세력이 성장하였다. 9세기 후반기에 활약한 요오선사(了悟禪師) 순지(順之)의 가문은 이 지역 군관 출신이고³⁵⁾, 선종 9산 가운데 하나인 원주 사자산과의 제2조인 징효대사(澄曉大師) 절중(折中) 역시 이 지역 출신으로 그 아버지가 활쏘기와 말타기를 잘하여 중국과 신라에 이름을 떨쳤다고 한다.³⁶⁾ 이와 같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패강진 지역의 호족들은 새롭게 성장하는

32)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乾寧元年(진성왕 8년, 894)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33) 拙稿, 「신라 하대 軍制의 변화와 그 붕괴」, 『軍史』 80, 2011, 28쪽.

34) 고려초 패강진 및 溟西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金光洙, 「高麗建國期の 溟西豪族과 對女眞關係」, 『史叢』 21·22, 1977.

金福姬, 「高麗 初期 官階의 成立基盤 - 溟西豪族의 動向과 關聯하여 -」, 『釜大史學』 14, 1990.

李成制, 「高麗 太祖代 溟西人의 動向 - 北方政策과 後三國統一政策과의 關聯 속에서」,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35) 『祖堂集』 20, 瑞雲寺 和尚 順之. ‘俗姓朴氏 溟江人也 祖孝 家業雄豪 世爲邊將’

36) 한국역사연구회 편, 『譯註 羅末麗初金石文(上)』, 혜안, 1996, 150쪽. ‘大師 諱折中 字□□ 俗姓□□(漢州) 鵝嵩人也 其先因宦牟城 遂爲郡族 父曰先幢 藝高弓馬 名振華夷’

궁예에 주목하였다. “(궁예의) 군성(軍聲)이 심히 강성해지자 패서(溍西) 적구(賊寇)로서 내항하는 자가 매우 많았다.”³⁷⁾는 기록은 패강진 지역의 호족들이 궁예에 귀부한 사정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패강진 호족들이 귀부하자 궁예는 ‘개국칭군(開國稱君)’하게 되었다고 할 만큼 패강진 군사들은 궁예 군인의 주축이 되었다.

또 궁예정권 군인 중에는 청주(淸州) 인들도 있었다.³⁸⁾ 궁예는 905년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는데, 천도하기 1년 전에 ‘청주인 1,000호’를 철원으로 이주시켜 새로운 도읍의 건설을 준비했다고 한다.³⁹⁾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한 것은 패강진 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평가되는데, 궁예는 양길의 부하가 되기 이전부터 청주와 인연이 있어 청주인 1,000호를 이주시켜 새 도읍의 군사적 기반으로 삼았다고 한다.⁴⁰⁾ 이 이외에도 궁예정권의 군인에는 각처에서 귀부해온 호족의 군인들도 있었다. 또 궁예의 내군장군 은부(兪鈇)는 어려서 머리 깎이고 목에 칼을 찬 죄인 출신이고⁴¹⁾, 후에 고려 개국공신이 된 배현경은 항오(行伍)⁴²⁾, 즉 일반 병졸 출신이라고 하는 것처럼 궁예정권 군인에는 죄인과 병졸 출신도 있었다. 궁예정권 군인들은 이와 같이 초적 출신, 복진 출신, 패강진 출신, 청주인, 호족의 군인들, 죄인·병졸 출신 등 다양한 신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궁예정권 군인들이 태조대 6위 군인의 주축을 이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37)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軍聲甚盛 溍西賊寇 來降者衆多 善宗自以爲衆大 可以開國稱君 始設內外官職’

38) 궁예와 청주 세력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金甲童, 「高麗建國期の 淸州勢力과 王建」, 『韓國史研究』 48, 1985.

金周成, 「高麗初 淸州地方의 豪族」, 『韓國史研究』 61·62, 1988.

安永根, 「羅末麗初 淸州勢力의 動向」, 『朴永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上, 1992.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豪族」·「弓裔와 王建과 淸州豪族-高麗 建國期 淸州豪族의 정치적 성격-」,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도서출판 개신, 2002.

39) 『三國史記』 50, 列傳 10, 弓裔. ‘天祐 元年(효공왕 8년, 904) … 秋七月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40) 申虎澈, 「後三國 建國勢力과 淸州豪族」, 앞의 책, 325쪽.

41)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6월. ‘內軍將軍鈇 幼爲髡鉗’

42) 『高麗史』 92, 列傳 5, 裴玄慶. ‘膽力過人 起行伍 累進大匡’

둘째, 태조대 6위의 군인에는 고려 건국 이후 귀부한 호족의 군인들도 일부 있었다. 특히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고려에 온 대표적 호족 세력은 명주장군 왕순식, 벽진군장군 이충언, 염주(鹽州)출신 윤선(尹瑄), 경산부(京山府)장군 이능일(李能一) 등이다. 왕순식은 태조 10년(927) 아들 장명(長命)을 보내 군졸 600명을 이끌고 개경에 들어와서 숙위하게 하였다.⁴³⁾ ‘군졸 600명이 개경에 들어와서 숙위하였다.[入宿衛]’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중앙군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벽진군장군 이충언 역시 그 아들 이영(李永)으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태조의 원정에 종군하게 하였다.⁴⁴⁾ 염주인 윤선은 궁예의 전제정치에 반발하여 북변으로 도망가 무리 2,000여 명을 거느리고 있다가 태조가 즉위하자 귀부하였다.⁴⁵⁾ 경산부장군 이능일 등은 태조 8년(925) 600인을 거느리고 태조의 전쟁을 도왔다.⁴⁶⁾ 이외에도 청주 영군장군 견금(堅金, 태조 1년), 상주적수 아자개(阿字盖, 태조 1년), 강주장군 윤웅(閔雄, 태조 3년), 하지현장군 원봉(元奉, 태조 5년), 진보성주 홍술(洪術, 태조 6년), 명지성장군 성달(城達, 태조 6년), 벽진군장군 양문(良文, 태조 6년), 고을부장군 능문(能文, 태조 8년), 재암성장군 선필(善弼, 태조 13년) 등 수많은 호족들이 귀부·내투(來投)하였다.⁴⁷⁾ 이와 같이 고려에 귀부해 온 호족의 군인들은 대부분 지방군으로 편입되었겠으나 일부분은 중앙군으로도 선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태조대 6위 군인에는 발해와 후백제 군인도 다수 편입되었다. 발해가 거란에게 멸망된 것은 926년(태조 9년) 정월인데, 이 시기를 전후

43) 『高麗史節要』 1, 태조 10년 8월. ‘溟州將軍順式 遣子長命 以卒六百 入宿衛’

44)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李恩言. ‘遣其子永 率兵 從太祖征討’

45)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尹瑄.

46) 『慶尙道地理志』, 星州牧官. ‘京山府將軍 李能一 裴申義 裴崔彦 在高麗太祖統合三韓時 天授乙酉(925) 率六百入 佐太祖勝百濟 以其勞厚賞’

47) 태조대의 귀부호족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 참조.

申虎澈, 「歸附 豪族의 정치적 성격」, 『後三國時代 豪族研究』, 도서출판 개신, 2002.

구산우, 「高麗 太祖代의 귀부 호족에 대한 정책과 향촌사회」, 『지역과 역사』 11, 2002.

蔡守煥, 「王建의 高麗建國 過程에 있어서 豪族勢力」, 『白山學報』 82, 2008.

하여 많은 발해유민들이 고려로 망명하였다.⁴⁸⁾ 태조 8년(925) 9월 병신(丙申) 일에 발해장군 신덕(申德) 등 500인이 내투하고⁴⁹⁾, 그 4일 후인 경자(庚子) 일에는 예부경 대화균(大和鈞)을 비롯하여 좌우위장군 대심리(大審理) 등이 100호를 이끌고 내투하였으며⁵⁰⁾, 그해 12월에는 좌수위 소장(小將) 모두간(豆冏干) 등이 1,000호를 이끌고 내부(來附)하였다.⁵¹⁾ 또 『고려사』, 세가, 태조 17년(934) 7월조에는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하니, 그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내려주고 종적(宗籍)에 실게 하였다. 특별히 원보(元甫)라는 관등을 주고, 백주(白州)를 지키게 하였으며,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그를 따라온 관료들에게 벼슬을 내리고, 군사들에게는 토지와 집을 주었는데 차등이 있었다.⁵²⁾

라 하여 발해국 세자 대광현이 수만의 무리를 이끌고 내투한 기사가 나온다.⁵³⁾ 발해유민의 고려 내투는 태조 8년(925)부터 예종 12년(1117)까지 무려 200년 동안 계속되었는데, 가장 많이 내투한 시기는 태조대이다. 이때에 내투한 발해유민의 수는 31,873인으로 전체 42,677인의 75%에 달하고 있다.⁵⁴⁾ 그리고 발해인의 대표자 명단을 분석해보면, 군관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다.⁵⁵⁾ 고려 정부에서는 내투한 발해

48) 발해 유민에 대해서는 다음 논저 참조.

李鍾明, 「高麗에 來投한 渤海人考」, 『白山學報』 4, 1968.

金昌謙, 「後三國 統一期 太祖 王建의 溘西豪族과 渤海遺民에 對한 政策研究」, 『史林』 4, 1987. 韓圭哲, 「渤海流民의 高麗投化-後渤海史를 중심으로」, 『釜山史學』 33, 1997.

이재범, 「고려 태조대의 대외정책-발해유민 포섭과 관련하여-」, 『白山學報』 67, 2003. 이효형,

『발해 유민사 연구』, 혜안, 2007.

49) 『高麗史』1, 世家 1, 太祖 8년 9월.

50) 위와 같음.

51) 『高麗史』1, 世家 1, 太祖 8년 12월 戊子.

52) 『高麗史』2, 世家 2, 太祖 17년 7월.

53) 위 인용문은 『고려사절요』에는 태조 8년(925) 12월로 기재되어 있어, 대광현이 실제 내투한 시기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임상선, 『발해의 지배세력 연구』, 신서원, 1999, 123~128쪽. 참조.

54) 이효형, 앞의 책, 228쪽. '〈표 9〉 고려시대 내투인 비교' 참조.

55) 李鍾明, 앞의 논문, 202~204쪽.

군사들에게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와 집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들을 고려의 무관으로 편입하였다는 의미이다. 일반 병졸은 의무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고려의 무관이 된 발해출신 군사들은 이후 많은 활약을 하였다. 대광현의 아들로 전하는 대도수(大道秀)는 성종 12년(993) 거란의 1차 침입 때 중랑장으로서 안용진에서 거란군을 물리치고, 현종 1년(1010) 2차 침입 때는 장군으로 승진하여 서경에서 거란군에 맞서 싸웠다. 또 발해인 대장군 대회덕(大懷德)은 거란의 2차 침입 때 광주에서 전사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태조대에 중앙군으로 편입된 발해 군인들은 자손대대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한편 6위의 군인에는 후백제 군인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태조 10년(927) 8월 고사갈이성주 흥달(興達)⁵⁷⁾, 태조 15년(932) 6월 후백제 장군 공직(龔直)⁵⁸⁾, 태조 19년(936) 2월 견훤의 사위 박영규⁵⁹⁾ 등이 고려에 투항하였다. 흥달이 귀순하자 ‘백제가 배치한 군인과 관리들이 모두 다 항복 귀순하였다.’⁶⁰⁾라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투항해올 때 군인들도 함께 따라왔음을 알 수 있다. 또 태조 17년(934) 운주(運州) 전투에서 후백제의 용장(勇將) 상달·최필 등이 생포되자 웅진 이복 30여 성이 항복하였다고 한다.⁶¹⁾ 이와 같이 생포하고 항복한 후백제 군인 중 일부는 고려 중앙군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외에 모집에 의해서도 중앙군 충원이 이루어졌다. 『동국여지승람』, 선산도호부, 인물조에는 김선궁(金宣弓)에 대하여 “태조가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송선(嵩善)에 이르렀을 때 군인을 모집하였는데 선궁(宣弓)은 향리로서 응모하였다. 태조가 기뻐하여 자신의

56) 이효형, 앞의 책, 258~259쪽. 참조.

57) 『高麗史』 1, 世家 1, 太祖 10年 8월 丙戌. ‘王狗康州 高思葛伊城城主興達 歸款 於是百濟諸城守皆降附’

58)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5年 6월 丙寅. ‘百濟將軍龔直 來降’

59)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9年 2월. ‘甄萱婿 將軍朴英規 請內附’

60) 『高麗史』 92, 列傳 5, 王順式 附 興達. ‘於是百濟所置軍吏皆降附’

61)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 勇將 尙達·崔弼 熊津以北三十餘城 聞風自降’

활을 하사하니, 이로 인해 이름이 되었다.”⁶²⁾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조대에는 모집에 의하여 군인을 충원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 중앙군은 무관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태조대 무관들은 궁예정권 출신 군인들이 주축을 이루었고 이외에도 귀부 호족의 군인, 발해와 후백제의 군인, 모집에 의해 충원된 군인 등 출신이 다양하였다. 후삼국시기에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이 시기 동안 희생된 사람은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등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3만 5천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을 것이라고 한다.⁶³⁾ 희생자 중에는 군인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도 무관은 선봉에 서서 전쟁을 이끌었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았다. 이에 따라 무관의 충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했다. 또 고려는 정복한 지역에 무관을 파견하여 지방군을 통솔·관리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복한 지역이 넓어질수록 무관의 충원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후삼국 통일 전쟁이 끝날 때까지 무관의 충원은 계속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태조대 군제의 운영

태조대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뉘었다. 평시체제는 6위제와 지방군제로 운영되었고, 전시체제는 3군(軍) 형태로 운영되었다. 즉 평시체제는 6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각 지역의 지방군이 각각 구분되어 운영하는 체제이고, 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3군 형태의 행군조직이었다.

62) 『新增東國輿地勝覽』 29, 善山都護府, 人物條.

63) 文暲鉉·李仁哲, 「後三國期の 社會經濟的 變動과 田柴科體制的 成立」, 『史學研究』 60, 2000, p.67.

중앙군은 평상시 국왕의 시위와 개경의 방어 등을 담당하고 각종 군사 훈련에 임하였으며, 또 전국 각지로 출동하여 전투를 치르는 군대로서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조대에는 무관중심으로 운영되었다. 한편 지방군은 지방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대였다. 다음은 태조대 지방군에 관한 사료이다.

(가) 태조 7년(924) 7월 견훤이 아들 수미강·양검 등을 보내어 조물군을 공격하였으므로, 왕이 장군 애선·왕충 등에게 명령하여 구원하게 하였다. 애선은 전사하였으나 군인(郡人: 『삼국사기』, 견훤전에는 城人 으로 표기됨.)들이 굳게 지키니 수미강 등이 손해를 입고 돌아갔다.⁶⁴⁾

(나) 태조 11년(928) 11월 견훤이 날랜 군사를 뽑아서 오어곡성을 함락시키고 수졸(守卒) 일천 명을 죽이니 장군 양지와 명식 등 6인이 항복하였다.⁶⁵⁾

(가) 사료의 군인(郡人)·성인(城人), (나) 사료의 수졸(守卒)은 모두 지방군을 가리킨다. 이들은 위 사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앙에서 파견된 무관의 지휘 하에 성을 수비하였다.

전시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체제로서 태조대에는 주로 3군 체제로 운영되었다. 소규모 전투에는 평시체제로서 6위의 무관들이 출동하였지만, 전투가 대규모로 치뤄질 때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재편성된 3군 체제를 갖추어 출동하였다. 태조대 후반기에는 후백제와의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로서, 군대는 주로 평시체제가 아니라 전시체제로 운영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전시체제인 3군 조직이 자주 보인다. 위 (가) 사료는 1차 조물성 전투에 관한 내용으로서, 이듬해인 태조 8년

64) 『高麗史』1, 世家 1, 태조 7년 7월. ‘甄萱遣子須彌康·良劍等 來攻曹物郡 命將軍哀宣·王忠 救之 哀宣戰死 郡人固守 須彌康等 失利而歸’

65) 『高麗史』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甄萱選勁卒 攻拔烏於谷城 殺戍卒一千 將軍楊志·明式等六人 出降’

(925)에 2차 조물성 전투가 전개되었다.⁶⁶⁾ 이 전투에서

조물군 전투에서 태조는 군대를 3군으로 나누어, 대상(大相) 제공에게 상군(上軍)을 맡기고, 원윤(元尹) 왕충에게 중군(中軍)을 맡기고, 박수경·은녕에게 하군(下軍)을 맡겼는데, 전투에서 박수경 등만이 홀로 이겼다.⁶⁷⁾

라고 하는 바와 같이 태조는 군대를 상군·중군·하군, 즉 3군으로 편성하여 전투에 나섰다. 한편 3군은 좌군·중군·우군으로 편제되기도 하였다. 태조 17년(934)의 운주(運州) 전투에서 유금필이 맡은 직책이 우장군(右將軍)이었다.⁶⁸⁾ 이를 통해 3군은 좌군·중군·우군으로 편성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태조대 군대는 주로 전시체제인 3군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 당시 무관을 ‘삼군장리(三軍將吏)’⁶⁹⁾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3군 체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한 체제로서, 무관중심인 중앙군은 3군의 지휘부로 재편성되었고, 농민군으로 이루어진 지방군은 그 아래 사병 집단으로 재조직되었다. 이러한 3군 체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후백제와의 최후 결전인 일리천(一利川) 전투이다. 『고려사』, 세가, 태조 19년(936) 9월조에는 일리천 전투에 참가한 고려군의 병력과 편제를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표 2>는 이것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⁷⁰⁾

66) 1·2차 조물성 전투에 대해서는 류영철, 『高麗의 後三國 統一過程 研究』, 景仁文化社, 2005; 정선용, 「高麗太祖의 對新羅同盟 체결과 그 운영」, 『韓國古代史探究』 3, 2009. 참조.

67) 『高麗史』 92, 列傳 5, 朴守卿. ‘曹物郡之戰 太祖部分三軍 以大相帝弓爲上軍 元尹王忠爲中軍 守卿·殷寧爲下軍 及戰 上軍·中軍失利 守卿等 獨戰勝’

68)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十七年 太祖自將征運州 黔弼爲右將軍’

69)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6년 3월.

70) 신성재, 「일리천전투와 고려 태조 왕건의 전략전술」, 『한국고대사연구』 61, 2011, p.344. <표 1> 轉載.

〈표 2〉 일리천 전투 시 고려군의 전시체제 편제

군 편성	병종	병력	지 휘 관(관품)	비 고	
3군	좌강	마군	1만	견훤, 견권·박술희·황보금산(대상), 강유영(원윤)	지천군대장군
		보군	1만	능달·기연·한순명·혼악(원윤), 영직·광세(정조)	
	우강	마군	1만	김철·홍유·박수경(대상), 연주(원보), 횡량(원윤)	
		보군	1만	삼순·준량(원윤), 영유·길강충·혼계(정조)	보천군대장군
	중군	마군	2만	왕순식(병주 대광), 금준·왕림·왕예(대상), 인일(원보)	
		경기병	9,500	유금필(대상), 관무·관현(원윤)	제병경기
		보병	1,000	정순(원윤), 애진(정조)	우천군대장군
			1,000	종희(원윤), 견훤(정조)	천무군대장군
1,000	김극중, 조간(원보)		간천군대장군		
원병	기병	300	공현(대상), 능필(원윤), 왕함운(장군)	제성군	
	-	14,700			
계		87,500	지휘관(38), 마군(40,000), 보군(23,000), 경기병(9,500), 원병(15,000)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려군은 좌강, 우강, 중군 그리고 원병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원병 15,000명은 ‘위삼군원병(爲三軍援兵)’⁷¹⁾이라고 하듯이 3군을 위한 후원 부대이고, 고려군은 어디까지나 좌강, 우강, 중군으로 이루어진 3군이 중심이었다. 그래서 『고려사』, 태조 19년 9월 일리천 전투 기록의 맨 앞에는 ‘왕솔삼군(王率三軍)’이라 하여 태조왕건이 3군을 이끌고 전투에 나아갔다고 명시하였다.

일리천 전투 시의 3군에 대하여 이기백 교수는 태조대 중앙군의 편성을 나타내는 자료라고 하면서, 좌강과 우강이 후에 6위를 형성하고, 중군 보병 3,000명이 후에 2군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⁷²⁾ 2군 6위의 기원을 일리천 전투 시의 3군에서 찾은 것이다. 정경현 교수 역시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이끌고 내려온 부대, 즉 중앙군이라고 파악하고, 마군

71) 『高麗史』 2, 世家 2, 太祖 19年 9월. ‘王率三軍 … 以大將軍大相公萱·元尹能弼·將軍王含允等 領騎兵三百 諸城軍一萬四千七百 爲三軍援兵’

72) 李基白, 「高麗 京軍考」, 앞의 책, 50~51쪽.

40,000, 보군 23,000, 합계 6,3000명에 이르는 중앙군의 병력수는 당시 상황으로 볼 때 도저히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실제로는 1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하였다.⁷³⁾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군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전시체제이다. 또 3군의 수가 87,500명에 이르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다.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한 수이기 때문이다. 일리천 전투가 일어난 지 12년 후인 정종 2년(947) 거란의 침입을 우려하여 30만에 이르는 광군을 조직한 것으로 보아⁷⁴⁾, 중앙군과 지방군을 합하여 87,500명을 동원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고려의 군제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분리한 평시체제와 중앙군과 지방군을 통합한 전시체제로 운영되었다. 태조대의 전시체제를 대표하는 것이 3군이지만, 이 이외의 전시체제 군사조직으로서 개정군(開定軍)을 들 수 있다. 태조 3년(920) 3월에 북계(北界) 골암성이 자주 북적(北狄)의 침략을 받아, 태조는 유급필에게 명하여 개정군 3,000명을 거느리고 골암에 이르러 동산(東山)에 대성(大城)을 쌓게 하였다.⁷⁵⁾ 또 태조 11년(928) 2월에는 안북부에 성을 쌓고, 원운 박권을 진두(鎭頭)로 삼아 개정군 700명을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⁷⁶⁾ 개정군은 북방 지역에 성을 쌓고 이를 수비하는 군사로서, 중앙에서 파견되었지만 중앙군은 아니었다. 최정예군사로 이루어진 중앙군을 북방지역에 파견하여 성을 쌓고 장기간 수비하게 할 수는 없었다. 개정군은 소수의 중앙군 소속 무관들이 지방 농민군을 지휘·통솔하면서 북방 수비를 담당할 전시체제 군사조직으로 추측된다.

한편 고려 초에 전시체제의 지휘관은 특정 인물로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73) 鄭景鉉, 「高麗 太祖의 一利川 戰役」, 『韓國史研究』 68, 1990.

74) 『高麗史』 81, 兵 1, 兵制, 定宗 2년. '以契丹將侵 選軍三十萬 號光軍 置光軍司'

75) 『高麗史』 82, 兵 2, 鎭戍, 太祖 3년 3月. '以北界鵝巖城 數爲北狄所侵 命庾黔弼率開定軍三千至鵝巖 於東山 築一大城以居 由是北方晏然'

76) 『高麗史』 82, 兵 2, 鎭戍, 太祖 11년 2월. '遣大相廉卿·能康等 城安北府 以元尹朴權爲鎭頭 領開定軍七百人 戍之'

평시체제 하에서는 6위와 지방군의 지휘관이 특정 인물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전시체제 하에서는 부대를 편성할 때마다 새로이 지휘관을 정했던 것이다. 이것은 태조 3년 3월 골암성에 파견할 개정군 지휘관으로 유금필을 임명할 때의 상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태조는 북계 골암진(鵠岩鎭)이 여러 차례 북적(北狄)의 침략을 당하므로 여러 장군을 모아 놓고 의논하기를 “지금 남쪽의 흉적들을 멸하지 못했는데, 북적들도 우려되므로 자나 깨나 걱정이다. 유금필을 파견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하니 모두들 좋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유금필에게 명하니 유금필은 그날로 개정군 3,000명을 인솔하고 출발하였다.⁷⁷⁾

위에서 태조는 장군들이 모인 회의에서 유금필의 적격 여부를 물어보고, 모두들 좋다고 대답하므로 유금필을 개정군 지휘관으로 임명하였다. 국왕 태조는 최고통수권자로서 장수 임명권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군들과 작전 회의를 통해 장수를 임명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임명된 전시체제의 지휘관들이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지휘했던 군대는 평시체제의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환원되고 군사 지휘권도 환수되었다. <표 2>에 제시된 일리천 전투 시의 지휘관들도 대체로 전시체제를 편제할 때 새로이 편성된 지휘관으로서, 전투가 끝나면 모두 다시 평시체제로 환원되었을 것이다.

전시체제 하에서 군대 지휘관을 매번 새로이 정하는 것은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되어 군사편제가 확대된 이유도 있었지만, 지휘관과 군인이 서로 결탁하여 반란을 꾀하거나 적에게 귀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3군 형태의 전시 체제는 신라 하대에 도입된 것이다. 신라는 중대에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급당 등의 전시 체제를 마련하였다.⁷⁸⁾ 이것은 7세기 후반 문무왕·신문왕 때 대대적으로

77) 『高麗史』 92, 列傳 5, 庚黔弼.

78) 신라의 전시체제에 대해서는 拙稿, 「新羅 中代 軍制의 구조」, 『韓國史研究』 126호, 2004. 참조.

전개된 군제개편 결과 성립된 전시체제였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지휘관과 군인들이 전시체제의 군사조직에 고정적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즉 9세기 초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주 고선사 서당화상비에는 비문을 새긴 인물이 ‘음리화삼천당주 급찬 고금□’로 기록되어 있다.⁷⁹⁾ 음리화정은 10정의 하나이고, 그 아래 군관으로 삼천당주 6명이 배정되어 있었다. 급찬 고금□는 음리화정의 삼천당주 6명 중 1명으로서 평시인데도 전시체제의 군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신라 중대에 성립한 6정·9서당·10정·5주서·3무당·계급당 등의 전시체제 군사조직에는 군인들이 고정적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라 하대에 도입된 3군 형태의 전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경문왕 12년(872) 황룡사를 중창하면서 조성한 「황룡사 9층목탑 사리함기」에는 그것을 지은 박거물(朴居勿)의 이름 앞에 ‘시독(侍讀) 우군대감(右軍大監) 겸성공(兼省公)’이라는 관직이 열거되어 있다.⁸⁰⁾ 즉 사리함기를 지은 박거물은 시독·우군대감·성공 등의 관직을 겸직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군은 좌군, 중군, 우군으로 이루어진 3군 가운데 하나로 우군대감은 3군의 군관직이다. 박거물도 평상시에 전시체제 군관직을 보유한 것이다. 즉 신라시기에 무관들은 평상시에 전시체제의 군관직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태조 왕건은 후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군인들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체제 군사조직의 지휘관을 특정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번 새롭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려는 군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새롭게 정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였다. 중앙군 무관들로 하여금 가족을 거느리고 개경에서 거주하게 한 것도 그중 하나이다. 12세기에 세워진 「김지우(金之祐) 묘지명」에는 그의 조상인 삼한공신 김인윤(金仁允)이 후삼국 통일에서 공을 세우고 “태조를 따라 서울 집(京家)으로 들어

79)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제3권, 1997, 5쪽. 高仙寺 誓幢和上碑. ‘音里火 三千幢主 繼 高金□ 鐫’

80)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앞의 책, 366쪽. 皇龍寺 九層木塔 舍利函記, ‘侍讀 右軍大監 兼省公 臣 朴居勿 奉教撰’

갔다.”라고 쓰여 있다.⁸¹⁾ 무반들은 태조 때부터 경가(京家)에서 생활한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태조 11년(927) 오어곡성이 함락되자, 태조는 항복한 군인들의 가족을 제군(諸軍) 앞에서 기시(棄市)하였다.⁸²⁾ 이것은 군인들로 하여금 다시는 적에게 항복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항복한 군인 6인의 처자를 즉시 처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모두 개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앙군 무관들은 개경의 경가에 거주하였기에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동할 수 있었지만, 그 가족들은 가장인 무관이 반역이나 항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질의 성격도 띠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중앙군 무관의 가족들이 개경에 집단 거주하는 것은 개경이 적에게 함락될 경우 심각한 작전상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실제 현종 2년(1011) 정월, 거란의 2차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자 왕을 호위하던 장사(將士)들이 모두 가족을 찾으러 사방으로 흩어져 국왕은 도적의 침입을 걱정할 정도였다.⁸³⁾ 이와 같이 무관의 가족들은 인질의 성격도 띠면서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태조는 개경에 있는 중앙군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경의 군사력을 육성하였다. 태조는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평양을 대도호부(大都護府)로 삼고, 사촌동생인 왕식렴과 광평시랑 열평을 보내어 지키게 하였다.⁸⁴⁾ 그리고 인근의 황주·봉주·해주·백주·염주 등지의 민가를 평양에 옮겨 살도록 하였다. 그 후 평양을 서경(西京)으로 승격시키고 개경과 비슷한 관부와 관리를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가 평양을 중시한 이유에 대해 주로 고구려 계승 정책과 북진 정책의 기지로 만들고자 한 것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일찍이 “왕실이 개경 세력에 의하여 큰 위협을 당할

81) 金龍善 編, 『高麗墓誌銘集成』, 「64, 金之祐墓誌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126쪽, ‘初功臣仁允 仕太祖統合三國有功 隨太祖入京家焉 金氏之族 世世衣冠顯達’

82) 『高麗史』 1, 世家 1, 태조 11년 11월.

83) 『高麗史節要』 3, 현종 2년 정월 戊寅. ‘王發廣州 次鼻腦驛 蔡文奏扈從將士 皆托尋妻子 四散 昏夜恐有姦賊竊發 請爲幟分插將士冠以辨 從之’

84) 『高麗史』 1, 世家 1, 太祖 원년 9월 丙申.

때, 위태로운 왕실의 권력을 회복하고 개경 세력을 억누른 것은 서경 세력의 동원으로 가능하였다.”⁸⁵⁾라는 지적처럼 태조는 개경 중앙군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서경 군사력을 육성한 측면도 있었다. 태조 원년 9월 평양에 파견되어 서경의 군사력을 정비한 왕식렴은 “오랫동안 평양에 진주하면서 항상 사직을 보위하고, 영토를 넓히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았다.”⁸⁶⁾라 하듯이, ‘영토를 넓히는 것[拓封疆]’에 앞서 ‘사직을 보위하고[衛社稷]’ 있다고 자임하였다. 실제 왕식렴의 서경 군사력은 혜종 사후 이른바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정종이 즉위하는 데 무력적 뒷받침이 되었다. 이후 서경 군사력은 강조의 정변과 현종의 즉위, 현종 6년(1015) 김훈·최질의 난 진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고려 전기 동안 서경의 군사력은 개경의 중앙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던 것이다.

한편 태조는 군인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즉위 초부터 학사(學士)들을 국정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고⁸⁷⁾, 또 최측근인 유금필에 대한 참소가 들어오자 그를 즉시 섬으로 유배시키기도 하였다.⁸⁸⁾ 유금필은 태조의 제9비 동양원부인(東陽院夫人)의 아버지이고, 태조 8년에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이 되었으며, 태조 17년에는 운주 전투에서 대공을 세워 후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하고, 태조 24년에 죽자 삼중대광(三重大匡)으로 추증되어 태조 묘정에 배향된 태조 6대 공신의 한사람이다. 그러한 유금필에 대해 참소가 들어오자 즉시 귀양보낸 것을 통해 군인 세력을 통제하겠다는 태조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군사정변을 통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왕건은 군인들에 대한 통제에 무엇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태조의 군사정책은 후대로 이어져 고려전기 동안 유학을 숭상하고 무인을 억제하는 숭문억무(崇文抑武) 정책으로 계속 추진되었다. 고려 전기의 정치적 안정은 태조의 군사정책에 힘입은 바 많았던 것이다.

85) 河炫綱, 「高麗 西京考」, 『歷史學報』 35·36, 1967, 149쪽.

86) 『高麗史』 92, 列傳 5, 王式廉. ‘式廉 久鎮平壤 常以衛社稷 拓封疆 爲己任’

87) 『高麗史』 127, 列傳 40, 叛逆 1, 桓宣吉. ‘一日 太祖坐殿 與學士數人 商略國政’

88) 『高麗史節要』 1, 태조 14년 3월. ‘庾黔弼 被讒 竄鵠島’

5. 맺음말

지금까지 태조 2년 6위 설치, 태조대 6위의 구성과 군제의 운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는 총 4군데에서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된다. 종래 연구자들은 이것을 잘못된 사료라고 부정하였다. 그 이유로는 첫째, 『고려사』 편찬자의 착오이고, 둘째, 태조대는 왕조 창업기라서 6위제를 수용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셋째, 태조대에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고,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는 태조 2년에 3성 6부 9시가 설치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성종대에 설치되었으므로 6위도 성종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는 등이 거론되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첫째, 『고려사』는 여러 사람이 편찬한 것으로 모두 함께 착오를 일으킬 리 없고, 둘째, 군대를 6위로 나누는 것과 같은 군사편제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군인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취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며, 셋째, 6위의 무반 관직을 지닌 인물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고려초기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며, 넷째, 『고려사』, 세가에서만 3성 6부 9시에 관한 기록이 실려 있고 나머지 자료, 즉 『고려사』, 백관지·병지와 『고려사절요』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없으므로, 세가의 3성 6부 9시에 관한 기록만 잘못된 것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통해 태조 2년 6위 설치의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추측된다. 그런데 태조 2년에 설치된 6위는 아직 2군 6위와 같은 형태를 취하지는 못하였고, 이후 수많은 군제 개편 과정을 거쳐 2군 6위제로 완성되었다.

태조대의 중앙군인 6위는 무관과 농민군으로 구성되었다. 그런데 태조대는 중앙집권적인 군사동원체제와 지방제도가 미숙하여 지방 농민에 대한 군역 징발과 동원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태조대 6위는 무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마군(馬軍)으로 활약하였다. 6위 군인들의 출신 성분을 살펴보면, 첫째, 이들은 궁예 정권의 군인

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태조 왕건이 궁예 정권 군인이었고, 또 개국공신들도 모두 궁예 정권 군인이었다. 그런데 궁예 정권 군인의 출신도 다양하였다. 초적 출신도 있었고, 복진·패강진 출신도 있었으며, 청주 출신도 있었다. 둘째, 태조대 6위 군인에는 고려 건국이후 귀부한 호족의 군인도 일부 있었다. 셋째, 6위 군인에는 발해와 후백제 군인도 다수 편입되었으며, 이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관이 충원되었다. 후삼국 시기에는 전쟁으로 많은 군인이 희생되었는데, 특히 무관의 희생이 컸다. 이에 따라 무관의 충원은 계속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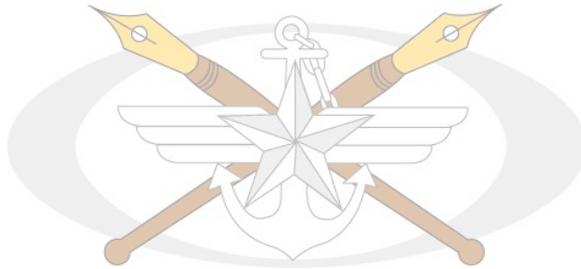
태조대 군제는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누었다. 평시체제는 6위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각 지역의 지방군이 각각 구분되어 운영하는 체제이고, 전시체제는 이러한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하여 재편성된 3군 형태의 행군조직이었다. 태조대 3군 체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 일리천 전투의 고려군 편제이다. 일리천 전투의 3군에 대하여 종래에는 주로 중앙군이라고 보았지만, 3군은 중앙군이 아니라 중앙군과 지방군이 결합한 전시체제이다. 한편 태조대에는 군인의 반란을 막기 위해 전시체제의 지휘관을 특정 인물로 고정시키지 않고 매번 새로이 뽑았다. 신라 중대와 하대에 전시체제의 지휘관이 특정 인물로 고정되어 있었던 것에 반해, 태조대에는 전시체제를 편성할 때마다 지휘관을 바꾼 것이다. 또 태조대에는 군인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군 무관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개경에서 살도록 하였다. 무관들은 개경에 거주하면서 정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출동하였지만, 그 가족들은 가장인 무관이 반역이나 항복하는 것을 방지하는 인질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 태조는 개경에 있는 중앙군의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서경의 군사력을 육성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전기동안 서경의 군사력은 개경에 있는 중앙군을 견제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태조대에는 6위를 설치하고, 이를 무관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군제를 평시체제와 전시체제로 나누고 무관에 대한 통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태조대의 군제 운영은 고려국가의 기틀을 확립

하고, 고려전기의 정치적 안정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역사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6위, 무관, 농민군, 중앙군, 지방군. 평시체제, 전시체제



<ABSTR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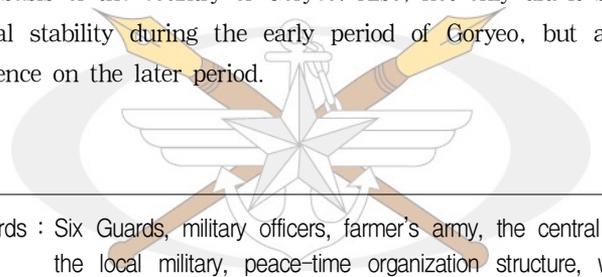
Establishment of Six Guards and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of the Goryeo Period

Kim, Jong-soo

For organiz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six guards were established in the second year of King Taejo during the Goryeo Period (919). The six guards were comprised of military officers and farmers. The centralized military mobilization system and the local-area system were not satisfactorily operated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Accordingly,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six guards were operated mainly by military officers, and they were mostly cavalry soldiers. The origin of the soldiers composing the six guards were diverse. First, the soldiers of the Gungye(弓裔) regime mostly comprised the six guards. Second, some of the soldiers among the six guards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were from wealthy and powerful clans who voluntarily accepted the new regime after the foundation of Goryeo. Third, many soldiers from Balhae and the later Baekje came to be included in the six guards. Furthermore, military officers were recruited in various other ways. During the later three kingdoms period, many soldiers died in the war, and, particularly, large numbers of military officers were lost. Subsequently, the recruitment of military officers continued.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was divided into two: a peace-time structure and a war-time structure. The peace-time system was operated separately by the central military and was composed of six guards and local military of each region. Meanwhile the war-time operation

was a marching organization in the form of three guards that were restructured by a combination of the central military and the local military. Meanwhile,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in order to prevent any military rebellion, no specific person was designated as the commander of the war-time operation and a commander was designated each time a military operation is needed. Also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in order to prevent the military coups, military officers of the central military were made to reside in Gaegyeong(開京), the capital city, with their families. In addition, King Taejo strengthened the military force of Seogyong(西京), the western capital, to prevent a rebellion by the central military.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King Taejo period established firmly the basis of the country of Goryeo. Also, not only did it bring about the political stability during the early period of Goryeo, but also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later period.



Key Words : Six Guards, military officers, farmer's army, the central military, the local military, peace-time organization structure, war-time organization structure

해방 직후 대한민국 國軍의 창군과 그 역사성*

이 강 수**

1. 머리말
2. 해방 직후 국내외 민족세력의 창군활동
3.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과 국방경비대 창설
4. 미군정 군사단체 참여세력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5. 맺음말

1. 머리말

해방직후 우리민족의 제일과제는 자주적인 민족국가건설이었다. 이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영역별로 신국가건설운동이 전개되었고, 군사분야에서도 ‘창군(創軍)’운동이 전개되었다. 해방전후 국내외 주요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자주적인 신국가의 국군 창설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 본 논문은 (사)의병정신선양중앙회 주관(국방부, 국가보훈처 후원), 2013년 의병학술회의(『한말 항일 무장투쟁과 대한민국 국군』)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

전개한 것이다. 중국에서는 해방직전부터 중경임시정부를 필두로, 광복군과 조선의용군 등 해외무장투쟁세력이 신국가의 창군운동을 전개하였다.¹⁾ 국내에서도 조선국군준비대, 학병동맹, 광복군국내지대 등 다양한 군사단체들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 ‘자주적인 신국가의 국군’ 건설운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직후 대한민국 창군과 관련한 연구는 육군본부·한용원·노영기 등이 국방경비대 또는 대한민국 국군 건설 전반을 다루었고, 이강수·임종명 등이 해방직후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조직된 사설 군사단체를 다룬 연구성과가 있지만²⁾, 다른 분야에 비해 연구실적이 일천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 창건의 역사적 연원을 염두에 둔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이 분야 연구의 특성상 이데올로기적 영향도 있지만, 일제시기 항일 무장투쟁세력들이 해방 이후 한반도 정세에서 어떤 활동을 전개했는지 그리고 해방직후 국내 각 군사단체는 어떤 과정으로 창군운동을 전개했는지, 해방전후 각 군사단체에서 활동했던 주요 세력들의 행적과 사상, 지향 등의 구체적 연구가 빈약하다는 사실에 연유한다. 이는 다른 면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일차자료가 거의 전무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사실, 이러한 연구의 핵심 주제 중 하나는 국군의 역사적 연원과 민족사적 정통성 문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를 국방경비대로 보고 있지만, 국방경비대는 광복군 등 국내 군사단체를 부정하고 일본군과 만주군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조동걸은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는 항일

-
- 1)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에 대한 전반적 내용은 한시준, 『한국광복군연구』, 일조각, 1993; 염인호, 『조선의용군의 독립운동』(나남, 2001) 참고.
 - 2) 육군본부, 『창군전사』, 1980; 김영만, 「미군정기 조선경비대 창설과정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5, 이강수, 「해방직후 국군준비대의 결성과 그 성격」, 『군사』 제32호, 1996; 임종명, 「조선국군준비대와 건군운동」, 『한국학보』 제2호, 고려사학회, 1997; 안진, 「조선국방경비대의 창설과 성격」, 『미군정과 한국의 민주주의』, 한울, 2005; 한용원, 『남북한의 창군』, 오름, 2008;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9. 등

독립운동사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고³⁾, 조항래 등은 한말 의병에 이어 만주의 독립군과 광복군의 맥락이 국군에 연결되었다고 주장하였다.⁴⁾ 그리고 한시준은 “대한민국이 창설된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국군은 그 뿌리와 정신적 연원을 찾는데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국군의 뿌리와 역사를 찾는 작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⁵⁾ 이들 연구들은 대한민국 국군의 원류에 대한 성찰과 그것이 갖는 민족사적 역사성 등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번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대한민국 국군의 건설 과정과 그 역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국방경비대와 해방직후 ‘사설’ 군사단체의 인적·물적 연관성 등을 주목할 예정이다. 또한 해방이후 남한정국은 통일운동과 단독정부 수립운동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뿐만 아니라 제헌국회에 참여하여 개혁하자는 ‘참여적 개혁세력’ 등 다양한 활동이 존재하다는 점을 주목하여⁶⁾, 해방직후 군사단체들이 정치세력과는 차별화된 다양한 노선을 설정하고 창군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리고 이들의 창군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과 민족사적 뿌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발전시켜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자 한다.

2. 해방 직후 국내외 민족세력의 창군활동

1) 해외 무장투쟁세력의 활동

일제말기 대표적인 해외 무장투쟁세력은 중경 임시정부의 광복군과 연안

3) 조동걸, 「한국군사의 原流意識」, 삼균학회, 『민족독립운동사와 국군의 맥락』, 1989.

4) 조항래, 「항일독립운동의 맥락에서 본 한국군의 정통성」,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 지식산업사, 1992.

5) 한시준, 「한국광복군 정통성의 국군 계승문제」, 『군사』 제43호, 28쪽.

6) 이강수, 「참여적 개혁세력의 대두」, 『반민특위연구』, 나남, 2003, 89~102쪽.

조선독립동맹의 조선의용군 등이었다. 광복군은 1940년 9월 임시정부 주석 김구 명의로 “임시정부는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9월 17일 광복군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한국광복군선언」을 발표하면서 발족되었다.⁷⁾ 1942년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하면서 광복군 세력은 강화되었으며,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OSS와(전쟁성 전략첩보군) 합작하여 국내진공작전을 준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 되자 광복군은 신정부 국군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했다.⁸⁾ 1945년 8월 28일 한국독립당은 제5차 임시전당대회를 통해, “적국내 한국사병은 국방군으로 개편한다.”고 선언하고⁹⁾, “국방군을 편성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을 실시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9월 3일 김구는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국내외에 동포에게 밝힌 입장 당면정책 13항에서, 일본군에 의해 학병, 징병으로 강제로 끌려갔던 ‘한적사병(韓籍士兵)’을 광복군으로 편입할 것을 천명했다.¹⁰⁾ 일본 점령지역에서 군사특파원을 파견하는 동시에 1945년 10월 중순부터 중국관 내에 있던 청년동포와 일본내 한적사병을 접수하여 ‘잠편지대(暫編支隊)’를 주요도시에 설치하였다. 잠편지대는 한구, 남경, 항주, 상해, 북평, 광둥와 국내 등 7개 지역에 설치되었다.¹¹⁾

또한 ‘확군활동(擴軍運動)’을 통해 중국 각지에 있는 한인청년들을 광복군으로 흡수 편입하여 광복군의 조직과 세력을 확대하고 국내에 들어가기 이를 기반으로 국군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광복군은 이러한 노력으로 해방 직전 800명이던 병력규모를 해방 후 2만여 명으로 증강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임시정부는 환국에 앞서 미군정에 4개조의 요구사항을 제출하였다.¹²⁾

7) 韓國臨時政府宣傳委員會, 『韓國獨立運動文類』, 건국대출판부, 1976, 87쪽.

8) 한시준, 앞의 논문, 9쪽.

9) 「한국독립당제5차임시대표자선언」, 『백범김구전집』 6, 1999, 244~245쪽.

10) 추현수, 『자료한국독립운동』 1, 연세대학교, 1979, 369쪽.

11) 조동길, 「중국 관내지방에서 전개된 한국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의 지역적 특성』, 독립기념관 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주최 제7차 독립운동사 학술심포지엄, 1993, 64쪽.

12) 「임시정부 환국에 앞서 미군정에 4개조 요구」, 『신조선보』, 1945.11.21; 한시준, 앞의 논문, 10쪽.

1.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귀국 후 内地에 MP의 보호를 받지 않겠다.
2. 조선의 치안유지는 우리들의 손으로 하겠다.
3.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하겠다.
4. 귀국 후의 정치행동에 대하여는 미군정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이 가운데 “신국가 건설에 필요한 군대를 귀국 후 구성하겠다”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정부는 국내에서 건군을 준비하였다.¹³⁾ 임시정부는 광복군과 국내의 잠편부대 등의 조직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국군을 건설하려 하였다. 그러나 광복군은 국내의 사정으로 인해 해방직후 곧바로 귀국하지 못하고, 1946년 6월경 귀국하였다. 그리고 다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방이후 남한사회에서 전개된 창군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였다.

조선의용군은 조선독립동맹의 주력무장부대, 즉 당군(黨軍)이었다. 원래 명칭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였으나 1942년 7월 10일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하였다.¹⁴⁾ 조선의용군은 중공군과 연합하여 화북, 화중 각지에서 중국 팔로군, 신사군 등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조선의용군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국내 진격을 계획하였지만 좌절되었다.¹⁵⁾ 이들은 해방직후 만주에서 신병을 모집하여 부대를 확대한 후에 국내에 귀환하려고 하였으나 소련군에 의해 거부되어 그 일부만이 무장해제 당한 채 개인자적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¹⁶⁾ 김두봉 등 조선독립동맹 주력 인사들은 해방직후 1946년 조선신민당 창당에 참여하고, 이후 조선신민당은

13) 한시준, 앞의 논문, 10~11쪽.

14) 역사적으로 보면 임시정부의 주력세력인 한국독립당과 조선독립동맹, 조선의용군은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의열단, 한국독립당, 신한독립당, 조선혁명당, 대한독립당 등 5개 단체가 1937년 7월 통합해 민족혁명당을 발족시켰다. 1940년에 발족한 한국독립당과 조선의용군·조선독립동맹은 모두 이 민족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염인호, 『김원봉 연구』, 창작과비평사, 1993, 19쪽).

15) 조동걸, 「8·15 직전의 독립운동과 그 시련」, 송건호 외 역, 『해방전후사의 인식』, 한길사, 1977, 264쪽.

16) 심지연, 『조선신민당연구』, 동녘, 1988, 49~50쪽.

조선로동당으로 합당하는 한편 조선의용군의 장교와 병사들은 수차례에 걸쳐 북한지역으로 입국하여 이후 1948년 2월 8일 북한 인민군이 조직될 때 편입되었다.

이와 같이 광복군과 조선의용군은 미·소에 의해 정부군 또는 당군으로의 입국이 거부되고 개인자격으로 귀국하였다. 그러나 조선의용군은 1948년 뒤늦게 북한으로 입국하여 북한 인민군 창건시 참여하게 된다. 한편 광복군은 1946년에 국내로 들어와 대한민국 국군에 일부 참여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으로 자리하지는 못하였다.

2)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의 조직과 활동

1945년 8월 해방이 되자 해외 무장투쟁세력이 귀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군사단체들이 국군 건설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1945년 11월 현재 30여 개의 군사단체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생성·활동하고 있었다.¹⁷⁾ 이 가운데 조선국군준비대, 조선군사학교, 학병동맹, 대한민국준비위원회, 대한임시사무위원회, 광복군국내지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군사단체들은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띠고 조직되었다.

조선국군학교는 1945년 8월 18일 경기도 광주 지원병훈련소에서 치안 요원과 장차 결성될 국군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제1차 생도 모집광고는 확인되지 않지만, 1945년 10월 11일과 12일 제2차 생도모집을 하였다. 11월 20일 제2기생 개교식을 거행하고, 광장리(廣壯理)의 前 일본 병사(兵舍)로 교사를 옮겼다. 조선국군학교는 1946년 1월 ‘중앙육군학교’로 개칭하고, 1945년 12월 2일 중경임시정부 군무(軍務)부장의 자격으로 귀국한 김원봉(金元鳳)을 교장으로 맞이하여 조직을 다음과 같이 개편하였다.¹⁸⁾

17) 국방부, 『한국전쟁사』 제1권, 1967, 231쪽. 해방직후 사설군사단체의 전반적 내용은 이강수, 「국군준비대의 조직과 활동」 참고.

18) 『서울신문』, 1946.1.9.

교 장 : 김원봉(金元鳳) 부 교 장 : 임철재(任喆宰)
 총무부장 : 심재은(沈在殷) 연구부장 : 권태형(權泰衡)
 교육부장 : 박 만(朴 萬) 경리부장 : 전덕원(田德元)

이후 중앙육군학교는 임시정부와 인민공화국에 절대 중립을 표방하고, 1946년 1월 12일 「중앙국군학교의 취지」 등을 발표하였다.¹⁹⁾ 발표문에 의하면 중앙국군학교는 “긴급한 치안요원 양성”과 “장래의 국방군인간부 양성”을 목적으로 건립하였다고 한다.

학병동맹은 일제말기 강제로 끌려간 학병들이 1945년 9월 1일 보인상업학교에서 치안유지와 ‘국군창건’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²⁰⁾ 학병동맹은 결성 당시부터 인민공화국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계기로 반소·반공운동이 일어나자, 1945년 12월 29일 좌익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반파쇼공동투쟁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좌파세력과 행동을 같이하였다. 학병동맹은 1946년 1월 18일 ‘학생동맹사건’을 계기로 와해되어 갔다.²¹⁾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1945년 8월 이응준(李應俊) 등 일본육사 출신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그러나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이응준의 경력처럼 그들의 과거 경력으로 인해 공개적으로 대외활동을 전개하지는 못하였다. 조직한 이후 치안대총사령부 등을 두어 실제 활동을 추진하려 하였지만, 역시 특별한 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후 주한민군정이 국방사령부를 설치하자 이응준이 고문으로 참여하였다.

조선국군준비대는 1945년 9월 7일 이혁기를 총사령으로 하여 교동초등학교에서 조직되었다. 육군본부 『창군전사』에 의하면 조선국군준비대는 결성당시 경성에 500여 명, 지방에 1천여 명 등 도합 1천 500여 명 가량의 대원이 있었다고 한다.²²⁾ 결성 직후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해

19) 『서울신문』, 1946.1.12.

20) 『매일신보』, 1945.9.19.

21)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역사비평사, 1991, 330쪽.

22) 『매일신보』, 1945.9.17; 육군본부, 『창군전사』, 288쪽.

대원들을 공개모집하거나 순회반원을 조직, 지방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확대시켰다. 1945년 12월 당시 조직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²³⁾

총 사 령 : 이혁기(李赫基) 부 사 령 : 박승환(朴承煥)
고급부관 : 이영석(李榮錫) 고급참모 : 최영(崔榮), 왕홍경(王弘慶)
군수부장 : 이영섭(李英燮) 교육부장 : 원용덕(元容德)
부관부부관 : 안종열(安種烈) 김계원(金桂元) 등

이 중 이혁기(李赫基)는 경성제국대학 출신으로 학병에 끌려갔다 귀환한 후 조선국군준비대를 조직하고 1946년 1월 24일 치안문란죄로 미군정에 3년형을 받았으며 이후 남로당 군사공작 책임자로 활동하였다.²⁴⁾ 부관 부부관인 김계원(金桂元)과 전남지대장인 나학선(羅學善)은 1946년 군사 영어학교에 들어갔고, 조선국군준비대 경북지대장 하재팔(河在八)도 군사 영어학교에 입한 후 미군 맥커리 중위와 함께 국방경비대 제6연대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교육부장으로 있던 원용덕(元容德)은 만주군 출신으로 이후 군사영어학교, 국방경비대, 창군에 깊게 관여한 핵심인물이었다. 조선국군준비대는 좌파적 성향이 강했지만 탈이념적 성향도 확인된다. 이는 해방직후 일반적인 군사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듯하지만, 그 내면은 일반적으로 정군분리(政軍分離)·불편부당(不偏不黨)적 노선을 취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방직후 국내에서 조직된 30여 개의 군사단체는 크게 좌파적 군사단체, 우파적 군사단체, 일본군 출신의 군사단체 등이 있었다. 이들 단체는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광복군국내지대는 임시정부의 조직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시정부는 환국하기 이전에 오광선(吳光鮮)을 임명하여 국내에

23) 『자유신문』, 1945.12.18; 『조선해방일년사』, 1946, 231~232쪽.

24)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06쪽.

광복군국내지대를 설치하였다. 해방직후 광복군 총사령부는 광복군 각 지대에서 일본군 점령지역에 군사특파단을 파견하는 동시에 10월 중순부터 중국관 내에 있던 청년동포와 일본내 한적사병을 접수하여 잠편부대를 주요도시에 설치하고 있었다. 북경(최용덕), 남경(안춘생), 상해(박시창), 항주(김관오), 한구(권준), 황주(최덕신) 등 7개 주요 도시에 잠편부대를 편성하면서, 국내에 조직한 단체가 광복군국내지대였다.²⁵⁾

만주에서 독립군으로 활동했던 오광선은 1945년 8월 하순부터 광복군을 국군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전부터 임정을 독립운동단체 중 하나라는 이유로 임시정부를 불승인하였다. 이에 오광선은 1945년 11월 1일 우선 대한민국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를 결성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절대지지’라는 표어 아래 광복군국내지대 조직을 착수하였다.²⁶⁾

〈대한민국준비위원회의 부서와 총사령부〉

위 원 장 : 유동열(柳東悅) 부위원장 : 전성호(全晟鎬) 비 서 실 : 김의연(金義演)
 총 사 령 : 오광선(吳光鮮) 참모부장 : 김승학(金承學) 부관부장 : 정이형(鄭伊衡)
 현무부장 : 장두관(張斗官) 군수부장 : 최관용(崔寬用) 군기부장 : 김기동(金基東)
 군의부장 : 조이섭(趙利涉) 교통부장 : 김해강(金海崗) 경비부장 : 이기환(李基煥)

그리고 동년 11월 6일 광복군총사령관 이청천의 명령을 받고 대한민국준비대위원회는 광복군국내지대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²⁷⁾ 광복군국내지대는 오광선을 사령, 이승만·김승학(金承學)을 고문으로 하고, 참모부(全晟鎬) 및 고급참모(金相謙 외 3인), 부관부(鄭伊衡 외 3인), 교통부, 군의부, 현무부, 선전부 등을 두었다.

25) 조동걸, 앞의 논문, 198쪽.

26) 『매일신보』, 1945.11.1.

27) 『대공일보』, 1945.11.13.

광복군국내지대는 조선군사후원회, 한국광복군후원회, 한국광복군군사후원회 등 여러 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광복군 지원병을 모집하였다. 이들 후원회는 12월 9일 대한민국군사후원회로 통합되었다.²⁸⁾

3) ‘재경12개단체대표자대회’와 군사단체 통합운동

해방직후 자생적인 군사단체들이 창군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군사단체통합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우선 1945년 11월 7일 국내 12개 군사단체를 통합한 전국군사준비위원회 결성으로 나왔다. 전국군사준비위원회는 결성직후부터 기존의 군사단체를 통합한 ‘국군’ 창설에 주력하였다. 통합움직임이 가시화된 것은 중국 국민당 제1사단장으로 활동했던 박영선(朴永善)이 재경 군사단체 통합을 주장하면서였다.²⁹⁾ 이에 재경 12개 군사단체들이 시립도서관에 모여 ‘재경12개단체대표자대회(在京12個團體代表者大會)’를 개최하였다.

본 대회를 주도한 박영선은 중경임시정부가 국제적 승인을 받았고, 광복군은 이미 정통 군대이므로 임시정부가 입국하면 광복군이 신정부의 정통 국방군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는 국내 통합군사단체의 명칭에 ‘대한’이라는 명칭을 포함시켜 ‘대한국군준비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좌익계열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군사단체는 광복군만이 아니라 연안의 의용군과 기타 군대들도 있다고 하여 전국군사준비위원회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국 본 대회는 결렬되어 대한국군준비위원회(광복군국내지대 중심)와 전국군사준비위원회(조선국군준비대 중심)로 나뉘어졌다.

그런데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삼상회의 후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군사단체 통합운동은 급속히 추진되었다.³⁰⁾ 두 단체는 인민공화국과

28) 『서울신문』, 1945.12.13; 1945.12.7.

29) 국사보훈처, 『독립운동자공훈록』 제4권, 657쪽.

30) 이강수, 「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좌파3당의 대응」, 『한국근현대사연구』 제3집, 한울, 1995.

중경임시정부의 해체를 전제로 민족세력의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이 본격화 된 것이다.³¹⁾ 1945년 12월 31일 광복군국내지대 부사령 정이형과 국군준비대 이영석은 5백여 명의 대원들과 함께 계동초등학교에 모여 통합 교섭을 하였다. 이들은 “현 단계 조선정세는 민족의 무조건 단결을 바라고 있다. 우리 군인이 우선 단결하자. 그리고 각당과 인공, 임정도 우리를 본받게 하자”고 하였다. 전체 토론에서 “우리 군인은 일정당(一政黨)에 일정부(一政府)에 가담하지 않는다. 다만 삼천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고 하고, 각당은 해체하여 일치단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에서 20개 정당의 간판에 불질렀다.³²⁾ 그리고 광복군 부사령관 정이형은 신탁통치 철폐를 위해 민족지도자들이 한데 뭉쳐야 하는데, 우선 광복군과 국군준비대가 합작하였다고 선언하였다.

통합소식이 알려지자 광복군국내지대, 학병동맹, 조선국군준비대, 국군학교 대원 수천 명이 임시정부를 방문하여 임정, 인공의 무조건 합작을 제안하였다. 이에 임정의 성주식(成周寔)은 “군(軍)은 군(軍)으로 정(政)은 정(政)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언명했다.³³⁾ 실제 1945년 말 인공과 임정은 신탁통치 철폐문제를 목적으로 양 정부의 통합회의를 추진하였고, 1946년 1월 1일 인공이 임정에 동시해체를 제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해방직후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군사단체는 1945년 11월부터 통합운동이 추진되었고, 12월 말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본격화하였다. 좌익적 성향의 군사단체든 우익적 성향의 군사단체이든 이들은 모두 국가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일정당(一政黨)’ 혹은 ‘일정부(一政府)’, 즉 특정정치단체의 군대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黨)’의 국민의 군대로 나아가고자 하였다.

31) 『동아일보』, 1946.12.30.

32) 『조선인민보』, 1946.1.1.

33) 『중앙신문』, 1946.1.1.

3.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과 국방경비대 창설

1)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

국내 군사단체는 통합운동을 하는 등 신국가의 국군 건설운동을 전개 하였으나, 미군정은 남한에 진주할 때부터 국내외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의 군사단체 불승인 → 재편정책은 남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일관되었다. 미국은 1945년 9월 1일 미군정에 보낸 최초의 지시문에서 한국내의 일본군뿐만 아니라, 일제하 민족해방운동을 해왔던 “의용군 및 준군사단체의 즉각적인 무장해제”를 미군정에 지시하였다.³⁴⁾ 그리고 1945년 10월 15일 남원사건³⁵⁾을 계기로 미군정의 기존 군사단체 해체 및 국방경비대의 설치는 구체화되었다. 이 국방경비대는 공적인 물리력의 의미를 갖는 “국방군”으로 위치지웠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1945년 11월 13일 군정법령 제28호를 발표하고 국방사령부를 설치를 발표하였다.³⁶⁾

한국의 영원한 독립을 준비하기 위하여, 장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주권을 지키는 데 필요한 군사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국내의 혼란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방호하는데 필요한 시민경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종교·언론의 자유와 재산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지상과 해상에서 요구되는 군사력 건설에 필요한 모병, 조직, 훈련, 장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국방사령부를 설치한다.

34) 『해방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88쪽.

35) 남원사건은 군정경찰과 미 전술부대가 남원의 인민위원회 및 조선국군준비대 간 충돌한 사건으로, 미군정 당국은 남원사건을 미군정에 대한 국내세력의 저항으로 이해하였다.

36) 한국법제연구회, 『미군정법령총람』, 1967.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계획은 『미 외교문서』의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1945년 11월 26일 「육군대장 맥아더가 참모총장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서신」이다. 이 서신에 의하면,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계획은 “미군점령 이래로 현존 정부 구조내부에서……미군 감시하에 진행”되고 있었다.³⁷⁾ 병력은 1946년 1월 1일까지 25,000명에 달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하였다. 한국군 창설의 필요성에 대해 주한미군사령관은 “애국심에 불타는 비무장의 직업적 사설 군사단체들이 한국에 출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은 틀림없이 비밀스럽게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무장하려 들 것이다. 미군 철수에 즈음하여 이러한 병력은 한국의 통합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이를 통제할 최선의 방책은 한국인의 지도력을 빼앗아 버리고 그 역량을 미군의 통제 아래 국가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맥아더사령부는 미국무성에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기간 중 국방군 창설이 고려되고 있다면, 그에 대한 조속한 지침을 당사령부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무성은 “한국국방군” 설치의 국제적 논란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1946년 1월 9일자로 위상축소를 전제로 국방경비대 창설과 무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미군정에 넘기면서 최종 승인을 하였다.³⁸⁾ 즉, 미국무성과 미군정이 국방군 건설에 대해 구체적 입장차이는 있지만, 자생적 한인군사단체의 해체와 미국 주도의 국방군건설에는 모두 동의하였다.

미군정의 군사단체 재편정책은 1946년 1월 9일 삼성조정위원회의 최종 승인에 따라,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 제1연대 창설을 필두로 조선국방경비대 조직이 본격화되었다.

37) 「육군대장 맥아더→참모총장(아이젠하워)에게」, 1945.11.26; 『해방 3년과 미국』, 돌베개, 1984, 158쪽.

38) 「합동참모부→육군대장 맥아더에게」, 1946.1.9; 위의 책, 183쪽.

2) 조선국방경비대 창설

미군정의 해방직후 자생적 군사단체의 불승인 → 재편정책은 미군정이 남한에 진주한 직후부터 가지고 들어왔다. 그리고 남한내 군사단체를 주목하면서 군사단체 해체의 기회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945년 12월 29일 건국청년회 회원들이 인민보사를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군정은 국내 모든 군사단체를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하고 해산을 명령하였다. G-2 보고서에 의하면, 인민보사사건은 1945년 12월 29일 건국청년회 회원 25명이 인민보사를 습격, 인쇄공장을 파괴하고 30여 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납치하였다. 이에 국군준비대는 특무대장 吳永柱 등이 출동, 건국청년회와 총격전이 벌어졌다. 이때 군정경찰이 출동하였다. 그런데 싸움과정에서 건국청년회원들은 26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그들의 본거지인 太古寺로 끌고 갔다고 한다. 그후 12월 31일 국군준비대 대원들은 건국청년회 사령부를 습격, 건청간부를 체포하고, 지하실에 납치되어 있던 26명의 인민보사 직원을 구출하였다. 한편 미군정은 1946년 1월 2일 국군준비대에 감금되어 있던 이홍진(LEE, Hon Chin; G-2에 의하면 이승만의 보디가드로 알려짐) 외 17명의 건국청년회 회원들을 풀어주었다.

여기서 건국청년회는 1945년 9월에 결성되어 1946년 12월까지 활동한 극우단체로, 미군정은 이승만과 김구에 의해 이끌려진 단체로 보고 있었으나³⁹⁾, 국군준비대가 1945년 12월 입수한 「청년회(건청; 필자) 자금일람표」를 살펴보면, 운영자금을 한민당이 제공하고 있었다. 「청년회 자금일람표」는 단 1부만 입수된 것이기는 하나 「일람표」에 의하면, 총 19만 원의 지원금 중 한민당이 3만 6천 원을, 나머지는 공장주가 지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⁰⁾ 여기에 국군준비대가 건국청년회를 습격해서 감금했다는 인물 중에 이승만의 보디가드로 알려진 이홍진이 건청에

39) 신복룡, 『韓國分斷資料集』 6권, 407쪽.

40) 『朝鮮人民報』, 1946년 1월 7일.

참여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건청은 이승만과 한민당의 조직이라고 우선은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건국청년회의 인민보사습격사건과 관련 미군정의 처리과정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군정은 1946년 1월 2일 국군준비대사령부를 습격, 이흥진 등을 풀어준 이후 미군정의 국군준비대 수색·조사는 급속히 추진되었다. 1946년 1월 3일 미군정경찰은 국군준비대 사령부를 급습, 일제 소총 1자루, 권총 2자루, 일제 총검과 칼집 2자루를 압수하고, 국군준비대원 4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1946년 1월 4일, 1945년 12월 31일 국군준비대 대원들이 건국청년회 사무실 습격한 책임을 물어, 국군준비대 사령관인 李赫基를 체포하였다. 1월 5일과 6일 미군정경찰은 국군준비대를 재차 급습, 급기야 해산을 명령하기에 이른다. 1월 6일 밤에는 국군준비대 사령부만이 아니라 국군준비대 주요간부들의 합숙소인 제일호텔을 수색, 현군부 부대장 安英南 등을 검거하였다. 이러한 미군정의 국군준비대 조사과정은 “특별한 통보”도 없이 진행되었고, 심지어 구타와 총포난사까지 있어, 4명이 부상당하고 1명이 사망하는 등 강경분위기로 진행되었다. 1월 7일, 군정청은 국군준비대가 10일 이내에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1월 8일, 「트루워크」 경기도지사는 신문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치안을 문란케 했다는 이유로 국군준비대의 해산을 명령하였다.

그런데 미군정의 자생적 군사단체에 대한 정책은, 삼성조정위원회의 1945년 9월 1일자 지시처럼, 처음부터 국군준비대 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다. 1946년 1월 8일 경기도지사 「루트워크」는 국군준비대만 해산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을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일반에 알렸다. 1946년 1월 12일 경기도지사는 군사단체 해산은 국군준비대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복군국내지대와는 무관하다고 재차 담화까지 발표하였다.⁴¹⁾ 국군준비대 사건이 거의 끝나갈 무렵, 그리고 국방경비대 건설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46년 1월 21일 군정청경무국에서는 “38도 이남 조선에 있어서는

41) 『朝鮮日報』 1946년 1월 12일(『자료』 1권, 827쪽).

조선국방경비대만이 유일무이한 군사단체이지 그밖에는 어떠한 군사단체도 인정치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함으로써, 이젠 국군준비대만이 아니라 광복군국내지대도 유명무실해졌다. 그리고 1월 28일 국내 모든 군사단체를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하고 국방경비대를 제외한 모든 군사단체의 해산을 명령하였다.⁴²⁾

이러한 가운데 조선국방경비대는 1946년 1월 15일 경기도 태릉에 제1연대 창설을 필두로 조직이 본격화되었다. 1월 15일 미군정장관은 “현재 당국에서 조선국방경비대를 조직하고 있는데, 앞으로 군대라는 명칭아래 무력행동을 할 수 있는 조직은 이 조직뿐이다.”⁴³⁾고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1946년 말까지 각도별로 9개 연대가 조직되었다.⁴⁴⁾

〈1946년 국방경비대 창설당시 조직 및 부대장 현황〉

부대명	설치시기	설치장소	창설부대장	과거경력
제1연대	1946.1.15.	태릉	채병덕	일본군 소좌
제2연대	1946.2.28.	대전	이형근	일본군 대위
제3연대	1946.2.26.	이리	김백일	만주군 대위
제4연대	1946.2.15.	광주	김홍준	만주군 대위
제5연대	1946.1.18.	부산	박병권	일본군 소위
제6연대	1946.2.18.	대구	김영환	일본군 소위
제7연대	1946.2. 7.	청주	민기식	일본군 소위
제8연대	1946.4. 1.	춘선	김종갑	일본군 소위
제9연대	1946.11.16.	제주	장창국	일본육사후보생

미군정은 국방경비대의 간부요원과 통역관을 양성하기 위해 1945년 12월 5일 군사영어학교를 개교하였다. 1946년 4월 30일 폐교할 때까지 총 200명이 입교하여 총 110명의 장교가 배출되었다. 미군정의 원래 계획은 일본군, 만주군, 광복군 출신자 중에서 각각 20명씩 선발하여 60명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좌익계 군사단체인 국군준비대와 학병동맹은 참여를 거부했으며,

42) 『중앙신문』, 1946.1.29.

43) 『조선일보』, 1946.1.16.

44) 노영기, 『1945~50년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 박사논문, 2008, 64쪽. 등

광복군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여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에, 군사영어학교 입교자들은 만주군 출신 원용덕과 일본군 출신 이응준이 추천한 일본군, 만주군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미군정의 건군작업은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서, 소련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미군정은 1946년 6월 15일 국방사령부를 국내경비부(통의부)로, 남조선국방경비대는 조선경비대로 명칭을 각각 개칭하였다. 그리고 군사영어학교도 해체되었다. 군사영어학교를 계승한 국방경비사관학교가 1946년 5월 1일 태릉에 설치되었다.⁴⁵⁾

4. 미군정 군사단체 참여세력과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1) 국방경비대 참여세력

해방직후 임시정부의 광복군을 필두로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들은 신정부의 국군을 건설하려 했으나, 미군정에 의해 사설 군사단체로 규정되어 해체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군정의 국방경비대와 군사영어학교 입학을 거부하였다. 대다수의 광복군 출신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광복군의 공식입장과는 달리 국방경비대 창설에 참여한 인물이 상당수였다. 임시정부 참모총장 출신인 유동열(柳東說)은 미군정 군사조직 최고기구인 통위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이후 이범석이 초대 국무총리겸 국방부장관에 취임하면서 광복군출신이 대거 입대하였다.

유동열이 통위부장에 임명된 것은 일본군 출신 이응준(李應俊)의 추천에 의해서였다. 당시 통역을 맡은 강영훈은 “현재 조선경비대 장교는

45) 한시준, 앞의 논문, 20쪽.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출신 등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군 특히 간부의 화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는 분”이고, “군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분”이어서 추천했다고 한다. 이응준이 어떤 이유에서 유동열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미군정이 어떤 이유로 유동열을 임명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조선경비대 간부출신 절대 다수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미군정으로서 조선경비대 설치의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추측된다.

유동열은 통위부장직을 승낙하는데 상당한 고심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1946년 9월 2일 미군정의 최고 직위인 통위부장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광복군 편린처장을 역임한 송호성(宋虎聲)이 조선경비대 제3연대장, 조선국방경비대총사령관에 임명되었다. 특히 송호성은 1946년 10월 국방경비대 소령으로 임관한 이후 1948년 정부 수립시까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을 지내 당시 국방경비대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광복군 출신 채원개(蔡元凱)는 1947년 3월 특임 3기로 임관한 이후 1949년까지 국방경비대 여단장 등을 역임하였다.

이렇게 유동열, 송호성 등이 국방경비대에서 지위를 차지하자 광복군 출신들 중 일부가 국방경비대에 입대하기 시작했다. 1946년 9월 23일 선발한 제2기에 송호성만이 아니라, 총사령부 전령장교 출신 고시복(高時福), 1947년 1월 13일 선발한 제3기에 황포군관학교 출신 최덕신(崔德新)·박시창(朴始昌), 제5지대 출신 박기성(朴基成)이 입교하였다.⁴⁶⁾ 그럼에도 광복군 주력은 미군정이 주도하는 건군이나 그 군사기관에 참여하기를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특히 이범석 장군이 대한민국 초대 국방부장관을 맡게 되면서, 광복군 상당수가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하였다. 미군정하에서 참여하지 않다가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군에 참여한 것이다. 1948년 선발한 제7기 특별반에는 김관오(金冠五), 김국주(金國柱),

46) 한시준, 앞의 논문, 21~22쪽.

장흥이(張興伊) 등이, 그리고 이준식(李俊植), 오광선(吳光善), 안춘생(安椿生), 박영준(朴英俊), 권준(權峻), 장호강(張虎岡), 김영일(金永逸), 전성호(全盛鎬) 등이 제8기 특별반으로 입교하였다. 이외에도 임시정부 참모장을 역임한 김홍일(金弘一) 장군과 제1지대장을 지낸 채원개(蔡元凱)가 특임으로 임관하였고, 최용덕(崔用德), 김신(金信)은 공군에, 중국군 출신 김응조(金應祚), 이종국(李鍾國), 오동기(吳東起), 조개옥(趙介玉) 등이 각각 국군에 참여하였다.⁴⁷⁾

광복군국내지대 핵심인물들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의 군사조직에 참여한다. 광복군국내지대 전신인 대한민국군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유동열(柳東說)이 미군정 군위부장으로 참여하였고, 광복군국내지대 최고사령관 오광선(吳光鮮)과 참모부 참모장 전성호(全盛鎬)가 각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설립된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참여하였다.

광복군 출신만이 아니라 조선국군준비대 출신도 미군정의 군사기구에 참여한 인물이 상당수이다. 조선국군준비대 부관부부관인 김계원(金桂元)과 전남지대장인 나학선(羅學善) 등이 있다. 이들은 1946년 군사영어학교에 들어갔다. 특히 조선국군준비대 경북지대장 하재팔(河在八)도 군사영어학교에 입한 후 미군 맥커리 중위와 함께 국방경비대 제6연대 결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⁴⁸⁾ 그리고 국방경비대 경남지부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오덕준은 그 부하들과 함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⁴⁹⁾ 해방 직후 충북 청원에서 '장병대'를 조직하고 장병대 대장 겸 국군준비대 충북지부장을 지낸 민기식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하고 국방경비대 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장병대 대원들도 그와 함께 국방경비대에 입대하였다.⁵⁰⁾ 국군준비대 헌병부장 연정(延貞)과 그의 동생 연상(延祥)도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고, 국군준비대 서울지대 중대장 임부택, 충북지부장

47) 한용운, 앞의 책, 64~66쪽; 한시준, 앞의 논문, 22쪽. 재인용.

48) 이강수, 앞의 논문, 226쪽.

49) 안진, 앞의 책, 222쪽.

50) 노영기, 앞의 논문, 78쪽.

민기식 등도 군사영어학교에 참여하였다.

좌파세력으로 알려진 학병동맹 출신 중에는 미군정기 군사기구에 참여한 인물이 거의 없지만, 1945년 11월 24일 귀환학병 보고대회에 참여했다가 이후 학병단으로 간 조암, 김근배, 김형일 등이 군사영어학교를 졸업한 후 국방경비대 각 연대 창설에 참여하였다. 1945년 12월 학병동맹에서 탈퇴한 ‘학병단’ 출신들도 국방경비대에 참여하였다. 안동준, 백남권, 임선하 등은 미군정 국방사령부를 직접 찾아가 군대 창설에 관해 교섭한 뒤 주한미군정의 제안에 따라 군사영어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국방경비대에 장교로 대거 참여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8년 조직된 국방경비대 제10연대부터 제15연대 주요 부대장의 성향도 학병출신으로 바뀌었다.

〈1948년 국방경비대 창설당시 조직 및 부대장 현황〉

부대명	설치시기	설치장소	창설부대장	과거경력
제10연대	1948. 5. 1.	강릉	백남권	학병
제11연대	1948. 5. 4.	수원	박진경	학병
제12연대	1948. 5. 1.	군산	백인기	학병
제13연대	1948. 5. 4.	온양	이치업	학병
제14연대	1948. 5. 4	여수	이영순	일본군 경리장교
제15연대	1948. 5. 4	마산	조 암	학병

1946년 당시 국방경비대 부대장이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1948년 국방경비대 부대장의 성향은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일제시기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광복군이나, 해방직후 국내 군사단체의 주력 세력이었던 조선국군준비대와 광복군국내지대 주요 인물들이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창군에 참여하였다. 물론 이들 중 상당수는 여순사건을 계기로 군부 내 숙군과정을 통해 배제되었지만, 국방경비대에는 조직당시만 해도 광복군계열과 해방직후 국내 군사단체세력이 참여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2)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

해방직후 임시정부계열 등 민족세력이 미군정과 갈등하고,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였지만 광복군계열과 국내 군사단체 주요 인물들이 어떤 이유로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군활동에 참여했을까. 이와 관련해 해방당시의 정국과 그들의 사상과 철학, 노선 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정부수립 전후 남한정국을 보면,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주력 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계열 일부가 개인 자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선거전부터 “선거에 참여해서 투쟁하자” “대의기관을 통해 당의 당강을 실현하자” 등을 주장하였다.⁵¹⁾ 실제 이들은 제헌국회에 참여해서 반민특위를 조직하고, 농지개혁법을 제정하였으며, 심지어 미군철수안까지 결의되었다. 이 과정에서 제헌국회의원들은 남조선노동당 프락치로 몰리고, 때로는 반민특위위원살대상자로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⁵²⁾ 이를 구성원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1948년 남한정국은 백범 김구의 남북협상운동과 이승만의 단독정부수립운동으로 분화되었지만, 남북협상을 이끌고 있던 한국독립당과 민족자주연맹, 그리고 사회주의 계열 내부에서 ‘5·10선거에 참여해서 개혁하자’는 참여적 개혁세력이 대두하였다. 이들은 5·10선거 참여파와 5·10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남한정부수립에 참여한 세력으로, 전자는 남북협상을 이끌고 있던 중간파연합의 민족자주연맹과 한국독립당 계열 출신으로 제헌국회 내 소장파의 핵심세력이 되었다. 후자는 남북협상과 제헌국회에 모두 불참한 신한국민당의 안재홍계열과 민중동맹의 김병로계열, 남북협상후 정계에 진출한 조소앙의 사회당계열, 그리고 남북협상 후 동요하던 민족자주연맹의 김규식 계열 등이었다. 즉 해방정국의 정치노선은 이분법적 단순구도로 결코 이해할 수 없다.

51) 『주한미군보고서』, 1948.3.27; 조소앙, 「한독당결별선언서」, 1948.10.11.

52) 이강수, 앞의 책, 89~102쪽.

광복군계열 다수가 미군정의 건국활동을 거부하고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던 상황에서, 일부가 조선국방경비대에 참여하고, 일부는 조선경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는 것은, 정치적 측면에서 백범 김구 등 임시정부 주력세력이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임시정부 계열 중 일부는 개인자격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한 것과 같다.

이들이 왜 미군정의 군사단체와 대한민국 정부의 창군활동에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5년 12월 말 신탁통치 문제로 남한 정국이 어지러울 때,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의 통합과정의 논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당시 광복군국내지대는 “인민공화국, 임시정부 해체”를 전제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 등 국내 군사단체 통합운동이 전개되었고⁵³⁾, 통합운동의 핵심 논리는 “군인(軍人)은 일정당(一政黨)도 일정부(一政府)도 일방만을 지지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당시 좌우의 대부분 군사단체의 상위 노선이었다.

해방직후 상당수의 군사단체는 정치적 경향성을 띤 경우도 있었지만, 국가의 위기, 민족의 위기 앞에서는 이념도, 정당도, 정부도 아닌 ‘국민의 군대, 민족의 군대’를 지향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임시정부, 인민공화국, 미군정, 대한민국 정부도 중요했었지만 국민, 국가, 민족이 더욱 중요했다. 그렇기에 광복군에 참여했다가 국방경비대에 참여하기도 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국군으로도 참여하였다.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로는 이해가 안되지만, ‘군’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당연한 선택을 한 것이다. 실제, 국방경비대 모병 모집관련 1947년 4월 22일자 『제주신보』의 보도를 보면,

국방경비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동포를 사랑하고 조국을 위하여 순국하려는 피끓는 젊은이들의 애국군사기관이다. 우리들은 모국의

53) 광복군국내지대, 「반탁성명서」, 『동아일보』, 1945.12.30.

주구도 아니다. 정당의 이용기관도 아니다. 다만, 안으로는 자주독립을 추진하고 밖으로는 국방의 중책을 완수하려는 국가의 간성이다.⁵⁴⁾

국방경비대도 사상보다는 자주독립국가 건설, 국군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들로서는 이념보다는 자주독립국가의 군대가 우선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와 연계시켜 살펴볼 필요는 있다. 국방경비대의 인적 물적 기반 그 자체를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으로 이해해야 한다. 즉, 국방경비대의 초기 조직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만이 아니라, 광복군과 국내 군사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이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광복군과 해방 후 국내 창군운동 단체에서 찾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1948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물리적으로 보면 미군정에게서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이 임시정부를 그 역사적 뿌리로 삼는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역사적 연원 또한 최소한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이 국방경비대와 연계되었다고 하지만, 그 민족사적 뿌리를 국방경비대로만 단순 규정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받았지만, 그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둔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군도 국방경비대에서 연계되었지만, 그 역사적 연원·정신적 뿌리를 광복군의 무장투쟁의 역사, 해방직후 자생적인 국군건설운동의 역사에서 찾아야 한다. 최소한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합당하다.

물론 물리적 연원과 민족사적 연원이 모두 같으면 더욱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정신적 측면에서 역사성을 찾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54) 『제주신보』, 1947.4.22.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가 아니라, 한말 의병이나 만주의 독립군, 일제하 항일무장투쟁, 해방후 국군건립운동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족해방운동의 정신, 불편부당적 국민의 군대, 민족적 군대로 나아가려는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5. 맺음말

해방직후 국내의 민족세력은 항일무장투쟁과 신국가의 창군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1945년 12월 신탁통치 파동을 계기로 국내 군사단체통합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처음부터 한국민의 군사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미군정은 미군정만이 남한 유일의 정부라고 선언한 것처럼, 미군정이 만든 국방경비대만이 유일한 군사단체로 보고 국내외 모든 군사단체를 해체시켰다. 그 과정에서 광복군과 국내 자생적 군사단체 등을 모두 불법적인 ‘사설’ 단체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은 이 국방경비대를 계승하였다.

국방경비대 구성원은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주류였지만, 실제 광복군 출신과 해방직후 자생적으로 창군운동을 하던 조선국군준비대, 광복군국내지대 등 다양한 국내 군사단체 출신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그들이 왜 참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당시 남한 군사단체의 ‘불편부당(不偏不黨)’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실제 광복군국내지대와 조선국군준비대의 통합과정을 보면, “군인(軍人)은 일정당(一政黨)도 일정부(一政府)의 군대가 아닌” “조선인민의 군대”가 되길 희망하였다. 즉, 특정 정치단체의 군대가 아닌 민족의 군대,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광복군과 국군준비대만이 아니라, 국방경비대와 대한민국 국군에 참여하였다. 이점은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성을 찾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국군에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를 국방경비대에 두고 있다. 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 인적, 물적 측면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방경비대 초기 조직은 일본군, 만주군 출신만이 아니라, 미약하나마 광복군과 국내 군사단체들이 모두 참여한 조직이었기에,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연원을 일제시기 광복군과 해방 후 국내 창군운동 단체에서 찾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실제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받았지만, 그리고 임시정부계열보다 오히려 친일 경력자가 더 포함되었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고 규정한 것처럼, 대한민국 국군도 물리적으로는 국방경비대에서 연계되었지만, 그 정신적 뿌리·역사적 연원을 해방직후 창군운동, 더 나아가 일제하 항일무장단체와 만주의 독립군, 한말 의병운동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최소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에서 찾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한 해석이다. 그래야지 대한민국 국군 창설 과정의 문제점과 한계를 본질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군이 한말 의병의 정신, 일제시기 민족해방운동의 정신, 해방 후 건국운동의 정신을 계승할 때만이, ‘일정부(一政府), 일정당(一政黨)의 군대’가 아닌, ‘불편부당(不偏不黨)’적 대한민국 국민의 군대, 우리민족의 국군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대한민국 국군, 국군준비대,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헌헌법, 국방경비대

<ABSTRACT>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Their Historical Implications

Lee, Gang-soo

After the Liberation, the nationalists in the country and abroad developed the anti-Japanese guerrilla struggles and the new nation's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forces. Moreover, they tried to unify diverse domestic military units following the turmoil of trusteeship issue in August 1945. However,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did not recognize Korean military units from the beginning. As USAMGIK declared that USAMGIK was the only government in South Korea, USAMGIK acknowledged that the Constabulary force created by USAMGIK was the only military units, and dissolved all the Korean military organizations in the country and abroad. In the process, USAMGIK label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all the spontaneous domestic military groups as the illegal private military organizations. Thereby,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succeeded the Constabulary forces created by USAMGI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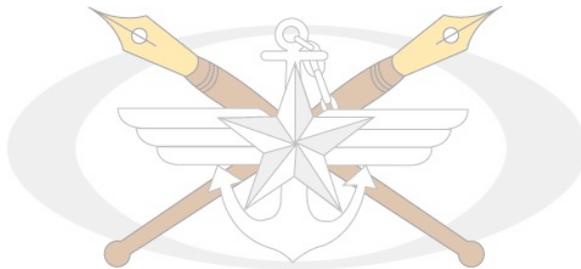
Although the members of the Constabulary force mainly had the background of Japanese army and Manjugun, a good percentage of people who had the background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the domestic military units were included in it such as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Hagbyeong Dongmaeng, and the domestic detached for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that spontaneously developed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The reason they participated in the Constabulary force is not clear, but it is not unrelated to the impartial awareness in the then military units of

South Korea. They participated in the Constabulary forc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s well as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in order to build up the nation's force, national force, not a specific political group's force. This is the great importance to those who attempt to find the historical implic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rooted in the Constabulary forces because the Constabulary forces is connect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n terms of its members and organizational background. As the early organization of the Constabulary forces include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nd all the spontaneous domestic military organizations as well as those who had the background of Japanese army and Manjugun, no wonder we attempt to find the historical origi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during Japanese colonialism and the domestic groups that developed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country was actually transferred from USAMGIK to South Korean government in 1948, but a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fines that the Constitution succeeds the legitimacy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proper that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finds its spiritual and historical origin in the movement for the build-up of Korean national army after the Liberation and, by extension, in anti-Japanese military group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in Manchuria during Japanese colonialism, though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re physically associated with the Constabulary forces. At the very least, finding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origin 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of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n interpretation faithful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nly if we do that, we can hypothetically overcome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e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Only then can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stand as South Koreans' army and national armed forces for our nation.

Key Words :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Korean National Preparatory Army,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first constitution of Korea, the Constabulary force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생산과 중·소의 지원

조 수 룡*

1. 머리말
2. 전쟁 전 북한의 군비생산 능력과 전시생산으로의 전환
3. 전시생산 기반의 붕괴와 산업 소개(疏開)의 실패
4. 지원에 소극적인 소련과 적극적인 중국
5. 맺음말

1. 머리말

개전에서 전선 교착에 이르는 한국전쟁 초기 동안 전선은 낙동강과 압록강을 오르내리면서 한반도 대부분을 전역(戰域)에 포함시켰다. 그 과정에서 북한지역은 남한지역 이상으로 초토화되어 전쟁 지속이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50년 10월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으로 북한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문제는 조중연합군을 유지할 군수와 군비였다. 그런 점에서 당시 북한의 독자적인 전쟁 수행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럼에도 전쟁은 어떻게 이후 2년 9개월이나 계속되었을까.

*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외부로부터의 군비지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의 한국전쟁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국내의 경제기반, 군비지원을 둘러싼 외교관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수반한다.

한국전쟁 연구는 이미 양적·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온 분야이다. 1990년대까지 민간의 한국전쟁 연구는 주로 전쟁의 기원과 영향을 분석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전쟁 과정에 관한 연구는 군인들의 전사(戰史)적 관심에 그쳤을 뿐이다. 200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학계에서도 전쟁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인 학살, 지역 단위에서의 전쟁 경험, 휴전협정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전쟁 연구의 관심 영역이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전쟁 준비와 수행 과정을 경제적 측면에서 다룬 연구 성과도 제출되고 있다. 먼저 기무라 미쓰히코(木村光彦)와 아베 게이시(安部桂司)는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해 북한지역에 육성한 산업기반과 기술 인력이 해방 후 김일성의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¹⁾ 이들의 견해는 북한의 전쟁 준비를 일제 전시체제와 관련지어 고찰했다는 점에서 일제 시기와 단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북한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 연구는 해방 후 북한 공업의 재건 과정을 상당히 실증적으로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된 북한의 공업이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다는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전쟁 준비에 활용되었을 것이라며 제시한 북한의 생산품은 65호공장의 생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심중에 그칠 뿐이다. 전쟁에서 북한이 사용한 무기가 대부분 소련제였다는 것이 이미 알려진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의 생산을 강조하는 이들의 가설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위 연구를 제외하면 북한의 전쟁 준비는 주로 소련의 무기 제공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시각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²⁾ 다만 논자에 따라

1)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시 저, 차문석·박정진 역,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공업화』, 미지북스, 2009.

2) Sergei Goncharov·John Lewis·Litai Xue, *Uncertain Partners: Stalin, Mao, and the Korean Wa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신범식, 『소련의

인민군의 무장은 소련이 제공한 무기로 갖추어졌지만 이는 무상원조가 아닌 차관이었다는 점, 전비 마련 및 차관의 상환을 위해 인민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동원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으로는 북한의 자체 생산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은 점, 대체로 전쟁 과정보다는 전쟁 준비에 초점을 둔 점을 들 수 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자체 생산이 전쟁 준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는 아직 적절한 평가가 내려진 적이 없으며, 또 전쟁 과정에서의 군수 생산 및 조달과 전비 지출 문제도 그다지 주목받은 적이 없다.

몇몇 연구에서 위 문제들 일부가 다루어진 적이 있지만³⁾ 전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떻게 필요한 물자와 비용을 충당했는지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한국전쟁은 미·소 냉전의 한 결정점이 되었고, 미국은 직접 참전하기까지 한 대규모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전쟁은 미국에게 ‘제한전쟁(limited war)’이었을 수 있지만, 남한이나 북한과 같은 신생국가에게는 ‘초총력전(super total war)’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⁴⁾ 따라서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력을 훌쩍 넘어서는 막대한 군비 수요가 어떻게 충당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북한 군사지원],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정병준,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한국전쟁 발발 전후를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6; 전현수,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 1949년 3월 조소양국 정부의 협상을 중심으로』, 『大邱史學 第100輯, 대구사학회, 2007; 김광수, 『북한 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1948년 9월부터 1950년 1월까지를 중심으로』, 『軍史』 제79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1.

- 3) 차문석이 전시 생산과 공장 소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자료를 소개하는 수준에 그쳤다. 박영실은 전쟁 중 북한에 대한 중국과 소련의 지원에 대해 ‘세계평화옹호운동’과 ‘항미원조운동’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차문석,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전시 생산체제: ‘공장 소개’와 ‘전시 생산정책’을 중심으로』, 『統一問題研究 15권 1호, 평화문제연구소, 2003;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 4) 온창일, 『초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한국정치외교사논총 5권 1호, 한국정치외교사학회, 1989, 200쪽.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는 북한의 전쟁 준비와 수행 과정에서 전시 생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중국과 소련은 경제적으로 북한에 어떤 지원을 제공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에서는 먼저 북한의 자체 생산이 전쟁 수행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중국과 소련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비중으로 수행했는지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북-중-소 삼각관계가 전쟁 과정에서 겪는 관계 변화의 실마리 또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소련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무라 미쓰히코가 수집·번역한 러시아연방대외정책문서보관소(ABИPФ) 소장 자료⁵⁾와 국사편찬위원회, 박종효, 캐스린 웨더스비, 바자노바 부부가 각각 펴낸 대외정책문서보관소, 러시아연방국방성중앙문서보관소(LIA MOPФ) 및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AИPФ) 소장 자료⁶⁾가 본 논문에 이용되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출판된 각종 공식간행물과 미군 노획 문서, 중국 및 남북한 출신 인사들의 회고록, 당시 중국공산당 연변지방 위원회 기관지였던 『東北朝鮮人民報』 등을 보조 자료로 이용하였다.

5) 기무라 미쓰히코는 발굴한 북한 경제관련 구소련자료를 선별하여 『靑山國際政經論集』에 번역·게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 활용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号, 靑山学院大学國際政治經濟学会, 2001; 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002; 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続)」,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002;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72号, 2007.

6)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Project Bulletin*, Issue No.6~7,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1995;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저, 김광린 역,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열림, 1998;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 국사편찬위원회, 2006; 박종효 편역,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 정책 자료 I』, 선인, 2010.

2. 전쟁 전 북한의 군비생산 능력과 전시생산으로의 전환

개전 직전 북한에는 약간의 군수산업 기반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 대표적인 생산시설로는 무기와 탄약을 생산한 65호공장을 들 수 있다. 이 공장은 일제시기 평양시 평천리에 건설된 포병공장이었는데, 1947년 9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평양기계제작소’라는 이름으로 조업을 재개하였다. 미군의 정보에 따르면 1948년 11월 현재 공장에서는 소련인 고문관 3명과 인민군 장교 1명의 통솔 하에서 1,500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다.⁷⁾ 조업을 재개할 때부터 이미 상당한 규모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북한의 유일한 병기장이었던 평양기계제작소는 산업상 김책의 주도로 기관단총의 자체 생산에 착수하여, 1948년 12월 12일에는 국가시험 자격행사를 성대히 열었다. 그리고 1949년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비를 확장하고 소총과 박격포, 탄약류를 양산하기 시작하였다.⁸⁾ 공장의 확장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1949년 6월 18일에는 명칭을 3월 1일자로 소급하여 ‘산업성제65호공장’으로 변경하였다. 병기장의 보안을 위한 조치였을 것이다.⁹⁾

설비 확장과 무기의 양산은 소련의 기술 및 설비 원조에 의해 이루어졌다. 소련은 1948년 6월 이후 북한에 각종 무기의 설계도와 기술 인력을

7)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ed Forces in Korea, Office of the Assistance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Summary Northern Korea” Issue No.167(19 Nov. 1948~26 Nov. 1948), p.28(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편, 『駐韓美軍北韓情報要約 4』,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89).

8)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276~277쪽; 김일성, 「군수공업을 발전시키며 귀금속 및 희유금속 광물광산을 증대시킬 때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소회의에서 한 결론」(1949.8.23), 『김일성전집 10권,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48~50쪽; 김일성,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무장하여야 한다: 65호공장 대표들과 한 담화」(1949.10.31), 『김일성전집 10권, 294쪽;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장』, 두술, 2001, 14~17쪽.

9)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軍史』 79호, 27~28쪽.

제공하였다. 또 1948년 8~10월 간 1,850만 루블에 해당하는 설비 및 기재를 지원하였고, 1949~1950년 사이에는 3,200만 루블을 추가로 책정하였다.¹⁰⁾

65호공장에서 무기의 본격적인 양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49년 10월 이후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1949년 6월 당시 북한 주재 소련 대사였던 슈티코프는 북한에서 무기 및 탄약 생산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무기생산이 지체된 주된 이유는 소련으로부터 전문가의 파견이 늦어졌기 때문이다.¹¹⁾ 양산이 시작된 이후인 1950년 상반기 65호공장의 총생산액은 1억 5,900만 원(99만 루블)¹²⁾에 이르렀다. 같은 시기 기계공업 부문의 총생산액이 6억 7,7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공업생산에서 65호공장이 차지한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¹³⁾ 다만 이해 6월에 전쟁이 개시되었기 때문에 전쟁준비에 사용된 65호공장의 무기와 탄약은 이 1950년 상반기 생산 분이 거의 전부였을 것이다. 게다가 중화기는 전혀 생산할 수 없었던 65호공장이 한창

10)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역사문화연구』 25집, 84쪽.

11) 예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쟁준비』, 기광서, 『소련의 대북한 군사원조와 중·소 군대의 참전 문제』, 『역사문화연구』 25집, 84쪽.

12) 본 논문에서 각국 통화에 따른 금액의 환산은 아래의 표에 제시된 환율을 따른다. 몇몇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안 : 루블은 적어도 1951년부터 1953년까지, 위안 : 원은 1951년 4월부터 1952년까지 아래와 같은 고정환율이 적용되었다. 전쟁기간 중에 이러한 환율이 재조정되었을 가능성은 많지 않다. 원 : 루블 환율은 신뢰할 만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해 위안 : 루블, 위안 : 원 환율을 근거로 산출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 원(圓)·중국 위안(元)·소련 루블(рубли)의 환율

구분	원 : 루블	위안 : 루블	위안 : 원
환율	160 : 1	6,800 : 1	42.1 : 1

자료: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號, 241頁);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 ~7, pp.75~76).

13) 펠리센코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보고서, 1950년 8월 17일(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號, 155頁).

병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던 인민군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따라서 북한은 필요한 군수품의 대부분을 소련으로부터 얻을 수밖에 없었다. 1949년 3월 「소련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물품거래 및 대금결제에 관한 의정서」가 비밀리에 체결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는 실질적인 조소군사원조협정이었다. 이 의정서에서 소련은 북한에 대해 3년간 총 2억 1,200만 루블(339억 원)에 상당하는 군수품을 차관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1952년 7월부터 3년 내에 연 2%의 이자를 포함해 상환하는 조건이었다. 북한은 이 차관을 곡물, 귀금속, 희귀광물과 같은 상품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¹⁴⁾

소련이 제공한 군사차관의 규모를 통해 65호공장의 생산이 북한의 전쟁준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련은 북한에 대해 1949년 6월부터 1952년 6월까지 3년간 총 2억 1,200만 루블, 매년 약 7,070만 루블의 군사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1950년 2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1951년도에 제공받기로 한 7,070만 루블의 차관을 1950년에 앞당겨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개전에 관한 스탈린과 김일성의 교감이 사실상 이루어졌기 때문이다.¹⁵⁾ 이에 따라 소련은 1950년 6월 이전까지 약 1억 4,000만 루블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군수품을 북한에 제공하였다. 한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65호공장의 생산이 그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가정할 때, 북한에서의 무기 및 탄약 생산은 약 100만 루블을 약간 상회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소련이 제공한 군사차관과 65호공장의 생산액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65호공장이 고가의 장비와 중화기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금액으로 단순 평가한다면 65호공장의 생산은 전쟁준비에 거의 아무런 기여도 하지

14) 정병준, 『한국전쟁』, 296쪽; 기무라 미쓰히코·아베 게이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291~302쪽; 전현수, 「한국전쟁과 소련의 역할」, 『大邱史學』 100輯, 26쪽.

15) 슈티코프가 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 1950년 2월 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6쪽;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36); 정병준, 『한국전쟁』, 483~484쪽.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은 소련으로부터의 차관에 의존해 전쟁을 준비했고, 또 이를 상환하기 위한 적지 않은 양의 상품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군수물자를 비축할 여유가 없었다. 개전 직전 인민군은 식량과 유류, 탄약과 같은 필수적인 군수물자를 약 60일간의 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한다.¹⁶⁾ 당시 인민군 총참모부가 소련 군사고문들의 도움으로 완성한 작전계획에는 전체 작전기간이 1개월로 예정되어 있었다.¹⁷⁾ 미국이 본토에서 병력을 증원하는 데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이 소요되므로 그 안에 한반도를 장악하여 미국의 개입을 봉쇄하겠다는 의도였다.¹⁸⁾ 따라서 약 두 달분의 군수물자는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남한과의 속전속결을 가정한다면 충분한 준비라고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소모성 물자가 비교적 충분히 준비되었던 것에 비해 인민군의 무기와 장비 재고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1>은 개전 직전 인민군이 보유한 화포의 현황이다.

<표 1> 1950년 6월 현재 조선인민군 보유 화포(단위: 문)

무기명	군 병기고	야전군	해군	계
박격포	-	857	18	875
대전차포	-	521	31	52
야포	10	495	60	565
고사포	-	36	36	72

자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278쪽.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민군은 화포 재고를 거의 남겨두지 않았다. 개인 화기 또한 마찬가지였다. 낙동강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던

16) 김광수, 「북한정권 성립 이후 ‘통일’ 전략 논의와 전쟁 준비」, 『軍史』 79호, 33~34쪽.

17) 정병준, 『한국전쟁』, 525쪽.

18) 허종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사회과학출판사, 1983, 110쪽.

1950년 8월, 인민군은 남한지역에서 의용군을 징집하였지만 소총의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무기도 지급하지 않고 전선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다.¹⁹⁾ 이는 작전계획에 차질이 생겨 병력을 보충하거나 재편해야 하는 상황을 북한 지도부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전쟁을 속전속결로 승리할 수 있다는 김일성의 자신감 내지는 무모함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무기와 물자를 준비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북한의 경제력 으로서는 소련으로부터 차관을 최대한 끌어들이 약 한 달 동안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었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가 장기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은 개전 직후에 취해진 일련의 조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을 개시한 북한은 6월 26일 군사위원회를 조직하고 27일에는 전시상태를 선포하여 전시체제로 전환했다. 또 지방에는 군사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지방군정부를 조직하였다. 치안 및 군사안보와 관련한 지방 주권기관의 모든 업무는 지방군정부로 이양되었다.²⁰⁾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정치·행정기능을 군사위원회와 지방군정부가 장악하게 한 조치였다.

그러나 전시체제로의 전환 조치는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27일 발표된 「전시상태에 관하여」의 적용대상은 전선 인근의 강원도와 황해도에 한정되었다.²¹⁾ 전선 후방지역에 대해서는 평시와 같이 인민위원회가 주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후방지역까지 동원되는 총력전과 장기전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조치였다.

동원령이 전시상태 선포와 함께 이루어지지 않고 7월 1일에야 선포된 것도 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6월 29일과 30일 사이에

19) 徐鏞瑄, 『韓國戰爭時 占領政策 研究』, 國防軍史研究所 編, 『韓國戰爭 研究: 占領政策·勞務運用·動員』, 國防軍事研究所, 1995, 43쪽.
 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군사위원회 조직에 관하여(1950. 6. 26)』, 『조선중앙년감: 1952~52년판』, 조선중앙통신사, 1952, 82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전시상태선포에 관하여』(1950.6.27), 『조선중앙년감: 1952~52년판』, 82~83쪽.
 21)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446쪽.

미국의 참전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29일에는 미 공군의 북한지역 폭격이 시작되고, 30일에는 지상군의 파병이 결정되었다. 김일성은 미 공군의 폭격이 시작되자마자 전쟁이 난관이 처했음을 인지했다. 더 이상 속전속결을 낙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장기전이 될지도 모를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적·물적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취해진 조치가 7월 1일의 동원령 선포였다. 이에 따라 북한지역에서 1914년부터 1932년 사이에 출생한 인민들은 전부 동원대상이 되었다.²²⁾ 징병제로의 전환이었다. 그리고 같은 날 군사위원회는 남한 점령지역에서의 ‘인민의용군’ 조직을 결정하였다.²³⁾

다음 조치로 북한 지도부는 1950년 3/4분기 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였다. 이것은 1949~50년 2개년 계획을 수정, 분기별 계획으로 전환한 것이었다. 새로 채택된 계획에는 병기공장의 생산규모 확대, 국영공업기업소의 군수산업 전환, 군수공업에 대한 원료·자재의 우선적 보장과 같은 내용이 반영되었다.²⁴⁾ 이에 따라 산업성은 7월 7일부터 군용 무기와 장비 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하여, 7월 10일 이후에는 34개 기업이 공병장비의 생산을 시작하였다.²⁵⁾ 한 달 간의 전쟁을 상정한 기존 계획대로라면 위와 같은 조치는 필요 없는 것이었다. 반대로 장기전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었다면 7월어야 전시 생산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리가 없었다. 따라서 1950년 3/4분기 인민경제계획 채택과 전시 생산으로의 전환은 전쟁 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참전으로 정세가 급변하자 다급하게 준비된 대책이었다.

22) 슈티코프가 핀시(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할 데에 관하여(1950.7.1.)』,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82~83쪽.

23) 김일성, 『인민의용군을 조직할 데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한 결론(1950.7.1.)』, 『김일성 전집 12권, 76쪽.』

24) 허중호,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1』, 130쪽.

25)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일자불명)』(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続)』,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1頁).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미군과의 대결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추가 군수품의 확보는 시급한 문제였다. 필요한 무기와 장비를 즉시 확보하려면 역시 소련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조급해진 김일성은 무기 제공 요청을 남발했다. 김일성은 7월 1일 스탈린에게서 탄약과 군수품의 추가 공급 허가를 받아낸 데 이어²⁶⁾, 3일에는 미군 공수부대가 배후에 상륙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무기와 장비의 공급을 요청했다.²⁷⁾ 이것은 2개 보병사단과 육전대 12개 대대, 그리고 내무경비대의 추가 편성을 위한 것으로, 소총 5만 정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양이었다. 또 같은 날 김일성은 예비연대와 2개 전차여단의 편성에 착수했다고 하면서 이에 필요한 무기와 전차도 요구했다. 스탈린은 위 요청 대부분을 수락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예기치 않은 미 공군의 공습에 북한지도부가 공황에 빠지지 않는지 걱정했다.²⁸⁾

전쟁개시 직후 김일성과 스탈린이 인민군의 대규모 증편을 꾀한 사실은 미군 참전이라는 변수가 이들의 전쟁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예상치 못한 미군의 참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규모의 추가 지원 없이는 전환을 낙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애초에 준비한 전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계획에서 가능한 국내외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장기전에 대비하는 총력전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이제 군비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한 채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을 다급하게 시작하고 있었다.

26)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9쪽).

27)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70쪽).

28) 핀시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67~68쪽); 핀시가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7월 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73쪽).

3. 전시생산 기반의 붕괴와 산업 소개의 실패

미군의 참전은 조기 종전의 전망만 어둡게 한 것이 아니었다. 한국전쟁에 투입된 미 공군은 수송망에 대한 차단작전과 산업시설에 대한 전략 폭격을 통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파괴하고자 했다. 미 공군은 6월 29일 평양 폭격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원산·흥남·함흥·청진·라진·성진과 같은 주요 산업지대에 대한 공중폭격을 감행했다.²⁹⁾ 이들 대도시에 대한 미 공군의 대규모 폭격은 특히 7~8월에 집중되었다. 미 공군은 7월 13일 정유공장이 위치한 원산을 폭격한 데 이어, 7월 30일부터 3일간 흥남 공업지구, 8월 7일 평양의 65호공장, 8월 27일과 28일에는 검이포와 성진의 제철소를 폭격하였다. 해당지역을 초토화하는 방식의 대규모 폭격이 계속된 결과, 9월 15일 극동공군사령관 스트레이트메이어는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북한의 군수산업 목표는 실질적으로 무력화되었다고 선언했다.³⁰⁾

그렇다면 스트레이트메이어의 주장처럼 북한의 산업시설은 완전히 무력화되었을까? 이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미군에 의해 작성된 추정치와 북한의 공식 발표자료를 토대로 북한 산업시설의 피해를 검토하였었다.³¹⁾ 그러나 이를 통해 피해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미군 측 자료는 폭격 후 사진 분석에 의한 추정치이며 북한 측의 자료는 개별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만 전체 통계는 생략하고 있기 때문이다.³²⁾

29)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8, 70~71쪽.

30) 미 극동공군이 공격목표로 인식한 평양병기창은 39°00'N-125°44'E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처음 65호공장이 위치했던 평양시 평천리와 일치한다.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96~115쪽;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작』, 15쪽.

31) 이신철, 『전쟁피해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의 변화』, 『역사문제연구』 6, 역사문제연구소, 2001;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중폭격에 관한 연구』; 김태우, 『한국전쟁 초기 미 공군의 북한지역 공중폭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32) 미군 측의 자료는 미 공군역사연구소(AFHRA)에 소장된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 작전명령서(FEAF Bomber Command Operations Order)』와 『극동공군 폭격기사령부요람

이와 관련하여 소련 측이 작성한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산업과 운송의 손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주목된다.³³⁾ 이 자료는 북한 주재 소련대사관 참사 펠리센코가 본국 외무성에 보고한 것으로, 미 공군의 폭격이 북한의 산업과 운송에 준 피해와 복구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950년 9월에 작성된 이 보고에 따르면 산업성 산하의 국영기업 중 파괴된 것은 76개 기업으로, 황해제철소·남포제련소·홍남화학비료공장·홍남화학공장·65호공장과 같은 주요 군수공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교통성 산하의 기업 중에서는 평양기관차수리공장 등 4개소가 파괴되었고, 상업성 산하의 기업과 시설물은 14개 기업소·58개 상점·21개 창고가 완파, 9개 기업소·43개 상점·6개 창고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었다. 특히 군수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기계공업은 평양·홍남·남포를 비롯한 총 11개 공장이 완파 또는 대파되어, 총 16억 2천만 원에 상당하는 손실을 입었다. 슈티코프는 보고서에서 7~8월 동안 북한의 산업은 약 80%가 파괴되었고, 그 결과 8월의 생산수준은 전쟁 전의 25%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평가했다.³⁴⁾

흥미로운 사실은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폭격 피해를 면치 못했지만, 65호 공장은 피해를 거의 받지 않고 중요한 설비와 원재료 및 인력을 이전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설 새 없는 폭격 속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산업상 정일룡의 언급으로 미루어보아 공장의 이전은 평양 폭격이 있었던 6월 29일경이었다고 생각된다. 공장이 이전된 장소는 원위치에서 약 80km 떨어진 평북 성천군 군자리의 남·주석광산 갭도였다. 갭도로

(FEAF Bomber Command Digest)』을 들 수 있다. 김태우의 연구에서 이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된 바 있다. 김태우, 『한국전쟁기 미 공군의 공습폭격에 관한 연구』.

북한 측의 자료는 다음을 들 수 있다. National Archives, Record Group 242, Shipping Advice 2011, Box 9, Item 25.5, 조국전선조사위원회 보도,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의 죄악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1951; 고상진,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미제의 만행』, 사회과학출판사, 1989.

33)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송의 손해(1950년 9월)」,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国際政経論集』, 72号).

34)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송의 손해(1950년 9월)」, (木村光彦, 『朝鮮戦争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国際政経論集』, 72号, 128頁)

이전한 것은 시설의 보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당시 그곳은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합숙소·변전소·사무소·노동자문화회관 등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이는 65호공장의 이전이 전쟁발발 전에 미리 예정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사실은 이 공장이 확장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정일룡은 공장의 이전 후 생산량이 이전보다 약 1.5배 증가했다고 평가했다. 이후 공장에서는 대전차 수류탄·기관총·박격포 등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65호공장은 폭격에 대비해 소개된 것이 아니라 확장 이전하여, 당시 북한에서 유일한 대규모 종합 병기공장으로 탈바꿈한 것이다.³⁵⁾

그런데 정일룡은 1950년도 산업생산을 총결하면서 6~9월에 이르는 시기까지 65호공장 외에 다른 공장의 이전·소개 사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65호공장을 제외하면 미 공군의 폭격에 대응한 소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정일룡은 이 기간 동안 군수산업으로의 전환이 완만하고 불확실했으며, 공장의 이전작업이 정확히 진행되지 않았고, 극심한 폭격의 결과 군수품의 생산이 중단된 곳이 많았다고 평가했다.³⁶⁾

종합해보면 1950년 6월에서 9월까지 이루어진 미 공군의 전략폭격에 의해 북한의 전시생산은 전반적으로 마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5호공장만이 적시에 이전을 완료하여 오히려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다만 65호공장의 이전은 미 공군의 폭격에 대비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설비 확장을 위해 이미 전쟁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이는 북한 지도부가 미 공군의 폭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수립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각 산업시설에서 적시에 집행되지 못했음을

35)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정』 쪽; V. 이바넨코 · A. 쉘자킨, 「제65공장」(木村光彦, 「1945~50年の北朝鮮産業資料(3)」, 『靑山國際政經論集』 52号, 162頁);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2頁).

36)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3頁).

의미한다. 이러한 실패는 아마도 개전 직후 평시생산에서 전시생산으로의 전환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채 조급하게 이루어진 것과 관련이 깊을 것이다.

예기치 못한 폭격 피해로 후방이 혼란에 빠져 있는 동안 낙동강전선의 상황도 갈수록 악화되어가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여 낙동강전선의 부대들이 포위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김일성은 이들을 신속히 서울 인근으로 퇴각시킴과 동시에, 남북한지역에서 신규 사단을 편성하여 유엔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자 했다.³⁷⁾ 그러나 아직 철수하지 못한 1·2군단과의 통신은 두절된 상태였고, 남한지역에서의 신규 사단 편성은 중단되었다. 북한지역에서 새로 편성된 부대들은 수송 수단의 부족으로 전선을 향해 매우 느리게 이동하고 있었다.³⁸⁾ 조직적인 후퇴가 이루어지지 않음은 물론 지연작전을 위한 예비병력 또한 적시에 준비되지 못한 것이다. 결국 서울 함락 직전인 9월 27일, 38선 방어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김일성은 북한지역의 각 기관·공장·기업소와 전략물자에 대한 소개를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³⁹⁾

각 기관과 기업소에 언제 소개 지시가 하달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9월 27일에 김일성의 최초 지시가 나왔지만 즉시 소개 준비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평양에서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정부기관과 외교단의 소개를 진행하여, 그 대부분은 임시수도인 강계로 이동했다. 김일성과 박헌영을 비롯한 수뇌부는 12일에 빠져나갔다. 슈티코프에 따르면 정부기관의 소개는 비계획적·비조직적으로 매우 성급하게 진행되었다. 사실상 소개 계획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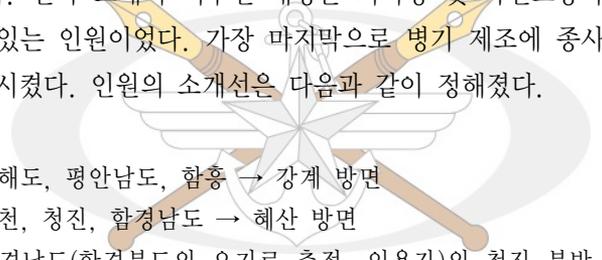
37) 김일성, 「급변하는 군사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업: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연설」(1950.9.17), 『김일성전집 12권, 309쪽.

38)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4~145쪽); 마트베예프(자하로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9쪽); 슈티코프가 핀시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30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57쪽).

39) 김일성, 「일시적인 전략적 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 도당위원장협의회에서 한 연설(1950.9.27)」, 『김일성전집 12권, 328~329쪽.

였다고 한다. 중앙정부기관의 소개임에도 차량이 충분치 않아 일부는 강계까지 400km에 달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하기도 했다.⁴⁰⁾ 특이한 것은 북조선중앙은행만 평양이 함락되는 19일 저녁까지 지폐와 증서의 발행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확인되지 않는다. 철수가 늦었던 관계로 중앙은행은 만포까지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 2억 6천 7백여만 원의 막대한 손실을 내었다.⁴¹⁾ 중앙은행을 제외한 정부기관들은 유엔군과 국군이 당도하기 전에 일찌감치 평양을 떠났기 때문에 소개는 비교적 큰 손실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산업성은 10월 9일부터 소개의 조직화를 시작하여 소개의 지도를 위한 12명의 인원을 단천·홍남·청진·해주·검이포·남포·강선·평양 등에 파견하였다. 인력 소개의 최우선 대상은 기사장 및 숙련노동자와 동요할 가능성이 있는 인원이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병기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소개시켰다. 인원의 소개선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 ① 황해도, 평안남도, 함흥 → 강계 방면
 - ② 단천, 청진, 함경남도 → 혜산 방면
 - ③ 함경남도(함경북도의 오기로 추정—인용자)의 청진 북방 → 무산 방면⁴²⁾

병기 제조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장 마지막에 소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만큼 이들의 충성심이 다른 노동자들에 비해 높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소개 과정에서 가장 모범적이었다고 평가받은 곳이 65호 공장이었다. 65호공장은 국군 6사단에 의해 성천군이 점령되기 전날인 10월 18일까지 병기 생산을 계속하다가 다음날 새벽 3시에야 성천군을

40)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0월 13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79쪽).
 41) V.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6頁).
 42)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5頁).

빠져나갔다.⁴³⁾ 이후 65호공장은 860명의 인력과 중요서류·설계도 및 공장 설비와 함께 자강도 장강군으로 이전하여 생산을 계속했다. 성공적인 소개 작업의 결과 65호공장 노동자들은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감사편지까지 받았다고 한다.⁴⁴⁾



<그림 1> 1950년 10월 9일 이후 산업성의 소개 계획

이 외에도 흥남화학비료공장, 청진제철소, 청진제강소, 남포제련소, 원산 철도공장, 평양곡산공장, 길주팔프공장, 문평제련소, 운곡·가은·천동·검덕·락연광산 등이 성공적인 소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들 공장의 생산품은 무기·화약·철강·비철금속·열차(수리)·식료품 등으로 모두 전쟁 수행에 필수불가결한 전략물자들이었다. 성공적으로 소개된 공장들 대다수가

43)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5頁).

44) 고청송, 『김정일의 비밀살상무기공정』 28쪽. 마지막까지 남아 생산을 계속하던 이들은 20명의 결사대였다. 국군이 코앞에 다다를 때까지 생산을 계속한 이유는 제2전선을 펼 예정인 인민군부대에 공급할 700정의 무기를 생산하라는 긴급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근로단체출판사 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조국해방전쟁시기편)], 근로단체출판사, 1977, 17~18쪽;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사회과학출판사, 1983, 90~91쪽.

전략물자를 생산했다는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이들의 소개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했음을 보여준다. 산업의 전반적인 파괴 속에서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 공장들의 보전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런데 전후 북한에서 영웅적 투쟁으로 선전된 소개 사례를 살펴보면, 위 공장들의 경험담만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0년 10월의 생산시설 소개를 언급하고 있는 4편의 자료를 비교해보자.⁴⁵⁾ 흥남화학비료공장은 정일룡의 연설과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에 언급되고 있고, 청진제철소와 청진제강소, 원산철도공장, 길주팔프공장은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와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에서 반복 서술되고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65호공장과 평양곡산공장의 사례로, 3편의 자료에서 다루어졌다. 특히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는 모철도공장과 모차량공장(현 6월4일공장)의 사례를 각각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원산철도공장이라는 하나의 사례를 둘로 나누어 서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사례를 마치 별개 사례인 것만양 서술할 정도로 성공적 소개 사례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 자료에서 다른 모범 사례들이 중복되는 것은 그 외 다른 공장들의 소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정일룡은 10월의 산업 소개 과정에 많은 결점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성의 몇몇 지도적 노동자와 기업의 많은 지도자는 전쟁의 제2계단(일시적 후퇴 시기—인용자)에서 상황의 변화에 경악하여 기초설비, 원재료, 인재, 서류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중략)...어떤 지도적 노동자는 귀중한 생산설비를 감추지도 이전하지도 않고 공황에 빠져 그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⁴⁶⁾

45)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靑山國際政經論集』 58号); 근로단체출판사 편,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 조국해방전쟁시기 로동자들의 투쟁』, 근로단체출판사, 1968; 근로단체출판사 편,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 강석희,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사 2』.

46) 정일룡, 「전쟁시기 1950년의 산업과업 총결과 1951년에 있어서 산업의 재건과 발전에

남포변전소, 검덕광산, 사리원·신천탄광, 평양화학공장, 흥남제련소에서는 소개사업이 제대로 조직되지 못한 결과 설비와 자재를 망실했다. 순천화학공장과 성흥 및 강동광산의 지배인은 기업소를 버리고 혼자 도주했다. 평양고무공장·평양제2양말공장·신의주제지공장의 지배인 또는 회계간부는 공장자금을 횡령하여 도주하기도 했다. 특히 평양제2양말공장의 지배인은 노동자들에게 공장자금을 분배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소유했는데, 이는 전쟁이 북한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었다.⁴⁷⁾ 몇몇 중요 공장을 제외한 많은 공장·기업소에서는 후퇴 시기에 극심한 혼란과 공황을 겪으면서 소개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소개에 성공한 경우도 복귀 후 생산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 소개 과정에서는 이동이 여의치 않은 기계와 설비가 많았고, 수송수단은 부족했으며, 후퇴는 화급을 다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한 상황에서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기계와 설비를 은밀히 매몰하고 후퇴했는데, 돌아온 후 파내보면 다 망가져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또 권양차(捲揚車)까지 동원해 험준한 개마고원을 넘는 과정에서 기계가 파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⁴⁸⁾

요컨대 북한 지도부는 후퇴 과정에서 전략적 중요산업의 소개를 우선시하여 전시생산을 지속하고자 했다. 몇몇 공장들은 성공적으로 소개되었지만 대다수 공장의 간부와 종업원들은 혼란에 빠져 소개 작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소개시키거나 매몰한 기계와 설비들은 파손되거나 마모되어 쓸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그 결과 후퇴에서 돌아온 뒤 생산규모는 전전의 10% 수준으로 떨어져, 산업성은 1951년 1/4분기 광공업의 생산규모를 총 5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었다.⁴⁹⁾ 후퇴

관한 긴급한 과제」(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統)』, 『青山國際政經論集』 58号, 219頁).

47) 위의 자료.

48) 근로단체출판사 편, 『영광스런 혁명의 길에서』, 201~202, 253, 286~291쪽.

49) 1950년 1/4분기 생산액은 50억 원이었다.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직전인 9월의 생산수준이 전전의 약 25%였음을 감안하면 소개 과정에서 후퇴 전에 비해 60% 가량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⁵⁰⁾ 그나마 전쟁 전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부문은 1억 원의 생산을 계획한 병기공업뿐이었다. 결국 1950년 10월 산업시설의 소개 성과는 65호공장을 비롯한 몇몇 중요공장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산업시설의 소개 작업이 전반적으로 실패한 결과 북한의 생산기반은 철저히 파괴되었다. 총 5억원을 예상한 1951년 1/4분기 광공업의 예상 생산규모는 1950년 북한의 전체 국가예산이 267억 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유의미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 1951년 초에 이르러 북한의 생산기반은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준으로 파괴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소개 과정에서 북한 지도부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산업시설을 우선적으로 보전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재 생산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보아도 좋았다. 이처럼 국가경제 자체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는 군수지원뿐만 아니라 인민경제의 유지를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은 군수지원을 매개로 북한과 소련 사이에 형성된 의존관계와는 별개의, 새로운 의존관계가 만들어질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4. 지원에 소극적인 소련과 적극적인 중국

북한의 전쟁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소련의 군비 원조는 전쟁 중에도 계속 이어졌다. 이전부터 무기와 탄약을 계속 공급하고 있던 소련은 인천상륙작전으로 서울이 위태로워지자 북한지역에서 예비부대로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2~233頁).

50) 펠리센코, 「미군의 공습 결과 발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업과 운수의 손해」, 1950년 9월(木村光彦, 「朝鮮戰爭中の北朝鮮にかんする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72号).

편성된 6개 사단 분의 무기와 3,400대의 차량을 추가로 제공했다.⁵¹⁾ 1951년 6월 전선이 교착되고 방어작전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소련은 또 다시 대량의 무기를 북한에 지원했다. 소총 2만 5천 정, 각종 기관총 7,025정, 대전차총 500정, 박격포 825문이 여기에 포함되었다.⁵²⁾ 소련이 북한에 제공한 군수품의 액수는 1950년 한 해에만 8억 7,000만 루블(1,392억 원)에 달했다.⁵³⁾ 65호공장의 1950년 상반기 생산액이 1억 5,900만 원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막대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일성은 1950년 11월에 열린 조중 군 지휘관회의에서 인민군은 소련의 도움으로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되었고 소련은 거절한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슈티코프 또한 소련이 인민군에게 탄약과 무기를 전혀 부족함 없이 지원했음을 강조하면서 다만 인민군의 조직력이 미비하여 많은 무기를 망실했다고 지적하였다.⁵⁴⁾ 그의 지적은 원조 공여국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지만, 당시의 김일성으로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중국에 대한 군비 원조 규모는 이보다도 방대했다. 소련은 1950년 총 2억 3,750만 루블의 군수품을 차관과 무역의 형태로 공급했다. 1951년 2월에는 12억 3,500만 루블 규모의 중소군사차관협정을 체결하고, 9월에는 6억 루블의 추가 차관의 제공을 약속했다.⁵⁵⁾ 휴전회담이

51) 마트베예프가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48~149쪽; 박종효, 『러시아 외무성 대한 정책 자료 I』, 414~415쪽); 창푸(불가닌)이 마트베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9월 30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55쪽; 예페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전말』, 97쪽).

52) 필리포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5월 2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3쪽;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59).

53) Sergei Goncharov · John Lewis · Litai Xue, *Uncertain Partners*, p.147.

54)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2·207쪽).

55) 바실리예프스키와 멘슈코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보고서, 1951년 1월 1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42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91쪽);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533쪽.

시작되기 전인 6월까지 스탈린은 마오쩌둥의 군수물자 제공 요구를 거의 만족시켰다. 스탈린이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중국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중국도 북한과 마찬가지로 전쟁을 감당할 경제력이 충분치 못했기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1951년 1/4분기에 필요한 탄약은 14,100톤이었는데, 중국이 생산할 수 있는 양은 겨우 1,500톤에 불과했다. 당시 중국에 탄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나라는 소련뿐이었다.⁵⁶⁾

그러나 6월 말이 되자 스탈린은 60개 사단 분의 무기를 제공해달라는 마오쩌둥의 요구에 그해 안으로 10개 사단 분 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나머지 50개 사단에 대한 무기 공급은 1954년 상반기에나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⁵⁷⁾ 스탈린은 그 요구가 소련의 생산능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마오쩌둥도 이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공급기일을 준수하라는 마오쩌둥의 완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탈린은 1951년 중에 공급하기로 한 10개 사단 분의 무기 중 6개 사단 분의 제공을 반 년 지연시켰다. 9월 새로이 6억 루블의 추가차관 제공이 합의됨에 따라 그 1951년 제공분인 1억 9천만 루블에 상당하는 군수품 제공의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었다.⁵⁸⁾ 결과적으로 스탈린은 제공 기한과 총액만 늘렸을 뿐 당장의 지원규모는 확대하지 않았다. 마오쩌둥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무기는 받지도 못하고 빗만 늘어나는 셈이었다.

스탈린의 이와 같은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56)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2010, 322쪽.

57)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1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2);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5~256쪽).

58)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30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4);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0일(에프게니 바자노프·나탈리아 바자노바, 『소련의 자료로 본 한국전쟁의 집말』, 172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9월 26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91쪽); 필리포프가 마오쩌둥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0월 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9쪽).

있다. 첫째, 스탈린의 해명대로 중국과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군수생산이 소련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둘째, 그에게 중국군의 현대화는 그다지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셋째, 이때 그는 미군 병력을 한반도에 묶어 두면서 지속된 분쟁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자칫 전선을 확대시킬 수 있는 중국에 대한 대규모 지원은 불필요했을 것이다.⁵⁹⁾

이들 중 스탈린이 중국에 대한 지원에 소극적이게 된 실제 이유는 두 번째와 세 번째일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 소련의 총세출 중 군사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1950년 18.6%, '51년 21.4%, '52년에는 23.9%로 상당한 성장세를 보였다. 소련군의 총병력 또한 1948년 287만 4,000명에서 1955년에는 576만 3,00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⁶⁰⁾ 이와 같은 소련의 군사력 증강은 1949년 창설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다. 이 시기 소련의 유럽 중시 전략을 심분 감안하더라도, 동아시아에서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군비지출의 우선순위는 명확한 것이었다. 따라서 군비지원의 여력이 없다고 하는 스탈린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스탈린의 해명이 거짓이거나 과장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의 근거는 앞서 살펴본 60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이 주고받은 전문을 살펴보면 소련 측 실무자와 스탈린 사이의 묘한 불일치가 발견된다. 6월 21일 무기 제공에 관한 양 측 군 참모장 쉬샹치엔(徐向前)과 슈테멘코의 사전 협상에서 슈테멘코는

59)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 선즈화가 첫 번째, 이종석이 두 번째, 기광서와 웨더스비는 무기 제공 협상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세 번째 이유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중심, 2000, 178-179쪽;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호, 군사편찬연구소, 2007, 105쪽; 캐스린 웨더스비·강규형, 『북-중-소 삼각관계가 6·25전쟁 과정과 전후 북한외교 행태에 미친 영향: 기밀해제문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3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135쪽;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26쪽.

60) 소련의 군사비 지출액은 1950년 794억 루블에서 1952년 1조 138억 루블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소련군의 병력 증가폭은 1952년이 가장 컸던 것으로 보인다. 1955년부터는 소련군이 대규모 개혁에 착수함에 따라 병력감축이 진행되었다. 알렉 노브 저, 김남섭 역, 『소련경제사, 창작과 비평사, 1998, 359쪽.

1951년 중 10개 사단이 아닌 16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⁶¹⁾ 그런데 스탈린은 실무자들의 의견임을 내세우며 10개 사단 분의 무기를 제공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답변을 보냈다. 두 사람의 견해 중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답변은 아마도 슈테멘코 쪽일 것이다. 스탈린이 지원 가능한 규모를 축소해 답변한 것은 어떤 정치적 판단의 결과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는 중국과 마오쩌둥에 대한 스탈린의 뿌리 깊은 불신과 연관된다. 과거 스탈린은 마오쩌둥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그가 중국의 ‘티토’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⁶²⁾ 비록 마오쩌둥의 한국전쟁 참전 결정이 그와 중국에 대한 스탈린의 인식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는 하지만, 의구심을 완전히 풀었던 것 같지는 않다. 1952년 후반에 소련은 전문가를 중국에 파견해 무기 생산을 위한 설계도면을 제공했는데 이것은 모두 본국에서 생산이 중단된 무기의 도면이었다. 마찬가지로 전쟁기간 동안 소련이 중국에 제공한 무기와 장비는 대체로 중고품이거나 구형이었다.⁶³⁾ 스탈린은 표면적으로나마 중국군이 현대화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소련과 대등한 수준의 무장을 갖추는 것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스탈린은 중국군의 역할이 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무장을 갖추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951년 6월 이후 소련은 북한의 무기지원 요청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앞서 언급한 1951년 6월의 무기 제공은 김일성이 신청한 수량에서

61) 이종석은 서울신문에 연재되었던 「모스크바 새증언」 시리즈를 근거로 16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북한 지도부에게서 나온 것으로 쓰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쉬상치옌은 모스크바에서 소련군 참모부 대표, 즉 총참모장인 슈테멘코와 협상한 후 마오쩌둥에게 그 내용을 전달했다. 16개 사단 분 무기 제공에 대한 언급은 슈테멘코에게서 나온 것이다. 다음을 참고하라.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6월 21일 (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62); 이종석, 『북한-중국관계 1945-2000』, 178쪽; 『6·25내막/모스크바 새증언 20』, 『서울신문』, 1995년 6월 27일.

62)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11쪽.

63)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328쪽.

삭감된 채로 공급되었다.⁶⁴⁾ 한참이 지난 뒤인 같은 해 10월,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3개 보병사단 분의 무기 제공을 요청했지만 스탈린은 그 책임을 중국 측에 떠넘겨버렸다. 소련이 중국에 제공하기로 한 60개 사단 분의 무기에서 분배받으라는 것이었다. 소련으로부터 무기를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구차한 내용의 전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실제 소련으로부터 4개 사단 분의 무기 밖에 수령하지 못한 마오쩌둥에게서는 당장 분배해 주기가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올 뿐이었다. 결국 김일성은 1951년 10월에 요청한 무기를 다음 해 7월에야 수령할 수 있었다.⁶⁵⁾

이렇듯 스탈린은 휴전회담 기간 내내 공산 측의 우위가 확보되지 않은 휴전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기 제공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1951년 초까지 스탈린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대량의 무기 제공을 아끼지 않았던 것과 크게 대비된다. 그는 전선 교착 이전까지는 휴전회담을 고려해 정치적으로 유리한 위치, 즉 서울과 인천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⁶⁶⁾ 그러나 1951년 마오쩌둥·김일성과 함께 휴전 방침을 확정하게 된 즈음부터는 미군을 계속 소모시키되, 전선을 동요시키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최소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스탈린의 이러한 방침은 미 공군의 폭격에 시달리며 조기 정전을 희망하던 김일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휴전회담이 장기화되자 김일성은 스탈린에게 미 공군에 대항할 고사포와 비행기 지원을 희망하면서 “휴전협정 체결, 교전 중지, 제네바협정에 의거한 포로교환 등을

64) 필리포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5월 29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53쪽).

65) 라주바예프가 바실리에프스키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0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0쪽); 마트베예프가 라주바예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3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4쪽); 라주바예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5쪽); 라주바예프가 슈테멘코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2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66쪽); 필리포프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24일(박종효, 『러시아 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1』, 595~596쪽).

66) 楊奎松, 『중국군의 정전협상전략』, 『한국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1』, 533쪽.

위해 가능한 한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을 요청하였다.⁶⁷⁾ 그러나 스탈린은 이에 대한 답변에서 무기 지원에 관한 사항만 언급할 뿐 조속한 휴전협정 체결에 관한 요청은 무시해버렸다.⁶⁸⁾ 앞서 1951년 10월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3개 사단 분의 무기 제공을 요청했을 때의 에피소드만 생각해 보더라도 전쟁기간 동안 그가 스탈린에게서 느꼈을 굴욕감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다만 당시로서 절대적이던 스탈린의 권위와 전략 결정에서 거의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김일성의 입지로 인해 김일성은 그와 같은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

반면 개전초기 북한에 대한 별다른 지원이 없던 중국은 참전을 결정하면서부터 적극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지원은 인민지원군의 참전과 같은 군사분야를 비롯하여 경제·인력 지원 그리고 후방기지 제공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졌다. 물론 그 중에서도 북한의 전쟁수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군사적 지원이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중국 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 19일 4개군과 3개 포병사단이 조·중 국경을 넘는 이래, 많을 때는 130만 명의 병력이 한반도에 들어와 인민군과 함께 싸웠다. 전쟁기간을 통틀어 사상자만도 50만 명에 달했다.⁶⁹⁾

중국의 군사적 지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군사 외 분야의 지원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소련의 무기와 중국의 병력 지원만 가지고서는 북한이 어떻게 1950년 10월의 후퇴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일례로 1950년 10월 작전 가능한 부대가 3개 사단에 불과했던 인민군의 전력은 11월 14일 현재 총 8개 군단, 병력수는 25~27만 명에 이르렀다.⁷⁰⁾ 영토 대부분을

67)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16일(박종효, 『러시아연방 외무성 대한정책 자료 I』, 591쪽; 기광서, 「한국전 개입에 나타난 스탈린의 역할 실상」, 『軍史』 63호, 107쪽).

68) 필리포프가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 1952년 7월 24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70쪽).

69) 洪學智 저, 홍인표 역, 『중국이 본 한국전쟁』, 고려원, 1992, 47쪽; 楊奎松, 「중국의 한국전 출병 시말」, 『한국전쟁과 중국』, 백산서당, 2001, 321~328쪽.

70) 소련군 총참모부 작전총국의 조사보고, 「1950년 11월 14일 현재 조선인민군 부대들의

상실한 상황에서 인민군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이처럼 급속한 재건을 이루었는지는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시기 북한의 국가경제와 인민생활이 어떻게 유지되었는지, 병력 유지에 소요되는 무기와 탄약 이외의 군수물자가 어떻게 확보·수송되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대부분 중국의 지원에 힘입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중국은 만주를 인민군의 재편 및 훈련, 그리고 민간인의 피난을 위한 후방기지로 제공했다. 1950년 10월 북한 지도부는 예비 병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6, 7, 8군단 사령부 예하에 9개 보병사단과 특수부대를 창설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합의에 의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재편과 훈련을 위해 만주로 이동했다. 6군단은 관톈(寬甸), 7군단은 하이룡(海龍), 8군단은 연지(延吉), 강건군관학교와 보병학교 등은 통화(通化) 지역으로 각각 배치되었다. 그 숫자는 각종 군사학교를 포함해 약 11만 5천여 명에 달했다.⁷¹⁾ 만주에서 재편과 훈련을 거친 이들은 1951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안주(6군단)와 곡산(7군단), 함흥(8군단) 지역에 각각 배치되어 작전을 수행하였다.⁷²⁾

1950년 10월의 후퇴 시에는 인민군 외에도 각 기관의 요직자 가족 5만 6천 명 이상, 그리고 일부 지방 정권기관과 학교, 광공업 기업 또한 만주로 소개되었다.⁷³⁾ 예컨대 허가이의 가족들은 하얼빈에서, 김두봉의 딸과 조카딸은 무단장(牡丹江)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로동신문사

전력상황에 대하여, 1950년 11월 2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97쪽).

7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59쪽; 슈티코프가 자하로프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0월 31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562~563쪽).

7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 『소련 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2』, 71~72쪽;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월 27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56).

73)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1頁);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5쪽).

에서 일하던 성혜량도 동생과 함께 무단장에 머물며 소개공민 중학에서 공부했다.⁷⁴⁾

만주로 소개된 인민군과 민간인을 합하면 적어도 17만 명 이상이었다. 기관 요직자 가족 5만 6천 명 이외의 민간인 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소개된 인원은 훨씬 많았을 것이다. 마오쩌둥은 동북군구 주석 까오강(高岡)에게 만주에 있는 인민군의 식량과 의복, 숙소를 보장해주라고 지시했다.⁷⁵⁾ 만주에 주둔한 인민군의 생활에 소요되는 물자와 경비는 중국 측에서 부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민군 외에도 많은 수의 자국 공민이 외국 령에 소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에 소요되는 경비는 북한 측이 지출해야만 했다. 또 생산기반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 영내에서 소요되는 상품도 중국에서 구입했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거액의 동북중국 위안(元)⁷⁶⁾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정식 통화·금융관계가 수립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 원과 동북중국 위안 사이에는 자연발생적인 환율만이 존재했다. 1950년 10월에 와서야 북한 재정성에 의해 동북중국 400위안 대 북한 1원의 임시환율이 설정되었다. 1951년 4월 동북중국 위안이 베이징인민은행 위안과 교환된 이후에는 베이징인민은행 42.1위안에 대해 북한 1원의 환율로 교환업무가 이루어졌다.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계획은 1950년 11월 말에 가서야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의해 1950년 4/4분기~1951년 2/4분기에 북한은 실제로 총 3,561억 위안(84억 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더해 1951년 3/4분기에는 590억 위안(14억 원)의 추가 지출을 예정하였다. 1950년 4/4분기에서 1951년 3/4분기까지 중국에서 지출한 금액은 도합 약 101억 원이었다.

74) 박명림, 『한국 1950: 전쟁과 평화』남출판, 2002, 542쪽; 성혜량, 『동나무집, 지식 나라, 2000, 219~221쪽.

75) 슈티코프가 그로미코에게 보낸 전문, 1950년 11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06쪽).

76)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 아직 중국에는 단일통화가 확립되지 않고 있었다. 중국 동북지역에서는 동북중국 위안이 통용되다가 1951년 4월부터 베이징인민은행 위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3,807억 위안(90억 원)을 제공했다. 이것은 1949년 북한 국가예산의 절반에 상당하는 액수였다.⁷⁷⁾ 중국은 만주에 소개된 인민군의 생활을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의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 또한 차관으로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전쟁 중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경제지원의 일부일 뿐이었다. 1951년 3월부터 북한 내각 상업상 장시우는 베이징에서 새로운 차관의 도입에 관한 교섭을 시작했다. 그 결과 중국 정부는 북한 정부에 7,000억 위안(166억 원)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중국은 2/4분기 중에 5,620억 위안(133억 원)을 상품 형태로 공급하고, 나머지 1,380억 위안(33억 원)은 중국 영내에서 상품의 수송비와 북한 정부의 예비비로 할당하였다. 중국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상품의 주요 항목은 제복 30만 벌, 속옷 60만 벌, 면포 2,000만m, 면 1,000톤, 신문 용지 1,000톤, 곡물 4만 톤, 의약품 및 수공업기구 등이었다.⁷⁸⁾ 주로 의복과 식량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북한 정부가 일시적 후퇴로 피폐해진 인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물자제공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1950년 10월의 후퇴 시기부터 51년 6월까지 중국 정부가 북한 정부에 제공한 차관은 도합 1조 807억 위안(257억 원)에 달했다. 이것은 전쟁 전에 계획한 1950년 북한 전체 예산 267억 원과 거의 맞먹는 액수였다.⁷⁹⁾ 1952년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조는 더욱 늘어났다. 1952년 1월, 장시우는 다시 베이징을 방문해 1951년과 같은 규모인 7,000억 위안의 차관 제공을 약속받았다. 또 같은 해 말 중국은 1953년부터 3년간 매년 6천만 달러(2억 4천만 루블)에 상당하는 물품을 무상 공급하기로 결정하였다.⁸⁰⁾ 그렇지만 53년 7월에 휴전협정이 조인됨에

77)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0~242頁).

78)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통화·금융관계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青山國際政經論集』 57号, 242頁).

79) 『조선중앙년감: 1951~52년판』, 79쪽.

80) 마오쩌둥이 펠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76);

따라 1954년부터는 새로운 협정에 의해 원조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기간 동안 중국이 북한에 유·무상으로 제공한 차관의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전쟁 시기 중국의 대북한 원조액(상품·현금)

제공 시기	무상 원조	차 관	비 고
1950년 말		3,807억 위안 (5,600만 루블)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
1951년 상반기		7,000억 위안(1억 루블)	1951년 3월 차관협정
1952년		7,000억 위안(1억 루블)	1952년 1월 차관협정
1953년	1조 6,800억 위안 (2억 4,700만 루블)		1952년 11~12월 차관협정(1953년만 제공)
계		3조 4,607억 위안 (5억 300만 루블)	

루블로 환산한 중국의 대북한 원조액은 총 5억 300만 루블로, 1950년 한 해에만 8억 7천만 루블을 제공한 소련의 원조액에는 크게 못미쳤다. 하지만 1950년 대비 1951년 국가예산을 60% 증액하고, 전장에 대한 직접지출만 이해 총예산의 32%를 쏟아 부을 정도로 중국은 한국전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⁸¹⁾ 정부 수립 후 아직 통화 정책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참전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을 증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⁸²⁾ 중국은 북한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원조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대량의 인력을 투입해 유엔군의 폭격과 점령에 의해 파괴된 북한 지역의 철도를 복구했다. 이는 참전 초기에 이미 30만 명을 상회한 중국인민지원군에 대한 군수보급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였다.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12월 17일(『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276쪽).
 81) 마오쩌둥이 필리포프에게 보낸 전문, 1951년 11월 14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HP Bulletin*, No.6~7, p.71).
 82) 이 시기 중국 동북지역의 인플레이션은 특히 심각했다. 동북인민폐는 1만 위안에서 50만 위안 권까지 발행되고 있었고, 국수 한 그릇에 1~2만 위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한다. 金定基, 『密派』, 大英社, 1967, 69쪽.

철저히 파괴된 북한 지역에서의 현지보급은 거의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물자의 보급은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 들어오는 철도수송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1950년 11월 6일부터 철도병단과 민간인 공무대(工務隊)가 북한에 들어와 중국인민지원군이 맡은 구역의 철도수리에 투입되었다.⁸³⁾ 당시 인민지원군 부사령관으로서 보급수송업무를 담당했던 홍쉐즈(洪學智)에 따르면 2차 전역이 시작되는 11월 말경 병참부대에 소속된 중국 병사는 6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다.⁸⁴⁾ 1951년 2월 북한 철도직원의 숫자가 약 2만 2천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 시기 중국이 조중연합군의 보급수송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알 수 있다.⁸⁵⁾ 북한의 철도와 기관차 대부분이 파괴된 상태에서, 기관차, 수리 및 운행인력, 심지어는 수리장비와 일부 북한 측 담당 선로의 인력까지 중국에서 공급되었다.⁸⁶⁾

당연히 철도 복구에 소요되는 경비도 중국 측이 부담했다. 마오쩌둥은 1951년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원조 액수가 1조 5천억 위안에 약간 못미친다고 밝힌 바 있었다. 그가 언급한 원조 내역에는 조선에 제공한 무역차관,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 북한 영내의 철로를 복구하기 위해 투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⁸⁷⁾ 따라서 앞서 살펴본 무역차관과 북한의 중국 영내 지출을 위한 금액, 즉 1조 807억 위안을 제하면 이 해 철도 복구를 위해 중국이 투입한 금액은 약 4,000억 위안 정도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도 복구에만 중국이 북한에 제공한 지원액의 약 1/3을 투입해야 할 정도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당시 근거리 수송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인력 수송에서도 중국의 역할이 컸다. 인민지원군의 제1차 전역이 시작되는 1950년 10월에 이미

83)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선인, 400쪽.

84)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107쪽.

85) 펠리센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광공업, 교통, 금융의 상황에 대하여」(木村光彦, 『1950~51年の北朝鮮經濟資料』, 『靑山國際政經論集』 57号, 235頁).

86) 沈志華,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 405쪽.

87) 마오쩌둥이 펠리포르프에게 보낸 전문, 1952년 2월 8일(Kathryn Weathersby, “New Russian Documents on the Korean War”, *CWIHP Bulletin*, No.6~7, p.76).

중국 동북군구는 물자수송을 위해 10만 명의 민간 인력을 동원했다.⁸⁸⁾ 중국 동북 지역 각지의 인민들은 구(區)·촌(村)·둔(屯) 단위로 담가대(擔架隊)와 민공대(民工隊) 등을 조직하여, 소유한 우마와 수레를 가지고 북한 경내에서의 수송 및 도로수리 업무에 참가했다.⁸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후퇴시기를 거치며 철저히 파괴된 북한이 국가경제의 상당부분을 원조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북한을 지원해오던 소련은 휴전회담이 가시화되면서부터 이후 중국과 북한에 대한 무기 제공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군수물자 지원 외에도 인민경제의 유지와 철도 복구 등 당장의 지원이 시급했던 북한은 중국으로부터의 원조에 점점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중국은 자국 경제가 내전에서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원조를 제공하여 북한의 국가경제 전반을 지탱하다시피 하였다.

5. 맺음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김일성은 무력에 의한 한반도 통일방안을 가지고 꾸준히 스탈린을 설득해 나갔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전쟁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동의까지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김일성의 주도적 역할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1949년 초까지 북한의 무력은 남한에 대한 확고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였다. 태동기에 있던 북한의 병기공업은 이미 일정한 생산고를 올리고는 있었지만 전쟁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못미쳤다. 따라서 군비와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북한 정권은 인민 소유의 자금을 동원하기도

88) 洪學智, 『중국이 본 한국전쟁』, 68쪽.

89) 『东北朝鮮人民報』 1950年 11月 22日.

하고,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조선인 부대들 또한 인민군으로 편입시켰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위한 군비의 확충에는 소련의 지원이 무엇보다 큰 역할을 했다.

전쟁 준비에서 개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은 김일성이 나뎠의 주도권을 행사했지만 미군의 참전이 결정됨과 동시에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북한의 경제력과 인민군은 애초에 계획했던 약 한 달 이상의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없는 장기전과 총력전으로 내몰린 북한은 군사지휘체계와 생산체제를 급히 개편할 수밖에 없었다. 산업분야의 전시전환을 위한 각종 조치들이 급조되었지만, 미군의 참전이 초래한 후방과 보급선에 대한 위협 및 보급선의 신장과 같은 문제들에 적절히 대응할 수는 없었다.

특히 미 공군의 전략폭격은 북한의 주요 산업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참전과 동시에 시작된 대규모 폭격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한 북한의 산업시설은 전쟁 전의 약 25% 수준까지 떨어졌다. 65호공장의 이전이 폭격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전쟁 전부터 준비된 확장 이전이었다는 사실에서도 북한은 폭격에 대한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미 공군에 의해 상당한 손실을 입은 북한의 산업기반은 1950년 10월의 후퇴를 거치면서 거의 완전히 붕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산업성은 나뎠의 계획을 세우고 산업의 조직적인 소개를 기도했지만 이는 대체로 성공하지 못했다. 많은 생산시설의 간부와 노동자들은 후퇴 과정에서 심리적 공황에 빠져 직장의 소개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65호공장을 비롯해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몇몇 공장들만이 인민군 수뇌부의 적극적인 관심에 의해 소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1950년 10월의 후퇴시기 이후 북한의 산업생산 능력은 전전의 10% 수준까지 떨어져, 전쟁수행은커녕 생존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전쟁수행을 지속시킨 것은 중국과 소련의 군사·경제적 지원이었다. 특히 중국은 인민지원군을 참전시킨 것 외에도

만주를 후방기지로 제공하고,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북한의 국가 경제를 지탱했다. 소련은 공군을 참전시킴과 동시에 중국과 북한이 필요로 한 무기의 대부분을 공급함으로써 전쟁의 지속에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1951년 봄 조중연합군 4·5차 전역의 실패 이후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자, 소련은 지원에 점차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군의 현대화를 가능한 지연시키면서, 휴전에도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미군을 한반도에서 계속 소모시키려는 의도였다.

이와 같은 스탈린의 전략은 자국의 인민을 희생시키며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김일성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소련은 전쟁에 소요되는 무기 대부분을 공급하며 북한을 지원했지만 정작 절멸의 위기에 빠진 북한을 구원한 것은 중국의 참전과 경제적 지원이었다. 김일성 또한 그와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당장의 지원이 아쉬웠던 김일성이 그 같은 속내를 드러낼 수는 없었지만, ‘사회주의 모국’ 소련에 대한 배신감은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스탈린이 죽고 전쟁이 끝난 이후 전개된 북한의 탈 소련화 노선과 친 중국 정책에 깊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한국전쟁, 북한, 전시생산, 군사원조, 차관, 산업소개, 65호공장,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

<ABSTRACT>

North Korea's Wartime Production and Support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Jo, Soo-ryong

This study has traced the way North Korea met the demands of armaments and what roles China and the Soviet Union had played during the Korean War.

Before the war, North Korea was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defense industry. North Korea had basic industry to produce munitions such as the factory no. 65 thanks to the support from the Soviet Union. But it was not at a level to conduct the war independently. Thus, North Korea had to obtain most of its munitions required to fight the war from the Soviet Union.

As North Korea prepared for the war relying on the aid offered by other countries, it could not be ready for a long-term wa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supposed that the war would last a month and only secured two month's supplies; it started the war with the minimum preparation to conduct war.

However,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was thrown in the unexpected long-term war and total war as it was decided that the US armed forces to enter the war right after the war began. Accordingly, some measures were improvised to switchover industries to war industries, yet North Korea failed to properly handle such issues as the US air force's bombing of the supply routes.

The industrial infrastructure of North Korea, significantly damaged by bombardments of the US air force from July to October 1950, started to collapse when they retreated to the North in Octobe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tried to evacuate the industrial facilities, but it mostly failed to do so. After the retreat in October in 1950,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vity dropped to 10% of its original level before the war.

Under the circumstances when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was at the stake, not to mention the conducting of the war, the war could be continued as China and the Soviet Union supported North Korea with the military and economic assistance. The Soviet Union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ntinuing the war by supplying most of the weapons needed by China and North Korea. However, it became reluctant in supplying weapons from June 1951, which distressed Kim Il-sung who hoped to end the war as early as possible. Unlike the Soviet Union, China offered Manchuria to North Korea as rear base, and sustained the economy of North Korea with tremendous financial and material resources apart from supplying troops.

Although China was far from the Soviet Union when it comes to an absolute amount of support, the contrasting attitude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ourse of the support deeply impressed Kim Il-sung: it somewhat affected the development of relationship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Soviet Union as well as North Korea and China.

Key Words : the Korean War, North Korea, the Soviet Union, China, wartime production, military aid, loans, industrial disperser, the factory no.65, Kim Il-sung, Stalin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KMAIR** · 김인수***

1. 서 론
2. 평화유지활동과 안정화작전의 이론과 사례 고찰
3. 소말리아 내전의 평화유지활동 사례 분석
4. 한국군 평화작전의 현황 및 발전방향
5. 결론 및 함의

1. 서 론

냉전의 종식과 함께 안보 위협의 실체가 바뀌고 있다. 이념을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냉전기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이었다면 냉전 이후에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 행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 논문은 2012년 2학기 육군사관학교 3학년 국제관계 전공 『국제안보협력론』 수업의 연구 과제로 김인수 교수의 지도로 작성되었음.

** Korea Military Academy International Relations(육군사관학교 70기 국제관계 연구팀): 김민진, 김윤빈, 김한석, 남궁재, 신기환, 예지훈, 이주혁, 채상훈, 최건우, 허성근, 허현무, 홍충표

*** 육군사관학교 안보관리학과 사회학 부교수, 교신저자, iskim@kma.ac.kr

인종청소와 같은 대량살상 행위가 발생하는 내전 국가의 경우 주민들의 삶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전통적인 군사위협이 아니라 통치 질서의 붕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인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분쟁세력을 분리시키기 위한 군사적 개입 외에도 사법기관, 교정기관, 치안기관의 재건을 통해 통치 질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전통적인 감시단 성격의 평화유지활동으로부터 내전으로 국가체제가 붕괴된 지역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기 위한 다면적 평화유지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다.¹⁾ 한국군 역시 과거 단순히 인도주의적 지원활동에 치중하던 평화유지활동으로부터 재건·안정화시원을 위한 평화유지활동으로 활동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북한 지역의 재건·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다면적 평화유지활동 대신 안정화작전(stabilization opera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사태 자체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이나 무정부 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어 외부의 지원 없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2006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처음으로 안정화작전을 적용하였으며³⁾, 2012년 UFG 연습 시에는 전쟁 발발 후 수복한 지역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행정력 복원, 재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수행하는 ‘자유의 바람(wind of freedom)’ 작전을 실시하였다.⁴⁾ 향후 대북 안정화작전이 작전 계획에 포함된다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한국군이 안정화

1) 송승중,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이해』, 서울: 연경문화사, 2006, 97쪽.

2) 박휘락,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에 대한 현실성 분석과 과제」, 『국가전략』 제16권 4호, 2010, 67쪽.

3)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12 합동안정화작전』, 2010, 서-1쪽.

4) 윤상호, 「北 수복 뒤 조기안정화 작전… 軍, 8월 을지훈련때 실시」, 『동아일보』, 2012년 9월 11일.

작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군이 북한 지역을 대상으로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훈련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본고에서는 정부의 통치 체계가 붕괴된 내전 지역에서 요구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모습이 전시 자유화지역⁵⁾에서 군이 수행하는 안정화작전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내전지역에서는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분쟁지역의 평화유지와 회복을 지원하는 전통적인 의미의 평화유지활동 대신 강제력을 활용해서 치안 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임무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⁶⁾ 이러한 활동 양상은 “일체의 군사적,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기 위해”⁷⁾ 실시하는 안정화작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군이 해외 분쟁국가에서 치안유지, 행정력 복원, 재건 프로그램 제공 등 정부의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북한 지역에서 안정화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첫째,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안정화작전을 군사교리 측면에서 비교하여 상호 관련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표적인 내전국가인 소말리아의 평화유지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안정화작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과업을 폭넓게 실시할 수록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한다. 셋째, 한국군이 지금까지 참여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실제로 안정화 작전 관련 과업을 어느 정도나 수행해왔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분쟁국가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동시에

5) 자유화지역이란 “적에 의해 국내법의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던 지역으로부터 적을 축출하고 국내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게 된 지역”이다.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서-2쪽.

6) Thijs W. Brocades Zaalberg, *Soldiers and Civil Power: Supporting or Substituting Civil Authorities in Modern Peace Operation*(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을 참고할 것.

7)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서-1쪽.

안정화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현재 한국군 교리 상에서 나타나는 평화작전과 안정화작전의 유사성에 주목하여 한국의 국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평화유지 활동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평화유지활동과 안정화작전의 이론과 사례 고찰

1) 인도주의적 지원의 필요성과 한계

냉전이 종식된 이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위협은 사라졌지만 세계 각지의 내전국가와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들이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자국민의 기본적인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 또는 그러한 의지가 없는 나라”를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으로 판단하고 있다.⁸⁾ 안보, 경제, 정치, 사회 등 모든 차원에서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는 테러리즘, 대량 살상무기, 국제범죄, 밀입국 등 초국가적 위협의 진원지로 전락하여 지역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안보의 개념 역시 군사적 차원을 넘어 비군사적 영역을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새로운 형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활동에서 인도주의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지원이 평화정착에 반드시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분쟁 자체를 종식시키거나 상황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인도주의적 개입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오히려 분쟁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모순을 ‘나이팅게일의 모순(Nightingale's risk)’이

8) Department of The Army, *FM 3-07 Stability Operation*, 2008, p.vi.

라고 한다.⁹⁾

군에 의한 인도주의적 지원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은 인도적 지원 작전을 수행하면서 정치·군사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활동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대가로 탈레반과 알카에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협조를 거부하는 주민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여 인도주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협조한 주민들은 반군세력의 보복 대상이 되도록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¹⁰⁾ 둘째, 군 지휘관들은 병력의 안전을 위해 지역주민의 환심을 사는 것을 중요시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보다는 단기간 내에 주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도로, 학교 건설 등에 치중한다. 이러한 지원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얻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미군은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교육, 보건, 농업 분야 예산을 합친 것보다 많은 예산을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용했지만 교사를 구하지 못해 학교 건물을 방치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¹¹⁾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아무리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개입으로 인해 초래될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면 차라리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¹²⁾ 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 상호 간의 폭력행위는 그 피해의 정도와 범위가 막대하기 때문에 이를

9) 나이팅게일은 크림전쟁에서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부상병을 치료하는데 힘썼지만, 적십자사(Red Cross)의 창설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상병을 보호하는 적십자사가 만들어지면 이로 인해 전쟁을 하는 것이 보다 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Helen Yanocopulos and Joseph Hanlon, *Civil War, Civil Peace*(OH: Ohio State University Press, 2009), p.37.

10) Oxfam International, "Whose Aid is it Anyway? Politicizing Aid in Conflicts and Crises", *Oxfam Briefing Paper*, <http://www.oxfam.org>(검색: 2012.12.1), p.20.

11) *ibid.*, p.22.

12) Mary. B. Anderson, *Do No Harm: How Aid Can Support Peace or War* (Boulder, CO: Lynne Rienner, 1993). pp.37~39.

저지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서로의 입장 차를 인정하는 화해의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는 군대를 배치하고 구호물자를 제공하는 것보다 지역 주민들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적대행위 가능성도 줄어들게 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사회 질서를 내전국가에 이식하려 한다면 이는 상대국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주권이란 각 국가 및 정부가 자국의 영토 내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말한다. 이러한 배타적 권위 때문에 전쟁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주권국가의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악명 높은 독재자를 축출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국제사회가 타국의 주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자국민에 대한 정부의 잔학행위는 유엔이 규제하고자 하는 불법 침략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타국의 국가이익을 침해하거나 국제질서의 근간을 위협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헌장에서도 유엔헌장의 어떠한 조항으로도 유엔이 타국의 내정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의 해체와 함께 내전이 급증하면서 내전이 더 이상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전에 개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¹³⁾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먼저 내전 국가에 대한 개입의 유형을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안정화작전으로 구분하고, 한국군의 평화작전과 안정화작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다.

13) Yanocopulos and Joseph Hanlon, op. cit., p.50.

2) 평화작전과 안정화작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으로 인해 당시 연합국을 중심으로 유엔(UN: United Nations)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남용하면서 유엔은 실질적으로 분쟁해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를 막고 평화유지를 위한 실행수단으로 제시된 것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다.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는 유엔 현장상의 용어는 아니지만 “분쟁이 악화되어 당사자 간의 자체 해결이 곤란한 지역에서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파견한 군사 및 민간요원에 의해 비강제적 수단을 통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 회복을 돕기 위한 UN 주도의 분쟁해결 활동”¹⁴⁾을 의미한다. 초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비무장 군사감시단에 의한 정전 감시를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유엔 활동의 제약요인이었던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민족, 종교, 영토, 자원문제에 의한 각종 분쟁이 다양하게 확산되면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활동범위와 내용면에서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흔히 다면적 평화유지활동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평화유지활동은 평화의 조성 및 재건, 민주적 절차에 따른 평화적인 정권 수립, 치안활동, 인도적 지원활동, 난민 및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 다양하고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군은 ‘평화작전(Peace Operation)’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평화작전은 “군사력과 비군사적인 기구들을 통합하여 분쟁억제와 평화를 조성하고 중재와 재건을 지원하여 합법적인 통치로의 이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국제적인 노력과 군사적인 임무를 달성하는 것”¹⁵⁾으로 평화작전의 유형에는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 등이 포함된다. 평화

14) 국방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의 실제』, 1994, 37쪽.

15) 육군본부, 『평화작전』, 2009, 1-14쪽.

작전은 유엔에서 사용하는 평화유지활동과 동일한 개념이며, 유엔 관련 표현 시에만 평화유지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평화작전의 개념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안정화작전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첫째, 작전환경이 유사하다. 최근 유엔 평화유지활동은 기아, 질병, 인종청소, 종교탄압, 난민에 대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는 내전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안정화작전 지역의 상황 역시 기아와 질병의 확산, 법과 질서의 붕괴, 주민의 대량 이탈과 약탈행위 발생 등 내전 지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둘째, 작전의 목표가 유사하다. 평화작전은 인도적 목적달성과 장기적인 정치 안정을 위한 작전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안정된 작전환경을 조성하고 합법적인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안정화작전의 목표와 유사하다. 셋째, 작전 중에 실시되는 주요 과업이 유사하다. 평화작전의 유형인 평화유지, 평화강제, 평화구축,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한 활동은 안정화작전의 주요 과업인 민간안전 지원, 민간인통제, 정부통치지원, SOC 복구 및 경제지원, 인도적 지원 활동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표 1〉 안정화작전과 평화작전의 주요 수행과제 비교

안정화작전	주요 수행과제	평화작전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 부대방호태세 유지, 병참선 보호	모든 유형
민간 안전지원	• 무기회수 • 동원해제, 재통합	평화유지작전
민간인 통제	• 사법체계 확립 • 전복세력 및 범법자 단속	평화강제작전
정부통치지원	• 주민자치기구 및 임시행정기구 조직	평화구축
SOC 복구 및 경제지원	• 경제적 안정 및 기반시설 건설	
인도적 지원	• 민생물자 및 생필품 확보 지원	인도적 지원

출처: 육군본부, 『평화작전』, 2009, 3-3~3-61쪽; 합동참모본부, 『합동안정화작전』, 2010, 87~114쪽.

〈표 1〉에는 안정화작전과 평화작전의 주요 수행과제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은 군사작전 성공을 지원하고 작전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소규모 군사작전을 말한다. 이를 위한 과제로는 대유격작전 또는 대테러작전과 같은 직접적인 군사행동뿐만 아니라 부대방호태세 유지 및 병참선 확보와 같은 기본적인 임무도 포함된다. 여기서 부대방호태세 유지 및 병참선 방호 등의 활동은 평화작전을 위해 파병된 모든 부대들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이다. 둘째, ‘민간 안전지원’은 작전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안질서를 유지하고, 무장해제·동원해제 및 재통합을 실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평화유지작전의 수행과제와 중복된다. 셋째, ‘민간인 통제’는 개인이나 특정 단체의 특정 행동을 통제하여 이들로부터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전복세력 및 범법자 단속, 사법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이는 평화강제작전의 수행과제와 유사하다. 넷째, ‘정부통치지원’과 ‘SOC 복구 및 경제지원’은 주민자치기구를 조직하고 적대 정권의 유지 기구를 해체하는 등 새로운 정부의 통치 질서가 조기에 확립되도록 지원하는 활동과 사회기반시설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안정된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는 평화구축의 수행과제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은 작전지역 주민들에게 민생물자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공공보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으로 평화작전의 인도적 지원과 내용면에서 동일하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군 병력이 접근 불가능한 북한지역 대신 작전 환경이 유사한 국외의 내전 지역에서 평화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인도적 지원과 행정력 복원, 재건 프로그램 제공 등 대북 안정화작전의 주요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연습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군의 평화작전 확대를 통해 내전 국가의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안정화작전 능력 향상이라는 자국의 군사적 목적을 위한 해외 파병은 국내·외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내전 지역의 평화유지와 북한 지역의 안정화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과업을 식별해내야 한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이 안정화작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대표적인 내전국가인 소말리아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소말리아 내전의 평화유지활동 사례 분석

소말리아는 1960년 7월 1일 영국과 이탈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후 1969년 10월 바레(Mohamed Siad Barre) 장군이 정치적 혼란을 틈타 쿠데타로 집권하였으나 1991년 반정부세력에 의해 바레 정권이 붕괴되었다. 이후 반군 간의 무력충돌로 인해 내전과 가뭄이 발생하면서 난민이 급증하는 등 소말리아의 사회적 혼란이 심화되었다. 이에 따라 유엔은 1992년 4월 평화유지군(UNOSOM I: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I)을 파병했다. 그러나 반군세력이 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구호품을 탈취하는 등 구호활동을 위한 여건이 악화되었고, 유엔은 1992년 9월 인도적 구호활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특수임무군(UNITAF: Unified Task Force)을 소말리아에 파병하였다. 미국의 주도로 진행된 UNITAF의 신속한 작전으로 소말리아의 질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유엔은 1993년 3월 UNOSOM II(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II)로 UNITAF의 임무를 전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UNITAF와 UNOSOM II에 참여한 부대가 활동한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달랐다. 여기에서는 미국 해병대, 호주 보병대대, 한국 상륙수 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나타난 특징과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1) 미국 해병대의 임무 수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92년 12월 3일 소말리아 질서 회복을 위한 결의안 7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미국의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은 12월 4일 ‘희망회복작전(Operation Restore Hope)’의 개시를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2월 9일 미 해병대 선발대가 모가디슈 인근 해안에 상륙하였다. 미 해병대의 임무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물자가 현지 주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말리아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미 해병대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보호라는 군사적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소말리아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사고 때문에 소말리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¹⁶⁾

소말리아는 군벌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인해 군, 행정부, 경찰 등 모든 국가조직이 붕괴된 상태였기 때문에 소말리아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통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러나 미 해병대는 소말리아의 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무장해제, 사법 및 행정조직 재건 등의 활동을 실시하지 않았다.¹⁷⁾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소말리아의 국가재건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 부시 대통령은 1992년 12월 4일 미군의 소말리아 파병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미국은 소말리아의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오직 굶주리는 주민들에게 구호물자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병한다고 밝혔다. 부시 행정부가 1993년 1월 20일로 예정된 클린턴 대통령의 취임에 앞서 작전을 종결지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둘째, 베트남전의 실패 이후 미군 내부에는 국가재건(nation

16) Zaalberg, op. cit., pp.161~197.

17) United States Forces, *Somalia After Action Report and Historical Overview: The United States Army in Somalia, 1992-1994*(Washington: Center of Military History, 2003), p.25.

building)과 같은 평화유지활동을 일종의 일탈행위로 보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부시 대통령의 특사 오클리(Robert B. Oakley)는 소말리아 군벌 지도자인 아이디드(Aideed)와 알리 마흐디(Ali Mahdi)를 만나 구호물자를 수송하는 미군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으면 군벌세력들의 통치권을 침해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¹⁸⁾

이러한 미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 UNITAF에 속한 미군은 구호물자 보호에 치중하면서 현재의 무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통치 질서를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 결과 미 해병대의 평화유지활동은 의도하지 않았던 '나이팅게일의 모순'을 초래했다. 강력하게 무장한 미 해병대가 구호물자의 수송을 경호하면서 민간단체의 구호물자를 약탈할 수 없게 된 소말리아 강도들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반 주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소말리아인들이 소말리아인들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을 자신들의 임무로 생각하지 않았다.¹⁹⁾ 소말리아의 군벌세력들이 이러한 미군의 한계를 간파하면서 주민들의 피해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소말리아에서 활동한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모순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니다.

2) 호주 보병대대의 임무 수행

호주 정부는 1993년 1월 소말리아 베이(Bay) 지역의 중심 도시인 바이도아(Baidoa)에 1개 대대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하였다. 1992년 12월 바이도아 지역에 전개한 미 해병대로부터 바이도아에 대한 관할권을 인계받은 호주군은 '위안 작전(Operation Solace)'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평화유지활동을 개시하였다. 당시 바이도아는 서구 언론들에 의해 '죽음의 도시'로 알려질 만큼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았다.²⁰⁾ 이 지역을

18) Zaalberg, op. cit., p.171.

19) Martin Stanton, *Somalia on Five Dollars a Day: A Soldier's Story*(CA: Novato, 2001), p.144.

20) Bob Breen, *A little bit of hope: Australian Force-Somalia*(St Leonards, N.S.W.: Allen & Unwin, 1998), p.35.

장악하고 있던 군벌 지도자들이 강도, 살인, 약탈 등 범죄를 자행하였지만 소말리아 군벌세력들과 공존을 추구하던 미 해병대가 자국 병력의 안전을 이유로 이들의 범죄 행위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호주군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미 해병대와 확연히 구분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첫째, 미 해병대는 소말리아해방군(SLA: Somalia Liberation Army)과 연계된 바이도아 지역의 군벌 지도자 구테일(Gutaale)과 워세임(Warsame)을 바이도아 지역에 대한 정당한 통치자로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미 해병대는 이들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시켜 인도주의적 구호물자의 분배에 영향을 행사하도록 허용하였다. 바이도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은 이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참여를 거부하였다. 그 결과 미 해병대가 조직한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호주군은 SLA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미 해병대가 조직한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체하고 주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새로운 자치위원회를 조직하였다.²¹⁾

둘째, 미 해병대는 구호물자의 수송과 보호라는 임무 완수를 위해 소말리아 반군세력과 공존을 추구했기 때문에 반군의 무장해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1992년 12월 미군이 처음 소말리아에 상륙했을 때 미군 지휘관들은 지역 주민들이 보유한 모든 화기를 회수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반군세력과의 마찰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이를 금지하면서 인도적 구호활동이 실시되는 지역에서 눈에 띄는 중화기를 회수하는 것으로 활동이 축소되었다. 그 결과 군벌세력들은 미군의 감시를 피해 대부분의 중화기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호주군은 총기면허를 부여하고 면허 없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로부터 총기를 몰수하는 등 반군의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²²⁾

21) Zaalberg, op. cit., p.211.

22) ibid., p.219.

셋째, 미 해병대는 주로 방호된 주둔지 내에 머물렀던 반면 호주군은 바이도아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강도, 강간, 살인 등 중차대한 범죄행위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 호주군의 순찰은 평화유지군이 바이도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군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격오지 마을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순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호주군 대대원에 피로가 누적되었다. 이에 따라 호주군은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경찰 보조대(ASF: Auxiliary Security Force)를 창설하고 사법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 결과 바이도아 지역 주민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던 주요 반군 지도자인 구테일과 위세임을 소말리아 법정에 세워 사형에 처할 수 있었다.²³⁾

구호물자의 보호와 수송에 치중한 미 해병대와 달리 호주군이 바이도아의 평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호주군의 군사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의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fight and win America's war)’는 원칙을 내세워 소말리아에서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군의 임무가 확대되는 것(mission creep)을 우려하였다.²⁴⁾ 이에 따라 군이 바이도아에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임무를 떠맡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와 달리 호주군은 1980년대 후반부터 저강도 분쟁(low-level conflict)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정책을 추진해왔다. 저강도 작전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된 정치·군사적 투쟁”²⁵⁾을 말하며, 적을 일반시민에게서 분리하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군사정책에 따라 훈련된 호주군은 소말리아 반군세력들을 주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23) *ibid.*, p.233.

24) 임무확장(mission creep)이란 군에 부여된 임무가 최초에 제기된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현상을 말한다. Zaalberg, *op. cit.*, p.173.

25) 김광석, 『용병술어연구』, 서울: 병학사, 1992, 437쪽.

3) 한국 상륙수 부대의 임무 수행

한국 정부는 1993년 7월부터 1994년 3월까지 상륙수 부대원 516명을 소말리아에 파견하여 UNOSOM II 임무를 수행하였다. 유엔이 1992년 9월 한국 정부에 처음으로 파병을 요청할 당시 한국은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유엔의 파병 요청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1993년 2월 유엔이 또다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한국군 최초의 평화유지활동 파병부대를 창설하고 상륙수부대로 명명하였다. 상륙수부대 1진 258명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Mogadishu) 북방 40km 지점인 발라드(Balad)지역에 배치되었다. 발라드를 선택한 이유는 모가디슈와 거리가 멀고, 이태리군 1개 공수연대 및 1개 군수지원 대대가 주둔하고 있어 반군의 기습이나 공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다.²⁶⁾

상륙수부대가 발라드에 도착했을 당시 현지의 치안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았다.²⁷⁾ 1993년 7월 1일 소말리아 최대 군벌인 아이디드파 무장해제 작전 중 반군의 집중사격으로 이태리군 장교, 하사관, 병사가 각각 1명씩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월 3일에는 주둔지 피습 가능성에 대한 첩보가 입수되었고, 7월 8일에는 이태리군 통신 중계소에 박격포 공격이 가해졌다. 또한 9월 16일에는 조강을 하고 있던 이태리군 병사 2명이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한국군은 유엔의 요청에 따라 공병부대를 파병하였기 때문에 발라드의 치안을 유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다.

상륙수 부대의 주요 임무는 모가디슈로부터 벨레트웨(Beletweyne)에 이르는 430km의 국도를 보수하는 것과 심정 개발 및 지역 내 대민지원을 실시하는 것이었다.²⁸⁾ 상륙수 부대는 발라드-조하르 구간 도로와

26) 최용호,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 파병」, 『국방일보』, 2011년 5월 3일자.

27) 강요식, 『신마저 버린 땅 소말리아』, 서울: 한원, 1994, 100쪽.

28) 합동참모본부, 『한국군 평화유지활동 파병사』, 1998, 77쪽.

모가디슈에서 발라드로 통하는 우회도로를 보수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건의와 합참의 승인을 받아 “제너럴 다우드(General Daauud)” 관계수로 보수하여 5,000여 ha 농경지 경작과 면화 재배 여건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랑의 학교 및 기술학교 개설, 구호활동 등 현지 주민과의 유대활동도 적극 전개하였다. 이러한 부대 활동으로 한국은 유엔본부로부터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국 중 가장 모범적인 국가”라는 찬사를 받았다.²⁹⁾ 그러나 상륙수 부대의 평화유지활동이 발라드 지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상륙수부대는 도로 및 관개시설 보수 등 사회간접시설 복구 작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무장해제, 치안 질서 및 사법체계 확립을 위한 감시, 순찰, 검문 등 분쟁방지 활동은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⁰⁾ 따라서 각 국가별 평화유지활동이 담당지역의 평화정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기 위해 UNOSOM II 종료 후에 미 해병대, 호주 보병대대, 한국 상륙수부대가 주둔한 지역별로 치안 상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비교해 보았다.

4)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의 지역별 성과

〈표 2〉는 미 해병대, 호주 보병대대, 한국 상륙수부대의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을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인도적 지원, 긴급 사회기반시설 복구 및 경제지원 측면에서는 부대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든 부대가 부대방호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였고, 소말리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생물자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복구 등 대민지원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 안전지원, 민간인 통제, 정부통치지원 측면에서는 부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첫째, 민간 안전지원 측면에서 미

29) 조주로, 「소말리아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성과」, 『국방일보』, 2006년 6월 13일자.

30) 합동참모본부, 앞의 책, 114쪽.

해병대와 한국 상륙수부대는 치안질서 유지와 무기 회수를 주요 임무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호주군은 이를 위해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순찰을 실시하였다. 호주군이 바이도아 지역에서 회수한 무기는 유엔평화유지군이 소말리아에서 회수한 양의 20%에 달한다. 둘째, 민간인 통제 측면에서 미 해병대와 한국 상륙수부대는 소말리아인 상호 간의 범죄행위를 단속하지 않았지만, 호주군은 사법체계의 확립과 범법자 단속 측면에 적극적이었다. 셋째, 정부통치지원 측면에서 미 해병대와 한국 상륙수부대는 주민자치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호주 보병대대가 조직한 바이도아 지역의 주민자치기구는 호주 보병대대가 철수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표 2〉 미국 해병대, 호주 보병대대, 한국 상륙수부대의 평화유지활동 비교

안정화작전		미국	호주	한국
수행과업	주요 수행과제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부대방호태세 유지	+	+	+
민간안전지원	치안질서 유지, 무기 회수	-	+	-
민간인 통제	사법체계 확립 및 범법자 단속	-	+	-
인도적 지원	민생물자 및 생필품 지원	+	+	+
긴급사회기반시설 복구 및 경제지원	사회기반시설 복구 지원	+	+	+
정부통치 지원	주민자치기구 조직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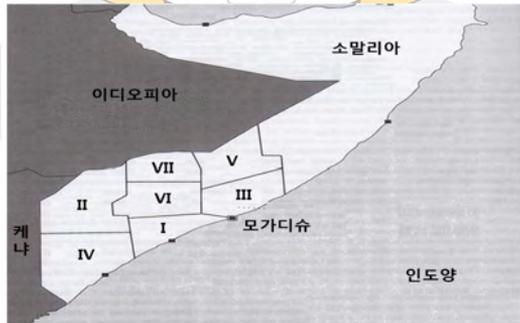
참고: + = 적극적인 활동, - = 미흡한 활동

이러한 국가별 활동의 차이는 소말리아에 파병한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주 보병대대 활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둔지 내에서만 머무르던 미국, 벨기에, 이탈리아군에 비해서 보다 넓은 지역을 순찰하고 보다 광범위한 무장해제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오직 프랑스군만이 호주 보병대대와 유사한 활동을 벌였다.³¹⁾ 이러한 활동에 따른

31) Zaalberg, op. cit., p.239.

결과는 실제로 지역 주민들의 삶에 반영되어 나타났다. <표 3>은 유엔이 소말리아에 설정한 7개의 인도주의적 구호지역(HRS: Humanitarian Relief Sector)의 인구증가율을 보여준다. 소말리아와 같은 내전국가에서는 치안이 확립되고 구호물자가 정상적으로 보급되면 출산율이 증가하고 사망률이 감소하면서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인구증가율은 치안 및 통치 질서의 회복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1995년 3월 UNOSOM II 임무가 종결된 이후 1996년까지 1년간의 인구증가율과 2000년까지 5년간의 인구증가율을 각각 비교해 보았을 때, 호주 보병대대와 프랑스군이 담당했던 지역의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UNOSOM II 담당국가 및 담당지역별 인구증가율



구분	담당 지역	담당국가	인구증가율(%)	
			1995-1996	1995-2000
I	HRS Marka(Lower Shabelle)	미국	1.90	11.92
II	HRS Bardera(Middle Juba)	미국	1.86	11.03
III	HRS Girdassi(Middle Shabelle)	이태리(한국)	1.86	11.18
IV	HRS Kismayo(Lower Juba)	벨기에	1.91	10.57
V	HRS Belet Weyne(Hiraan)	캐나다	1.77	10.18
VI	HRS Baidoa(Bay)	호주	2.06	13.36
VII	HRS Oddur(Bakool)	프랑스	2.02	12.50

그림: Thijs W. Brocades Zaalberg, *Soldiers and Civil Power: Supporting or Substituting Civil Authorities in Modern Peace Operation*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2006), p.170 참고.

자료: UNOSOM II, *UNDP SOMALIA: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SOMALIA*(NY: United Nations, 1997), p.14, Table 2 토대로 계산.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민간 안전지원, 민간인 통제, 정부통치지원 등 안정화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내전국가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서 경찰력의 복원과 사법기능 보완 등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통치 질서를 재건하는 방향으로 평화유지군의 임무를 확장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활동은 안정화작전의 주요 수행과제이기 때문에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경우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기대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국군은 평화작전을 통해서 이러한 경험을 어느 정도나 축적해왔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4. 한국군 평화작전의 현황 및 발전방향

1) 한국군의 평화작전 현황

한국의 평화작전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평화작전을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재건·안정화작전 지원으로 구분하였다. 현재 한국군 교리는 지상전 유형 중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활동을 ‘평화작전’으로 개념화하고 있지만 유엔 주도의 평화유지활동과 다국적군 참여를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재건·안정화작전 지원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의무지원으로 활동 범위가 제한되는 의무부대를 제외하고 정규군 부대가 파병된 경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평화작전과 관련된 파병 형태는 군사고문, 군 읍서버, 군 연락장교, 정규군 부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평화정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의 파병보다는 정규군 부대 수준의 파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1) 평화유지활동: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한국군은 1993년 상륙수 부대를 소말리아에 파병한 이래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전개해왔다. 첫째, 1995년 유엔의 파병 요청에 따라 앙골라 루안다 지역에 파병된 PKO 공병대대는 교량 복구, 비행장 복구, 도로 보수 등 사회간접시설 복구와 고아원, 교회 및 성당 지원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둘째, 1999년에는 베트남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부대로 구성된 상륙수부대를 동티모르 동부 라우텨프 지역에 파병하였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는 도보순찰 및 기동순찰을 통해 불법무기 소지자 및 잠재적 위협세력을 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엔 구호품 보급선박의 경계를 지원하고, 동티모르 난민의 호송 경계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블루엔젤(blue angel)’ 작전으로 명명된 민사작전을 실시하여 진료·방역, 농기구 정비, 구호품 전달 등 인도적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셋째, 2007년에는 레바논 남부 티르 지역에 동명부대를 파병하였다. 동명부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정전감시를 위하여 책임지역 내에서 불법 무장 세력의 유입을 차단하고 무기 반입을 통제·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피스웨이브(peace wave)’ 작전으로 불리는 민사작전을 통해 레바논 남부지역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2010년 1월 아이티에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이재민 구호를 위해 ‘아이티 재건지원단(단비부대)’을 파견하였다. 아이티의 레오간 지역에 배치된 단비부대는 건물 잔해 제거, 도로 복구, 심정 굴착, 하천 준설, 난민촌 방역활동 및 응급환자 진료 등을 통해 SOC 복구 및 인도적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표 4〉 한국군의 주요 평화유지활동 현황

구 분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부여 임무	교량, 도로 보수	치안 확보	정전감시	지진피해 복구
파병 근거	UN 결의안 966호	UN 결의안 1264호	UN 결의안 1701호	UN 결의안 1908호
파병 인원	600	3,328	4,180	1,425
파병 일시	'95.10~'96.12	'99.10~'03.10	'07.7~현재	'09.2~'12.12
활동 지역	루안다	라우텨	티르	레오간
주요 성과	교량 및 도로 보수 인도적 구호활동	치안유지 재건지원 인도적 활동 (블루엔젤작전)	작전지역 감시정찰 재건지원 (피스웨이브작전) 군사외교	재건지원 민사작전 군사외교

출처: “세계 속의 한국군”, 국방부 홈페이지(2013.8.10 검색)

(2) 재건·안정화작전 지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미국은 9·11테러 이후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를 세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단정하고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해 2003년 3월 영국과 함께 이라크를 침공했다. 한국은 건설공병 지원단과 의료지원단을 이라크에 파병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 재건을 목적으로 파병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2004년 8,000여 명으로 구성된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부대)을 창설하여 이라크 북부 아르빌 지역에 파병하였다. 자이툰부대는 이라크 재건과 복구에 필요한 기술 교육과 문맹퇴치를 위한 쿠르드어 교실, 자이툰 병원 운영 등 인도적 지원 활동에 주력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미국의 요청에 따라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에 다산 부대와 동의 부대를 파병하여 도로와 건물 복구, 학교 신축, 의무 지원 등 각종 지원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바그람 기지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윤장호 병장이 사망하고, 탈레반이 다수의 한국인을 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2007년 12월 모든 병력이 철수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2009년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지역에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파견하기로 하고, 2010년 오쉬노부대를 파병

하였다. 오쉬노부대는 민간 전문가들에 의해 실시되는 보건·의료, 교육, 행정제도, 농촌개발 등 재건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PRT 주둔지 경계, PRT 요원의 호송 및 경호 활동,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표 5〉 한국군의 재건·안정화작전 지원 현황

구 분	이라크	아프간
파병 배경	안정화 및 재건활동 지원	안정화 및 재건활동 지원
파병 근거	UN 결의안 1483호 UN 결의안 1511호	UN 결의안 1890호
파병 규모	17,708	1,617
활동 기간	'04.4.~'08.12	'10.7~현재
활동 지역	아르빌	차리카
주요 성과	치안유지활동 지원 현지주민 능력개발 사회·경제개발 지원	호송 및 경찰 활동 안정화 및 재건활동

출처: “세계 속의 한국군”, 국방부 홈페이지(2013.8.10 검색)

2) 한국군 평화작전의 교훈과 시사점

한국군이 주요 평화작전 간 수행한 활동에 대하여 안정화작전의 6대 과업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첫째,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수행능력의 측면에서 한국군의 평화작전 참여는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경우 부대방호태세 유지 및 병참선 방호 등을 기본 임무로 수행했지만,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의 또 다른 과제인 반군세력 및 테러집단에 대한 군사작전과 관련된 활동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둘째, 동티모르 상륙수부대와 레바논 동명부대는 불법 무장세력의 활동을 차단하고 무기 반입을 통제하는 등 민간 안전지원 활동을 활발하게 실시하였다. 반면 앙골라, 소말리아, 아이티의 경우 공병부대가 파병되어 가용병력이 제한되었고,

안정화·재건 지원활동이 이루어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주민 안전을 위한 순찰활동은 부대 임무로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의 평화작전은 민간 안전지원 수행능력 향상에 미친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셋째, 한국군의 경우 평화작전 중 사법체계 확립 및 범법자 단속 등 민간인 통제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민간인 통제 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한국군은 1993년 소말리아에 최초로 파병된 이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공보건 활동, 의료지원 등 다양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특징은 다섯 번째 과업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군은 비행장, 항만,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복구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따라서 향후 인도적 지원, 사회기반시설 복구 및 경제지원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군은 민간 행정기구 또는 과도정부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통치지원 수행능력 향상에 미친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6〉 한국군의 평화작전과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안정화작전 수행 과업	평화작전					
	유엔 평화유지활동				재건·안정화작전	
	앙골라	동티모르	레바논	아이티	이라크	아프간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	-	-	-	-	-
민간 안전지원	-	+	+	-	-	-
민간인 통제	-	-	-	-	-	-
인도적 지원	+	+	+	+	+	+
긴급사회기반시설 복구 및 경제지원	+	+	+	+	+	+
정부통치 지원	-	-	-	-	-	-

참고: + =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
 - = 안정화작전 수행능력에 향상에 미친 효과 미흡

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한국군의 평화작전은 인도적 지원과 사회기반시설복구 및 경제지원 활동에 집중되는 한계를 보였다. 내전국가 또는 실패국가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초국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한다는 평화작전의 목적을 고려하면 한국군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내전국가의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군이 반드시 담당해야 하는 역할과 군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안정화를 위한 군사작전, 민간 안전지원, 민간인 통제 등은 군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이지만, 이러한 활동은 미흡한 실정이다. 반면 인도적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복구 등 민간 영역이 대신할 수 있는 역할에 군의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둘째, 작전지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부대가 파병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이 다국적군에게 안정화 임무를 부여한 소말리아와 아이티에 치안유지 임무 수행이 불가능한 공병대대를 파병하였다. 또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재건·안정화작전을 실시하고 있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도 공병 부대와 의무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군은 내전국가의 평화정착은 물론 안정화작전과 유사한 작전환경에서 안정화작전 수행 과업을 실질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3) 한국군 평화작전과 연계한 안정화작전의 발전방향

향후 한국군의 평화작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부대단위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012년 한국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는 세계 33위로 군사력 및 경제력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³²⁾ 이탈리아와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 한국의 약 1.8배에서 1.6배에 달하는 병력을 파병하고 있다.³³⁾ 또한 한국군이

32) 통계청, “우리나라의 PKO 참여현황”, www.index.go.kr(검색: 2012.12.1).

33) 2012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파병규모는 각각 1,057명과 941명이었고, 한국군의 파병 규모는 604명이었다.

United Nations Peacekeeping, “Ranking of Military and Police Contributions”,

참여하는 평화작전의 주요 형태를 평화유지활동과 인도적 지원에서 평화강제, 평화구축으로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이 긴급 재난구호를 위해 단비부대를 파병했던 아이티의 치안은 2004년부터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MINUSTAH)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따라서 사법체계의 확립과 범법자 단속 등 평화강제 임무를 수행하는 병력을 파병했을 경우 안정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미국과 협조하는 경험과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처럼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파병을 위한 교육훈련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작전지역 감시정찰과 합동 검문소 운용을 주요 임무로 하는 동명부대와 긴급 재난구호를 주요 임무로 하는 단비부대의 교육은 임무의 특성에 맞게 차별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해외파병부대는 현지 정세에 대한 교육 외에는 파병의 목적이나 성격에 관계없이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다.³⁴⁾

둘째, 군과 민간 요소가 함께 참여하는 평화유지활동을 계획·실시한다. 평화유지활동의 혼선과 노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 정부, 민간분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페인 정부의 아이티 지원 예산 중 1/3을 사용한 스페인군은 민간 구호단체와의 협조 부족으로 자원과 노력을 낭비하였다. 스페인군은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이 정박한 항구를 중심으로 다른 민간 구호단체와의 교류 없이 독단적으로 지원 활동을 벌였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이미 다른 민간 구호단체들이 식수 및 의료 지원이 이루어진 후였다. 그 결과 스페인군은 백신을 맞은 주민들에게 같은 백신을 다시 접종하거나 오염된 식수통에 식수를 제공하는 등 오히려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³⁵⁾ 안정화작전의 목표를 통일시키고 행동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과 관련 정부 기관 및 민간 기구와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을

https://www.un.org/en/peacekeeping/contributors/2012/Nov12_2.pdf(검색: 2012.12.1).

34) 국방대학교 PKO 센터의 파병부대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파병 부대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http://www.kndu.ac.kr/pko>(검색: 2012.12.1) 참고.

35) Oxfam International, op. cit., p.25.

통해 군이 민간 기구와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비하는 작업을 체계적으로 훈련할 경우 향후 안정화작전 수행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는 실패한 국가 또는 내전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보다 통치 질서의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UNITAF와 UNOSOM II의 활동을 분석해본 결과 유엔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말리아에 파병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본국의 군사정책에 따라 크게 상이하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소말리아 군벌들 간의 세력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던 미 해병대의 경우 구호물자의 수송 및 보호 임무만을 수행하였다. 한국 상륙수부대의 경우도 도로보수 및 민사작전 등 SOC 복구와 인도적 지원 활동에 집중하였다. 반면 호주 보병대대는 무장해제, 범법자 단속, 사법체계 재건, 주민자치기구의 정비 등 소말리아의 통치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호주 보병대대가 담당했던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주민들의 자치능력이 향상되고, 인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소말리아의 평화정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평화작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평화작전은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안정화·재건작전 등 모든 측면에서 SOC 복구 및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반면 민간인 안전지원, 민간인 통제와 같이 강제력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대한 군의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둘째, 한국의 평화작전은 파병지역의 특성과 관계없이 공병 또는 의무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한국군은 분쟁지역의 평화정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향후 안정화작전 수행 시 군이 담당해야 할 주요 과제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도출한 함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한국군의 안정화작전 교리는 미군의 안정화작전 관련 자료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정화·재건작전 경험을 토대로 발전되었다.³⁶⁾ 그 결과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서 안정화작전과 유사한 과업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작전과 안정화작전의 관련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금까지 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에 대한 연구는 파병전담부대의 설치, 교육·훈련체계의 정립, 관련법의 제정과 같은 군 관련 문제들에 집중되어왔다.³⁷⁾ 그러나 최근 평화유지활동이 정치, 사회, 경제, 인도주의, 선거, 외교 및 군사 등 다양한 측면을 동시에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됨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와의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협조의 필요성은 안정화작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군의 평화작전에 정부 유관기관, 국제 및 비정부기구와 그 외의 민간단체를 통합시키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소말리아에 대한 사례 분석만을 실시하여 인도적 지원활동만으로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대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도적 지원 여부는 평화유지활동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³⁸⁾ 그러나 한국군의 평화유지활동이 인도적 지원에 치우치고

36) 합동참모본부, 『합동교범 3-12 합동안정화작전』, 2010, 서-3쪽.

37) 이근수·정상돈·신법철, 『한국의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방안』,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08, 22~29쪽.

38) Michael W. Dolye and Nicholas Sambani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94, No.4(2000), pp.779~801.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화유지활동의 성공을 위해 우리 군의 노력을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말리아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화유지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획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말리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안정화작전 관련 과제의 수행이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엔이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한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고, 각국 파병부대가 어떻게 평화유지활동을 실시했는지를 면밀하게 비교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군의 평화작전이 파병 지역의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해 보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원고투고일 : 2013. 4. 29,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평화유지활동, 평화작전, 안정화작전, 소말리아, 평화유지군, 통합 특수임무군

<ABSTRACT>

South Korean Armed Forces' Peace Operation and Scheme for Improving Stability Operation Capacity

KMAIR · Kim, In-so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discuss conceptual closeness between South Korea's peace operation and stabilization operation, thus suggesting that South Korean armed forces can secure opportunities for field exercise and training, which is required to contribute to peace building in the country at civil war and to promote capability of stabilization operation by expanding participations in UN PKO in the civil war countries. In order to support this argument, this study examined how UN PKO activities varied across nations participating in UNOSOM II and the extent to which South Korean armed forces carried out tasks associated with stabilization operation during its peace operations. Major findings go as follows. First, UN PKO activities varied greatly according to the participant country's defense policies. If the defense policy allows the participant country to accomplish more tasks associated with stabilization operation, Somali people in the sectors allocated to the participant country is more likely to live in a better security condition. Second, South Korean armed forces putting priority on SOC restoration and humanitarian aid have not been actively involved in civilian security support and civilian control, which was closely associated with stabilization operation. This gives a policy implication that South Korea's peace operation should be expanded toward peace enforcement and peace building, which can contribute to improving South Korea's military capacity for stabilization operation.

Key Words : Peacekeeping Operation, Peace operation, Stabilization operation, Somalia, UNOSOM, UNITAF

한국군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분석으로 본 미래 발전방안 연구

손 승 호*

1. 서 론
2. 부사관 획득제도 분석의 틀
3. 시대별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4. 변천과정 종합분석 및 미래 국방환경
5. 부사관 획득제도 발전방안
6. 결 론

1. 서 론

인력 획득은 조직의 목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사람을 외부로부터 선발하여 적시·적소에 배치하는 일련의 과정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¹⁾ 이러한 국방인력은 사회와는 다르게 소요, 인가, 획득, 분배, 활용 등의

* 현재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재학, 前 육군인사사령부 부사관/병획득과장(2011.1.3.~2013.1.6), 건양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 유민봉 외, 『인사행정론』, 박영사, 2003, 215쪽; 민지 외, 『국방행정』, 대명출판사, 2005, 311쪽.

기능으로 구분하여 인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모집과 선발이라는 두 가지 제도를 통해 우수한 인원을 획득하고 있다.

모집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즉, 선발시험에 응할 잠재적 인적자원을 찾아내서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이다. 선발은 모집 인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확보하는 과정이다.²⁾

국방인력의 획득 중 가장 중요한 분야는 간부를 획득하는 것이다. 간부는 병사를 지도하고 통제하며 군사조직과 장비 등 무력을 운영해야 하므로 간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병사들보다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인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간부인 장교와 부사관 중 전투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 증대로 최근 우수인력 획득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신분은 바로 부사관이다.

이와같은 부사관의 획득제도는 시대별로 많은 발전을 거듭했다.

건군 및 전쟁 전·후 정비기는 한마디로 전쟁준비가 전혀 안된 무방비 상태로 6·25전쟁을 맞이하여 부사관 획득제도가 매우 미흡한 상태였으나, 국방체제 정립기에 들어와서 소요인원이 증가하자 현역병 일병과 상병 중에서 선발하고, 부족한 인원은 민간자원에서 직접 획득하기 시작하면서 부사관의 획득제도가 시작되었다. 이후 자주국방기에는 기술 인력의 필요성 증대와 전투부사관 확보를 위하여 장학생제도를 확대 시행하면서 제도적으로 발전하였으나 매우 미흡한 상황이었다. 국방태세 발전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질적 우수자원 선발을 위한 객관적인 선발 평가도구의 도입과 획득자원을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제도적 체계를 정립하였으나, 미래 국방운영 방향과 현행 부사관 획득제도의 특성을 볼 때 많은 제도적 발전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기술집약형 군 구조 개편과 연계하여 상비 병력은 감축하되 간부 위주로 정예화하기 위하여 간부

2) 민지 외, 『국방행정』, 대명출판사, 2005, 313쪽.

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³⁾ 간부 증원의 핵심은 부사관이며, 육군의 경우 2012년 약 7만여 명에서 2025년까지 약 10만여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⁴⁾ 여기에 출산을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와 신정부에서는 장기과제로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되 병 감축에 대한 대안으로 부사관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⁵⁾ 따라서 군 병력운영의 증대한 변화 상황에서 부사관 능력의 증대, 무기체계의 변화, 신세대 의식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우수 부사관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사관 획득체계로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에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현재의 부사관 획득제도는 병사와 비교할 때 나이, 학력, 군 경험 등이 부족하여 병사를 지휘 통솔하는데 매우 열악한 시스템이다. 또한, 전·평시 소요인원을 적시에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한 획득체계 및 관련 법규의 보완도 시급한 실정이다.

전쟁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은 장차전의 양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과거의 교훈을 활용하여 준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다. 부사관 획득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일천한 수준이다. 특히 전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별도로 연구한 자료는 전혀 없는 수준이다.

따라서 육군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분석을 통해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에 관한 군사를 최초로 정리하여 중요한 역사자료로 보존하고, 향후 전·평시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각종 사료 및 통계치 수집·분석 등을 활용하였다. 역사자료는 주로 전사, 국방부와 육군의 역사일지 등을 활용하였으며, 획득제도는 세부 정책추진 배경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서

3) 법률 제1021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2010.

4) 국방부, 『국방개혁기본계획 1230』, 2012, 43쪽.

5) 국정과제 액션플랜 121-6번, 『병 복무 단축』, 2013.

육군의 각종 정책보고서 및 획득계획 문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육군부사관 획득제도에 중점을 두었으며, 내용적 범위는 시대별 부사관 획득과정, 신규 획득제도 및 배경 등을 포함하되 시대별 특징적인 사례 위주로 분석하여 특성과 유형을 고찰하였다. 시대적 범위는 건군기부터 2013년까지이며, 시대는 국방군사연구소에서 구분하고 있는 ①건군기(1945~1950), ②전쟁 및 전·후 정비기(1950~1960), ③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 ④자주국방기(1972~1989), ⑤국방태세 발전기(1990~현재)로 나누었다. 다만 건군기와 전쟁 및 전·후 정비기는 당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태동기를 고려하여 통합하였다.



2. 부사관 획득제도 분석의 틀

1) 선행연구의 고찰

그동안 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 과정을 별도로 연구한 자료는 없었으며, 군 역사를 정리하면서 인사분야의 대표적인 제도를 요약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건군 이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각종 제도의 변천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향후 발전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사관 획득제도를 최초로 연구한 자료는 1985년 육군본부에서 발간한 인사운영사 제1집이다. 인사운영사는 창군부터 1984년도까지 연도별 대표적인 획득제도를 정리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으나, 획득제도의 배경이나 평가는 물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제시가 전혀 없었다. 1987년도에 제2집을 발간하였으나, 부사관 획득분야와 분석 수준은 제1집과 대동소이하고 작성기간 만 1년 연장된 1985년도까지를 다루는데 그쳤다. 이후 1998년에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건군 50년사는 건군기로부터

1998년까지 안보정세, 조직개편 등을 정리하였으나, 인사분야는 관련 법령과 주요 인사제도 위주로 언급하였다. 특히, 획득분야는 장교 획득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만 소개하는 수준이었으며, 부사관 획득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없었다.

2001년 육군 부관 50년사를 발간하면서 부사관 획득분야를 일부 언급하였으나, 인사관리제도 위주로 언급하였다. 이후 2008년 육군 60년 발전사를 발간하였으나, 건군 50년사와 유사한 수준이며 인사분야 제도는 건군 50년사보다 오히려 적게 다루었다.

부사관 획득과 관련한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발행한 정길호 등이 연구한 보고서이다.⁶⁾ 본 연구는 창군 이후 부사관 획득제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06년 부사관 획득제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2007년 이후 급격한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시대별 안보상황과 연계한 체계적인 연구이기 보다는 단순분석형 보고서의 수준이었으며, 전시 획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한편, 전시분야는 1994년도에 육군본부 군사연구실에서 “한국전쟁과 전투근무지원”을 발간하여 6·25전쟁 당시 병력보충 실태를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으나, 병 충원 실태 위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하는 수준이었으며, 부사관 획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전시 획득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한계점이 있다.

2) 변천과정 평가 분석의 틀

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기 위해 평가의 모델을 설정하고자 한다. 평가모형은 평가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매우 다양하며 절차도 각기 다르나 일반적으로 변천과정을 평가할 때 많이 적용

6) 정길호 외,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한 미래 육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7, 78~87쪽.

하는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하고자 한다.

의사결정 모형은 평가를 통하여 의사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돕는 과정모형이다. 즉, 평가의 목적이나 결과가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활용되어야 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조력하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대표적인 의사결정 모형으로는 Stufflebeam의 CIPP 모형, Cronbach의 연구적 접근, Alkin의 CSE 모형 등이 있는데, 본 연구의 목적과 가장 적합한 모형은 Stufflebeam의 CIPP 모형으로 판단된다.

CIPP 프로그램 평가모형은 흔히 ‘CIPP 모형’이라 하며, 이는 4가지 평가유형을 의미한다. C는 상황평가(context evaluation), I는 투입평가(input evaluation), P는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 P는 산출평가(product evaluation)이며, CIPP 모형의 평가절차는 <표 2-1>과 같다.

<표 2-1> Stufflebeam의 CIPP 모형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내용
상황평가	계획단계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체적인 상황이나 환경적 여건을 파악한다.
투입평가	구조화 단계로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떠한 산물이 투입되어야 하는가를 파악한다.
과정평가	구조화 단계에서 수립한 전략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발생 가능한 사건 등을 파악한다.
산출평가	결과단계 활용을 위해 전체 과정을 통해 산출된 결과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한다.

자료: Stufflebeam, D. L.(1971), “The Relevance of The CIPP Evaluation Model for Educational Accountability”, *Journal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education*(Fall 1971): pp.19~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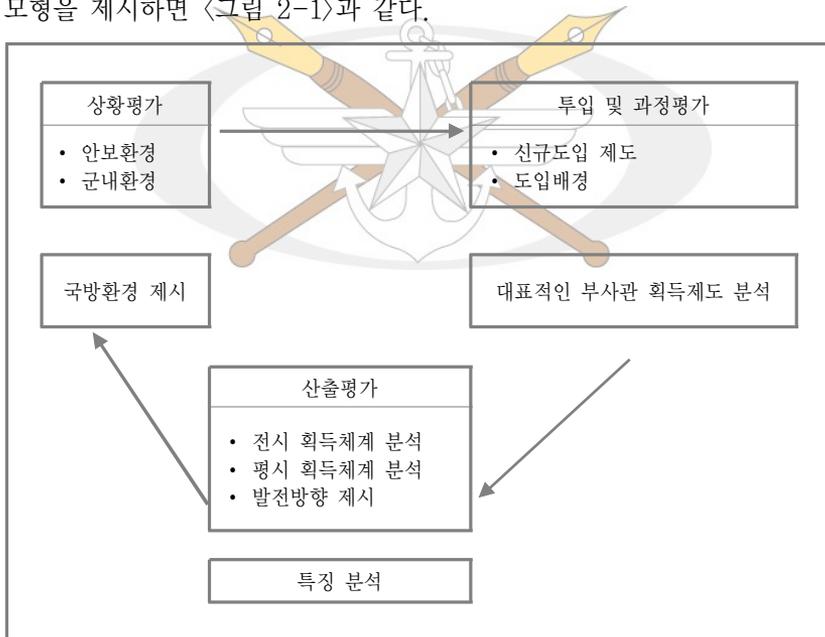
CIPP 모형의 평가절차에 따라 각 평가단계의 준거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황평가로서 시대별로 부사관 획득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준거는 국방환경이다. 국방환경은 당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획득제도를 도입하였는지 파악한다.

둘째, 투입 및 과정평가로서 실제 어떠한 획득제도를 도입하였는지를 파악한다. 이를 위한 준거는 시대별 도입제도와 배경, 특징 등이다.

셋째, 산출평가로서 육군부사관 획득제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평시 적시적이고 안정적으로 우수자원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상의 3가지 평가단계와 준거들을 토대로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 평가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육군부사관 획득제도 평가모형

3. 시대별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본 연구는 CIPP 모형을 기본 골격으로 하여 주요 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자 3가지 평가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상황평가)는 부사관 획득제도를 가져온 국방환경, 2단계(투입 및 과정평가)는 대표적인 부사관 획득제도, 3단계(산출평가)는 시대별 부사관 획득제도의 특징 및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분석하는 단계로 구분하였다.

1) 건군 및 전쟁 전·후 정비기(해방이후~1960년)

(1) 국방환경

이 시기에는 미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의존적 자주국방정책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워낙 자주적 안보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지원 없이는 존립조차 어려웠다. 따라서 주요 국방정책은 우선적으로 국방조직 및 국방행정체제를 정립하고, 군사력건설과 교육훈련 제도화, 한국전쟁 수행과 전후 복구 등이었다.

한편, 건군과 더불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자 국방부는 1949년 호국군을 창설하였으나⁷⁾, 정치적인 문제로 1949년 8월 6일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해체되고 청년방위대가 창설되었다. 그러나 1950년 6월에 이르러 20여만 명 규모의 청년방위대가 본격적인 훈련에 착수할 무렵 전쟁이 발발하여 훈련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해산하고 말았다.⁸⁾ 이러한 정책적 실수로 국가총력전 체제를 갖추는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전시 소요인력의 안정적 충원체계와 동원자원 확보의 중요성 측면에서 큰 교훈을 주었다.

7) 주한미군의 철수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자 자주적 국방을 위한 병력 확충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미국의 강력한 통제로 정규군의 증편이 불가능하게 되어 예비군 제도인 호국군을 편성하게 되었다.(호국군사, 2001, 22쪽)

8) 국방부, 『건군 50년사』, 국방군사연구소, 1998, 144쪽.

(2)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

이 시기에 부사관의 획득은 주로 현역병 중에서 진급으로 선발하는 획득 제도를 시행하였다.⁹⁾ 따라서 부사관 획득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병 충원 체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창군 초 병은 지원자로 충원하였으나 병역법이 1949년 공포됨에 따라 병역의무가 부과됨으로써 의무병제도로 변혁되었다.¹⁰⁾ 그러나 정상적인 징집업무를 집행하지 못할 단계였으며, 예산제한으로 육군본부 병무국과 병사구사령부는 다음 해인 1950년 3월 14일부로 해체하였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병력동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였으나 개전초 혼란한 치안상태와 행정기관의 부재로 정상적인 징집 및 병력동원이 어려운 가운데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게 되었다. 다행히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이 수복되어 다시 병사구사령부를 설치하게 되는데, 각 도의 행정 여건상 전국에 동시에 설치하지 못하고 1950년 9월부터 1951년 4월 사이에 10개의 병사구사령부를 창설하여 징·소집 및 동원업무, 학생 군사훈련, 노무자와 군인가족에 대한 원호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긴급히 소요되는 병력보충을 위하여 1차 징집대상자를 30세 미만자로 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긴박한 작전상황과 신체검사 기구마저 미비하여 예비 신체검사도 생략하고 소집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개전초 1950년도 9월까지의 경상도 자원을 주로 거리모집과 집단모집을 통해 입영시켰으며, 1950년 하반기에는 교통수단과 수용문제 등으로 전국자원을 소집하지 못하고 경인지역 자원으로 보충하였다. 이후 1950년 11월 중공군이 개입함에 따라 2차로 서울을 철수하게 되어 전국 자원의 정상적인 징·소집 업무는 마비되고, 각 도의 병사구사령부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었다. 그 후 1951년 남한지역을 재탈환하면서 동년 8월 국방부에 병무국을 설치하고 10개 지구 병사구사령부를 국방부로 배속

9) 1959~1971년에는 소년병 중에서 일부 선발하였고(육군 인사 50년 발전사, 1987, 81쪽), 호국병역으로서 전역한 자 등에서도 선발하였다.(국방사 제1집, 국방부, 1984, 283쪽)

10) 육군본부, 『육군 인사 50년 발전사』, 1987, 82쪽.

시킴으로써 징·소집업무가 정상기능을 유지하게 되었다.¹¹⁾

신병 양성기관도 6·25전쟁중인 1950년 8월 경북 대구에서 제1훈련소를 창설하여 제주도로 옮겼으며, 1951년 11월 제2훈련소가 논산에서 창설되어 제1훈련소는 보병 요원을 제2훈련소는 기행병 요원을 양성하였다.¹²⁾ 또한, 부사관 양성기관도 유엔군의 재반격 시기인 1951년 3월 부산에서 ‘육군제2훈련소’를 ‘육군하사관학교’로 개칭하여 창설되었다.¹³⁾

한편, 여군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여자 학도의용군’으로 이어져 행정정보조, 선전·선무, 간호, 정보연락·수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여성대원들의 활약에 힘입어 1950년 9월 1일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창설되어 제1기가 수료하여 장교로 임관하거나 부사관 또는 병으로 복무하였다.¹⁴⁾ 즉, 이때부터 정상적인 군사교육을 받은 여군 부사관이 처음 보직된 것이다. 이후, 전쟁의 소강상태로 여자 의용군의 대량 귀가와 획득 중지로 교육기관이었던 여자 의용군교육대가 1951년 11월 해체되고, 육군본부 고급부관실 내에 새롭게 ‘여군과’를 설치하여 여자 의용군에 대한 인사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¹⁵⁾ 여군과 신설로 1951년 11월 15일부로 ‘여자 의용군’이란 용어가 ‘여군’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으로 개칭되었으며, 여군병과 휘장이 제정되었다.¹⁶⁾

여군이 행정기술업무분야를 담당함으로써 더 많은 남자군인을 전투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52년 10월 1일 여군 기술하사관 획득 안을 시행함으로써 비로소 여군 사병의 장기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때부터 여군 병은 복무기간 2년 만료 후 본인이 복무연장을 원하면 심사를 거쳐 부사관으로 계속 복무하게 하였다.

11)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한국전쟁과 전투군무지원』, 1994. 85~86쪽.

12)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 인사 50년 발전사』, 2004, 83쪽.

13) 국방부 일반명령 제43호에 의거 1951.3.1 창설되었으나 동년 7월 해체되었다가 1953.1월 육군 직할부대로 태릉에서 재창설되었으며, 이후 1953.8월 2훈련소내에 하사관교육대를 창설하였다.

14)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여군 60년사』, 2011, 3쪽.

15) 위의 책, 7쪽.

16) 여군병과는 여군발전계획에 의거 병과별로 전문화시키기 위해 1990년 1월 1일 폐지하였다.

(3) 특징 분석

건군 및 전쟁 전·후 정비기는 창군 직후 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주로 현역병 중에서 긴급으로 획득하는 체계였다. 또한, 전시 긴급하게 소요되는 부서관을 양성하기 위해 부서관학교를 창설하였고, 남군을 전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으로 여자 의용군 획득제도를 긴급하게 시행하였다. 한편, 부서관의 획득원인 병충원 역시 의무병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정상적인 징집업무의 제한으로 적시적인 병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마디로 전쟁준비가 전혀 안된 무방비 상태로 6·25전쟁을 맞이하여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는 미래 전시업무를의 개념 정립을 위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전시 소요인력을 적시에 획득하기 위한 동원자원의 확보, 추가 소요인원의 안정적 획득을 위한 다양한 획득원 확보, 전시 긴급한 상황에서 현실성 있는 지원자의 확보 및 선발평가 등을 평시부터 잘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2) 국방체제 정립기(1961~1971년)

(1) 국방환경

이 시기에는 1961년 5·16군사혁명 이후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특히, 5·16군사혁명을 비롯하여 한일회담, 국군파월, 3선개헌 등의 대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진통을 겪기도 하였으나, 2차에 걸친 5개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 추진으로 국내 질서는 안정을 되찾은 기간이었다. 또한, 국방정책은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를 강화하고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간첩침략을 분쇄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2)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

지금까지 주로 현역병 중에서 선발하던 부사관 획득체계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현역병 중 진급으로 획득하던 부사관은 1962년 10월부터 현역 일병과 상병 중에서 선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1959년부터 시행하던 소년병에서의 부사관 획득은 지원자가 없어서 1971년도에 폐지하였다.¹⁷⁾ 둘째, 전문 기술부사관의 역할 및 전문성, 즉각 활용성을 고려하여 사회에서 양성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64년 기술장학생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술장학생제도는 고교 1학년 신입생을 모집하여 고교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술병과로 임관하여 5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였으며, 1993년까지 29년간 시행하였다. 셋째, 현역병과 기술장학생 지원자 부족으로 획득인원이 미달하자 1964년부터 민간자원 획득을 도입하였다.¹⁸⁾ 이처럼 민간자원 획득의 확대에 따라 민간자원 74%, 현역병 22%, 기술고등학교 4% 수준으로 획득하였다.

한편, 부사관학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6·25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 육군의 재편성 및 현대화 과정에서 부사관의 정원 증가와 역할 증대로 교육소요가 급증함에 따라 각 사단의 부사관 교육대를 통합하여 제1하사관학교(1961년 창설, 원주), 제2하사관학교(1966년 창설, 여산), 제3하사관학교(1973년 창설, 가평)를 창설하여 부사관을 양성하였다.¹⁹⁾

(3) 특징 분석

이 시기는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여 국토방위를 위한 전투태세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육군의 재편성 및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이 때문에 부사관의 역할과 소요인원이 증대하여 기존의 미흡했던 부사관 획득제도를

17)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 인사 50년 발전사』, 2004, 81쪽.

18) 위의 책, 81쪽.

19) 육군본부 군사연구소, 『육군 인사 50년 발전사』, 2004, 81쪽; 정길호 외,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한 미래 육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7, 78쪽.

정비하고, 현역병 중 진급에 의한 획득체계로는 소요인원의 충족이 제한되자 일·상병 중에서 선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특히 최초로 민간자원을 직접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 전투장비를 운용하는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에서 양성된 기술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기술 장학생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한편, 양성인원의 증가로 각 사단의 부사관 교육대를 통합하여 1·2·3하사관학교를 창설하였다. 창군기와 6·25전쟁기에 비하여는 많은 제도적 정비를 하였으나, 여전히 늘어나는 소요인력의 충족과 특히 기술 인력의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부사관의 정원증가로 소요인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획득원이 필요하며, 특히 부사관의 특성상 전투장비를 직접 운용할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3) 자주국방기(1972~1989년)

(1) 국방환경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장기집권과 유신체제 강화로 민주화 운동의 열기가 뜨거웠던 암울한 시기이기도 하였지만,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어 고급인력과 수준 높은 기능공을 양성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 접어들면서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독자적인 전쟁대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굳건한 한·미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기반조성을 위한 국방목표를 처음으로 제정하여 방위산업의 육성 등 자주국방과 독자적 전력증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오늘의 국방선진화를 이루는 데 큰 시발점이 되었다.

(2)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

이 시기에 부사관 획득제도는 좀 더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먼저, 1970년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원자가 부족한 소년병 획득을 1971년부터 중지하였으며, 1976년도에는 기술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금오공고 부사관후보생(RNTC) 제도를 시행하여²⁰⁾ 정예기술 부사관과 중견 기술 인력을 최초로 확보하였다.²¹⁾

한편, 여군 부사관 획득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1967년 11월 여군 하사관단이 창단된 이후 1971년부터 하사관후보생과정이 여군훈련소에 신설됨에 따라 여군 병 중에서 선발하여 1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하사로 임용시켰다. 1974년부터는 ‘여군 하사관 정예화계획’에 의거 여군의 초임계급이 이등병에서 하사로 변경되었다.

1976년부터 1981년까지는 기술 인력 획득을 확대함에 따라 획득자원도 민간자원 44%, 현역병 43%, 기술고등학교 9%, 금오공고 4% 수준으로 기술부사관이 13% 수준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1980년대를 살펴보면, 1980년 11월부터 보병분대장 직위에 일반하사²²⁾를 운영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소요에 미달하는 전투병과 부사관을 확보하고자 고교장학생제도를 인문계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전투병과 부사관의 임용 나이를 19세로 하향 조정하였다. 그러나 병사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나이도 초임하사보다 많아 부사관으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미흡하여 군 경험이 풍부한 예비역 중 지원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1986년부터 도입하였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사회경기 호전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저조하여 민간자원보다는 현역병 중에서 다수인원을 획득하였다. 이 때문에 획득자원도 현역병 51%, 민간 21%, 전투장학생 15%,

20) 정길호 외,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한 미래 육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7, 78쪽.

21) 금오공고 부사관후보생제도는 1학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학비, 기숙사 등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25주간의 교육후 임관하여 5년간 복무하도록 한 제도이다.

22) 일반하사란 본인의 바람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병사와 복무기간이 동일함(병영관리 용어해설, 병무청, 2010.11)

기술고 10%, 금오공고 3% 수준이었다.

한편, 군별로 운영하던 ‘제1·2·3하사관학교’를 해체하고, 1981년 제2하사관학교를 모체로 하여 ‘육군하사관학교’로 통합하였다.²³⁾

(3) 특징 분석

이 시기는 주한미군의 감축으로 자주국방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면서 독자적인 전쟁 대비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방위산업의 육성 등 자주국방과 독자적 전력증강을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군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편, 경제 성장에 따라 노동력의 공급 부족현상이 두드러지게 되어 민간부문의 고급 인력과 수준 높은 기능공을 양성해야 할 책임도 동시에 지게 되었다.

이처럼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존 기술고등학교 이외에 금오공고 장학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경기의 호전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저조하게 되자, 전투부사관 확보를 위하여 보병분대장 직위에 일반하사를 운영하였으며, 나아가 인문계고등학교까지 장학생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군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기술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하였고, 사회의 경기가 호전되면 부사관의 지원율에 큰 영향을 주는데 육체적으로 어려운 전투특기는 더욱 지원율이 저조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병사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나이도 초임하사보다 많아서 부사관으로 해야 할 역할 수행이 미흡하여 새로운 문제점으로 대두하였다. 이는 미래 획득제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4) 국방태세 발전기(1990년~현재)

(1) 국방환경

1980년대 후반에는 민주화 요구 등 사회적 혼란이 극심하였으나, 86

23) 육군본부, 『일반명령 제44호』, 1981.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개최로 한민족의 저력을 온 세계에 과시한 민족 최대의 국운 상승의 호기를 맞이하였다. 국방정책도 한국적 국방체제를 정립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로 독자적인 자주국방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평시 작전통제권이 1950년 7월 14일 연합사령관에게 이양된 지 44년 만인 1994년 12월 1일 환원됨으로써 한반도 국방은 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에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자주적 선진국방’ 구현을 위한 장기 국방비전인 『국방개혁 2030』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1일부로 전시 작전권을 한국군으로 환원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

국방태세 발전기와 더불어 부사관 획득제도는 비로소 우수 인재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먼저 1990년대를 살펴보면, 하사와 선임병과의 갈등을 없애고자 현역 병에게 부사관 지원 장려금을 지급하여²⁴⁾ 군복무 유경험자가 부사관을 지원하도록 유인하였으며, 현역 일·이병에서 획득하던 것을 폐지하고 현역 상·병장 획득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일반하사제도를 1993년도에 폐지하고 병 분대장으로 운용하도록 개정하였다.

한편, 부사관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 1994년에는 금오공고 모집을 중지하고, 1995년에는 고교 장학생제도를 폐지하였다. 반면에 군의 현대화 및 정보화로 기술 인력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술부사관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전국 104개 전문대학과 학군제휴를 체결하여 1996년부터 ‘전문대 군장학생제도’를 시행하였다.²⁵⁾ 이 때문에 1990년대의 획득과정별 비율은 민간자원이 51%로 확대되고, 현역병 47%, 전문대 장학생 2%

24) 대통령령 제13210호,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지급규정』, 1990.

25) 정길호 외, 『군구조의 개편과 연계한 미래 육군 인력획득체계 개선 연구』, 한국국방연구원, 2007, 79쪽.; 대통령령 제17158호, 『군장학생 규정』, 2001.

수준으로 획득하였다.²⁶⁾

이후, 2000년대 들어와서 부사관 획득제도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획득과정도 현역부사관, 민간부사관, 전문대 군장학생, 유급지원병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²⁷⁾ 또한, 부사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하사관’으로 명명하던 신분명칭을 2001년 3월 27일부터 ‘부사관’으로 개정하였으며, 1998년까지 상·병장에서 선발하던 현역 부사관의 획득을 일병 이상으로 지원 자격을 변경하였다. 또한, 여군은 국방개혁의 하나로 2009년 이전 대비 3배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앞으로 2017년까지 부사관 정원의 5%까지 확대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²⁸⁾

이외에도 2000년대에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많은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다. 즉, 안정적인 부사관 획득을 위하여 전문대학과 학군협약을 체결하고, 간부 인성검사 도구를 도입하였다. 2006년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군복무기간만큼 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하였으며²⁹⁾, 예비역 대위가 부사관에 임용되면 초임계급을 중사로 임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³⁰⁾ 2009년에는 새로운 필기평가 도구인 직무적성검사를 도입하였고, 장학생 사전선발제도를 시행하였다. 이 중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직무적성 검사, 인성검사, 전문대학 학군협약 체결, 전문대 군장학생 선발제도, 현역부사관 장려수당지급제도, 유급지원병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직무적성 검사의 도입이다.

부사관 선발 평가요소 중³¹⁾ 필기평가는 12개 모집권 부대별로 영어, 수학, 국사, 상식 등 교과 중심의 소양평가를 시행하였으나, 2007년도에

26) 군사연구실, 『부사관 주요제도 변천사 요약』

27) 육군인사사령부, 『2013년 단기복무부사관 모집선발 계획 공고』, 2012.

28) 법률 제10217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6조, 여군 인력의 활용 확대』, 2010; 국방부 인력관리과-2621, 『여군인력 활용확대 추진계획』, 2009.

29) 대통령령 제17102호(2001.1.4), 제23735호(2012.4.17)에 의거,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30) 군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제618호, 『부사관의 초임계급』, 2007.

31) 평가요소는 1차 필기평가와 인성검사이며, 2차는 체력, 면접, 신원조회, 신체검사이다.

직무적성검사 도구를 도입하여 육군본부 주관으로 평가하고 있다. 직무적성검사는 KIDA에서 개발한 간부 선발도구로서 인지능력검사와 상황판단검사, 직무성격검사로 구분되어 있다. 인지능력 검사는 언어능력, 자료해석, 공간지각, 지각속도 등 93문항이며, 상황판단검사는 15문항, 직무성격검사는 225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직무적성평가 도구의 도입으로 간부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직무성격 등의 역량을 과학적·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국가고시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둘째, 인성검사제도의 도입이다.

간부가 지녀야 할 기본자질을 선별하기 위하여 2003년에 인성검사(KMPI)³²⁾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KMPI는 병사용으로 개발되어 간부선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2004년 다면적 인성검사(MMPI-I)³³⁾를 도입하였다. MMPI는 인간의 심리상태를 측정하여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의 정신과적 진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후 2009년 한국 임상심리학회에서 MMPI-II를 새롭게 출간하여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다. 검사도구별 활용기간 및 측정내용은 아래 <표 3-1>과 같다.

<표 3-1> 부사관 선발용 인성검사 도구

구 분	KMPI	다면적 인성검사	
		MMPI-I	MMPI-II
활용기간	'03년~'04년	'05년~'08년	'09년~현재
문 항 수	383문항	566문항	567문항
척 도 측정내용	타당도(3개) 임상(10개)	타당도(3개) 임상(10개)	타당도(9개), 임상(10개), 내용(15개), 보충(15개), 성격병리(5개), 재구성임상(9개)

출처: 마음사랑(주), 2008, 『인사선발 및 인력관리를 위한 다면적 인성검사의 활용』, 16쪽.

32) KMPI는 한국형 육군인성검사로 Korea Military Personality Inventory의 약어

33) MMPI는 Minesota Mutiphastic Personality Inventory의 약어

셋째, 전문대학 부사관학과와 학군협약 추진이다.

전문대학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은 우수 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대 부사관학과와 학군협약을 추진하였다. 학군협약제도는 2000년도에 최초로 군 정비기술 부사관 부족인력과 종합정비창 등 군무원 이직률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정비 기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³⁴⁾ <표 3-2>와 같이 총 8개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1,09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표 3-2> 특수부사관과 협약대학

구 분	협약대학	학과(정원)	임관후 진출 분야
2000년	창원문성대학	특수장비(80) 국방물자(40)	전차/장갑차/자주포 정비, 물자/장비수리부속보급
	창신대학	헬기정비(100)	항공운항, 헬기수리/정비
2001년	전남과학대학	특수장비(130) 특수통신(70)	전차/장갑차/자주포정비, 유·무선 정비
2003년	대덕대학	총포광학(60), 유도 탄약(60), 특수무기 (60), 국방물자(60)	총포/사격기재 수리, 탄약관리, 대공/유도무기수리, 물자/장비수리부속보급
	상지영서대학	국방통신(120)	유/무선 정비
	경기공업대학	특수자동차정비(150)	일반차량 수리, 차량운용
2004년	구미대학	특수건설장비(120)	공병운용, 공병/일반장비수리
2011년	우송정보대	조리(40)	식품 영양, 조리

출처: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학군제휴 군외 정비기술 인력 확보 방안(2000)』 및 『육군인사사령부 자료수집 결과(2013.3월)』 재정리

한편, 2006년부터는 전투부사관 지원율의 저하에 따른 우수자원의 안정적인 모집을 위하여 일반부사관학과로 협약을 확대시켜³⁵⁾ <표 3-3>과

34)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학군제휴 군외 정비기술 인력 확보방안 검토』, 2000.

35) 육군본부, 『민간대학 전문인력 획득방안 검토』, 2005.

같이 2012년 기준으로 44개 대학 2,500여 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2015년까지 6개 대학을 추가로 협약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다.

〈표 3-3〉 일반부사관과 협약대학

구 분	대학수	협 약 대 학 (정원)
2006년	12개	연성(80), 강릉영동(80), 동우(120), 전주기전(40), 서영(80), 영남이공(70), 경북전문(70), 대경(70), 혜전(90), 마산(110), 포항(50), 가톨릭상지(40)
2008년	10개	경남정보(40), 경북도립(25), 대구과학(60), 동부산(100), 대구산업정보(50), 청암(35), 신성(40), 충청(40), 영진전문(90), 안동과학(30)
2009년	5개	경북과학(40), 계명문화(40), 주성(120), 대구미래(60), 선린(120)
2010년	2개	전남과학(40), 구미(80)
2011년	6개	대구공업(40), 동강(40), 두원공과(40), 전주비전(40), 조선이공(40), 혜전(30)
2012년	9개	경민(40), 동원(40), 장안(40), 한국관광(40), 여주(40), 대전보건(40), 원광보건(40), 전남과학(40), 영진전문(40)

출처: 육군본부 분석평가단, 『민간대학 부사관학과 운영성과분석 결과』, 2011, 3쪽.

넷째, 전문대 군장학생제도의 도입이다.

1996년도부터 시행하여 온 전문대 군장학생제도는 2000년대에 들어 와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동안 기술특기 위주의 선발에서 비선호 분야인 전투특기 모집인원을 확대하고, 1~2년간 지급하던 장학금 지급 기간을 가산복무가 가능한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 획득인원을 2009년 470여 명에서 2010년에는 750여 명으로 증원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전문대 1~2학년층을 대상으로 확정 선발하던 제도에서 2009년부터 사전 선발제도를 도입하였다.³⁶⁾ 세부 변천과정은 다음의 〈표 3-4〉와 같다.

36) 사전 선발제도는 2009년 육군 부사관 사전 선발제도 시행계획에 의거 부사관 장기복무율의 감소와 대학생 조기 입영 등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급격히 감소하여 전문대 1학년층을 대상으로 부사관 예비자를 미리 선발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이다.

〈표 3-4〉 부사관 장학생제도 변천과정

구 분	기술장학생	금오공고	전 문 대
시행기간	1964~1993(29년)	1976~1994(18년)	1996~현재
지원자격	고교 1학년	금오공고 1학년	전문대학 1학년
장 학 금	고교 3년간 장학금 지급	학비, 기숙사 등 전액 국비지원	1~2년간 장학금 지급 ('09년 이후 1년 지급)
의무복무	5년	5년	4년(~2006년), 5년(2007년~)

출처: 육군 인사참모부, 『13년 전문대 군장학생 및 예비부사관 선발계획』, 2013, 1쪽.

다섯째, 현역부사관 장려수당 차등지급제도의 도입이다.

지금까지 계급별로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장려수당 지급액을 2004년부터 숙련도를 고려하여 복무 월수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현재까지 〈표 3-5〉에서와 같이 변화됐다.

〈표 3-5〉 현역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제도 변천과정

구 분	대 상	주요 변경내용
1982년	병 장	1인당 100만 원 지급 시작
1991~2003년	병 장	1인당 728.5만 원
1993년	병 장 상 병	지급대상 확대(상병 추가)
2004년		복무월수별 차등 지급(1인평균 500만 원)
2005년	병 장 ~ 일 병	지급대상 확대(일병 추가)
2007년		지급액 삭감(1인평균 382만 원 지급)
2008년~현재		지급액 삭감(1인평균 250만 원 지급)

출처: 육군본부,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및 활용방침』, 2007, 3쪽.

여섯째,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이다.

2004년에 병 복무기간을 2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다시 2015년까지 18개월로 단축안을 발표함에 따라 숙련도 저하와 첨단장비 운용능력 향상을 위해 2008년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였다.³⁷⁾ 유급지원병제는

37) 법률 제10814호, 『병역법 제20조의2, 유급지원병제의 운영』, 2011; 대통령령 제20336호,

병 복무 만료 후 전투 및 기술숙련분야, 첨단장비 운영분야에 6~18개월 간 봉급 및 수당을 받으며 복무하는 제도로 2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 I은 전문하사로 병 전역 2~6개월 전에 사·여단장 책임하에 선발하여 병 의무복무 만료 후에 6~18개월간 연장 복무하며, 주로 전투 및 기술숙련직위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유형 II는 전문병으로 입대 전 병무청 주관으로 선발하여 병 의무복무기간인 21개월 복무 후 15개월간 하사로 복무하며, 주로 첨단장비 운영직위에 활용하는 제도이다. 유형 II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특성화고교 10개 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³⁸⁾ 장학금을 지원하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획득하고 있다.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으로 전문하사 임관자가 증가하여 하사 부족직위의 충원은 물론, 병 복무를 통한 숙련도를 바탕으로 전투력 발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3) 특징 분석

이 시기에는 『국방개혁 2030』의 추진과 2015년 전시작전권 환원으로 더욱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부사관 획득제도도 양적, 질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대에는 병과의 마찰을 없애고 학력, 나이, 군 경험면에서 우수한 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고교장학생과 일반하사제도를 폐지하고 전문대 장학생과 현역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제도를 도입하였다.

2000년대에 와서는 양적 충족은 물론 우수 자원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직무적성검사 및 인성검사 등 객관적 평가도구를 도입하고, 사회에서 양성된 맞춤형 인력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문대 군장학생제도 및 학군협약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숙련 및 첨단장비 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유급지원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여성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다.

『유급지원병 운영규정 제2조, 복무기간』, 2007.

38) 군 특성화교 10개학교는 성동공고, 송파공고, 수원공고, 도화기계공고, 대전동아미이스터고, 충남운산공고, 부산전자공고, 광주금파공고, 경북항공고, 전북강호항공고 등이다.

그러나 향후 출산을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와 부사관 정원의 대폭 확대로 인력충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맞춤형 인력획득과 여성인력의 확대 정책이 필요하고, 유급지원병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발전시키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미래 부사관 획득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변천과정 종합분석 및 미래 국방환경

시대별 육군 부사관의 획득제도는 <표 4-1>과 같이 변화되어 왔다.

<표 4-1> 시대별 주요 부사관 획득제도

구 분	주요 획득제도
건군기 및 전쟁 전·후 정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중에서 진급으로 획득 · 여자의용군 획득제도 시행 · 부사관학교 창설
국방체제 정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역병 일·상병 중에서 획득하도록 확대 · 민간부사관 최초 획득 · 기술장학생제도 도입
자주국방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오공고 부사관후보생 제도 시행 · 여군의 초임계급 하사로 변경 · 고교 장학생제도를 인문계고교 까지 확대 · 예비역 중 획득제도 도입
국방태세 발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대 군장학생제도 도입 · 현역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제도 도입 · 객관적인 평가도구 도입 (인성검사, 직무적성검사) · 전문대와 학·군협약 체결 시행 · 유급지원병제도 도입 · 국방개혁에 의거 여군인력 대폭 확대 추진

이를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군기 및 전쟁 전·후 정비기에는 군 인사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긴박하게 소요되는 부사관을 획득하다보니 주로 현역병 중에서 진급으로 획득하는 체계였다. 부사관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제도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6·25전쟁 시와 같은 잘못을 겪지 않도록 전시 긴박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부사관을 획득할 수 있는 체계를 평시부터 확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남군을 전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의료 및 행정지원 인력으로 여자의용군을 획득하였는데, 이는 출산율의 저하에 따른 여군인력의 활용 확대와 관련하여 발전시켜야 할 분야이다.

둘째, 국방체제 정립기에는 소요인원의 충원을 위해 현역병 중 진급에 의한 획득에서 일·상병에서 선발하는 체계로 개선하였으며, 민간자원에서 최초로 부사관을 획득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군의 전투장비를 운용할 기술 인력의 필요성에 따라 기술장학생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부사관 신분의 특성상 기술 인력 등 소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획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첨단장비 운용을 위한 기술집약형 병력구조로 변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기술 인력의 안정적 확보 대책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셋째, 자주국방기에는 기술 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장학생제도를 확대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 경기의 호전으로 부사관 지원율이 저조하자 전투부사관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하사 운영제도의 개선과 장학생제도를 확대 시행하였다. 이 시기의 시사점은 군 장비의 현대화에 따라 기술 인력의 소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으며, 사회의 경기가 부사관 지원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학생제도 등 각종 혜택의 확대가 필요하고, 병사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나이도 초입하사보다 많아서 초급부사관의 지휘통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 획득제도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넷째, 국방태세 발전기에는 질적 우수자원 선발에 중점을 두고 전문대

군장학생과 현역 부사관 장려수당 지급제도의 도입, 객관적인 평가도구 도입, 사회에서 양성된 맞춤형 인력획득체계 구축, 유급지원병제도의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향후 부사관 정원의 증가와 출산을 감소로 병역자원이 부족할 전망이므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력획득과 여성인력의 활용 확대, 유급지원병제도의 현실화, 평가 및 선발체계 개선, 각종 혜택의 확대 등 보다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미래 부사관 획득제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과제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시대별 분석을 통한 발전과제를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미래 국방환경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미래 국방환경은 첫째,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로 사회적으로 전문기술직, 행정관리직, 서비스 관련직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단순 노동직의 비중은 정보기술의 발전 및 생산성 향상,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국방분야에도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들을 획득 및 양성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위협은 더욱 고조될 것이다. 북한 체제의 안정과 대외 관심도 증폭을 위해 비대칭 전력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더욱 고조시킬 것이며, 아울러 방사포 등 재래식 무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군사력을 증가시켜 나갈 것이다. 따라서 적정수준의 병력은 변함없이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과학기술의 발전과 무기체계의 변화이다. 미래 전쟁양상의 변화와 주변국들의 군사력 변화, 우리군의 군사력 건설 방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규모 병력을 보유하는 양 위주 군사력을 질 위주로 전환시켜 첨단무기체계를 개발·운용하고, 정보화군을 선도할 고기능·고기술·고지식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국방인력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이다. 소위 신세대의 탈권위주의적,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가치관과 자율성, 자아실현 욕구 체계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군내에 유입됨으로써 지휘통솔 방법의 변화와 안정된 직업성의 보장 없이는 우수인재를 유인할 수 없을 것이다.

다섯째,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를 넘어서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출산율의 심각한 저하는 이미 2006년 합계 출산율이 1.13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병역이행의 대상인 20세 남자 인구는 2000년까지는 40만 명을 넘었으나 2015년 이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여 2020년 이후에는 급격히 줄어들어 연간 4~6만 명의 병력자원 부족 현상이 예상된다.³⁹⁾ 따라서 과거의 대량 모집을 통해 활용하고 대량 유출시키는 인적자원의 소모적 활용 방법은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고령사회에 걸맞은 인력활용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즉 소규모로 인력을 모집하되 장기간 활용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5. 부사관 획득제도 발전방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관 획득제도는 약 60여 년의 역사를 통하여 많은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미래 안보 및 사회 환경과 군 인력운영 상황, 부사관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제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등으로 더욱 위협이 증가할 것이므로 전시 획득체계부터 완벽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둘째, 사회

39) 조관호 외, 「국방개혁에 부응한 인력정책 발전방안」, 한국국방연구원, 2009; 한국병영정책연구소, 「병역자원 부족과 21세기 병영정책 방향」, 2002, 94~97쪽.

환경은 사회경기의 변화와 고용인력 정책의 안정 여부, 청소년의 직업관 등은 부사관 지원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군 인력운영 면에서는 출산을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의 감소와 부사관 정원의 확대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부사관의 역할 면에서는 전투전문가가 지녀야 할 자질을 갖추도록 더욱 우수한 자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개념을 우선 정립하고, 평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전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발전방안

우선, 전시 상황을 고려한 하사 획득개념을 정립하여야 한다.

전시 상황에 적합한 부사관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분대장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자원을 획득하여야 한다. 특히, 민간자원의 70% 이상이 전투병과임을 고려할 때 더욱 지휘경험 및 전투경험자를 하사로 획득하여야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시 초임하사 획득의 우선순위는 ① 하사 동원자원, ② 병장 동원자원 중 우수자 현지임관, ③ 현역병 중 현지임관, ④ 전투유공자 진급 순으로 우선 획득하고, 추가로 부족할 때에만 ④ 민간자원에서 신규 획득하도록 개념을 설정하여야 한다.

먼저, 하사 동원자원은 일반하사 제도의 폐지와 하사 전역자 감소로 인하여 동원자원이 매우 부족하였으나, 전문하사제도의 시행으로 하사 동원자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중요한 획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병장 동원자원 중 우수자원을 현지 임관시키는 방안이다. 예비역 병장은 동원훈련을 지속해서 이수한 자원이므로 이들 중 지휘능력이 있는 자를 현지임관⁴⁰⁾시키면 임무수행능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40)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12.12.6 부분개정) 제14조에 의거, 현지임관이란 초급 지휘자의 적시적인 보충으로 지속적인 전투력 발휘보장을 위해 현역 및 예비역 병장에서 하사로 임관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셋째, 현역 병장 중 우수자를 평시부터 선발하여 관리하다 전시에 현 지입관시켜 활용하는 방안과 전투유공자를 진급시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까지 잘 발전시켜 온 제도이다. 넷째, 지금까지 언급한 자원으로 소요인력 충원이 제한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부서관 획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시에 가장 적합한 민간자원은 전문대 군장학생 및 협약대학 재학생이다. 이들은 평시부터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적시에 활용 가능한 우수자원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전시 민간부서관 모집 및 선발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전시 긴박한 상황에서 공개로 모집할 때 지원자의 적시적인 확보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즉, 평시 획득체계로 선발할 때 약 2.5개월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적시성이 떨어지고 지원자 접수 및 선발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 등 많은 제한사항이 발생할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부서관 획득방법을 공개모집에서 동원자원 및 징집병 중에서 획득하도록 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보충단에 입소된 동원자원 및 징집병이나 병과학교에 징집된 자원 중에서 획득하면 홍보 및 지원서 접수 등 불필요한 행정 소요를 감소하고 적시적인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전시 상황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선발체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즉 모집기간을 평시 2.5개월에서 최소 3주 이내로 단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기평가를 자격증 등 직무수행능력평가로 대체하고, 인성 검사는 면접으로 대체하고, 체력 및 면접평가 장소를 육본지역 통합평가에서 권역별 순회평가로 조정하고, 간이 신체검사, 신원조사 기간 단축, 각종 구비서류 간소화 등 선발체계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

2) 평시 부서관 획득제도의 발전방안

첫째, 현역 부서관 선발 자격기준 및 선발권한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병 이상을 대상으로 획득하는 현역부서관은 현역병과 비교할 때 적은 군 경험과 나이 등으로 병사들을 지휘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대와 연대본부에만 있는 소수 특기는 해당 특기 선임자가 없어서 최초 보직할 때 임무수행이 제한되고, 직무 스트레스로 군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병장 또는 전문하사 중에서 획득하도록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숙련도와 전문성의 구비는 물론, 현역병 대비 군 경험과 나이 등을 극복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독립채산제 개념에 의거 사·여단장급 지휘관에게 위임하고 있는 부사관 선발권한을 육본 또는 군단급 이상 부대로 획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현재는 사·여단별로 특기별 획득인원을 할당하고 있어서 해당 특기 할당이 없는 부대는 우수자원이 있어도 선발할 수 없고, 할당이 있는 부대는 다소 능력이 부족해도 선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제 육군 전체적으로 우수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 부사관 획득체계 및 선발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 부사관은 자질 검증이 매우 제한되어 우수자 선별에 어려움이 많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대와 협약체결 확대, 심층면접 도입, 전문 직위 특별전형 선발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대 협약대학은 육군의 요구수준에 맞게 맞춤형으로 양성된 인원이며, 특히 예비역 간부들이 교수로 편성되어 평상시 관찰 및 교육을 통하여 1차로 검증한 자원이다. 현재 49개 협약대학이 있고, 앞으로 6여개 학교를 추가로 확대할 예정인데 병과별 획득 소요를 고려한 협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비선호분야인 보병(특전), 포병, 기갑, 의무분야의 협약을 확대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심층면접 방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현재 사전에 분석한 인성검사와 자기소개서, 성장환경, 학교생활 등을 활용하여 심도있는 면접을 시행하고 있으나 다소 시간이 부족하다. 따라서 면접시간의 확대와 집단토론 평가를 도입하여 입체적으로 평가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이버전 등 전문요원은 현행 일반적인 선발체계인 필기평가 및 체력평가, 면접평가 등의 방법을 개선하여 특별전형에 의한 선발체계를 도입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여군의 장학생제도 도입과 장기 복무율을 확대시켜야 한다.

여군 부사관은 지원율이 양호하여 전체적으로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남군으로 획득이 제한되는 의무특기분야는 여군 장학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의무특기인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치위생과 등은 근본적으로 여학생 위주로 재학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의 막대한 기대 등으로 면허소지자 지원율이 저조하여 전문의료인력 유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학생으로 획득이 제한되면 여학생에게 과감히 개방하여야 한다. 특히, 이 특기는 여성인력을 활용하면 더욱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므로 최초로 여군 장학생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더욱 우수한 여군인력을 안정적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복무 선발률을 확대하여야 한다. 남군은 그동안 열악했던 장기 복무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안정화 단계에 있다. 앞으로 2025년도에는 희망자의 70% 수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⁴¹⁾, 여군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⁴²⁾ 남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장기복무율을 향상시켜 초임획득 소요를 감소하고 여군의 전문성과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전문대 장학생의 관련 법령 개정 및 혜택을 확대하여야 한다.

군장학생 선발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장학금과 별개로 군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행 규정은 같은 장학금이라는 이유로 동시에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⁴³⁾ 그러나 군에서 지급하는 전문대 군장학금은 명칭만 장학금이 지 1년간 가산 복무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성격인데 일반 교육과학기술부 장학금과 같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장학생으로 선발된 인원은 장학금 이외에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한다.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기초군사훈련 및 병영체험 훈련 등을

41) 육군본부, 『부사관 장기복무제도 개선 시행』, 2011, 4쪽.

42) 2013년도 육군 장기복무 선발결과 남군은 지원자의 47.2%, 여군은 36.2%가 선발되었음.

43) 대통령령 제23035호, 『군장학생 관리규정 제7조, 장학금 지급』, 2011; 법률 제11560호, 『군인사법 제7조, 의무복무기간』, 2012.

통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고, 부서관으로 입영할 때 육군훈련소 기초군사훈련기간을 단축하여 조기에 임관시키는 방안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문하사 수당 확대 및 복무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단기하사는 복무경험이 부족하더라도 자대 배치와 동시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데,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전문하사는 초과근무를 하여도 시간외 수당을 미지급하고 있어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⁴⁴⁾

또한, 상대적으로 획득률이 저조한 전문병(전문하사 II형)은 입대할 때부터 획득함에 따라 자질 저조자 및 부적응으로 다수인원이 해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전문하사 I형과 같이 6~15개월 신축적으로 적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단계별로 확대되는 정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현역단기복무부서관 선발 때 전문하사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여섯째, 모집홍보관의 전문화 및 인력획득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현재의 모집홍보관은 상사와 원사로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약직 군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비역 중 연고지 지역 출신자를 계약직으로 채용하여 해당 지역의 특성과 유대관계를 통한 획득활동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향상하는 것이다.

또한, 인력획득센터의 조기 신축이 필요하다. 현재는 전국 14개 지역 민간대학교 시설을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다. 육군이라는 대조직이 간부선발을 위한 시설이 열악하기 그지없다. 대국민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조기에 획득센터를 건립하여야 한다.

44) 대통령령 제24300호,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 2013; 국방부훈령 제1417호, 『군인 등의 장려수당 및 유급지원병 보수지급 훈령』, 2012.

6. 결 론

본 연구는 창군 이후 육군 부사관 획득제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중요한 역사자료로 보존하고, 나아가 향후 전·평시 우수 부사관 획득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IPP 모형을 분석의 틀로 설정하여 시대별 변천 과정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6·25전쟁에서 보았듯이 획득체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소요인력을 적시에 충족하는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60여년이 지난 지금 많은 제도적 발전을 가져왔으나, 보다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을 유인하기 위한 전·평시 획득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국방개혁에 의거 앞으로 3만여 명을 증원하고, 부사관의 역할도 부대관리 등 소극적 역할이 아니라 전투전문가로 일대 혁신을 기하고 있는 가운데, 부사관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미래 변화된 환경을 잘 반영하여 전·평시 획득개념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시 하사 소요인력을 적시에 획득하기 위해서는 하사 동원자원, 병장 동원자원 중 현지임관, 현역병 중 진급으로 획득하는 보충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전문대 군장학생이나 전문대 협약대학 학생으로 획득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혼란스런 전장상황에서 소요인력을 적시에 획득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집 및 선발방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평시에는 보다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현역 부사관은 병장 또는 전문하사에서 획득하도록 개정하고, 획득 권한도 군단장급 이상 또는 육군본부에서 선발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민간 부사관은 협약대학 위주로 선발하되 우수자 선발을 위해 집단토론 등 심층면접 체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여군은 초임획득 소요의 감소와 장기복무를 확대, 전문 의료인력

장학생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전문하사는 일반부사관과 같은 각종 수당체계를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획득체계를 한 차원 격상시키기 위해서 계약직 모집홍보관 운영 및 인력획득센터의 조기 건립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육군은 '전투 위주 부사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교육훈련 개혁, 인사제도 개선, 사기 및 복지 증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미래전 양상을 고려할 때 다기능·고효율을 발휘하는 전사가 전투를 수행하게 되고 기술집약형 구조로 무기·장비 운용의 숙련성이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전투형 강군 육성의 중심에 부사관이 서 있다. 이와 같은 부사관의 역할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 부사관을 군으로 유인하는 것이며, 그 유인의 첫 단추가 획득제도의 발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를 통하여 창군이후 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향후 전·평시 부사관 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그동안 소외되었던 부사관이 군간부 인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변화되는 상황에서 최초로 부사관 획득과정만 별도로 고찰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육군부사관 획득제도의 변천과정을 국방환경과 주요 신규 도입제도를 토대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계점을 지녔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해·공군의 제도를 포괄적으로 다루거나 부사관의 복지제도 등 다른 변수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부사관, 획득제도, 변천과정, 획득방법, 우수인력, 선발평가, 획득 자원, 기술 인력, 전투력, 발전방향

<ABSTRACT>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ransition process of the ROK NCOs Recruiting systems

Son, Se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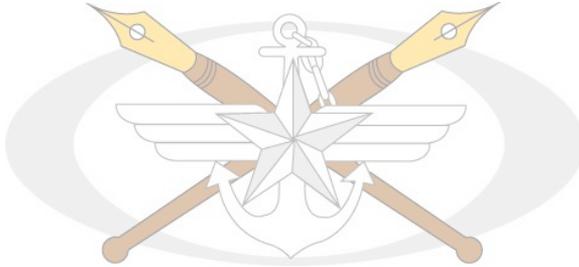
The ROK Army extensively upgraded the status of its NCOs, by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NCO and redefining the role of NCOs to be more battle-oriented. The number of NCOs as part of the Defense Reform 2020, will be expanded to approximately 100,000 and the recent plan from new government presents that it will make the numbers even higher while curtailing the service period of enlisted soldiers to 18 months. In this critical moment of changes in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stable NCO recruiting with understanding of the improved NCO capability and the changes in weapons system and younger generations consciousness has now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as it stands at the center of the spearhead of the combat power.

Diagnosing the aspects of the future war accurately and making use of lessons learned from the past would be the wise way to prepare for the war. Therefore, it becomes important to set recruiting system appropriate for future war by analyzing and assessing NCO recruiting systems by now and to ensure high-level combat strength at all times by guaranteeing the stable supply of high-quality personnel.

Researches on NCO recruiting until now, however, stay at the level of merely summarizing representative cases of each decade and deal only with the data till 2006, as the field has attracted relatively less attention as a research topic. Moreover, there has been almost no previous research on improving the wartime recruiting system.

Taking into account all the factors stated above,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courses of the changes in ROK Army's NCO recruiting from the time Armed Forces were activated to 2013 as it aims to draw a blueprint for recruiting NCOs in the future, and systematically analyze the history of NCO recruiting and keep it as historical data for future researches.

Key Words : NCO(non-commissioned officer), recruiting systems, transition process, recruitment method, high-quality human resource, election evaluation, recruiting resource, skilled technical manpower, combat power, direction of development



지중해문명의 종언

- 레판토해전을 중심으로* -

김 응 중**

1. 머리말
2.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과 신성동맹
3. 최후의 갤리선 대첩
4. 결과 없는 승리?
5. 맺음말

1. 머리말

1571년 10월 7일 오전, 레판토 인근해역에서 그리스도교 신성동맹과 오스만투르크제국 사이에 벌어진 해전, 소위 말하는 레판토해전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¹⁾ 양측에서 총 400척이 넘는 갤리선과 10만 명이 넘는 인원을 동원하여 4시간 동안 벌인 전투는 신성동맹의 승리로 결판이 났다.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A2A03034238)

** 충남대 사학과(서양사) 교수

1) 1571년 10월 7일은 율리우스 달력으로 계산한 것이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1571년 10월 17일이다. 레판토는 이탈리아어 지명표기이고 그리스어 지명표기는 나프팍토스(Nafpaktos)이다. 실제로 전투가 벌어진 지역은 레판토에서 약 50해리 떨어진 파트라스만 입구이다.

전투의 규모에 비해 싱겁게 판가름이 난 전투였다. 비잔티움제국의 멸망 이래 육지와 바다에서 패전을 거듭해온 그리스도교 세계로서는 모처럼 맛본 대승이었다. 존망의 위기를 느껴온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분명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하나의 전기(轉機)였다.

이 전투에 직접 참가하여 한쪽 팔을 잃은 미겔 세르반테스는, “이제까지의 역사에서, 그리고 후세가 결코 목격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기록했다.²⁾ 그러나 후대의 평가는 레판토해전을 역사적인 의미가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계몽사상이 볼테르는 그것을 중요하지 않은 전투로 깎아내렸다. 그의 시대에 전쟁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은 영토의 획득이었는데 레판토해전은 이러한 차원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었기 때문이다.³⁾ 오늘날의 역사가들도 대체로 볼테르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16세기 지중해 세계의 구조를 연구한 페르낭 브로델은 1571년 레판토에서의 빛나는 승리가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1574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라굴레트와 튀니스를 점령함으로써 지중해에서의 해전이 최종적으로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승리로 끝났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허망한 승리였던 것은 아니다.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의 승리로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났으며,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노잡이로 동원되었던 그리스도교 노예들을 해방시켜 갈리선의 노잡이로 증원하였고, 레판토해전 이후 그리스도교 세계의 해적들이 지중해 동부지역에 깊숙이 침투해 들어간 것을 달라진 상황으로 지적한다.⁴⁾

그러나 구조주의 역사가인 페르낭 브로델에게 있어서, 레판토해전은

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Cambridge: Da Capo Press, 2007, p.VII.

3) *ibid.*, p.VII.

4)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Armand Colin, 1985, p.383, p.397; Fernand Braudel, “Lépante: Bilan d'une bataille”, Fernand Braudel, *Autour de La Méditerranée*, Editions de Fallois, 1996, p.291.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다. 브로델은 사건 아래에서 진행되는 ‘국면변동’(conjoncture)에 주목하여, 여기에서 지중해 역사의 큰 흐름을 조망한다. 레판토해전(1571년)과 튀니스해전(1574년)은 모두 지중해의 경제가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다. 브로델의 도식에 의하면, 경제가 나쁠 때는 외전(外戰)이 일어나고 경제가 좋을 때는 내전(內戰)이 일어난다. 그러나 1575년부터 경제가 좋아지면서 전쟁은 내전으로 전환된다. 이러한 국면변동에 의해서 에스파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유럽은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세계의 종교전쟁 속으로 빠지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동쪽의 숙적인 페르시아와의 전쟁, 수니파와 시아파의 내전이라는 종교전쟁 속으로 빠져든다.

페르낭 브로델의 설명 도식을 따르면, 레판토해전은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간에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교제국과 오스만투르크제국이 각각 내륙으로 방향을 돌려 지중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경제적인 국면변동에 의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지중해 해전의 승패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사건은 영향을 받는 것이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사건의 힘이 그렇게 작은 것일까? 브로델 자신이 열거한 레판토해전의 영향이 그렇게 작은 것이었을까? 그리스도교 세계가 레판토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그리스도교 세계와 오스만투르크 사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지중해 세계에 평화가 찾아온 것은, 역설적이지만, 역사의 무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 것을 가속시키지 않았을까? 이러한 차원에서 레판토해전은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 아니었을까?

2.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과 신성동맹

1453년에 비잔티움제국의 최후의 거점인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킨 오스만투르크제국은 서부유럽으로 진격하여 유럽을 공포에 떨게 했다. 1454년 신성로마제국 제국의회에서 황제의 특사인 에네아 실비오 피콜로미니는 다음과 같이 당시 유럽인들이 느낀 위기의식을 표현하였다.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적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의 피가 흐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지금 기독교 신앙은 통탄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 [...] 사실 수백 년이래 기독교세계가 지금보다 더한 치욕을 당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지 아시아, 아프리카 등 낯선 땅에서만 패했지만, 오늘 우리는 유럽, 우리의 조국, 우리의 집, 우리가 사는 곳에서 가장 심하게 당했기 때문이다.⁵⁾

유럽인들은 새로운 술탄 술레이만에게서 평화를 기대했으나, 1521년, 새로운 술탄은 유럽인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전쟁을 선택했다.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는 벨그라드, 헝가리를 점령한 후, 1529년에는 오스트리아 공국의 수도 빈 성문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술탄의 군대는 장거리 원정에 지쳐 있었고, 황제 카를 5세의 동생인 페르디난트의 오스트리아는 수비태세를 갖추었기 때문에 술탄의 군대는 빈 공략을 포기하고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페르디난트는 역습에 나설 힘이 없었다. 왜냐하면 독일의 제후들은 합스부르크 가문을 도울 생각이 없었으며, 황제 카를

5) 볼프강 슈말레, 박용희 옮김, 『유럽의 재발견 -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을유문화사, 2006, 15쪽. 피콜로미니는 1458년에 교황 피우스 2세가 되었다. 그는 반(反)오스만 국제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실패하자, 술탄 메헤메드 2세에게 편지를 보내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현재와 미래에 정복하는 것을 교황이 인정하는 대가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했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49).

5세는 프로테스탄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술탄은 1532년에 다시 빈 공략에 나섰으나 이번에도 시간과 거리라는 강력한 적을 만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페르디난트는 술탄과 휴전조약을 체결했다.⁶⁾

지중해에서도 이슬람 세력이 우세했다. 1492년 그라나다 왕국이 멸망하자 북아프리카로 쫓겨난 무어인들은 해적이 되어 에스파냐 왕국에 대한 보복에 나섰다. 이들 바르바리 지역(Barbary) 해적들은 1516년에 알제를 점령하여 군사기지를 확보하였다. 이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과 정치적,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지만, 서부 지중해의 그리스도교 국가들을 상대로 독자적인 해적 전쟁을 수행했다.⁷⁾ 1544년, 이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군과 함께 나폴리만을 공격하여 7,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 몸값을 받고 되팔거나 노예로 판매하였다.⁸⁾ 한편, 1525년 파비아 전투에서 황제 카를 5세에게 패배한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접근하였다. 프랑스는 술탄의 해군 함정과 약 3만 명의 군인들이 1543~44년 겨울을 프랑스의 지중해 항구인 툴롱에서 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인들을 경악시켰다.⁹⁾ 툴롱은, 말하자면, “제2의 이스탄불”이 된 것이다.¹⁰⁾ 오스만투르크제국은 1538년에 프레베자에서 그리스도교 갤리선단을 격파한 데 이어 1560년에는 제르바에서 그리스도교 갤리선단을 격파하고 동부 지중해와 중부 지중해의 패권을 확고히 했다.

6)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20~1566”,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2권,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510~516.

7) Angus Konstam, *Lepanto 1571. The Greatest Naval Battle of the Renaissance*, Osprey Publishing, 2003, pp.8~9.

8) Benjamin J. Kaplan, *Divided by Faith. Religious Conflict and the Practice of Toleration in Early Modern Europ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p.301. 근대 초 기간 동안 100만명이 넘는 그리스도교인들이 이슬람세계에 노예로 팔려갔을 것으로 추산된다.

9) Benjamin J. Kaplan, *Divided by Faith*, p.306. 이를 위해 프랑스는 그 기간 동안 도시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

10)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20~1566”,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2권, p.531.

막판에 몰린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오스만투르크제국을 저지해야 했다. 1565년에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몰타섬 공격을 막아낸 것은 최초의 승리였다. 1522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공세에 밀려 로도스섬에서 쫓겨난 후 1530년에 몰타섬에 주둔한 성 요한 기사단은 그리스도교 세계의 최전선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제르바 해전에서 승리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몰타섬을 공격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그렇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은 200척에 가까운 함정과 5만 명에 가까운 병력을 투입하고도 6,000여 명에 불과한 수비군을 굴복시키지 못했다. 게다가 항상 그러하듯이 몰타섬과 역병은 또 다른 적이었다. 결국 공략 4개월째에 에스파냐에서 원군이 도착하자 오스만투르크군은 공격을 포기하고 섬으로부터 철수하였다.¹¹⁾

그리스도교 세계로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승리였다. 볼테르는 “몰타 공략보다 더 잘 알려진 것은 없다”며 감격했다. 그렇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힘이 약해졌거나 사기가 꺾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절반의 실패”였다. 그들은 에스파냐에서 반란을 일으킨 모리스코들을 지원할 계획을 세울 정도로 강력했고 여전히 지중해의 재해권을 장악하고 있었다.¹²⁾ 그러나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몰타의 승리로 인해 오스만투르크제국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레판토해전의 승리로 또 다시 확인된다.¹³⁾ 몰타의 승리는 하나의 작은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

오스만투르크제국에게 있어서 몰타섬 공략 실패는 굴욕이었다. 궁정의 강경파들은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노렸다. 이러던 차에 1569년에 베네치아의 국영 조선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는 16세기 당시 서유럽 최대 규모의 조선소였다. 화재 당시 조선소 내부의 도크에는 100여 척의 예비선박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중 25척은

11)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군사연구, 2009, 114쪽.

12)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p.282~283.

13) *ibid.*, p.291. 일부 역사가들은 몰타섬 공략 실패를 기점으로 오스만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한다(Angus Konstam, *Lepanto 1571*, p.32).

즉각 취역이 가능한 상태였다. 화재소식을 접한 오스만투르크 궁정은 베네치아 해군의 기능과 활동이 상당기간 제한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사실 베네치아가 입은 화재 피해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어쨌든 오스만투르크제국 강경파에게 그것은 새로운 팽창의 기회로 다가왔다.¹⁴⁾

1570년 2월, 새로운 술탄 셀림 2세는 베네치아가 그리스도교 해적들의 키프로스섬 기항을 허락한 것을 비난하며, 키프로스섬의 반환을 요구하는 친서를 보냈다.¹⁵⁾ 경악한 베네치아 원로원은 술탄의 요구를 즉각 거절하고, 항전을 결의했다. 그러나 도시국가 베네치아 단독으로 오스만투르크제국에 저항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베네치아는 1537년에 결성된 제1차신성동맹이 1538년의 프레베자 해전의 패배와 1540년의 굴욕적인 강화조약으로 이어진 쓰라린 기억을 잊을 수 없었다.¹⁶⁾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었다. 베네치아는 십자군에 열광한 교황 피우스 5세에게 호소했다.

“이교도 투르크인들에 대한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십자군”이라는 명분 아래 신성동맹 결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교황의 주도에도 불구하고 동맹 결성은 난항을 겪었다. 에스파냐와 베네치아의 이해관계가 엇갈렸고 상호 불신의 골이 깊었기 때문이다. 동지중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베네치아와 달리 에스파냐는 서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1566년 네덜란드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반란을 일으킴으로써 네덜란드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에스파냐는 제1차신성동맹 이후 오스만투르크제국과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맺은 베네치아에 대해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570년에 제3차 종교

14)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15쪽.

15) 셀림 2세는 1566년 아버지 슬레이만을 계승하여 술탄이 되었다. 서양에서, 슬레이만은 “위대한” 술탄으로 불린 반면, 셀림 2세는 “술주정뱅이”로 불렸다. 셋째 아들로써 아버지로부터 혹은 장차 술탄이 될 형으로부터의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길은 술에 도피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6) 베네치아는 에게해의 거점 2곳을 양도하고 매년 23만 두카토(당시 베네치아의 연간 무역 이익의 6% 정도)의 연공금을 내는 조건으로 오스만 제국과 단독 강화를 맺었다(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13쪽).

전쟁에서 벗어난 프랑스의 위협도 무시할 수 없었다. 또한 연합함대 총사령관을 누가 맡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1570년, 그리스도교 국가들의 동맹 결성이 난항을 겪고 있을 때, 오스만투르크제국은 약 300척의 선박을 동원하여 키프로스섬에 기병대와 공성용 포를 포함한 약 6만 명의 육군을 상륙시켰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들은 그리스도교 연합함대는 키프로스섬으로 향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 키프로스는 함락되었고 잔인한 학살을 면하지 못했다.

베네치아의 위기감은 한층 더 고조되었다. 동맹 결성이 시급했다. 동맹의 전비 부담은 에스파냐가 3/6, 베네치아가 2/6, 그리고 교황청이 나머지 1/6을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동맹의 전략목표는 당장 오스만투르크군의 활동이 활발한 동지중해 방면을 중시하되 북아프리카 등 서지중해도 무시하지 않도록 조정되었다. 최후의 난제였던 총사령관 인선 문제는 에스파냐 국왕 펠리페 2세의 이복동생인 오스트리아 공돈 후안으로 합의를 보았다. 1571년 5월 20일 ‘신성동맹’이 정식 체결되었고 5월 25일 공포되었다.

3. 최후의 갤리선 대첩

돈 후안은 1569년 에스파냐에서 일어난 모리스코인들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군지휘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돈 후안은 국왕의 이복동생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펠리페 2세는 ‘신중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돈 후안은 승리의 영광을 원했다.¹⁷⁾ 형(“Roi prudent”)은 신중했지만 동생(“Prince imprudent”)은 신중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셀림 2세 역시 새로운 군주

17)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p.288~289.

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 승리를 원했다. 결과는 전쟁이었다.

1571년 10월 7일 아침, 메시나에서 이동해온 신성동맹 군대와 레판토 항에 집결해 있던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는 레판토 인근 파트라스만 입구에서 결전에 들어갔다. 신성동맹군의 함정은 표준 군선인 갤리선(Gallia sotil) 206척과 대형군선인 갤리어스 6척이었다. 베네치아는 갤리어스 6척 전부와 갤리선 105척을 파견했으며, 에스파냐는 갤리선 55척, 제노바는 갤리선 27척, 교황청은 갤리선 12척, 몰타섬의 성요한 기사단은 갤리선 3척을 파견했다. 이에 대해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함정은 갤리선 208척 외에 소형갤리선인 갤리엇(galiot) 56척과 갤리엇보다 더 소형인 푸스타(fusta) 64척이었다.¹⁸⁾ 양측의 갤리선 수는 비슷했으나, 신성동맹은 갤리어스를 가지고 있었고 오스만 제국은 소형 선박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은 화력이 월등한 갤리어스선이었다.¹⁹⁾



18) Angus Konstam, *Lepanto 1571*, p.24.

19) 아래 배치도는 바티칸 박물관에 소장된 지도이다. 왼쪽이 신성동맹 함대이다. 전면에 배치된 큰 배가 갤리어스이다.

전형적인 갤리선(Gallia sotil)은 길이 41미터, 폭 5미터, 흘수선 1.2미터 배수량 200톤이며, 뱃머리에 큰 포, 좌우에 작은 포를 장착했다. 갤리선의 주동력은 노잡이다. 전통적으로 베네치아의 갤리선은 한 사람이 노 하나를 젓는 방식(*alla senile*)이었다. 배의 양쪽에 각각 3개의 단이 있고 한 개의 뱅크에 24개의 노가 있으니, 총 144개의 노가 있다. 한 개의 갤리선에 144명의 노잡이가 필요한 것이다. 또 다른 노젓기 방식으로는 사다리 방식(*alla scaloccio*)이 있다. 양측에 각각 24개의 노가 있고, 노 하나에 4명의 노잡이(자유민 한명과 노예 3명)가 붙는 방식으로, 갤리선 한 척당 총 192명의 노잡이가 동원되었다. 이것은 전통적인 방식보다는 덜 효율적이지만 노예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레판토해전 당시에는 사다리 방식이 표준적인 방식이었으며, 베네치아에도 이 방식이 일반적이었다.²⁰⁾ 갤리선에는 노잡이와는 별도로 125명의 군인이 승선했다. 지휘관은 보통 갤리선보다 큰 갤리선(*gallia lanternas*)을 탔다. 가장 큰 배는 갤리어스였다. 이 배는 베네치아가 범선과 에스파냐의 대형갤리선에 대항하기 위해 과거의 상업용 갤리선을 개량하여 만든 비밀무기였다. 길이가 47미터, 폭이 8미터였으며, 9개의 강력한 대포를 장착했고, 250명의 노잡이와 300명의 군인을 태웠다. 갤리어스선이 갤리선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자체의 노잡이 외에도 갤리선의 견인이 필요했다.

전체적인 전력을 추산해보자. 베네치아의 갤리선과 갤리어스선에는 약 4만명의 선원과 노잡이, 28,500명의 군인(베네치아인 5,000명, 교황청 군대 1,500명, 독일인 5,000명, 에스파냐인 8,000명, 이탈리아인 5,000명, 그밖의 모험가들 4,000명) 등 약 68,500명이 타고 있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과 작은 선박들에는 5만 명의 선원과 노잡이,

20) *ibid.*, p.19. 전통적인 방식은 노가 많이 필요했고, 새로운 방식은 노잡이가 많이 필요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은 숙련된 노잡이를 덜 필요로 했으며, 노를 만드는 목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대체로 1530년대부터 새로운 방식으로의 교체가 이루어졌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194).

1만 명의 예니체리를 포함한 27,000명의 군인 등 약 77,000명이 타고 있었다. 군인의 수는 비슷했다. 노잡이의 경우, 신성동맹의 노잡이들은 대체로 죄수, 노예, 자유민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노잡이들은 대체로 그리스도교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신성동맹의 노잡이들은 유사시에는 전투에 동원할 수 있었으나,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노잡이들을 감시하고 반란을 진압할 특별 군인이 필요했다. 무기는 신성동맹측이 월등 우월했다. 갤리어스선은 말할 것도 없고 갤리선의 크기도 큰 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장착한 포의 수도 많았다. 신성동맹의 군인들은 화승총이나 머스켓 총을 지참했으나, 오스만투르크제국 군대의 2/3는 총 대신 활, 칼, 도끼, 창 등으로 무장했다.²¹⁾ 신성동맹의 화기가 훨씬 근대화되어 있었던 것이다.

고대 이래 레판토해전 시기까지 전투시의 함대 진형은 육전에서와 마찬가지로 횡대 진형이 일반적이었다. 신성동맹 함대는 돈 후안과 각국의 기함들이 포진한 중앙부, 베네치아 군선이 주축이 된 좌익, 용병대장 안드레아 도리아가 이끄는 우익, 그리고 후방의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오스만투르크 함대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함대를 편성하여 알리 파샤가 위치한 중앙부, 바르바리 해적 마호메트 살루크가 이끄는 우익, 역시 바르바리 해적 출신 울루지 알리가 이끄는 좌익 그리고 후방의 예비대로 편성되었다. 양 함대의 차이는 오스만투르크제국 측의 군선 수가 약간 많다는 것, 그리고 신성동맹 함대의 각 진영에는 갤리어스가 두 척씩 포진하였다는 것뿐이었다.

배치가 완료된 다음, 양측은 승리를 기원하는 종교의식을 가졌다. 그리스도교인들은 미사를 드리고, 고해를 했다. 불신자들과 싸우다 죽은 사람들을 위한 교황 피우스 5세의 면벌부가 낭독되었다. 무슬림들은 예의 그 기도의를 거행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해 죽은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믿었기 때문에 면벌부 같은 의식이 필요 없었다. 다음에

21) *ibid.*, pp.20~21.

필요한 것은 전투개시 의식이였다. 알리 파샤는 신성동맹군을 향해 공포탄을 발사했고, 돈 후안은 이에 응답하여 포를 발사했다. 오전 10시 20분경 전투개시 명령이 떨어졌다. 돌진해오는 오스만투르크 갤리선을 향해 신성동맹의 갤리어스선이 포를 발사했다.²²⁾ 오후 2시경 울루지 알리의 함대가 패주하고, 4시경 전투가 끝났다.²³⁾

신성동맹의 대승이였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 170여 척이 나포되었거나 침몰했고, 3만여 명의 투르크인들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다. 3천여 명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날 저녁에 처형되었다. 남은 갤리선은 울루지 알리가 끌고 콘스탄티노플로 도주했을 뿐이다. 30여 척의 푸르타와 갤리엇도 12,000여 명의 선원과 함께 레판토 쪽으로 도주했다. 여기에 더해, 15,000여 명의 그리스도교 노예 노잡이들이 해방되었다. 신성동맹측의 함정 피해는 10척의 갤리선만 침몰했을 정도로 경미했다. 반면에 인명 피해는 적지 않았다. 8,000여 명이 전투 중에 사망했고, 21,000여 명이 부상당했다.²⁴⁾

그날 저녁 폭풍이 불었다. 감사예배(Te Deum)는 바람 소리, 핏빛 파도 소리, 부상자들의 신음 소리에 묻혀버렸다. 계절적으로도 늦었고 그날 기상도 나빴을 뿐만 아니라 부상자들의 치료가 시급했기 때문에 울루지 알리를 추적하며 전투를 계속할 수 없었다. 10월 9일, 돈 후안은 북쪽으로 향해할 것을 명령했다. 최종적으로 신성동맹 함대는 10월 23일 코르푸에 도착한 후 해산했다. 베네치아 함대는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고, 다른 함대는 시칠리아의 메시나를 향해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신성동맹을 승리로 이끈 힘은 어디에 있을까? 전쟁 직전에 레판토에 있는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사령부에서 열린 작전회의에서 신중론을 편측의 주장을 살펴봄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64~265.

23) 전투의 구체적인 전개에 대해서는 전운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30~143쪽.

24) Angus Konstam, *Lepanto 1571*, p.88.

제2장관이었던 페르테브 파샤는 갤리어스선의 존재,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의 불량, 병사들의 경험부족, 신성동맹군인들의 개인화기 우세,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에 있는 그리스도교 노예 노잡이들의 반란 위협 등을 이유로, 술탄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신중론을 폈다. 그러나 총사령관인 알리 파샤는 신중론자들의 반대이유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신성동맹의 전력이 상당히 전의는 불타고 있으나 내분이 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스만투르크군은 언제나 승리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쟁을 결정했다. 그는 갤리어스선을 무시했으나, 그의 예상은 다음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갤리선처럼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²⁵⁾ 오스만투르크군이 승리를 자신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성동맹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신성동맹은 동맹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불신하였으며, 전략적인 차원에서도 분열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신성동맹이 승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성동맹군의 총사령관인 돈 후안의 리더십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페르낭 브로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승리요인으로 들고 있다: 돈 후안의 리더십; 갤리선의 충각(衝角)을 없애 대포의 효율성을 높인 안드레아 도리아의 전술; 그리스도교 선단의 선두에서 무서운 화력으로 오스만투르크제국 선박들을 파괴한 갤리어스선; 에스파냐 갤리선의 놀라운 배치; 베네치아 갤리선의 화력; 선상 백병전에서 우위를 보인 에스파냐 보병; 기지를 너무 일찍 떠나 피로에 지쳤던 오스만투르크제국 함대; 칼과 활을 사용하는 오스만투르크군의 열등한 무기.²⁶⁾ 특히 갤리어스선의 위력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가 끝난 후 돈 후안은 갤리어스선의 공을 인정하였으며, 오스만투르크군도 갤리어스선의 역할을 인정하고 갤리어스선을 제작하려고

25)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49~250.

26)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p.395; Fernand Braudel, "Lépante: Bilan d'une bataille", p.288. 그러나 이때 처음 충각을 없앤 것은 아니다. 베네치아 해군은 그 전에 이미 충각을 없앴다(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255).

하였다.²⁷⁾

갤리선은 기원전 2500년부터 지중해 해전의 주역이었다. 갤리선은 노를 사용하여 추진력을 얻기 때문에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잡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잡이를 구하는 문제, 작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태우는 문제 등으로 인해 중세 말부터 서서히 바람을 이용하는 대형범선에 밀려나고 있었다. 갤리선을 이용한 전투는 해전이라기보다는 선상에서 벌어지는 육상전투였지만, 대포를 장착한 대형범선이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함에 따라 퇴장하게 된다. 레판토해전 이후 갤리선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주역의 자리를 차지하지는 못한다. 본격적인 해군에 의한 해상전투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4. 결과 없는 승리?

승리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간에, 레판토해전은 놀라운 승리였다. 그러나 또한 놀라운 것은 그 승리가 단명으로 끝났다는 점이다. 패전 직후 오스만투르크 제국의 재상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키프로스를 빼앗음으로써 우리는 기독교도들로부터 팔을 잘라냈지만, 그들은 우리 함대를 쳐부숨으로써 우리의 수염을 뽑았을 뿐이다. 뽑힌 수염은 다시 자라나지만 잘린 팔은 다시 자라나지 않는 법이다.²⁸⁾

재상의 말은 억지 변명이 아니었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레판토해전에서 귀환한 울루지 알리를 새로운 함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200척의 갤리선을

27)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286, 300.

28)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44쪽.

건조했다.²⁹⁾ 비록 급하게 건조되었고, 레판토해전에서 입은 선원 상실의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국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돈 후안은 레판토해전 승리의 여세를 몰아 레반트 정벌을 원했으나, 펠리페 2세와 참모들은 레판토해전 때와 마찬가지로 베네치아를 돕는 것이 에스파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일차적인 관심은 여전히 북아프리카였던 것이다. 유럽의 정세는 ‘신중한 왕’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다. 에스파냐의 적이었던 잉글랜드와 프랑스가 접근했으며, 네덜란드에서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에스파냐는 프랑스가 네덜란드 반란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1572년 5월 알제인들이 프랑스에 도움을 청했을 때 국왕 샤를 9세는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³⁰⁾ 같은 해 5월 교황 피우스 5세가 죽자 십자군 열기는 급격히 식어버렸다. 1572년 여름, 돈 후안의 연합군은 그리스의 모레아 지방으로 원정을 떠났으나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상황은 레판토해전의 승리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 베네치아는 레판토해전으로 얻은 것은 없고 오히려 에스파냐의 견제만 받았다고 생각했다. 레판토해전의 승리와 모레아 원정으로도 베네치아는 키프로스 và 아드리아해의 주요 거점들을 되찾지 못했다. 오랜 전쟁으로 베네치아의 상업과 산업은 붕괴되고, 재정은 고갈되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고통스러웠다. 베네치아는 신성동맹을 포기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평화를 모색했다. 1573년 3월 7일, 프랑스의 닥스 주교의 중재로 강화조약이 체결되었다. 베네치아는 키프로스를 양도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에게 빼앗긴 달마티아지방의 기지들을 포기했으며, 베네치아가 알바니아에서 정복한 지역을 돌려주었다. 베네치아는 30만 두카토의 전쟁배상금을 지불했고, 투르크인 포로들을 몸값 없이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케팔로니아와

29) Angus Konstam, *Lepanto 1571*, p.89. 책에는 2,000척으로 나와 있으나 200척의 오기가 아닐까?

30)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2, p.402.

잔테에 지불하는 연공(年貢)을 2,500두카토로 올려야 했다. 또한 베네치아의 함대 규모는 갤리선 60척으로 제한되었다. 레판토해전의 승전국이 평화, 그것도 불확실한 평화를 얻기 위해 지불한 대가는 컸다!³¹⁾ 그러나 베네치아에서 평화조약에 반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펠리페 2세 역시 평화조약을 내심 반겼다. 펠리페에게는 네덜란드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교황은 분노하고 파문을 내리겠다고 위협했으나, 당시 유럽의 군주들에게 파문은 익숙한 것이었다.³²⁾

베네치아가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저항을 포기할 무렵, 펠리페 2세 역시 지중해정책을 포기하고 북아프리카로 눈을 돌렸다. 펠리페 2세는 돈 후안에게 튀니스 정벌을 명령했다. 1573년, 돈 후안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튀니스를 점령했다. 마드리드에서는 도시를 파괴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돈 후안은 이 명령을 받지 못했다. 교황으로부터 국가건설을 약속받았고, 왕이 되고 싶었던 돈 후안은 도시를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복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돈 후안의 군대는 합시드 왕국의 작은 부분만 점령했을 뿐이었다. 그 광대한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 내륙으로 진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당시 펠리페 2세의 주된 관심지역은 부유한 네덜란드였기 때문이다. 펠리페 2세는 동생을 이탈리아로 파견하여 프랑스를 견제하고, 네덜란드로 가는 통행로를 강화하도록 했다.³³⁾

1574년 7월 11일, 울루지 알리가 지휘하는 오스만투르크 함대가 튀니스에 나타났다. 병력은 갤리선 230척, 수십 척의 소형 선박, 4만 명의 선원이었다. 이탈리아에 가 있던 돈 후안은 이 소식을 듣고 튀니스로 내려 가려했으나, 기상이 나빴고 이미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튀니스로 갈 수 없었다. 울루지 알리는 어렵지 않게 튀니스를 되찾았다. 튀니스의

31) *ibid.*, p.416.

32)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p.312~313.

33) *ibid.*, p.424.

주민들도 오스만투르크 군대를 지원했다.³⁴⁾ 돈 후안의 튀니스 정복 역시 레판토해전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

1574년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튀니스를 탈환한 이후 바다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주요 전쟁터가 되었다. 1574년 이후 에스파냐의 관심은 유럽대륙으로 옮겨갔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의 관심은 페르시아 전선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1577년 에스파냐는 오스만투르크제국과 휴전조약을 체결했다. 두 강대국은 이제 더 이상 지중해에서 대결을 벌이지 않았다. 해군이 철수한 빈 공간은 이제 해적의 차지가 된다.³⁵⁾

1571년 레판토해전이 그리스도교 세계와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세력 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도 아니고, 1574년 튀니스 탈환 역시 두 세력의 균형을 결정적으로 파괴한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레판토해전에서 튀니스 탈환까지의 해전을 각각 별개의 해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역사적 블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페르낭 브로델은 이 거대한 역사적 블록의 의미를 “16세기의 거대한 해상 전투의 종식”에서 찾고 있다.³⁶⁾ 이에 대해, 앤드류 헤스는 브로델의 해석 역시 전통적인 유럽중심주의적 해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1571년 레판토해전이 아니라 1574년 튀니스 탈환의 의미를 강조한다. 지중해에서 벌어진 장기적인 해전에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이다.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브로델의 평가 이상으로,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는 것이다.³⁷⁾

그러나,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16세기에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상 팽창은 거침이 없었다.

34) *ibid.*, p.427.

35) Fernand Braudel, “Lépante : Bilan d'une bataille”, p.291.

36) *ibid.*, p.291.

37) Andrew C. Hess, “The Battle of Lepanto and its Place in Mediterranean History”, *Past and Present*, 11월, 1972, pp.64~71; V. J. Parry, “The Ottoman Empire, 1566~1617”, *The New Cambridge Modern History*, 제3권,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pp.352~355.

오스만투르크제국은 1565년 몰타섬 공략에는 실패했지만, 레판토해전 당시에도 그들이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적어도 그들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판토해전 승리는 오스만투르크제국에 대한 그리스도교 세계의 공포와 열등감을 해소시켜 주었다. 헤스 역시 이점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³⁸⁾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우선 이러한 정신적인 차원에서 ‘결과’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이었을까? 여기에서 반(反)사실적 가정을 해보는 것이 전혀 비역사적이지는 않다. 신성동맹이 레판토해전에서 패배했다라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을까? 몰타섬 공략 실패의 굴욕을 만회하려 했던 오스만투르크제국은 레판토해전에서 승리할 경우 계속 베네치아까지 공격할 계획이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³⁹⁾ 따라서, 레판토해전의 승리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진출을 저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눈에 띄지 않은 결과였지만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1574년에 튀니스를 상실함으로써 오스만투르크제국과의 오랜 전쟁은 아무 소득 없이 끝났지만, 세기 초에 비해 그리스도교 세계는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위협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스만투르크제국의 ‘수염’은 다시 자라났지만, 오스만제국의 해상 전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레판토해전에서 입은 인적 손실은, 페르낭 브로델이 지적한 대로, 쉽사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강대국이 휴전조약을 맺고, 지중해를 떠나 각각 유럽대륙과 페르시아 문제에 몰두할 수 있게 된 것은 두 강대국의 세력이 균형을 유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가져다 준 중요한 ‘결과’가 아니겠는가?⁴⁰⁾

38) Andrew C. Hess, “The Battle of Lepanto and its Place in Mediterranean History”, p.71.

39) Angus Konstam, *Lepanto 1571*, p.31. Niccolò Capponi, *Victory of the West. The Great Christian-Muslim Clash at the Battle of Lepanto*, p.2.

40) 전윤재·서상규, 『전투함과 항해자의 해군사』, 146쪽.

5. 맺음말

페르낭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그리스도교 세계의 열등감을 해소시켜준 승리였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평가를 부정하는 역사가는 없다. 페르낭 브로델은 레판토해전에서 오스만투르크제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손실이 오스만투르크제국의 해군력을 약화시켰음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장기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는 데는 소극적이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역사를 ‘구조’와 ‘사건’으로 나누어 인식하고, ‘사건’을 그림자나 먼지에 불과한 것으로 무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16세기의 지중해는 지중해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과는 무관하게 ‘구조’와 ‘국면변동’(콩중튀르)에 의해 움직였다는 것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의 은의 유입이라는 국면변동에 의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문명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다. 브로델의 도식에 의하면, 지중해문명의 종언은 사건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구조주의 역사가는 사건을 외면한다. 그는 ‘그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 사건’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찾는다. 브로델이 레판토해전의 승리가 아니라 몰타해전의 승리에서부터 하나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심리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그것은 사건의 힘을 축소하는 동시에 역사를 장기적으로 보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어쨌든 이렇게 몰타해전의 승리를 주목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사가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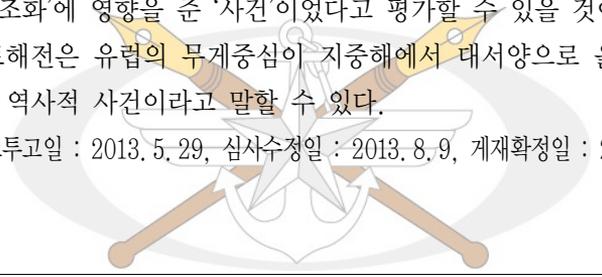
그러나 브로델이, 시간을 더 소급해 올라가, 에스파냐가 1492년에 그라나다왕국을 정복한 후 북아프리카 정복을 포기하고 이탈리아로 선회한 것을 놓고 하나의 “비극”이라거나 에스파냐의 “역사적 사명”과 “지리적 사명”의 포기라고 말하는 것은 유럽중심주의적인 일방적인 해석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⁴¹⁾ 당시 지중해는 이슬람의 바다였고 아프리카

41)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tome 1, p.153, tome 2, p.430.

북부는 이슬람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에스파냐가 과거 로마제국의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북아프리카 정복에 나섰더라도 성공할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16세기의 지중해는 에스파냐와 베네치아와 오스만투르크제국이 각축을 벌이던 바다였으며, 그러한 대립구도가 뚜렷하게 나타난 전쟁이 바로 레판토해전이었다. 그 레판토해전에서 그리스도교 세계가 승리함으로써 지중해에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 지중해에 평화가 찾아왔다. 에스파냐가 네덜란드로 국력을 집중하고 오스만투르크제국이 페르시아로 국력을 집중할 수 있었던 것도 지중해의 평화 덕분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레판토해전은 아무런 결과를 낳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구조’에 영향을 준, ‘구조화’에 영향을 준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레판토해전은 유럽의 무게중심이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는데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원고투고일 : 2013. 5. 29,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레판토해전, 신성동맹, 오스만제국, 갤리선, 갤리어스선, 돈 후안, 페르낭 브로델

<ABSTRACT>

The End of the Mediterranean Civilization - Focusing on the Battle of Lepanto -

Kim, Eung-j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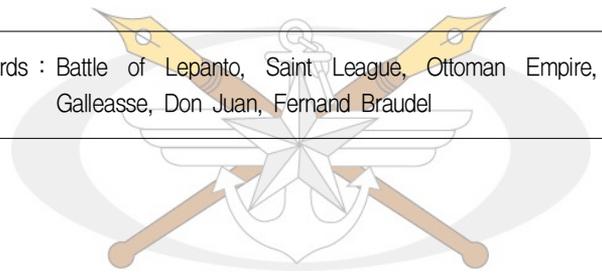
The Battle of Lepanto which took place in the Gulf of Patras near Lepanto in the morning of the 7th October 1571 between the Christian Saint League and the Ottoman empire was a historical event. The battle in which more than 400 galleys and 100,000 men fought for 4 hours was finished by the overwhelming victory of the Saint League. This was a great victory for the Christian world after the long series of defeats in the land as well as in the sea. It can be freed from the long terror and inferiority vis-a-vis the Ottoman empire.

Who is responsible for the victory of the Saint League? It is undeniable that Don John, the commander in chief, contributed to forming a unified force, the Saint League, which was inherently divided and hostile against each other. And, among others, the superiority of the ordnance of the new Galleasses and the Galleys and the individual weapons such as musket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toman Empire which had the pikes and swords. In short, the victory was a victory of the leadership and the modernized arms of the western world.

Most historians agree with Fernand Braudel who considers the Battle of Lepanto to be a historical 'event' which doesn't exert any influence on the historical 'structure'. There are some historians who argue that the Ottoman empire won the final victory by retaking Tunis and La Golette in 1574. But, it cannot be justified to underestimate the historical role of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Lepanto. It enabled the Christian world to be freed from the long inferiority, which led eventually to the balance of power in the

Mediterranean world. The Ottoman empire was recovered rapidly from the loss of the galleys, but the recovery of the skillful manpower needed long time. The balance of power led to the peace. Then, each empire could concentrate its forces on the internal problems. Spain turned to the north, while the Ottoman empire turned to the east, leaving the Mediterranean sea vacant. The Atlantic Ocean supplanted the Mediterranean sea as the center of the European civilization.

The victory of the Battle of Lepanto did a great part in this historical transition. In this sense, it can be rightly regarded as an event which influenced the historical “structure”.



Key Words : Battle of Lepanto, Saint League, Ottoman Empire, Galley, Galleasse, Don Juan, Fernand Braudel

영국 갈리폴리 원정작전(1915년)의 패인(敗因) 고찰*

- 영국군 수뇌부의 제국주의적 시각과 터키군의
실상(實狀)을 중심으로 -

이 내 주**



1. 들어가는 말
2. 영국군 원정의 배경과 작전 경과
3. 영국군 수뇌부의 식민지 경험과 그 영향
4. 오스만 터키군의 실상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접어들어 군사사 연구에서 중요한 경향들 중 하나는 연구 주제의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일 것이다. 문화인류학의 영향을 받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034238).

**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

이러한 접근법은 전쟁을 합리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정치적 행위로 보는 클라우제비츠 부류의 전통적 관점으로부터의 탈피를 전제로 하고 있다. 키건(John Keegan)은 전쟁이란 정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본질적인 것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적 요소를 꼽고 있다.¹⁾ 물론 문화는 정의하기도 쉽지 않고 설명력도 미흡한 분석 개념이지만, 군사사 연구에 문화적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공간적으로 서양의 경계를 넘어서 비서양세계의 군사적 발전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했다. 다시 말해, 서양 중심주의에서 탈피하여 비교사적 접근의 중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블랙(Jeremy Black)을 꼽을 수 있다.²⁾ 그는 방대한 저술 작업을 통해 전 지구적 관점에서 군사사의 다양성(diversity)을 추구하고 이의 방법론을 정립하는 것이 향후 군사사 연구의 중심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다양성을 저해하는 핵심요인 중 하나로 서양세계 연구자들의 비(非)서양세계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들고 있다. 흔히 서양이 유럽의 팽창이 이루어진 시기 이후로 비서양세계를 군사적으로 압도해 왔다고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심각한 오류라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진 베트남전쟁이나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전쟁의 실패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우월한 무기 및 무기체계가 언제나 승리를 담보하는 것은 아님을 일깨워주고 있다.

이처럼 전쟁을 문화권 간의 충돌로 파악하려는 연구경향에 잘 어울리는 전투들 중 하나로 제1차 세계대전 중 기독교 문화권의 영국군과 이슬람 문화권의 오스만 터키군이 충돌한 갈리폴리 전투(Gallipoli Campaign,

1) John Keegan, *A History of Warfare*(New York: Knopf, 1993), p.12.

2) 다작(多作)의 역사가인 블랙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권의 저서를 남기고 있다: J. Black, *Rethinking Military History*(Routledge, 2004); *Introduction to Global Military History, 1775 to the Present Day*(Routledge, 2005); J. Black, S. Morillo, and P. Lococo, *War in World History: Society, Technology, and War from Ancient Times to the Present, vols.1-2* (NY: McGraw Hill, 2008); *War and the Cultural Turn*(Cambridge: Polity, 2012).

1915년)를 꼽을 수 있다. 1914년 말에 이르러 서부전선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영국정부는 전략적 차원에서 다른 지역에서 돌파구를 찾게 되었고 그곳이 바로 오스만 터키의 지중해 동부 갈리폴리 반도와 다르다넬스(Dardanelles) 해협이었다. 서부전선에 대한 동맹 진영의 압력을 분산시키고, 우방국 러시아와의 직접적 접근로를 확보하는 것이 이 작전의 궁극적 목적이었다. 하지만 사전 준비도 미흡한 채 너무 조급하게 추진된 탓에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엄청난 수의 전상자(戰傷者)만을 남긴 채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³⁾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군이 당한 가장 치욕적인 패배로 기억되고 있다. 19세기 중엽 이래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주 침탈 대상으로 여겨져 온 오스만 터키에 당한 패배인지라 그 충격과 굴욕감은 더욱 컸다.

갈리폴리 전투의 촉발 요인은 1915년 1월 초 러시아 황제가 영국정부에 보낸 한 통의 서한이었다.⁴⁾ 자국을 위협하고 있는 오스만 터키군을 배후에서 견제해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에 대해 키치너(Horatio Herbert Kitchener, 1850~1916)와 처칠(Winston Churchill, 1874~1965) 등 영국군 수뇌부가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흑해 접근로인 다르다넬스 해협과 궁극적으로는 이스탄불(옛 지명: 콘스탄티노플) 점령이라는 목표를 갖고서 서둘러 작전을 추진했다. 1915년 2월~3월에 영국과 프랑스 연합함대가 터키군이 다르다넬스 해협에 부설해 놓은 기뢰를 제거하고 이어서 해협 주변에 구축된 해안포대를 향해 함포사격을 가하면서 전투가 개시됐다. 하지만 3월 중순경에 원정군 전함 3척이 터키군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작전의 양상은 해군 단독작전에서 지상군 상륙작전으로 확대됐다.⁵⁾ 마침내 1915년 4월 말에 영국

3) 공식기록에 따르면 갈리폴리 작전에서 죽거나 부상을 당한 인원은 두 진영을 합할 경우 무려 50만 명에 달했다: 영국 및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 20만 5천 명, 프랑스군 4만 7천 명, 그리고 터키군 25만 1천 명(Tim Travers, *Gallipoli 1915*, Stroud, 2004, p.311)

4) *ibid.*, p.19.

5) *ibid.*, p.19.

지중해원정군(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 MEF)이 사령관 해밀턴(Ian Hamilton, 1853~1947) 장군의 지휘 하에 갈리폴리 반도 입구에 상륙했다.⁶⁾

그러나 상륙작전은 터키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간신히 해안에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그쳤다. 이후 원정군은 좁은 해안가에서 웅거한 채 수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전을 벌여야만 했다. 1915년 8월 초에 교착상태를 타개할 목적으로 갈리폴리 반도 좌안에게해 방면의 협소한 안작만(Anzac Cove)⁷⁾과 수블라만(Suvla Bay)에 약 2만 명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이 추가로 투입됐다. 이들 상륙부대는 케말(Mustafa Kemal, 1881~1938)이 지휘하는 터키군 제19사단과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으나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은 채 겨우 2마일을 전진하는데 그쳤다.⁸⁾ 10월 중순 작전 부진의 책임을 물어 영국 원정군 사령관 해밀턴이 해임되고 먼로(Charles Monroe) 장군이 부임했으나 전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영국군은 철수를 결정하고 이듬해 1월 초까지 갈리폴리 반도에서 완전히 물러났다.⁹⁾

1916년 여름에 런던에서는 작전 실패의 원인을 조사할 목적으로 위원회가 설치됐다. 주요 관련자들을 심층 인터뷰한 후 위원회는 작전 전모에 대한 공식보고서를 발간(1917년 1권, 1918년 2권)했다. 영국정부

6) 상륙작전에는 6개 사단 총 7만 5천여 명의 병력이 투입됐다(영국군 육군 제 29사단 및 해군 1개 사단, 나중에 일명 Anzac 부대로 불린 이집트 주둔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 2개 사단, 프랑스군 2개 사단). 주공격 목표는 반도 입구의 헬레스곶(Cape Helles)과 해안의 중요 5개 지점(S, V, W, X, Y로 명명)이었다.

7) 안작(Anzac)은 1914년 12월 이집트로 파병됐다가 1915년 3월말 이후 갈리폴리 반도에 투입된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Australian and New Zealand Army Corps)의 약자이다. 갈리폴리 전투에 투입되어 많은 사상자를 낸(총 5만 명의 병력 중 7,600명 전사) 이들의 공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들이 상륙한 해안지대를 전후에 안작 만(Anzac Cove)으로 명명했다.

8) J. Murray, *Gallipoli 1915* (Cerberus, 2004), pp.6~7.

9) 1915년 12월 18~19일 안작만과 수블라만에서, 그리고 1916년 1월 8~9일에는 헬레스 곶에서 마지막 병력이 철수했다.

수뇌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전 논의, 군수물자 준비부족, 그리고 전투 현장에서 사령관 해밀턴을 비롯한 영국군 지휘관들의 리더십 부재 등을 골자로 하는 여러 요인들이 도출됐다. 패배의 원인이 영국군 자체에 있었다는 일종의 중심부적인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동시에 당시 터키군의 대응전력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는 주변부에 주목한 분석 역시 제기됐다.¹⁰⁾ 영국군의 사전 준비 미흡을 비롯하더라도 하듯이 갈리폴리 전투 당시 터키군은 대전 이전부터 독일 군사고문단의 인적 지도와 물적 지원에 힘입어 상당한 수준으로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었다.¹¹⁾

이 논문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지피지기 백전불퇴’라는 말처럼 실제 전투 이전에 상대방의 전력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야 말로 승패의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당시 영국군 수뇌부 인사 및 전장(戰場) 지휘관들은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사전 파악도 없이 전투에 임했는가? 그리고 대규모 원정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비하고 정책결정하는 핵심주체들조차 너무나 안이한 낙관주의적 자세로 대처했는가? 이들의 뇌리 속에 스며들어 있던 유럽 중심주의적인 우월감과 오만함이 암암리에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터키군을 그 실상(實狀)과는 달리 얕잡아 보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다시 말해, 19세기 중엽 이후 본격화된 영국 제국주의 진출로 더욱 심화된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영국군 수뇌부에 영향을 주어 터키군의 전투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이념적 요인의 영향 정도를 입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나 그렇다고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개연성이 농후하다.

비교사적 접근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서양세계와 비서양세계 간에 상호

10) Tim Travers, op. cit., p.14.

11) 이와 관련해서는 당시 독일군 군사고문단의 단장으로서 그리고 갈리폴리 전투 시에는 터키군 제5군 사령관으로서 오스만 터키군의 근대화 및 갈리폴리 전투 승리에서 중심적 역할을 한 잔디스 장군이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집필해 1920년 베를린에서 발간한 다음 책이 유용하다: Liman von Sanders, *Five Years in Turkey*(Annapolis: The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1927, reprinted).

작용의 실체를 드러냄으로써 군사사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전쟁에 대한 연구가 더욱 깊이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양 중심으로 설정된 각종 기준 및 넓게는 패러다임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비서양세계와의 협업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관심을 촉발하는 한 사례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영국군 원정의 배경과 작전 경과

1914년 8월 초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터키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표면적 입장일 뿐 19세기 말부터 추진된 독일의 중동지역 진출 정책의 영향으로 내심으로는 이미 독일 측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전통적으로 지중해 지역에 관심이 높았던 영국은 신생통일국가 독일의 중동지역 진출 시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나 대전발발 직전 상황은 독일 측에 유리하게 전개됐다. 실제로 대전 이전부터 터키는 무엇보다도 군사면에서 잔더스(Otto Liman von Sanders, 1855~1929) 장군이 이끄는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원과 지도를 받고 있었다.¹²⁾ 1914년 9월 말에 터키군은 갈리폴리 반도 해안에 포대를 구축하고 에게해에 기뢰를 설치, 다르다넬스 해협을 폐쇄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이로부터 한 달 후 터키는 독일 진영의 일원으로 제1차대전에 참전했다.¹³⁾ 다르다넬스 해협 봉쇄로 인해 흑해와 지중해 간의 통항이

12) 제1차대전 이전부터 터키에서 영국과 세력 확장을 다투던 독일은 1913년 12월 터키군의 재편성을 지원하기 위해 잔더스 장군 휘하에 70여 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군사고문단을 파견했다. 고조되고 있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터키정부가 군사력 증강책의 일환으로 독일에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914년 말에 이르면 터키군은 총 40개 사단 규모로 대폭 증강됐고, 독일식 군사기술 및 훈련방식의 수용으로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

13) 오스만 터키의 제1차대전 참전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서가 유용하다: Mustafa

단절되면서 러시아에 대한 영국의 군수물자 지원도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상황 변화와 더불어 1914년 11월 말부터 정부의 전쟁정책 최고결정기구인 전시위원회(War Council)에서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 시점에서 해군장관 처칠이 식민지 이집트를 방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으로 터키의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공격을 제안했다. 성공할 경우, 다르다넬스 해협은 물론이고 이스탄불을 차지하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주장이었다.¹⁴⁾ 당시 영국군 군사정책 결정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군사보좌역의 행키(Lord Hankey)도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¹⁵⁾ 육군장관 키치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1915년 1월 전시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 작전은) 러시아와의 연결망을 재확립함은 물론 중근동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그리스와 아마도 불가리아를 우리 진영으로 끌어들이고 현재 흑해에 봉쇄되어 있는 곡물과 선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¹⁶⁾

근본적으로 갈리폴리 원정작전은 당시 영국의 세계전략과 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이 작전을 통해 형성될 새로운 방어망은 인도, 수에즈운하, 그리고 페르시아만의 석유 등 국익 보호를 위해 영국이 투입할 비용을 절감시키고 이탈리아를 협상 측으로 끌어들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었다. 더구나 독일은 서부전선에 배치된 병력과 물자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도록 압박받을 것이고, 동맹국인 오스트리아는 영국의 해군력은 물론이고 새롭게 전력을 증강한 러시아의 압력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해야만 할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중근동 전선에서 더 이상 물자와 장비의 보급 수요가 필요 없게 된 협상 진영은 이를 서부전선에 집중, 그곳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었다. 따라서 이 작전이야

Aksakal, *The Ottoman Road to War in 1914: The Ottoman Empire and the First World War*(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08).

14) Public Records Office(이하 PRO), Cab. 19/1 3623. 25 November 1914.

15) Lord Hankey, *The Supreme Command 1914~18*, Vol.1(London, 1961), p.249.

16) PRO, Cab. 22/1 3623. 8 January 1915.

말로 당시 상황에서 영국과 협상진영이 당면하고 있던 제반 군사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전쟁을 가능한 한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묘책으로 인식됐다.

이처럼 갈리폴리 원정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던 상황에서 1915년 1월 초 배후에서 터키를 공격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전문(電文)이 영국 정부에 당도했다. 이에 발맞추어 해군장관 처칠은 해군력만으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매력적인 제안을 했다. 키치너 역시 1월 8일에 있었던 전시지도부 회의에서 15만 명의 병력이면 다르다넬스 해협을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피력했다.¹⁷⁾ 다른 누구보다도 처칠이 작전 수행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1월 13일에 처칠은 예하 해군부에 이 작전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고, 수주일 안에 해협에 설치된 장애물 제거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국내에서 작전 실행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와 동시에 다르다넬스 해협에 설치된 기뢰들도 제거되어 급기야는 해군함대가 이스탄불까지 진격해 터키군을 섬멸할 수 있으리라 낙관했다.¹⁸⁾ 원정작전에 대해 반대 또는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하리라 예상한 프랑스조차도 영국의 결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했다.¹⁹⁾

드디어 1915년 2월 중순 지중해 함대사령관 카든 제독(Vice-Admiral Sackville Carden)의 지휘 하에 영국군의 갈리폴리 원정작전이 개시됐다. 총 18척의 전함과 수십 척의 소함정으로 편성된 영국 해군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에 접근했다. 2월 19일 아침 터키군의 해안 방어요새를 향해 영국 함대의 함포사격이 시작됐다. 같은 달 24일에 개최된 전시지도부 회의에서 키치너는 “영국 해군함대가 터키군의 해안 포대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할 경우, 갈리폴리에 주둔하고 있는 터키군 병력도 철수할

17) PRO, Cab. 22/1 3623. 8 January 1915.

18) PRO, Cab. 19/1 3623. 13 January 1915; Churchill College Archive, Char 2/74/45-46, Minute by WSC on the Naval Arrangements, 20 January 1915.

19) Churchill College Archive, Char 2/74/56, Letter in French from Victor Augagneur(French Minister of Marine) to WSC indicating Agreement with British Proposals for Anglo-French Naval Co-operation, 31 January 1915.

것”이라고 전세를 낙관했다.²⁰⁾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영국 해군함대는 3월 초 터키군의 해안 방어선 외곽을 제압하고 1단계 통로 개척에 성공했다.

그러나 터키군의 반격도 만만치가 않았다. 지속적인 집중포격에도 불구하고 터키 해안방어부대의 주력은 건재했고, 해협에 설치된 기뢰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터키군은 각종 화기를 동원하여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특히 터키군은 기동성이 양호한 해안포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대응했다. 공중 관측용 항공기의 동원이 거의 불가능했기에 이러한 터키군의 이동 상황을 포착하기가 어려웠다. 대규모 화력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함대의 공격은 외곽 방어망의 돌파를 제외하고는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공방전만 지속되는 상황으로 빠져들었다. 더구나 3월 중순에 실시된 영불 연합함대의 공격 중 3척의 영국군 전함이 터키군의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해군 단독작전의 한계가 드러났다. 마야흐로 지상군이 투입될 차례가 다가온 것이었다.

이제 작전의 주도권을 장악한 육군장관 키치너가 상륙작전을 구상하게 됐다. 그로서는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의 압박을 홀로 견디어내고 있는 러시아를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 자신의 의지를 실천할 기회가 온 것이었다. 곧 육·해군 연합 상륙작전이 계획됐고, 해밀턴 장군(Sir Ian Hamilton)이 7만여 명으로 구성된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됐다. 그는 예하 참모들과의 숙고 끝에 상륙작전 계획을 수립하고²¹⁾, 갈리폴리 반도의 중앙부에 있는 킬리드 바(Kilid Bahr) 고원을 주공(主攻) 목표로 선정했다. 고지대인

20) Meeting of the War Council, extract from Secretary's Notes, in M. Gilbert, *Churchill, Vol. III, Part I*, pp.555~561에서 재인용.

21) 상륙작전 계획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영국군 제29사단이 주공을 담당하여 갈리폴리 반도 남단의 헬레스곶에 상륙하고 이후 계속 전진하여 주목표인 킬리드 바 고원지대를 점령한다; 동시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연합군단과 프랑스 사단이 조공으로서 가바 테페 북쪽 지역과 쿼 케일에 상륙하여 터키군을 견제한다; 주공격이 실시 직전에 앞의 두 작전지역에서 해군 함정을 이용한 양동작전을 실시한다. 이와 더불어 갈리폴리 반도에서 벌어진 개별 전투들에 대한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최근 발간된 다음 저서가 유용하다: Peter Hart, *Gallipoli*(Oxford: Oxford Univ. Press, 2011).

이곳을 성공적으로 점령할 수만 있다면 터키군의 다른 요새들은 지상관측과 함포사격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 판단한 것이었다. 총 77척의 각종 선박에 분승한 원정군은 4월 초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항구를 출발하여 4월 21일에 갈리폴리 반도 부근의 그리스령(領) 렘노스 섬의 무드로스(Mudros) 항구에 도착했다.

4월 25일에 영국 원정군은 갈리폴리 반도 남단의 헬레스콧(Cape Helles) 및 에게해 쪽의 가바 테페(Gaba Tepe)에 상륙했다. 처음에 터키군의 저항은 미미하였으나 부적합한 장비, 협조체제의 결여 그리고 주공부대였던 제29사단 사단장 훈터-웨스턴(Hunter-Western) 장군의 통제력 부재 등으로 인해 작전의 주도권은 곧 터키군 쪽으로 넘어갔다. 예기치 못한 터키군의 거센 저항에 직면한 상륙부대는 더 이상 내륙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해안가에 웅거할 수밖에 없었다. 4월 28일 원정군은 고지대에서 터키군을 밀어내고 아키 바바(Achi Baba)의 감제고지를 장악할 목적으로 이의 통로에 해당하는 크리시아(Krithia)를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이어서 시도된 2차, 3차 공격도 많은 사상자만 남긴 채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최초 확보한 해안가의 교두보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갈리폴리의 상황은 유럽의 서부전선에서처럼 점차 참호전으로 변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불리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원정군은 1915년 7월 말까지 총 14개 사단으로 병력을 대폭 증강했다. 해밀턴 사령관은 제2차 상륙작전에서는 주공을 갈리폴리 반도 서북쪽의 안작만(Anzac Cove)으로 결정했다. 터키군이 갈리폴리 반도 입구에 있는 원정군의 헬레스콧 교두보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새로운 방향에서 대규모 병력으로 기습작전을 감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3개 지점에 동시에 병력을 상륙시킬 작정이었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기초로 8월 6일 한 시간에 걸친 함포의 준비포격에 이어서 주공을 담당할 안작군단이 공격을 감행했다. 격렬한 접전 끝에 공격부대는 야간에 터키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어서 다음날 새벽에는 원래 주공 목표였던 사리배어

능선에 대한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터키군 증원부대에 의한 역습으로 인해 이후 3일 동안에 걸친 수차례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원정군의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다. 수블라만에 대한 상륙작전도 초반에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상륙부대(영국군 제9군단)가 해안에서 장시간 지체하는 통에 결국에는 승리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10월로 접어들면서 영국군의 원정작전이 실패했다는 징후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10월 14일에 그동안의 패배 책임을 물어 해밀턴 장군이 해임되고 먼로 장군이 후임 사령관으로 임명됐다.²²⁾ 그는 곧 본국 정부에 원정군의 철수를 건의했고, 최종 판단을 위해 11월 3일에는 키치너 장군이 직접 갈리폴리의 영국군 해안 점령지역을 방문했다. 원정군이 전략적으로 전혀 가망이 없는 지점에 웅거하고 있는 실상을 목도한 키치너도 결국에는 철수에 동의했다. 그리하여 12월 달에 먼저 안작만과 수블라만에 상륙한 병력이, 이어서 1916년 1월 8~9일에 헬레스곶의 병력이 철수했다.

승리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서 시도된 갈리폴리 원정작전은 영국군의 참담한 패배로 끝나고 말았다. 다르다넬스 해협을 장악하려던 영국군의 계획은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무려 연인원 약 48만 명이 작전에 투입됐으나 얻은 것은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막대한 인명 손실이 발생했음은 물론이고 상당량의 군 장비도 대부분 터키군의 수중으로 떨어졌다. 이 작전을 통해 터키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격파하리던 영국 측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비록 약 25만~30만 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했으나) 이 전투의 승리를 통해 터키군은 발칸전쟁에서 당한 수모를 떨쳐내고 국가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됐다.

이와는 반대로 갈리폴리 작전 실패는 영국군의 위신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비록 흑자는 성공적인 철수작전을 들먹이면서 위안을 삼으려고 했으나 후진국 터키와의 대결에서 당한 패배는 당시 세계 최대의 식민

22) C. Nicolson, *The Longman Companion to the First World War: Europe, 1914~18*(London, 2001), p.123.

제국였던 영국의 위상에 커다란 손상을 입혔다. 특히 안작만 전투에서는 3만 4천 명에 달하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전략적 측면에서도 원정작전 실패 여파로 불가리아는 동맹진영으로 가담했고, 두 진영 사이에서 망설이던 그리스 왕실의 태도도 독일에 우호적으로 바뀌었다.

3. 영국군 수뇌부의 식민지 경험과 그 영향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당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던 에스퀴스 정부에 의해 실시됐다. 1916년에 접어들어 영국은 갈리폴리 반도 철수 이외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정부는 연이은 군사적 패배의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만 했다. 행키를 비롯한 전시지도부의 일부 위원들은 기밀 유출을 우려해 갈리폴리 원정작전 관련 자료의 발간에 반대했으나 조사를 요구하는 거센 비판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다. 적당한 이유를 들어 그냥 넘어가기에는 패배의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1916년 특별위원회 법에 근거해 갈리폴리 및 다르다넬스 원정작전에 대한 위원회가 설치됐다. 약 1년(1916년 8월 말 ∞ 1917년 9월 초) 동안 관련 증거들을 수집한 위원회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1917년 12월에 보고서 작성을 완료했다.²³⁾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이었다.²⁴⁾ 이들 세 사람은 원정작전의

23) 위원회는 1916년 8월말부터 이듬해 9월초까지 총 168명의 증인들로부터 인터뷰 및 서신의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2권의 보고서(1권 Cd 8490, 1917; 2권 Cmd 371, 1918)로 작성 발간했다. 최근에 영국 국가문서보관소가 이 보고서들을 단행본으로 재발간한 바 있다(T. Coates, ed., *The Dardanelles Commission Part I: Lord Kitchener and Winston Churchill, 1914~15; Part II: Defeat at Gallipoli, 1915~16*, London, 2000).

24) 다르다넬스 위원회 조사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직후에 이를 분석한 다음 글에서도

시작부터 철수 시까지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중 맨 먼저 주목을 받은 인물은 해군장관 처칠이었다. 그는 원정작전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 때문에 갈리폴리 원정작전 실패라는 불명예를 안고서 1915년 5월 해군장관직에서 사임했고, 지속적으로 언론의 비판을 받아왔다.²⁵⁾ 특히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수천 명 장병들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영국군의 운명을 위협에 처하게 만든 과대망상적인 정치가”로 혹평하기조차 했다.²⁶⁾

중앙정부에서 활동했던 또 다른 핵심인물은 육군장관 키치너였다. 그 역시 직간접적으로 원정작전과 관련되어 있었고, 병력 및 군수물자 증강을 요구한 원정군의 건의를 계속하여 무시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하지만 1916년 여름에 러시아로 향하던 중 발생한 불의의 익사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그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수 없었다.²⁷⁾ 이로 인해 원정작전의 실패를 주로 키치너의 탓으로 돌리려던 처칠과 해밀턴의 암중모색도 무산됐다. 물론 이후에도 키치너는 처칠과 해밀턴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당사자가 사라진 마당에 그에 대한 직접적 비난은 불가능하게 됐다.

마지막으로 비판의 중심에 선 인물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작전을 지휘했던 해밀턴이었다. 그는 처칠처럼 자신을 옹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

실패의 요인은 전장이 아니라 런던 본국에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John Leyland, “Lessons from Dardanelles Report”, *Nineteenth Century and After*, Vol.81(April, 1917), p.920.

25) 거센 비판에 대응해 처칠은 저술(*The World Crisis 1915*, London, 1923)을 통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했다.

26) M. Gilbert, *Churchill*, Vol.Ⅲ, p.811. 해군장관 직을 사임한 처칠은 그해 가을을 서부전선에서 최전방 대대 지휘관으로 근무한 후 의회 연설 및 언론 기고의 형식으로 조사위원회에 증거를 제시했다. 이후 그는 로이드 조지 연립정부의 군수물자부장관으로 발탁(1917년 7월)되어 내각에 복귀했다.

27) 1916년 6월 5일 러시아와 군수물자 판매 협상을 위해 키치너와 수행원들을 싣고서 영국의 스카파 플로우항을 출발해 러시아로 향하던 영국해군 전함 햄프셔(HMS Hampshire)호가 북해상에서 독일의 잠수함이 부설해 놓은 기뢰에 부딪혀 침몰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키치너를 비롯해 총 7백여 명에 달한 승선인원들 대부분이 사망했다.

하지는 않았으나 나름 은밀한 방식으로 비난의 화살을 피해가려고 했다. 갈리폴리에 상륙한 바로 그때부터 해밀턴은 마치 나중에 자신의 행위 및 원정작전을 옹호하려고 준비한 듯이 보였다.²⁸⁾ 작전 중에 그가 본국으로 보낸 전문이나 메모, 다르다넬스 위원회에 대한 그의 태도, 그리고 제출한 증거 및 연설 등을 검토해 볼 경우, 그가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작전기간 동안에는 성공과 평판을 쌓는데 주력했으나 사령관 직에서 해임된 직후부터는 자신에 대한 비난과 의혹의 눈길을 불식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렇다면 갈리폴리 원정작전의 실패 책임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넓게는 구조적인 요인에 있겠으나 그동안 논의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로 세 핵심인물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²⁹⁾ 이들의 행보가 작전 수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처칠은 갈리폴리 원정작전이 지닌 전략적인 이점에 몰입된 나머지 너무 성급하게 이를 밀어 붙였다는 점에서, 키치너는 서부전선에 집착하여 갈리폴리 전장에서 요구한 인원과 물자의 지원에 인색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해밀턴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실전(實戰) 상황에서 조차 예비부대의 작전수행을 너무 방임했다는 점에서 주로 비판을 받았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원정작전의 어느 단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책임의 경중이 달라질 수도 있었다.³⁰⁾ 왜 이들 세 사람은 모두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대해 무모할 정도로 낙관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이들로 하여금 이러한 인식을 갖게 한 근본적

28) 전후 해밀턴은 원정작전 중에 자신이 적은 메모나 일기 등을 주 사료로 하여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여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노력을 밝혔다: Sir Ian Hamilton, *Gallipoli Diary*, Vol. I & II(London: Edward Arnold, 1920).

2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졸고를 참고할 것: 이대주, 「처칠, 키치너, 그리고 해밀턴의 삼중주?: 1915년 영국군 갈리폴리 원정 실패 책임을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0호(2008), 245~269쪽.

30) 작전의 구상과 착수 단계에서는 처칠에게, 작전 실행의 초기단계에서는 키치너에게,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륙작전에 돌입한 이후에는 해밀턴에게 좀 더 과중한 실패의 책임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인이 있다면 이는 과연 무엇일까? 작전의 준비단계 및 심지어는 진행 과정에서 간헐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이들은 18세기 중엽부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식민지 쟁탈전쟁에서 연전연승했던 영국군의 전력을 과대평가하고 반대로 상대방 터키군을 무시하는 일종의 서구중심주의적 사고 방식에 몰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19세기에 영국인들은 자유와 정의 실현의 선구자인 자신들 앵글로색슨족이야말로 열등하고 미개한 인종들을 통치하고 문명화로 이끌 책임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선민의식에 몰들어 있었고,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후반기에 대두한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영향 하에서 과학적 외피를 입고서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되었다.³¹⁾ 이러한 오도된 제국주의적 시각이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戰力)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작전을 감행토록 추동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추론은 갈리폴리 원정작전과 관련된 핵심적인 세 인물의 과거 경력을 살펴볼 때 매우 설득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수뇌부가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원정작전을 추진했음은 작전의 구상단계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단적으로 당시 영국의 최고 군사정책 결정기구였던 전시위원회에서 갈리폴리 작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논의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전시위원회의 서기로 활동했던 행키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전시위원회의 비효율적 운영을 비판했다.³²⁾ 그는 에스퀴스 수상의 영도 하에서 각종 회의가 문서화된 공한(公翰)이나 전문가인 참모들의 평가도 없이 편의적으로 그리고 간혹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어떠한 통합적 조정기능도, 해군이나 육군의 전문적인 자문도, 또는 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작업도 생략된 채 각 해당 부서들 내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시위원회의 일부 결정들은 실행과정에서 관련기관들 간의 타성적인 타협으로

31)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박지향, 「영국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비교(I): 인종주의를 중심으로」, 『영국연구』 제2호(1998), 161~194쪽을 참고할 것.

32) Lord Hankey, *The Supreme Command 1914~1918*(London, 1961).

인해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기도 했다. 전시지도부가 통합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 내각이나 전시지도부의 사전 승인이나 심지어는 통보도 없이 키치너의 독단적 명령을 받고서 해밀턴이 상륙작전을 감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무엇보다도 행키는 전시지도부의 구성원 전체가 터키군의 방어전력을 과소평가하는 우(愚)를 범했다고 지적한다.³³⁾

원정작전의 입안 및 실행과정에서 해군장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처칠은 왜 터키군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승리를 낙관했을까? 젊은 시절부터 식민지에서 초급장교 및 특파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던 처칠은 은연 중 제국주의적 편견에 젖어서 터키군의 전력을 무시했던 것은 아닐까. 1886년에 보수당정부의 재무부장관으로 차기 수상 후보로까지 거론됐던 랜돌프 처칠(Randolph Churchill)의 아들로 태어난 처칠은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기병대 초급장교이자 종군기자 자격으로 인도, 수단,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 영제국의 주요 전장을 다니면서 실전 경험을 쌓고 동시에 저널리스트로서 필명(筆名)을 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보어군의 포로로 생포됐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출간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다.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그는 1900년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하원의원으로 당선되어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³⁴⁾ 이후 식민부차관, 상무부장관, 그리고 내무부장관을 거쳐서 1911년 제2차 모로코 사건을 계기로 애스퀴스 내각의 해군장관이 되었다.³⁵⁾ 1915년 5월까지 약 4년간 해군부를 이끌면서 처칠은 해군

33) E. Spiers, "Chapter 7 Gallipoli", in B. Bond(ed.), *The First World War and British Military History*(Oxford, 1991), p.178.

34) M. Gilbert, *Churchill: A Life*(New York: Henry Holt, 1991), pp.45~50.

35) 그는 1908~15년, 1917~22년, 1924~29년, 그리고 1939~40년에 내각의 각료였고, 마침내 1940~45년, 1951~55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상직을 역임할 정도로 정치가로서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08~11년에는 식민부차관으로서 직접적으로 식민지와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다루었는데, 이때 그의 뇌리에는 영국은 신이 영국민에게만 허락한 책임 있는 현실질서를 식민지에 전파하고 이식시킬 책무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Ronald Hyam, "Chapter 10 Winston Churchill's First Years in Ministerial Office, 1905~1911", in *Understanding the British Empire*,

참모단 및 항공대 창설, 함대 연료용 석유 공급원 확보와 같은 중요한 업적을 이루었으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갈리폴리 원정작전에 실패하면서 불명예 퇴진하고 말았다. 이후 1917년 7월에 로이드 조지 수상에 의해 군수물자부장관으로 재기용될 때까지 처칠은 서부전선에서 야전부대 지휘관으로서 일종의 백의종군을 수행했다.³⁶⁾

원정작전의 또 다른 핵심인물인 키치너는 1897년 옴두르만 전투 및 1900년 보어전쟁에 처칠과 함께 참전했기에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런던의 중앙정부에서 육군장관으로서 영국군의 전쟁수행 전반을 관장했던 키치너도 갈리폴리 원정작전 시 터키군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나치게 상황을 낙관했고, 식민지에서 영제국의 영토 확장과 이익 보호에 잔뼈가 굵은 자신의 군대 경험 때문인지 우려스러울 정도로 터키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다.³⁷⁾

키치너는 과연 어떠한 인물인가? 한마디로 그는 영국제국주의가 배출한 대표적 군인이었다. 1850년에 영국군 하급장교의 아들로 태어난 키치너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제1차대전 발발 이전까지 영제국 각지에서 무공을 세운 당시 영국육군의 상징과 같은 존재였다.³⁸⁾ 주로 중동 및 아프리카의 영제국 식민지에서 근무한 키치너가 국가적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 계기는 기묘하게도 해밀턴, 처칠, 그리고 키치너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참전했던 1897년 수단의 옴두르만 전투였다. 일찍이 1885년에 또 다른 영제국주의 전쟁의 대중적 스타였던 고든 장군의 죽음을 응징하기 위해 이집트로부터 영국군을 이끌고 옴두르만으로 가서 1897년 그곳에서 마흐디가 이끈 이슬람 광신도 집단을 괴멸시킨 소식이 본국에 전해진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2010, p.300).

36) M. Gilbert, *The Challenge of War: Winston S. Churchill 1914~1916*, Vol.Ⅲ (London: Minerva, 1971), p.811.

37)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3~25.

38)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대표적 전기작가로 꼽히는 맥너스는 책의 부제에서조차 키치너를 '제국주의자'로 적고 있다: Philip Magnus, *Kitchener: Portrait of an Imperialist* (New York: E. P. Dutton & Company, INC, 1959).

것이 그가 전국적 인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³⁹⁾ 그는 일종의 ‘전쟁의 신’처럼 과대평가된 채 일반 영국인들의 뇌리에 새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대중의 인기는 1900년에 그가 로버츠 장군의 후임으로 남아프리카 원정군 총사령관에 임명되어 보어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더욱 높아졌다.⁴⁰⁾

1914년 8월 대전이 발발했을 때, 키치너가 전쟁수행을 주도하는 육군 장관에 임명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애스퀴스 수상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국민들은 이 제국주의 전장의 영웅이 이번 전쟁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가 오산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평생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열세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던 식민지인들과 싸워온 키치너로서는 기관총, 야포, 독가스 등이 동원되고 참호전 및 살육전으로 전개되고 있던 제1차 세계대전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기가 어려웠다.

그동안 키치너가 경험해 온 식민지의 전장은 유럽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었다. 1870년대 이후 유럽인들과 아프리카인들 간에 벌어진 충돌은 전력 측면에서 역사상 가장 비대칭적인 경우의 하나였다. 전자에게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냥에 가까운 싸움이었던데 비해 후자에게 전자와의 조우는 당혹스럽고 희망이 없는 투쟁이었다. 후장식소총은 아프리카인들의 저항의지를 결정적으로 무산시켰다. 1890년대에 식민지주둔 영국군에 맥심기관총과 속사식 경야포가 배치되면서 아프리카대륙에서 유럽 군대와 식민지 원주민 저항세력 간에 전력 차이는 더욱 커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자 간의 충돌은 전투가 아니라 흡사 후자에 대한 전자의 살육전이라고 해도 무방했다.

그런데 문제는 유럽인들이 무기 및 전술에서 경험한 서구문명의 우월감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문화나 사상과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39) 이때 처질은 활발한 사전 로비를 통해서 키치너 장군의 선발 반대를 극복하고 제21창기병 연대의 초급장교로 원정부대에 합류할 수 있었다(처질, 한영순 역, 『윈스턴 처칠: 내 젊은 날의 추억』, 범조사, 1987, 181~183쪽).

40)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19.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서양은 우월하기에 미개한 식민지 주민들을 교화로 이끌 자격과 사명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던 것이다. 헨슨(Victor D. Hanson) 같은 연구자는 서구의 우월성 연원을 그리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하고 있으나⁴¹⁾, 이것이 19세기 제국주의시대에 벌어진 충돌에서처럼 극명하게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갈리폴리 원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사령관 해밀턴에 대해 살펴보자. 1915년 3월 중순에 갈리폴리 원정군 사령관에 임명됐다는 전갈을 받은 해밀턴 역시 학자풍의 외모와 필력을 지녔으나 근본적으로 영 제국의 식민지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었다. 그는 40여 년에 걸친 자신의 군 생활 대부분을 아프가니스탄, 버마, 인도, 수단 그리고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영제국의 식민지 주둔군 장교로 보내었다. 이외에도 그는 한동안 육군 검열관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포함한 전 세계에 흩어진 영제국의 식민지를 순방하면서 군의 실태를 조사한 경력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러일전쟁 동안에 영국군 관전단의 일원으로서 일본군에 배속되어 전투를 참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현대전의 양상에 대해 수준 높은 관전보고서를 작성해 군내에서 명성을 얻기도 했다.⁴²⁾ 그는 갈리폴리 원정 당시 해군장관이던 처칠과 막역한 친구 사이였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젊은 시절에 처음 알게 된 것은 바로 1897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벌어진 옴두르만 전투였고 이후 양인은 보어전쟁에서도 함께 하게 됐다.⁴³⁾

41) 헨슨은 서양은 고전 그리스시대 이래로 폴리스 간에 팔랑크스 대형을 이용한 ‘정면대결’이라는 전투방식을 발전시켜왔는데, 이는 당시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스에서만 존재한 자유시민 공동체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바로 이러한 서양의 특수성 속에 근대 이후 서양세력이 세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한 비결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V. D. Hanson, *The Western Way of War: Infantry Battle in Classical Greece*(Berkeley: Univ. of California Press, 1989); *Carnage and Culture: Landmarks Battles in the Rise of Western Power*(New York: Doubleday, 2001); *A War Like No Other: How the Athenians and Spartans Fought the Peloponnesian War*(New York: Random House, 2005) 등을 참고할 것.

42) 해밀턴의 생애에 대해서는 John Lee, *A Soldier's Life: General Sir Ian Hamilton* (London: Pen Books, 2000)을 볼 것.

43) 보어전쟁 시에 해밀턴은 키치너 사령관의 참모장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처칠도 초급장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해밀턴과 키치너의 관계였다. 1897년 옴두르만 전투 시에 키치너 예하에 있었던 해밀턴은 보어전쟁 시에는 키치너 사령관의 참모장으로서 근무하는 질긴 인연을 갖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해밀턴은 일생 동안 키치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이 상으로는 두 살 차이에 불과했으나 해밀턴에게 키치너는 군의 영원한 직속상관이었다. 따라서 키치너에 대한 해밀턴의 태도는 흡사 퍼블릭 스쿨의 스승과 제자 사이처럼 상하관계가 분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해밀턴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어 키치너에게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해밀턴이 장관 집무실로 인사차 방문했을 때 키치너는 “우리가 현재 다르다넬스 해협에 있는 함대를 지원하기 위해 육군병력을 파병하고자 하는데, 자네가 원정부대를 지휘해줘야 하겠네.”라고 짧게 언급하면서 이어서 참모장으로 브레이드웨이트 소장(Major-General Walter Braithwaite)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⁴⁴⁾ 명색이 원정군 사령관인 해밀턴에게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주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키치너의 태도에 대해 해밀턴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었다.

해밀턴을 가장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상대인 터키군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갈리폴리로 출발하기 직전에 해밀턴은 재차 키치너를 방문했다. 이때 키치너는 몇 가지 지시사항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었다: 원정군의 명칭을 ‘지중해원정군(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으로 할 것;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해군함대의 공격이 실패한 경우에만 상륙작전을 실시할 것; 전황보고는 키치너 자신에게 직접 보낼 것.⁴⁵⁾ 이것이 전부였을 뿐 터키군에 대해서는 단지 갈리폴리 반도가 상당히 요새화되어 있을 것이고 약 4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적군의

이자 특파원의 자격으로 참전한 끈끈한 인연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두 사람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감안할 시 해밀턴이 원정군 사령관으로 임명되는데 해군장관 처철의 도움이 컸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44)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4~26.

45)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s(King's College London), Hamilton Papers 7/4/5, 12 March 1915.

저항이 만만히 않을 것이라는 추측성 언급 이외엔 한마디도 없었다. 터키군이 중형 대포(heavy gun)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갈리폴리 반도 주둔군의 실질적 지휘관은 누구인지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없었다.

당시 영국군은 적군인 터키군의 전력에 대해 거의 백지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해밀턴은 이스탄불 주재 영국무관이 보내는 다르다넬스에 대한 정보보고서조차 받지 못했다. 그리하여 전장인 갈리폴리로 갈 때 명색이 사령관인 해밀턴이 지참한 것은 1912년에 작성된 터키군에 대한 한 권의 노트와 터키에 대한 두 권의 여행용 가이드 책자만 전부였다.⁴⁶⁾ 해밀턴이 키치너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장관 집무실을 떠나려고 할 때, 키치너가 해밀턴에게 던진 마지막 말은 터키군의 실상에 너무 무지한 일종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해군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하기만 한다면, 콘스탄티노플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전투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지휘관이 될 것이네.”⁴⁷⁾

그렇다면 당시 영국군의 전쟁 상대인 터키군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갈리폴리 전투와 관련된 또 다른 핵심인물은 바로 무스타파 케말이었다. 그는 갈리폴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군 내부에서는 물론이고 국가적인 영웅으로 부상했으며, 이를 발판으로 삼아 1923년에는 터키공화국 초대 대통령이 됐다. 터키군내에서 그의 실력은 익히 알려져 있었으나 갈리폴리 전투 이전에는 엔웨르(Enver Pasha) 및 탈라트(Col. Talat)와 같은 1908년 혁명세력 내 실세들의 그늘에 가려서 권력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보석은 숨겨져 있어도 빛을 발한다는 말처럼 주변부에 있던 케말은 대전 전에 이스탄불을 방문한 바 있던 영국군 월슨장군(General Sir Henry Wilson)에 의해 장차 터키군을 이끌 재목감으로 주목받은 바 있었다.⁴⁸⁾

46) L. A. Carlyon, op. cit., p.29.

47) L. A. Carlyon, op. cit., p.28.

48) L. A. Carlyon, *Gallipoli*(London: Doubleday, 2001), pp.29~31. 1881년에 마케

4. 오스만 터키군의 실상

어떻게 해서 터키군은 영국 수뇌부의 예상을 깨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갈리폴리 전투 발발 시에 터키군의 실상은 어떠했는가? 과연 터키군은 영국군 원정군이 작전을 치밀하게 수행하지 못했기에 일종의 어부지리로 갈리폴리 전투에서 이긴 것일까? 물론 그러한 측면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무엇보다도 당시 터키군은 영국군 수뇌부가 얽잡아본 것과는 달리 갈리폴리 전투를 전후로 인적 및 물적으로 꾸준히 전력을 증강해 왔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요체였다. 한 예로 원정작전의 패배 후 설치된 다르다넬스 조사위원회에서 원정군 사령관이었던 해밀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터키군이 그 정도로 잘 싸울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⁴⁹⁾

만일 이 언급이 사실이라면, 왜 터키군은 그토록 잘 대응했는가? 우선 인적 측면에서 영국 원정군이 상대한 터키군은 영국군 수뇌부의 판단처럼 지휘체계도 갖추지 못한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당시 오토만 제국군 내에서 최강의 정예 병력이었다. 이들을 지휘한 장교들도 이전의 발칸전쟁에서 실전까지 경험한 능력 있는 인재들이었다.⁵⁰⁾ 게다가 하드웨어적

도니아 지방의 살로니카에서 목재상의 아들로 태어난 케말은 서양적인 측면과 동양적인 측면을 함께 갖고 있었다. 전자와 관련해서 그는 논리적이고 실질적이며 사고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성품을 보여주었고, 후자와 관련해서 그는 민주적이지만 특히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를 추진하는 면에서 독재자와 같은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다소 유약하고 내성적이었던 해밀턴과는 정반대되는 성품의 소유자였다. 이 두 사람이 갈리폴리 반도에서 한 사람은 원정군 사령관으로서 다른 한 사람은 이를 지키는 제19사단(신설사단으로 3개 연대, 총 1만여 명의 규모)의 지휘관으로서 격돌하였던 것이다. 케말의 생애에 대해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최근 국내에서 번역된 다음 책을 참고할 것: 앤드류 망고(곽영완 역),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터키 건국의 아버지 아타튀르크 일대기』(에플미디어, 2012).

49) R. Rhodes James, *Gallipoli: The History of a Noble Blunder*(New York: Macmillan, 1965), p.93.

50) 갈리폴리 전투 당시 갈리폴리 반도의 주방어군은 신설된 터키군 제5군이였다. 독일군의 잔더스 장군을 사령관으로 그 예하에 제3군단과 제15군단(예하에 3사단과 11사단을 갖고서 반도 건너 아시아쪽 방어담당)이 있었다. 이 중에서 갈리폴리 반도를 실질적으로

측면에서도 터키군은 길게는 30여 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짧게는 1, 2차 발칸전쟁(1912~13)을 계기로 갈리폴리 반도의 방어진지를 상당한 수준으로 보강하고 체계화시켜 놓고 있었다. 터키군은 영국군의 공격 개시 이전부터 갈리폴리 반도를 전략적 요충으로 판단하고 요새화했던 것이다.⁵¹⁾ 결과적으로 영국 원정군은 오토만 제국 영토 내에서 방어망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으로 상륙했던 것이다.

물론 상대방 터키군의 실상에 무지했던 영국 원정군의 오만한 태도는 별다른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은 아니었다.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했던 오토만 제국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쇠퇴의 기운이 완연해져 심지어는 ‘유럽의 병자’로 불리고 있었다. 특히 19세기 중엽 이후 서구열강의 제국주의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대표적인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오토만 제국 내부 또는 주변의 제민족들 - 러시아,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 등 - 도 발칸지역과 코카서스 지방을 빼앗기 위해 경쟁적으로 압박을 가해 왔다. 이러한 와중에 벌어진 크림전쟁(1854~56) 및 러터전쟁(1877~78) 과정에서 서방에 비친 터키군은 쇠락한 거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⁵²⁾ 게다가 세기의 전환기 및

방어하고 있던 것은 터키군 내에서도 최고의 정예부대로 손꼽히고 있던 제3군단 예하의 7사단, 9사단, 그리고 무스타파 케말이 지휘관으로 있던 제19사단이었다. 케말 이외에 당시 제3군단장이던 에사트 파샤(Esat Pasa)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었다. 1915년에 52세였던 그는 엘리트 교육기관인 참모대학(War Academy)을 졸업한 유능한 장군이였다. 발칸전쟁에서 풍부한 실전경험을 쌓은 그는 이후 갈리폴리 반도에서 근무하면서 지형을 익힌 후 갈리폴리 전투 시에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였다. 사실상 터키군에서는 1913년 제2차 발칸전쟁 이후 청년터키당에 의해 터키군 장교단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이루어졌다. 군 현대화라는 목표 하에 사전 자격심사를 거쳐서 무능하다고 판단된 고급장교들을 군에서 축출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고급장교들 중 한 명이 바로 에사트 파샤였다(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 65(4), Oct. 2001, p.996).

51)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s, Hamilton Papers 7/9/7, Answers by Turkish General Staff to Questions asked by the Official Historical A. I. F.(Dec. 1919). 이는 전후에 갈리폴리 전투에 대한 공간사(公刊史) 집필을 위해 영국 측에서 전투에 참전했던 터키군 참모에게 보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인데, 이를 통해 당시 터키군의 병력 배치 현황 및 반응 등을 어느 정도 상세히 엿볼 수 있다.

52)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1912~1913년에 벌어진 발칸전쟁에서의 패배는 과거 서방을 위협했던 군사강국으로서 터키군의 명성은 완전히 끝났음을 재차 입증하는 듯이 보였다. 서툰 기동, 엉성한 전략, 나락으로 떨어진 전투력 등 터키군의 와해된 모습은 당시 서방관찰자들의 눈에 포착되어 본국의 군 수뇌부 및 참모부에 전달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터키군에는 잘 훈련되고 기동작전도 훌륭하게 수행하는 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터키군 나름대로 군 개혁의 고삐를 조이고 있던 점은 제대로 포착되지 않았다. 원정군에게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당시 터키군이 과거의 패배로부터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전투역량 및 무엇보다도 방어작전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온 점을 간과한 것이다. 더구나 19세기 말부터 독일군의 지원과 지도 감독 하에서 터키군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전력을 강화해 오고 있었다.⁵³⁾ 결과적으로 1915년에 영국군은 터키군의 약점을 겨냥하여 자신의 강점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행동하는 우(愚)를 범했던 것이다.

독일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도를 바탕으로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이르러 터키군은 약 40개 사단의 병력으로 대폭 증강됐다. 터키는 전 병력을 총 4개군으로 편성하고 이 중에서 제2군에게 갈리폴리 반도에 대한 방어를 맡겼다. 그리고 이미 1914년 9~10월에 갈리폴리 반도의 방어망을 강화할 목적으로 독일군 요새 구축 전문가들을 파견한 바 있었다. 이들은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 Oct. 2001, pp.983~984.

53) 터키에 대한 독일의 지원은 오랜전부터 시작됐다. 19세기 말 이래로 터키군대는 독일 군사고문단의 지도를 받아 왔고, 이로 인해 독일군 교리와 참모제도를 따르고 있었다. 그래서 터키군의 고급장교들 대부분은 독일군의 군사대학을 벤치마킹해 설립된 2년 과정의 고급 참모대학(War Academy)에서 수학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터키군 군단장이나 사단장들은 지휘하는 부대를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독일적 지휘방식의 훈련을 받았다. 바로 갈리폴리 전투에서 무스타파 케말이 보여준 고도의 전문화된 지휘 스타일이 바로 이 점을 반영해 주고 있다. 따라서 비록 독일인이지만 잔더스 장군은 갈리폴리 반도 방어를 책임진 터키군 제5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작전의도와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는데 터키군 장교들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당시 상황에서 일종의 다국적군을 이끌었던 해밀턴 장군의 처지와 비교했을 시, 잔더스 장군은 인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Erickson, p.997).

영국군의 공격이 가해질 만한 전술적 요충지들을 미리 체크하고 보강했다. 당시 대포, 지뢰, 그리고 탄약과 같은 군수물자의 심각한 부족이 터키군의 당면문제로 지적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문제 역시 영국군의 공격 개시 이전부터 수입되는 군수물자를 갈리폴리 반도로 집중 투입한 덕분에 상당한 정도로 해결된 상태였다.⁵⁴⁾ 또한 강력한 이슬람 민족주의 및 전장에서의 죽음을 신성시하는 종교교리를 통해 효율성이 부족했던 지휘 체계를 보완하고 있었다.

다르다넬스 해협에 대한 영국군의 공격이 점차 가시화되면서 터키군은 갈리폴리 반도를 일종의 특별 작전구역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전력증강을 시도했다.⁵⁵⁾ 1915년 4월 약 8만 5천 명의 병력으로 제5군을 창설해 갈리폴리 반도 전담부대로 정하고, 당시 독일 군사고문단의 총수였던 잔더스 장군을 군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일찍이 그는 터키의 혁명정부 수뇌부에 다르다넬스 해협과 갈리폴리 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 역설한 바 있었다. 그는 기존의 선방어 개념을 기동방어 형태로 변경하여 적군의 상륙이 예상되는 지점에 신속하게 지원군을 보내는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예하 전 병력을 삼분(三分)해서 상륙예상지점에 배치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놓았다.⁵⁶⁾

54) M. Gilbert, "Chapter 1. Churchill and Gallipoli", in J. Macleod(ed.), *Gallipoli: Making History*(London, 2004), p.17. 당시 터키군은 포탄이 심하게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구나 4월말 이후로 터키군은 대포, 기관총, 라이플 총, 철조망 및 참호체계 등으로 막강한 방어력을 구축하여 원정군의 공격력에 버금가는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Tim Travers, *Gallipoli 1915*, p.300).

55) 특히 1914년 11월 초에 영국 함대가 다르다넬스로 접근하여 터키 해안에 위협 포격을 가한 것을 계기로 터키군은 이 지역에 대한 경계 및 방어태세를 대폭 강화했다. 예컨대, 해협의 초입지역에 여러 채의 방어요새들을 새로 구축하고 해안포를 설치했으며, 무엇보다도 해협의 바다 밑에 기뢰와 대잠수함망을 설치하여 영국 함대의 통행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56) 한 예로 영국군이 수블라만에 기습적으로 상륙하자 그는 즉시 당시 대령이던 무스타파 케말을 사단장으로 임명하여 단기간 내에 수블라만으로 추가 병력을 파병하는데 성공했다. 케말의 지휘 하에 강행군으로 수블라 만에 도착한 터키군은 영국 상륙부대가 해안가에서 부질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에 고지대에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터키군의 방어태세와는 달리 영국 측은 런던의 수뇌부로부터 갈리폴리 전장의 장병들에 이르기까지 적군의 실상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었다. 우선 런던에 있던 영국정부 인사들은 제국주의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터키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는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이는 육군장관 키치너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에 영국 내각의 각료들은 물론이고 전문보좌관들조차도 영국 해군함정이 이스탄불 앞에 출현하기만 해도 터키는 금방 항복할 정도로 허약하다는 오만한 선입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⁵⁷⁾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정작전을 구상할 때부터 영국군 측은 터키군에 대한 부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정보들에 의존하고 있었다.⁵⁸⁾ 이러한 단편적이고 부정확한 정보들을 기초로 영국 원정군 참모들은 상륙작전을 계획했던 것이다. 오늘날 서방세계의 대표적인 터키군 전쟁사가로 손꼽히는 에릭슨(Edward J. Erickson)은 이러한 영국 원정군 수뇌부 및 참모들의 뇌리에 담겨 있던 우월의식과 여기에서 배태된 터키군의 전투력을 무시하는 태도가 당시 터키군에 대한 정보 부재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⁵⁹⁾ 실제로 원정작전 당시 이러한 제국주의적 시각이 군 수뇌부로부터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편만해 있었고, 이로 인해 상대방 터키군을 자신들의 용맹함 및 전투능력에 크게 뒤지는 취약한 군대로 판단하고 있었다.

속성상 다국적군 - 영국군, 프랑스군, 오스트레일리아군, 그리고 뉴질랜드군 - 으로 구성되어 원천적으로 효율적인 지휘가 어려웠던 영국 원정

57) Tim Travers, op. cit., p.186.

58) 대전발발 이전에 터키에서 활동했던 영사나 무관들, 그리고 대전발발 직후 이스탄불을 방문 중이던 영국 해군대표단이 수집한 정보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59)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Oct. 2001), p.983. 최근에 에릭슨은 갈리폴리 전투 시 터키군의 상황을 총체적으로 분석한 책을 선보인 바 있다: E. J. Erickson, *Gallipoli: The Ottoman Campaign*(Barnsley: Pen & Sword Military, 2010). 그리고 터키군의 입장에서 갈리폴리 전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K. Fewster, V. Basarm, and H. H. Basarm, *Gallipoli: The Turkish Story*(Crows Nest: Allen & Unwin, 2003)를 참고할 것.

군이 일종의 흠그라운드인 갈리폴리 반도에서 이미 전투를 대비하고 있던 터키군을 제압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터키군은 1915년 3월 18일에 벌어진 초기 전투에서 해협에 부설된 기뢰와 해안에 설치된 대포를 이용하여 영불 연합해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다. 터키 측 자료에 의하면, 당시 다르다넬스 해협에는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기뢰가 부설되어 있었다. 원정작전 종료 후에 처칠은 당시 터키군은 포탄이 거의 바닥난 상태로 영국해군이 한 차례 더 공격을 가했더라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터키군은 포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도 아니었고, 더구나 4월말 이후로 대포, 기관총, 철조망 등으로 무장된 강력한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⁶⁰⁾

5. 나오는 말

우리는 앞에서 1915년에 전개된 갈리폴리 원정을 작전 전말(顛末)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세 인물들 - 처칠, 키치너, 해밀턴 - 을 중심으로 고찰했다. 실패의 책임 경중을 누구에게 놓든 간에, 당시 터키군의 전력을 감안할 시, 이는 진정한 의미의 분석으로는 미흡하다. 다시 말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갈리폴리 반도를 방어하고 있던 터키군의 전력이 그토록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영국군 수뇌부 및 심지어는 전장의 장병들조차도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위의 세 인물들을 관통하는 공통요인이 작용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60) E. J. Erickson, "Strength against Weakness: Ottoman Military Effectiveness at Gallipoli, 1915", *Journal of Military History*, Vol.65(4)(Oct. 2001), p.1011.

간접적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학교교육을 통해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젊은 시절에 영제국의 식민지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경험을 통해 이들은 연중에 일종의 제국주의적 오만함에 물들어 있었던 것이다. 고로 전투의 기본 중 기본인 적군 전력에 대한 사전 파악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다. ‘형편없을 것’이라던 이들의 인식과는 달리 터키군은 무기 및 진지 구축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지휘관의 자질이라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도 무스타파 케말이나 에사트 파샤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당시 서방진영 장교들에 뒤지지 않는 자질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영국 원정군의 패배는 예정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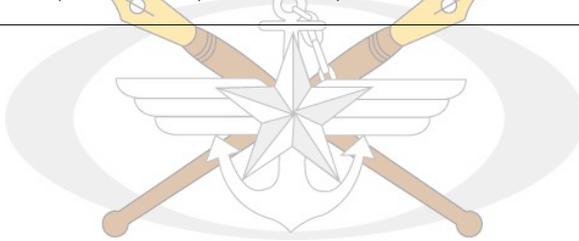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켜 탓에 영국 원정군은 1915년 1월에 본격적으로 논의된 이래로 수시로 기본 작전개념을 변경해야만 했다. 그 결과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둘러 상륙작전이 이루어졌고, 작전이 개시된 이후에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지루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통에 결과적으로 피해만 증가하였다. 전쟁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서부전선에 놓여 있던 전략적 상황에서 주전장으로부터 이격된 지중해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만 한다는 본질적인 취약점에도 불구하고, 원정작전을 주도한 인사들은 적군의 전력을 얽잡아보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사전 합의 및 준비가 미흡한 상태로 서둘러 작전이 개시되었다. 물론 당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이유들도 있겠으나 애초부터 육·해군 합동작전이 아니라 해군 단독작전으로 실시한 것은 당시 터키군의 실상에 대한 영국 측의 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 논문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수뇌부 정치학(high politics)’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갈리폴리 원정과 관련해 핵심적 역할을 했던 세 인물들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그동안의 기존 연구들은 원정작전 실패의 책임이 이들 중 누구에게 더 많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물론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 세 인물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실패의

근본적 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를 식민지 주둔 경험을 통해 이들 세 인물의 뇌리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던 서구중심의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구했다. 물론 실패요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들의 행동과 역할을 제약한 제반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나 이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또 다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갈리폴리 원정, 다르다넬스, 이스탄불, 처칠, 키치너, 해밀턴, 안작
군단, 오스만 터키, 잔더스 장군, 무스타파 케말



<ABSTRACT>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British Gallipoli Campaign in 1915

- Focusing on the Imperialistic Prejudices of the British High Command and
the Reality of the Turkish Army -

Lee, Nae-joo

The essential purpose of the Gallipoli campaign was to capture Istanbul and thereby defeat Turkey, an ally of Germany. The strategy was initiated by First Lord of the Admiralty Winston Churchill and soon accepted by Secretary of State for War Lord Kitchener. Initially, an attempt was made to force a way by sea alone through the narrow Dardanelles Straits. The navy bombardment of the Narrows' defences was unsuccessful and ceased on 18 March 1915. Meanwhile plans developed to support the navy with landing force. On 25 April 1915 men of the Mediterranean Expeditionary Force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Sir Ian Hamilton landed on the Gallipoli peninsula. The main thrust of the attack focused on five points -- beaches named S, V, W, X and Y -- along the tip of the peninsula, Cape Helles. The 29th Division of the British army carried out these landings with the support of the Australia and New Zealand Army Corps (Anzac).

Unfortunately, however, they did not lead to decisive gains or the passage of the fleet through the Dardanelles, and several months of intensive trench warfare issued. On 6 August an attempt to break the deadlock was made by landing fresh forces at Suvla Bay while forces simultaneously tried to break out from Anzac. This new attack was not successful. Hamilton was removed from his command on 15 October and General Sir Charles Monro, who replaced Hamilton, soon recommended the evacuation from the peninsula. After several months' consideration, the

final decision was made and the evacuation took place in two stages on 18-19 December and 8-9 January 1916. The campaign ended as a disastrous defeat of the British military forces.

The controversy on the reasons of the failure was initiated by the appointment of a royal commission in August 1916 to find out why the campaign ended up as failure. The Dardanelles commission sat in nearly over a year and produced two reports on the campaign. The reports criticized the role of three leading figures - Winston Churchill, Lord Kitchener and Ian Hamilton - who were responsible for the campaign. In sum, Churchill hastily organized the campaign, Kitchener did not adequately provide the military resources which the Expeditionary Forces required, and Hamilton commanded his junior generals with too laissez-faire leadership. However, in my opinion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the defeat was those three figures' erroneous attitude toward the enemy, the army of the Ottoman Empire. In other words, they commonly had some arrogant tendencies, the so-called 'imperialistic Orientalism' toward the Ottoman empire, which underestimated the military capability of the Ottoman army.

Key Words : Gallipoli Campaign, Dardanelles, Istanbul, Winston Churchill, Horatio Kitchener, Ian Hamilton, Anzac Corps, Ottoman Empire, Liman von Sanders, Mustafa Kemal

인도-버마전역과 중국원정군

기 세 찬*

- 
1. 서 론
 2. 일본의 남진과 버마의 상실
 3. 중국원정군(X·Y부대)의 창설과 훈련
 4. 북버마 반격작전과 그 전략적 문제
 5. 결 론

1. 서 론

일본해군이 진주만을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이래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했던 전역 중의 하나는 인도-버마전역이었다. 미국의 對일 경제제재로 위기에 처한 일본은 주지하듯이 남진정책을 추진했다. 버마에는 일본이 활용할 수 있는 막대한 석유와 광물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이 동남아로 진격하게 되면서 버마는 중국과 영국에게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어버렸다. 중국의 입장에서

*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부교수

랭군(Rangoon)-이라와디강(Irrawaddy)을 통한 버마루트는 중국이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상교통로였으며, 영국의 입장에서 버마의 상실은 일본군에게 자국의 최대 식민지인 인도를 침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도-버마 전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버마지역에 파견된 중국원정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인도-버마전역에 대한 전쟁사 연구는 이미 몇 권의 저서에 상세하게 나와 있다.¹⁾ 그러나 태평양전역과 비교하면 그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또한 다분히 서구적 시각, 특히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미국의 역할은 중요하게 다루어졌는데 비해 중국의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게다가 태평양전쟁 시기 국민정부나 중국군(국민정부군)에 대한 연구 초점은 제2차 국공내전에서 패하게 되는 원인으로써 그 부패한 실정(失政)과 무능력에 대해 다루어졌고, 그 결과 패배한 정권과 군대라는 결과론적 사고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²⁾

이러한 시각은 전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전쟁사 연구영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의 주요 연구자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장개석 정권이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의 원조에만 의지하고 항일전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고 평가했다.³⁾ 전쟁승리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미국은 동남아 전역에 미

1) Don Moser, *China-Burma-India*(Chicago: Time-Life Books Inc, 1980);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China-Burma-India Theater: Stilwell's Mission to China*(Washington, D.C.: Office of The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53). 이하 *Stilwell's Mission to China*로 약칭.

2) Lloyd E. Eastman, *Seeds of Destruction: Nationalist China in War and Revolution, 1937~1949*, 민두기 譯, 『蔣介石은 왜 敗하였는가』(서울: 지식산업사, 1986), 163~186쪽; James C. Hsiung and Steven I. Levine ed., *China's Bitter Victory: The War with Japan 1937~1945*(New York: M. E. Sharpe Inc., 1992), pp.152~176.

3) 何理, 『抗日戰爭史』(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85), pp.452~453; 石島紀之, 『中日抗日戰爭史』(東京: 青木書店, 1984), p.152.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았고, 또한 1942년 미·영 주도의 버마 방어작전은 실패했는데 비해 중국군은 제3차 장사작전에서 일본군을 성공적으로 격퇴하였다. 인도-버마전역에서 버마 영국군을 지휘했던 제14군 사령관 슬림(William J. Slim)이 “인력과 장비가 부족했지만 중국 병사는 강인하고 용감했으며 전투경험이 많았다. 중국은 동맹국 가운데 베테랑이었다.”라고 평가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⁴⁾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고는 인도-버마전역에서 연합국의 전략의도와 전역의 분석을 통해 중국원정군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의 남진정책 추진 과정으로부터 연합군의 버마 방어작전 분석을 통해 버마에 파견된 중국군의 전투상황을 검토해 볼 것이다. 이어서 버마 수복을 위한 중국원정군의 건설 과정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연합군의 북버마 수복작전의 분석을 통해 중국원정군의 임무와 역할을 규명하고, 동아시아 전장에서 연합국의 전략결정의 과오를 밝혀보고자 한다.

2. 일본의 남진과 버마의 상실

태평양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일본의 남진정책은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쟁자원의 부족과 미·일 간의 불화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 3개월이면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던 일본군 지도부의 환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1941년 중일전쟁은 5년째로 접어들고 있었지만, 장개석 정권은 여전히 견재해 있었고, 일본은 점점 더 장기전의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군사적인 면에서, 1939년 말부터 1940년 초까지 국민정부군의 대규모 반격작전(동계공세)과, 194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팔로군의 백단

4) William J. Slim, *Defeat into Victory: Battling Japan in Burma and India, 1942~1945*(New York, Cooper Square Press, 2000(3rd)), pp.17~18.

대전은 일본군의 작전능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는 전투의 승리를 통한 전쟁의 종결 가능성이 거의 없음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면에서, 1940년 후반까지 일본 전시경제의 모순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일본 국내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고, 전쟁의 장기화로 전쟁군사비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였다. 무한작전 이후 일본군은 대규모 공격작전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중국 측의 반격과 점령지 내에서의 유격전으로 일본군의 병력과 물자의 소모는 전비의 증가를 가중시켰다.

이 외중에 對소전을 준비한 육군의 군비충실계획과 對미전에 대비하기 위한 해군의 보충계획이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이들의 지출 규모도 매우 컸다. 전쟁발발 이후 직접 군사비의 지출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였다. 군수생산을 위한 설비자금이 증가하였고, 통화의 유통, 국채의 발행, 은행의 대출이 모두 높게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전시경제의 파탄과 인플레이션의 확대를 막기 위해, '9·18 가격 정지령' 등의 물가 안정조치를 시행했으나, 이러한 조치는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여 대중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경공업 중심이었던 것을 중공업중심으로 급전환시킨 일본의 전시경제체제는 자금과 원자재의 모순뿐만 아니라 물자부족에 직면하게 했다.⁵⁾

<표 1> 일본의 군사비 지출 현황(단위: 1,000엔)

年度	일반회계 / 임군(臨軍)회계 총액	직접군사비	백분율(%)
1936	2,282,176	1,088,888	47.7
1937	4,742,320	3,277,937	69.0
1938	7,766,259	5,962,749	76.8
1939	8,802,943	6,468,077	73.4
1940	10,982,755	7,947,196	72.5
1941	16,542,832	12,503,424	75.7

출처: 歷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 3, 『日中戰爭』 II(東京: 青木書店, 1972), p.35.

5) 歷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 3, 『日中戰爭』 II(東京: 青木書店, 1972), p.36.

여기에 미국의 對중경제원조와 對일경제제재는 중국의 항전능력을 제고시켰던 반면, 일본의 전쟁지속능력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쟁초기 전쟁을 관망하고 있던 미국은 점차 일본의 중국 침략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중국의 요청에 의거 1939년 2월 8일 정식으로 2,500만 달러의 對중국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⁶⁾ 미국이 응한 첫 차관이 중국이 요청한 4억 달러에 비해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지만, 이 차관 결정은 금액의 다과를 떠나 단순히 일본에 대해 비난만 하던 미국이 실질적인 중국 원조를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게다가 미국 의회에서는 군수품의 對중수출을 제한하고 있는 중립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가고 있었다.

또한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경제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1939년 1월에는 항공기 및 부품의 對일금수가 시행되었고, 2월에는 對일크레딧(credit)이 금지되었다. 1939년 2월 일본의 해남도(海南島) 점령 이후 미국은 일본에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폐기를 통보했다.⁷⁾ 이 조약은 1940년 1월 26일 조약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일본은 석유, 철강, 항공기부품 등의 군수물자를 거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통상조약 폐기 선언은 경제적으로 일본에 큰 타격을 주었다.

대내외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본은 이를 일거에 타개하기 위해 소위 ‘남진정책’을 구상하게 된다. 일본의 ‘남진정책’은 1940년 6월부터 일본 내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본과 영·미의 관계 변화와 더불어 1940년에 발생한 유럽의 전황은 일본이 남진정책을 결정하는 확실한 계기가 되었다.⁸⁾ 일본의 남진정책에는 크게 두 가지 의도가 있었다. 하나는

6) 류근주, 『東北아시아 100年: 終末과 始作』(서울: 목문출판사, 1990), 71쪽.

7) 해남도는 태평양-인도양 사이의 전략상 요충지로서 일본이 이 섬을 점령하면 홍콩-싱가포르 간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 오스트레일리아 간의 연락을 단절하고 나아가 필리핀도 제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해남도 점령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반도에 직접적인 위협을 줄 뿐만 아니라 미국의 태평양의 제해권에도 위협이 되었다.

8) 1939년 9월 폴란드를 침공한 독일은 이듬해 4월 9일에는 덴마크, 노르웨이를 침공하고, 5월 15일에는 네덜란드를 점령했으며, 6월 17일에는 프랑스에 항복을 받아내는 등 유럽을 석권했다.

전쟁 자원의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버마에서 중국에 보내지는 원조물자를 차단하여 장개석 정권을 굴복시키는 것이었다.

1940년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일본 육군은 유럽정세의 변화에 대응한 전쟁방침을 토론하여 다음과 같은 ‘對남방 전쟁지도 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전쟁개시는 기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리핀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나 가능한 한 그곳에서 충돌을 야기하지 않는다. ③ 적당한 시기에 홍콩을 점령한다. ④ 만약 가능하다면 싱가포르를 점령하지 않고 직접 네덜란드 동인도를 기습하여 중요 자원지역을 점령 확보한다는 것이었다.⁹⁾ 일본은 타이와 일본과 타이 어느 쪽이든 제3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서로 제3국을 원조하지 않는다는 상호중립조약을 체결하고, 7월 18일에 버마통로의 폐쇄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4월에는 남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련과 ‘일소중립조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나중에 연합국이 될 미·영·중 어느 누구도 일본의 남진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 먼저 중국은 버마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작전보다는 버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운남(雲南)에 대한 방어를 고려하고 있었다. 영국은 1941년 5월 중국군 고위급 장교들과 일본의 동남아 침공에 대비한 군사작전 협조회의를 실시했지만, 구체적인 작전계획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단지 극동총사령관인 영국 대장 부록-포팸(Robert Brooke-Popham)이 영국이 버마를 방어하고 있는 동안 중국군이 운남의 버마루트의 방어를 담당해 줄 것을 제안했을 뿐이었다.¹⁰⁾ 미국도 버마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다. 당시 미군은 동아시아에 전력을 전개할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하지 못했다. 미군 대부분의

9) 防衛廳防衛研修所戰史室, 『支那事變陸軍作戰』3(東京: 朝雲新聞社, 1975), p.268. 이 안은 7월 3일 정식으로 육군부의 ‘시국처리 요강’으로 결정되었고, 고노에(近衛) 내각은 7월 27일에 군부의 ‘시국처리 요강’을 원안대로 승인하였다(엄수현 譯, 『日本軍事史』(서울: 시사인본어사, 1994), 250쪽).

10)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對日抗戰時期 第二編 作戰經過(三)』(台北: 中央文物供應社, 1981), pp.202~203. 이하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으로 약칭.

사단은 50% 감편된 규모였고, 향후 건설될 10개 사단도 유럽(7개 사단), 브라질(2개 사단), 그리고 하와이(1개 사단)로 보낼 계획이었다.¹¹⁾

1940년 가을까지 미국의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일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11월 공화당의 윌키(Wendell L. Willkie) 후보를 누르고 3선에 성공한 루즈벨트는 중국과 일본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특히 1941년 7월 14일 일본이 프랑스의 비시정부에 대하여 동의 유무에 관계 없이 프랑스령 남인도차이나에 진주한다고 통고하자(실제 진주는 28일), 루즈벨트는 7월 25일 미국 내 일본의 모든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군사적으로는, 7월 26일 극동미육군을 창설하는 한편 필리핀 육군 15만 명을 정식으로 맥아더 휘하의 미 극동군사령부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8월 1일에는 석유의 대일 수출을 전면 금지하였다.

미국의 석유 금수조치는 다른 어떤 조치보다 일본에게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일본이 비축한 석유는 6백만 톤으로 1년치 소비량밖에 되지 못했다. 이에 일본은 9월 25일 만주국 승인, 내몽골과 화북에 일본군을 일정기간 주둔 등의 최종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단호히 거절했다.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고노에 내각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10월 16일 총사퇴했고, 대신 육군대신인 도조 히데키(東條英機)가 새로운 내각을 이끌었다. 새로 들어선 도조 내각은 어전회의를 통해 마침내 對미 결전을 결정하게 된다. 11월 5일의 어전회의에서 일본정부는 개전시기를 12월 초로 잠정 확정하고, 미국과의 교섭시한을 12월 1일 영시로 결정했다.

1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미국과 중국은 마지막 협상을 진행하였다. 11월 20일 일본은 최종적으로 일본군의 프랑스령 남인도차이나의 철군 교환조건으로 미국의 자산 동결령과 석유의 일정 수출 재개를 조건으로 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반대하고 또한 영국 처칠까지 반대

11) "Memorandum for Harry Hopkins"(15 July 1942), George C. Marshall, *The Papers of George Catlett Marshall: "The Right Man for the Job", December 7, 1941-May 31, 1943*(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1), p.66. 이하 *The Right Man for the Job*으로 약칭.

의사를 표명하자 미국은 중국 문제에 대해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취하여 결국 미·일 교섭은 결렬되었다. 이에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함과 동시에 동남아로 진격하였다.

미·일 교섭에서 버마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일본 육군이 버마 예난자웅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의 석유와 기타 광물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버마로 공격할 준비를 하자 버마는 중·미·영 연합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버렸다. 중국의 입장에서 랑군-이라와디강을 통한 버마루트는 일본이 프랑스령 북인도차이나와 홍콩을 점령한 이후로 중국이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교통로일 뿐만 아니라, 버마가 일본군에게 점령당한다면 중국의 후방기지인 사천(四川)은 남쪽 일본군의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될 상황이었다.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 버마의 상실은 일본군에게 영국의 중요한 식민지인 인도를 침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제공해 주는 것이었다.¹²⁾

중국은 일본해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다음날 일본·독일·이탈리에 선전포고를 함과 동시에 미국·영국·소련에게 연합군사회의를 제안하여 연합군사회회는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1941년 12월 23일부터 중경에서 개최되었다. 연합회의는 중국과 영국의 이견으로 처음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미국의 주선으로 버마에 대한 공동 방어, 중국에 대한 물자지원 등의 협의에 도달하였다.¹³⁾ 이 협정 결과의 의의는 중·미·영 3국이 공동으로 버마를 방어하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물자원조를 지속하며, 자원 가용 시에는 일본군에 대한 공세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향후 중·미·영 연합군을 조직하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연합국은 1942년 1월 3일 공식적으로 장개석을 육·해·공군의 최고

12) 蕭一平·郭德宏 主編, 『中國抗日戰爭全史』下(成都: 四川人民出版社, 2005), pp.33~34.

13) 중·미·영 대표는 다음과 같은 협의에 도달하였다. ① 연합국은 가장 먼저 버마 특히 랑군을 공고히 하기 위한 행동을 취한다. ② 중국에 대한 물자의 공급을 지속하며, 중국은 일본군을 전선에서 견제한다. ③ 자원 가용 시에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다. ④ 중경에서 계속해서 연합군사회의를 개최한다.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10卷』(台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p.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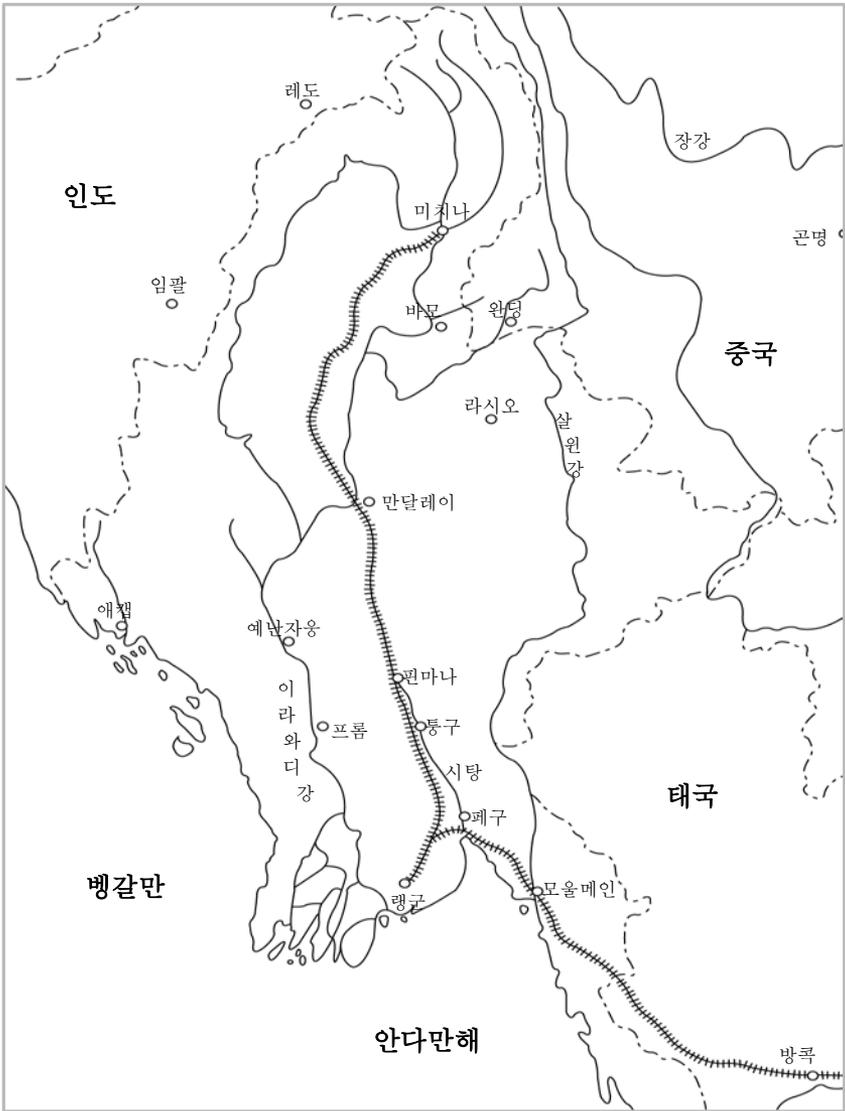
사령관으로 하는 중국전구의 성립을 선언했고, 장개석은 루즈벨트에게 중국전구 통수부의 참모장으로 미군 장성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 육군장관 마샬(George C. Marshall)은 애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대규모 전역의 작전을 담당했던 드럼(Hugh A. Drum) 장군을 중국전장의 미군참모장으로 보내고 싶어 했지만, 드럼이 미 지상군의 파견이 없는 한 임무를 맡지 않겠다고 하자, 중국에서 무관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스틸웰(Joseph W. Stilwell)을 지명했다.¹⁴⁾ 그러나 스틸웰은 그의 군경력에서 대부대의 지휘나 연합작전 경험이 전혀 없었다.

일본군이 버마로 공격할 때, 버마의 국내 상황은 연합국에게 유리하지만만은 않았다. 오랜 영국의 식민지 지배와 민족주의의 대두로 버마의 독립운동은 학생과 승려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버마인들이 일본군을 자신들의 해방자로 간주하고 있었다. 버마의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던 ‘30인의 동지’라 불린 무장조직은 일본군이 침입하기 전 일본, 대만, 해남도 등지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고, 일본은 이들에게 무기와 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일본군이 버마로 진주했을 때, 그들은 버마독립군이라는 미명 아래 일본군의 군사작전에 가세했다.¹⁵⁾

일본군은 1942년 1월 하순부터 태국을 경유 버마 남부의 모울메인(Moulmein)부터 공격하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포병과 공군력의 부족으로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없었다. 일본군은 살윈강(Salween River)을 도하 후 페구(Pegu)로 진격하여 연합군이 유일하게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랭군항을 공격하였다. 영국군 사령관 알렉산더(Harold Alexander)는 최초 예하부대에 일본군에 대해 즉시 반격하라고 명령했으나, 반격작전이 실패하자 랭군의 주요 항만시설을 파괴하고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 3월 8일 랭군은 일본군에게 함락당하였다.

14)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War”(12 January 1942), George C. Marshall, *The Right Man for the Job*, pp.57~59.

15) 徐康明, 『中緬印戰場抗日戰爭史』(北京: 解放軍出版社, 2007), p.38.



<그림 1> 버마

스틸웰이 장개석을 면담하고 3월 21일 버마로 돌아왔을 때 일본군은 벌써 퉁구의 교외에 도달했고, 일본 증원군도 3월 19일 싱가포르를 출발

해서 24일에 랭군에 도착했다. 일본군은 통구로부터 만달레이 방향을 주요한 공격방향으로 삼아 제33사단은 서쪽의 영국군을, 제56사단은 동쪽의 중국원정군을 공격하였다. 스틸웰은 중국군 제55사단과 제200사단에 파은브위(pyawnbwe)와 핀마나(pyinmana)에 대한 반격명령을 하달하였지만, 알렉산더가 중국군에 통보 없이 바로 버마사단에 퇴각명령을 내림으로써, 진격한 중국군이 오히려 일본군에게 포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중국군 제200사단은 통구 시내로 들어가 10여 일간의 방어전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스틸웰이 끝내 철수명령을 내리지 않아 제5군장 두울명의 지시로 퇴각하였다.¹⁶⁾

통구를 점령한 일본군은 4월 3일 버마작전 2단계로 만달레이 작전을 계획하였다. 일본군은 라시오 방면의 연합군 퇴로를 차단하기 위해 주력을 통구-만달레이와 이라와디-만달레이로 진격시켜 연합군의 주력을 양익에서 포위하여 섬멸시키려 했다. 장개석은 스틸웰에게 영국군이 중국군과 전선을 유지하면서 퇴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4월 7일 영국군은 이미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아라칸을 포기하고 철수 중에 있었고, 일본군 제33사단은 16일 예난자웅을 점령했다. 이로 인해 측방이 노출된 중국군은 어쩔 수 없이 제5군을 후방으로 철수시켰다.

일본군은 계속해서 연합군의 측방으로 부대를 전환시켜 중국군의 퇴로를 차단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군 부대 일부가 일본군에게 예난자웅에서 포위되었는데, 이때 중국군 신평 제38사단이 2일간의 격전을 치른 끝에 예난자웅을 점령하여 영국군 7,000여 명과 영국군 포로·선교사·신문기자 500여 명을 구출하였다.¹⁷⁾ 일본군은 4월 28일 라시오(Lashio)를 점령하여 중국군의 퇴로를 다시 차단하였다. 결국 연합군은 각 부대 단위로 일본군의 포위망을 뚫고 퇴각하였다. 영국군은 인도로 철수하였고, 중국원정군 사령부와 제38사단은 인도의 임팔(Imphal)로

16) 張憲文, 『中國抗日戰爭史』(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01), p.988;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Stilwell's Mission to China*, p.109.

17) 蔣緯國 總編, 『國民革命戰史 第3部 第8卷』(台北: 黎明文化事業公司, 1978), p.221.

철수했다. 중국 제5군 직속부대와 신편 22사단은 인도의 레도(Ledo)로 철수하였고, 제96사단은 운남성 서부의 검천(劍川)으로 철수하였다. 타웅지 일대에 고립된 중국군 제200사단은 일본군의 포위를 돌파하면서 운남성 서부의 운룡(雲龍)으로 귀환했으나 사단장 재안란(載安瀾)을 포함하여 부대의 반수 이상이 전사하였다.¹⁸⁾

일본군의 승리는 신속한 기습전략이 주요하게 작용했지만, 연합군 내부의 문제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 먼저 연합국의 전력 부족이다. 영국군의 버마 주둔부대는 영국·버마군 제1사단, 영국·인도군 제17사단, 영국·마카오군 제6여단, 기갑 제7여단 등의 부대로 총 6만여 명의 병력이 분산되어 있었다. 랭군이 일본군에 점령당하기 전 장개석은 영국 주인군(駐印軍) 총사령관 웨이벨(Archibald Wavell)에게 중국군 제5군을 통구에 집결시켜 반격작전을 준비하자고 제안하면서, 버마 국경지역에 대기하고 있는 제5군의 포병과 전차부대에 유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웨이벨은 중국군이 버마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할까봐 제5군에 대한 유류지원을 거절하였다.¹⁹⁾ 이는 사실상 추가적인 중국군의 버마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였다.²⁰⁾ 또한 연합군의 공군력 부족은 지상작전에 치명적이었다. 연합군의 허리케인(Hurricane)과 P-40이 일본기에 비해 성능은 뒤떨어지지 않았지만 일본기는 연합군 전투기보다 항속거리가 더 길었고 수적 우세에 있었다. 일본군이 150여 대의 항공기로 작전을 수행했던데 비해 연합군은 단지 35대만을 보유하고 있었다.²¹⁾

두 번째는 연합국 군사지도자들 간의 협조의 부재이다. 연합국은 1941년 12월 중경에서 연합군사회의 때 공동으로 버마를 방어한다고 결정했으나

18) 버마 방어작전의 경과는 기세찬, “太平洋戰爭 初期 聯合國의 同盟戰略과 對日作戰”, 『사충』 제72권(2011.3), 318~328쪽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19)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p.222~223.

20) Christopher Thorne, *Allies of a Kind: The US, Britain, and the War against Japan*(London, Hamilton, 1978), p.187.

21) William J. Slim, op. cit., pp.6~7.

중국부대의 버마 진입에 관한 사항은 확실히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일본군이 공격부대를 버마로 추진시키는 등 상황이 위급해지자 영국은 일본군의 공격개시 하루 전날에야 중국군의 버마 진입을 허용했다. 버마에 파견된 중국군이 효과적인 작전을 준비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였다. 실제 버마작전에 투입된 중국군에게는 제대로 된 군사지도도 없었다. 영국 측은 단지 중경에 있던 영국대사를 통해 중국어로 번역되지도 않은 몇 장의 지도를 중국 측에 제공했을 뿐이었다. 또한 통신망의 열악함도 연합작전을 잘 수행할 수 없게 했다. 연합군은 기본적으로 장거리 통신망을 갖추지 못했고 상호연락체계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²²⁾

세 번째는 작전계획에 대한 연합국 지휘관들의 이견이었다. 특히 제1차 세계대전식의 스틸웰의 공격전략 선호는 버마상실에 일조했다. 장개석은 3월 8~9일 스틸웰과 면담 자리에서 중국군의 기계화부대가 전선으로 이동하지 못했고, 또한 영국군의 전력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연합군은 만달레이를 중심으로 중심방어를 수행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²³⁾ 웨이벨도 연합군의 최선의 방책이 북쪽으로 철수하는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했다.²⁴⁾ 그러나 스틸웰은 일본군에 대한 공세전략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반격작전이 지체되면 일본군이 곧 증원될 것이므로 지체 없이 공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²⁵⁾ 스틸웰의 생각은 랭군을 개방하고 위협을 제거하여 미국의 군수장비를 중국에 들여와야 한다는 것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영국군을 과대평가하고 일본군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다. 스틸웰은 그날 자신의 일기에 장개석의 사고를 ‘아마추어 전술적 감각’이라고 평가 절하했다.²⁶⁾

22) Hans J. Van de Ven, *War and Nationalism in China 1925~1945*(New York: RoutledgeCurzon, 2003), p.29.

2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p.222~223.

24) Louis Allen, *Burma: The Longest War 1941~1945*(London, Phoenix Press, 1984), p.52.

2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223.

26) Joseph W. Stilwell, *The Stilwell Papers*(New York: William Sloane Associates Inc. Publishers, 1948), p.26; Barbara W. Tuchman, *Stilwell*

결국 연합군의 버마 방어작전은 처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스틸웰은 패배의 책임을 장개석과 중국군에게 돌렸다. 그는 “중국정부는 두려움과 호의에 근거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무지하고 제멋대로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손에 있다”라고 평가하면서²⁷⁾, 수세보다 공세를 취하는 것이 비교적 대가가 적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⁸⁾ 그러나 직접 전투에 참가했던 버마 주둔 영국 제14군 사령관 슬림의 주장은 이와 완전히 상반된다. 그는 중국군의 장비가 부족하고 화기도 충분치 못했지만, 중국의 병사는 강인하고 용감했으며, 일본군과의 전투경험이 많아 동맹국 가운데 베테랑이었다고 언급했다.²⁹⁾ 장개석과 불화에 있던 스틸웰의 주장보다는 제3자인 영국군 지휘관 슬림의 의견이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연합군의 버마 방어작전의 실패는 중국군이 아닌 연합군 차원의 문제였던 것이다.

3. 중국원정군(X·Y부대)의 창설과 훈련

버마 방어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연합국은 대일 반격작전을 위한 중국군 위주의 재무장을 실시하게 된다. 대일 반격작전을 위한 중국원정군 X·Y부대³⁰⁾의 창설과 훈련은 스틸웰의 주도 하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스틸웰은 버마작전이 진행 중이던 1942년 4월 중순 이미

and the American Experience in China(New York: Bantam Books, 1972), p.53.

27) Joseph W. Stilwell, op. cit., pp.115~116.

28)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325.

29) William J. Slim, op. cit., pp.17~18.

30) 중국에서는 인도주둔 중국군을 주인(駐印)중국군으로 운남 주둔부대를 중국원정군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버마 방어작전 시의 중국파견군도 중국원정군이라 칭하고 있다.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당시 미국과 영국이 사용한 명칭에 따라 인도주둔 중국군을 X부대(X force)로, 운남 주둔부대를 Y부대(Y Force)로 사용하였다.

버마작전을 위해서는 별도의 정예부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월 27일 장개석에게 인도에서 중국 군대의 조직 및 훈련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³¹⁾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10만 명의 중국군을 인도로 보내 이들을 미국의 대중국 원조물자로 무장 및 훈련시켜 2개 군단(각 3개 사단)을 만들어 버마를 수복하고 나아가 타이의 일본군을 축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계획서에서 스틸웰은 부대의 지휘구조에 대해 다소 흥미 있는 제안을 하였다. 그는 중국군 장교들은 연대장급 이하의 직책만 맡고, 그 이상의 고위 지휘관과 주요 참모들은 중국군 장교들이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때까지 처음에는 미군장교가 담당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것은 스틸웰이 근본적으로 중국군 장교들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개석은 스틸웰의 계획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보완사항을 요구했다. 그는 고위 장교들의 반을 중국군 장교로 채워줄 것과 영국과 미국 정부가 인도에 내전발생 시 이 중국군 부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고 요구했다.³²⁾ 스틸웰의 이 계획은 인도로의 병력수송 문제와 버마에서의 전장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더 이상 논의되지 못했다.

버마작전을 위한 별도의 부대건설계획은 버마 방어작전이 종결된 이후 다시 논의되었다. 스틸웰이 버마를 탈출하여 인도에 도착한 이후인 1942년 6월 15일 장개석과 스틸웰은 중경에서 만났고 이 문제를 다시 토의하였다. 장개석은 인도에서의 중국군의 배치문제와 버마의 수복문제 등에 대한 스틸웰의 견해를 물었다. 스틸웰은 인도에서 제5군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견해를 밝힐 수는 없지만 나중에 영국군이 버마작전을 실시할 때에는 중국군도 참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개석도 스틸웰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영국군 단독으로 버마작전을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제5군을 인도에 배치하여 이 작전에 공헌해야 한다고

31)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Stilwell's Mission to China*, pp.135~136.

32) *ibid.*, p.136.

말했다.³³⁾ 따라서 장개석과 스틸웰은 기본적으로 제5군을 인도에 남겨 차후 버마작전에 투입하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스틸웰과 장개석은 계속해서 제5군의 지휘문제와 훈련계획 등에 관한 담화도 나누었다. 인도 주둔 중국군의 지휘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역사학자 서강명(徐康明)은 스틸웰이 인도 주둔 중국군에 대한 전권을 희망했으나 장개석은 바로 가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개석이 근본적으로 중국 군대의 지휘권한을 스틸웰에게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⁴⁾ 하지만 그의 견해는 당시 정황으로 봐서 사실과 다르다. 장개석과의 면담에서 스틸웰은 “미측이 완전한 책임을 담당하는지” 질문했고, 장개석은 “당연히 미측이 완전히 책임을 지고 통할(統轄)의 전권을 담당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³⁵⁾ 장개석은 인도에 주둔하는 제5군에 대한 지휘권이 미국 측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장개석은 영국 측이 중국군을 통제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그는 스틸웰에게 만약 제5군을 영국 측이 통제하게 된다면 제5군을 즉시 귀국시키겠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영국 측과 분명히 교섭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³⁶⁾

그 뒤 스틸웰은 장개석에게 인도에 추가적인 병력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장개석은 5만 명의 중국군을 인도로 보내는 조건으로 미국으로부터 ‘험프(Hump)’³⁷⁾의 공중수송을 통해 매월 5,000톤의 군수물자를 제공받고 그 외 500대의 전투기를 제공받기로 했다.³⁸⁾ 이러한 장개석과

3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p.326~327.

34) 徐康明, 앞의 책, p.205.

35) “蔣委員長接見中國戰區盟軍總部參謀長史迪威談話紀錄”(1942.6.15),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三)』, p.327.

36) 위의 책, pp.327~328.

37) 험프(Hump):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하여 지상 병참선이 단절되자 미국은 인도 아쌈기지를 경유하여 히말라야의 산맥을 넘는 ‘험프’라는 공중항로를 개척한다. 미국은 이 험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중국의 곤명이나 중경에 전시대어 물자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 항로는 장거리와 극한의 기상, 그리고 일본 전투기의 공격으로 인해 운항 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

38) 梁敬鎔, 『史迪威事件』(台北: 臺灣商務印書館, 1975(10版)), pp.91~92.

스틸웰의 합의는 버마수복을 통해 명예회복을 노리는 스틸웰과 미국의 군수물자를 지원받으려는 장개석의 사고가 부합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틸웰은 인도로 돌아가 영국 측과 이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 협의하였으나 웨이벨은 근본적으로 중국군의 인도 주둔을 원치 않았다. 그러나 스틸웰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웨이벨은 일단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하던 람가르(Ramgarh)의 포로수용소를 개조하여 중국군의 훈련기지로 삼기로 했다. 훈련소의 책임에 관해서는, 영국은 물, 전기, 식량, 의약품 및 수송 등의 지원을 담당하고, 미국은 무기장비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병영의 관리와 군기는 중국군 장교가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³⁹⁾ 스틸웰은 2개 보병사단, 3개 포병단, 1개 공병단, 10개 보병대대를 훈련 및 무장시켜 1943년 2월에 실시할 버마 반격작전에 투입하고, 별도로 1,500명의 중국교관을 양성시켜 운남의 30개 사단의 훈련교관을 담당케 하려고 했다. 1개 기수의 기본훈련기간을 6주로 정했으며, 모든 훈련은 1943년 2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리고 훈련받은 중국군은 모두 미군장교의 현장감독 하에 미군이 요구하는 표준훈련을 실시하여 훈련성과를 평가받도록 했다.⁴⁰⁾

1942년 7월 15일 중국군 제38사단은 주둔지에서 람가르로 출발했고, 이후 8월 초까지 제5군 제22사단 및 군 직속부대 2,000여 명이 람가르에 도착했다.⁴¹⁾ 스틸웰은 8월 4일 람가르에 도착하여 훈련소 사령관에 취임했고, 부사령관에는 나탁영(羅卓英)이 참모장에는 보트너(Haydon L. Boatner)가 임명됐다. 람가르 훈련소(Ramgarh Training Center)는 8월 26일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최초 훈련에 참가한 제38사단은 장교 946명 부사관·병사가 1만 1,388명이었고, 제22사단은 장교 857명 부사관·병이 1만 439명이었다. 당시 인도에 주둔하고 있던 중국군은

39) Barbara W. Tuchman, op. cit., p.441.

40) 吳相湘, 『第二次中日戰爭史』(台北: 綜合月刊社, 1973), p.868; 梁敬錚, 앞의 책, p.110.

41) 徐康明, 앞의 책, p.206.

총 2,626명의 장교와 2만 9,667명의 부사관·병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병력규모는 스틸웰이 버마 반격작전을 위해 구상한 10만 명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다. 스틸웰은 재차 장개석에게 중국군의 신속한 파병을 요청하였고, 장개석은 우선 2만 3,000여 명의 병력을 람가르에 보낼 것을 약속하였다.⁴²⁾

그런데 이때 영국 측이 갑자기 중국군의 인도파병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애초 웨이벨은 9월 27일 인도로의 중국군 증원계획에 동의했었으나, 이틀 후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중국군의 추가적인 인도파병을 반대한다면서 스틸웰에게 상세한 사유서를 요구하였다. 당시 웨이벨은 인도에 중국군이 너무 많아지면 인도 독립주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었다. 스틸웰이 중국군 건설계획은 단지 버마 수복에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인도 독립을 위한 어떠한 의도도 없다고 설명했으나, 웨이벨은 더 나아가 람가르 훈련소의 폐지를 요구했다.⁴³⁾ 스틸웰은 이러한 상황을 본국의 마샬에게 보고하였고, 마샬은 루즈벨트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미·영 참모단 회의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결국 미 본국의 조치로 람가르 훈련소는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중국군의 병력수송은 스틸웰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10월 20일부터 10일간 4,000명의 병력이 인도로 공중 수송되었다. 이후 스틸웰이 수송병력의 증가를 요구해 11월부터는 16대의 항공기가 매일 650명을 인도로 수송하였다. 스틸웰의 적극적인 의지와 중국의 협조로 람가르 훈련소에서 중국군의 훈련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12월 말까지 3만 2,000명이 훈련을 받았고, 다음 두 해 동안 총 5만 3,000명이 람가르 훈련소를 거쳐 갔다.⁴⁴⁾ 이 훈련을 돕기 위해 중국 내의 각 전문대학에서 학생을 파병

42)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United States Army in World War II China-Burma-India Theater: Stilwell's Command Problems*(Washington, D.C.: Office of The of Military History Department of The Army, 1953), pp.32, 206. 이하 *Stilwell's Command Problems*로 약칭.

43) 吳相湘, 앞의 책, p.868.

44) Barbara W. Tuchman, op. cit., p.327.

하여 미군들의 통역을 도왔다.

람가르 훈련소에 훈련을 받은 병력들은 미국에서 온 신식장비로 무장하였다. 이렇게 개편된 X부대 1개 사단의 병력은 대략 1만 2,000명 수준이었으며 3각 편제로 이루어졌다. 1개 사단은 3개 보병단과 직속부대로 이루어졌고, 1개단은 3개 보병대대, 1개 대대는 3개 보병중대·1개 기관총중대·1개 대전차포중대, 1개 중대는 3개 보병소대·1개 기관총소대·1개 박격포반으로 구성되었다. 1개 소대는 3개 보병반으로 구성되었고 1개반은 12명이었다. 이외에 X부대의 총지휘부 직속부대로 3개 포병단(1개단 36문), 1개 차량병단(수송차량 400대), 2개 공병단, 2개 화학병단, 1개 치중병단, 1개 특무대대, 1개 통신대대, 1개 전차훈련소가 있었다.⁴⁵⁾ 1943년 초까지 X부대의 제1차 편성과 훈련 및 무장 등이 기본적으로 완료되었다. 이러한 X부대의 편성과 무장은 질적·양적 모두 중국 내의 어떤 부대보다 뛰어난 것이었으며 일본군에 비해도 손색이 없는 것이었다. 또한 영국군에 의해 제공된 식량과 의료 등의 전투근무지원은 X부대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버마 반격작전을 위한 중국원정군의 건설은 인도의 X부대 외에 버마 접경지역인 운남에서도 진행되었다. 1942년 8월부터 11월까지 중·미 참모요원들은 중국 육군 30개 사단의 편성과 훈련 및 장비보충 등에 관한 계획을 토의하여 이 30개 사단 중 15개 사단을 Y부대로 조직하여 운남에서 버마 공격작전의 주력을 담당케 하려고 했다.⁴⁶⁾ 당시 운남에는 버마 방어작전 시에 퇴각한 2개 사단 병력과 그 외에 일본군의 추가적인 공격에 대비해 내지의 병력을 차출하여 보낸 제11집단군 예하 8개 사단과 제20집단군 예하 4개 사단이 노강(怒江) 동안 및 난창강(瀾滄江) 하류 거리(車里)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들 부대들은 Y부대 건설의 근간이 되었다.

45) 徐康明, 앞의 책, p.209.

46)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Stilwell's Mission to China*, pp.234~241.

1942년 12월 27일 스틸웰은 송자문(宋子文)에게 운남 중군군의 재편 성과 재무장 및 훈련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한 건의 비망록을 보냈다. 그 주요내용은 후방근무학교를 설립하고 효율적인 보급제도를 건립하며, 곤명지역에 육·공군 합동작전 훈련반을 설립하고, 공사·의료·통신·수송 등을 포함한 효율적인 후방보급제도를 수립하며, 운남-버마(滇緬) 도로를 복원 및 확장하고 동시에 중국 동부로 통하는 교통로를 마련한다는 것이었다.⁴⁷⁾ 스틸웰은 중국군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계획을 마샬에게 승인받고, 송자문·진성과 토의를 거친 후 장개석에게 보고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중국을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부대를 무장하고 훈련시킬 기회이다. 이러한 기회는 무기의 공급이 가능할 때 얻을 수 있다. 첫 번째 30개 사단 계획이 진행되어 부대가 공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면, 다른 30개 사단에 대한 장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이 순조롭다면 내년 가을에는, 첫 번째 30개 사단은 능률적인 야전 부대가 되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30개 사단은 전술훈련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병참선이 개통되고 두 그룹의 부대들이 무장을 바로 갖추게 된다면, 그때에 중국은 일본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⁴⁸⁾

위의 사료에서 스틸웰이 우선 중국군 30개 사단을 재무장시켜 버마에 대한 공격작전을 수행케 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30개 사단을 건설하여 중국 본토작전에 사용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개석은 스틸웰의 의견에 동의했고, 1943년 2월 1일 진성을 Y부대의 사령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스틸웰은 부참모장인 돈(Frank Dorn) 대령 인솔 하에 중경 미군사령부의 일부장교들을 곤명에 보내 사무소를 설립토록 지시했다. 돈 대령의 임무는 스틸웰을 대신해서 Y부대 훈련의 모든 업무와 미군 인원들을 포함함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중·미

47) 徐康明, 앞의 책, p.217.

48)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Stilwell's Mission to China*, p.266.

협약에 의해 Y부대의 지휘는 중국군 장교의 책임아래 두었고 미군은 단지 훈련과 무기대여법안(Lend Lease)에 근거한 장비의 공급을 책임졌다. 운남의 Y부대와 람가르의 X부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X부대의 지휘권이 스틸웰에게 있었고, Y부대의 지휘권은 중국 측, 즉 장개석에게 있었다는 것이다. 이 두 부대에 대한 지휘권의 상이는 버마 반격작전 시에 미국이 Y부대를 버마에 투입하려고 할 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의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게 된다.

스틸웰은 곧바로 보병·포병·통신병·수송병 훈련소를 설치하여 1개 기수의 훈련을 6주로 하고, 1개 기수의 각 병과훈련 간부는 포병반 300명, 보병반 450명, 통신반 150명으로 하며, 훈련종료 후에는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여 각 부대의 교관임무를 수행시킨다는 계획을 작성하였다.⁴⁹⁾ 3월 10일 진성(陳誠)과 스틸웰은 중경에서 회의를 통해 먼저 곧바로 훈련기지에 각 부대 교관 8,000~9,000명을 여러 조로 나누어 훈련시킨 후 이들을 인도 람가르 훈련기지로 공중 수송시켜 신무기의 성능을 숙지하고 사용 방법을 숙달시키기로 했다.

장개석은 3월 23일 군정부가 제출한 운남 훈련계획을 승인하고 관련 부대를 운남에 집결시키도록 지시했다. 이 계획에는 11개군 총 31개 사단을 훈련에 참가시켜서 1개 사단 병력을 8,400명에서 1만 300명으로 증가시키고, 신편제에 의거 24개 신식 공격사단·2개 구식공격사단·6개 조정사단을 편성하기로 되어 있었다.⁵⁰⁾ 이들 부대를 편성하는데 필요한 병력은 총 41만 2,600여 명이었으나 당시 11개 군의 실제병력은 22만 7,345명으로 18만 5,255명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군정부는 6월 10일 이전에 12만 2,753명을 보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추진했으나 당시 중국의 징병 및 보급체제가 극히 열악하였기 때문에 병력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⁵¹⁾

49) 吳相湘, 앞의 책, p.873.

50)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299.

51) 何應欽, 『抗戰時期軍事報告』, 『民國叢書』第二編 第32册(上海: 上海書店, 1990), pp.609, 612.

국민정부는 1943년 3월 28일 중국원정군사령부를 운남 초웅(楚雄)에 설립하고, 4월에는 곤명에 '군사위원회 주전(駐滇)간부훈련단'을 세워 장개석이 단장을 겸임하고 용운(龍雲)과 진성이 각각 부단장직을 맡았다. 미군훈련소를 모방하여 4월 1일 보병·포병 훈련소를 동시에 설치하였다. 교육을 위해 포병훈련소에 56명의 미군 교관과 12명의 중국군 조교 및 통역관 23명이 배치되었다. 중국 제71군 포병단의 40명의 장교와 348명의 병사가 4월 1일에 훈련소에 도착하였다. 4월 5일 개소 시 교육 인원은 87명으로 원래 계획한 300명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정원 부족으로 교육에 지장이 생기자 군사위원회는 바로 제2군 포병단 병력을 훈련소로 보내도록 지시했고, 4월 13일에 제2군 포병단 병력이 훈련소에 도착함으로써 정원부족 문제는 해결되었다.⁵²⁾ 포병훈련소에 이어 보병훈련소가 4월 4일 개소하였다.

주전간부훈련단의 각 훈련소의 훈련방식은 각 병과의 상황에 따라 진행되었다. 보병훈련은 1~2주차에 각종 무기의 성능을 숙지하고 분해연습을 숙달했고, 3~4주차는 실탄사격을 실시했으며, 5~6주차는 사판(沙板)훈련과 분·소·중대 실병지휘를 통해 전술훈련을 숙달했다. 포병훈련은 각 군의 포병부대 전부를 곤명 포병훈련소로 이동시켜 훈련장비를 수령케 한 후 실시하였다. 이들이 수령받은 대포와 장비는 험프를 통해 인도에서 곤명으로 공중 수송된 것이었다. 1943~1944년간 중국군 11개 군의 각급 간부와 병사 약 1만 명이 주전간부훈련소에 교육을 받았고 이들 장병은 교육수료 후에 모두 원소속부대로 복귀하였다.⁵³⁾

1943년 8월에 Y부대의 5개군의 편성·훈련 및 무장이 기본적으로 완성되었고, 11월에는 추가적으로 제54군이 개편을 완료하였다. Y부대도 X부대와 마찬가지로 편제를 개편했다. 군 예하에 3개 사단 내지는 2개 사단을 두고 군 직속부대로 포병단·치중단·공병단·통신대대·대전차포대대 및 특무대대·탐색대대·야전병원을 두었다. 사단 편제는 3개단 및

52)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220.

53) 徐康明, 앞의 책, p.221.

직속 포병대대로 편성하였고, 보병단은 3개 보병대대 및 직속부대로 편성했으며, 보병대대는 3개 보병중대와 대전차포소대 1개와 기관총소대 1개로 편성하였다. 보병중대는 3개 보병소대와 60mm 박격포소대(2문)로 편성하였으며 그 병력은 대략 170명이었다. Y부대 1개 사단의 병력은 본래 계획에 의거 1만 300명으로 편성하려 했으나 결원이 많아 편성된 15개 사단의 병력은 대부분 7,000~8,000명 수준이었다.⁵⁴⁾

Y부대의 재무장에 필요한 무기와 장비는 미국 측이 전적으로 담당하기로 했지만, 미국이 지원한 군수품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 측은 반자동소총 2,200정, 대전차포 576문, 60mm 구포 900문, 중기관총 558정, 75mm 곡사포 40문, 로켓포 430정, 각 식의 탄약 6,900톤을 제공했고, 그 외 나머지 소총, 기관총, 척탄통, 82mm 박격포와 반자동소총 5,000정 등은 중국 측에서 제공했다.⁵⁵⁾ 사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 장비, 탄약 등의 지원수량은 영국에 비하면 매우 적은 편이었다.

이상으로 버마 수복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중국원정군의 창설과 재무장 과정을 살펴보았다. 중국원정군 X·Y부대의 창설과 훈련은 스틸웰의 통제 하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록 스틸웰이 최초 구상한 병력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1944년 1월까지 X부대와 Y부대의 재편과 재무장은 대체로 완료되었다. 개편된 부대 1개 사단의 병력은 대략 1만 2,000명 수준이었으며 3각 편제로 이루어졌다. 이 부대들의 편성과 무장은 질적, 양적 모두 중국 내의 어떤 부대보다 뛰어난 것이었으며 심지어 일본군과 비등할 정도였다.

54) 郭汝瑰·黃玉章, 『中國抗日戰爭正面戰場作戰記』(南京: 江蘇人民出版社, 2002), p.1265.

55)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p.300~301.

4. 북버마 반격작전과 그 전략적 문제

연합국의 전략적 상황은 빠르게 바뀌었다. 인도는 점령당하거나 붕괴되지 않았으며 미국은 태평양상의 해군력을 비교적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1942년 5월 미드웨이 해전과 1942년 8월과 1943년 2월 사이에 있었던 과달카날 전투에서 미국의 승리는 명확해졌고 이는 태평양전략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다.⁵⁶⁾ 그러나 중국전선의 형세는 1942년 5월 이후 더 곤란하게 되었다. 일본군이 버마를 점령한 후 버마루트가 단절되어 미국 등 연합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들어오는 각종 물자는 단지 히말라야의 산을 넘는 ‘험프’ 항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⁵⁷⁾ 게다가 제공된 항공기 숫자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연합국의 원조물자가 효과적으로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북버마를 통한 육상 보급로 개통이 시급하였다. 미국도 일본 본토에 대한 전략폭격을 가할 기지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인 도로를 개통하여 전략폭격을 수행할 물자를 중국으로 수송하고자 했다.⁵⁸⁾

이에 중국, 미국, 영국의 군사수뇌부들은 버마 수복전략을 논의한다. 1942년 7월 스틸웰은 전 버마의 탈환을 목표로 한 버마 반격계획을 제안했고, 중·미·영 3국은 스틸웰의 제안에 대한 협의를 해나갔다. 그러나 영국 측이 도버해협을 건너는 유럽침공계획에 필요한 상륙용 주정이

56) 미국은 태평양에서 ‘Twin Axis’ 전략을 추구했다. 맥아더는 남서태평양사령부에 전력을 집중하여 뉴기니(New Guinea)로부터 필리핀쪽으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과 킹(Ernest King) 제독 하의 미 해군은 대만이나 필리핀에 대한 해상공격을 통해 중태평양을 통제하여 일본의 병참선을 차단하기를 원했다. 이에 루즈벨트는 맥아더와 해군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채택했다. Larry H. Addington, *The Patterns of War Since the Eighteen Century*(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94), p.250.

57) Leslie Anders, *The Ledo Road: General Joseph W. Stilwell's Highway to China*(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65), pp.13~14.

58) “Memorandum for the Joint U.S. Chiefs of Staff”(7 December 1942), George C. Marshall, op. cit., p.476.

이 작전 때문에 모자라게 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연합국의 동아시아전략은 1943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트라이던트(TRIDENT)’ 회의에서 다시 논의되었다. 영국의 군사수뇌부는 버마에서 싸우는 것에 대해 거듭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만약 작전을 실시한다면 유럽전역이 일단락되는 1944년 겨울이나 1945년 봄으로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⁵⁹⁾ 미국은 1943년 안에 버마 반격작전을 실시하기를 원했으나 이전의 전 버마를 탈환한다는 입장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특히 미국이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은 소련의 對일전 참전 여부였다. 1943년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은 테헤란에서 삼자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의 논의 가운데 연합국의 동아시아전략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의제는 소련의 대일전 참전여부였다.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소련이 대일전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현재 소련군이 對독전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병력 전환은 어렵지만, 독일을 먼저 패배시킨 후에는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다.⁶⁰⁾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확답을 얻어낸 미국으로서는 이제 대규모의 물자와 병력을 파견해 버마 전체를 수복할 필요는 없어졌다. 이 테헤란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전략적 사고에, 동아시아 전장에서 소련의 중요성은 대두되었던데 비해 중국의 중요성은 떨어지게 되었다.

테헤란 회담 이후 루즈벨트와 처칠은 카이로로 돌아와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동남아에 대한 작전논의를 재개하였다. SEAC(South-East Asia Command) 사령관 마운트배튼(Mountbatten, Louis)은 루즈벨트와 처칠에게 버마 반격작전을 위해서는 5만 명의 파병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유럽전장에 전력을 먼저 투입하기 위해 뱅갈만에 대규모 상륙작전을 실시해야 하는 ‘부캐니어(BUCCANEER)’작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장개석에게 안다만 섬들에 대한 뱅갈만 상륙

59)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p.322~330.

60) *FRUS*, 1943(Cairo and Teheran), pp.499~500, Martin Gilbert, *Winston S. Churchill Volume: VII Road to Victory(1941~1945)*(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6), pp.581~582.

작전은 포기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전보를 보냈다.⁶¹⁾

장개석은 대규모 연합해군의 투입이 없는 버마 반격작전에 반대했다. 그는 “일본이 연합국의 전 전력이 유럽전선에 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바로 중국에 대한 전면공세를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⁶²⁾ 장개석의 이러한 메시지는 미국에 경고하여 중국전장을 중요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만 작성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44년 2월 제4차 남악(南岳) 군사회의에서도 중국군의 주요 지휘관들에게 중국군이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하기 이전에 일본군이 먼저 선제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⁶³⁾ 실제 일본은 연합국이 유럽에 가용전력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틈을 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작전, 즉 ‘1호작전’을 구상하고 있었다. 이 작전의 수립배경은 중국에 있는 미군 B-29 폭격기의 일본 본토 공습을 방지하려는 것과 버마-중국 간의 대륙 수송로를 연결하여 동남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의 보급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였다.⁶⁴⁾ 그러나 미국은 일본이 중국 전장에서 대규모 공세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는 장개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다만 섬들에 대한 상륙작전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미 육군참모총장 마샬은 스틸웰을 지지하여 북버마의 지상작전은 수행하기로 했다. 그는 두 가지 상황을 우려했다.⁶⁵⁾ 하나는 장개석이 연합군의 상륙부대 미투입에 대한 보복적 조치로 운남부대를 버마작전에 투입시키겠다는 약속을 철회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이 중국에 있는 미군의 공군 기지를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스틸웰은 지상에서 버마 반격작전을

61) George C. Marshall, *The Papers of George Catlett Marshall: "Aggressive and Determined Leadership"*, June 1, 1943-December 31, 1944(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pp.195~196. 이하 *Aggressive and Determined Leadership*으로 약칭; Winston S. Churchill, *The Second World War: Volume V Closing The Ring*(London: Cassell, 1968(4th)), p.364.

62) “蔣委員長自重慶致美國總統羅斯福表示接受先將德國擊潰之戰略”(1943. 12. 일자 불명),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三編 戰時外交(三)』, p.288.

63) 秦孝儀 主編, 『中華民國重要史料初編 第二編 作戰經過(一)』, p.504.

64) 森山康平, 『圖說日中戰爭東京: 河出書房新社, 2000』, pp.166~167.

65) George C. Marshall, *Aggressive and Determined Leadership*, pp.195~196.

추진하게 된다.

스틸웰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구성된 버마 북부 탈환계획을 수립하였다.⁶⁶⁾ 제1단계는 람가르의 X부대가 인도국경의 나가산지를 넘어 버마로 들어가 레도도로(Ledo Road)⁶⁷⁾를 건설 중인 미군공병대 방위를 맡는다. 제2단계는 X부대를 더욱 전진시켜 후캉계곡에 돌입하여 협곡 깊은 곳에 있는 싱뷔양(Shingbuiyang) 마을을 점령한 후 제3단계로의 도약대가 될 지역을 점령한다. 제3단계는 제2단계 작전 후에 후캉강과 모가웅강의 골짜기를 내려가 모가웅과 미치나의 두 도시를 탈환하여 남쪽으로의 길을 연다. 1943년 10월 하순 우기가 종료되자 X부대를 주력으로 하는 중미 연합군은 버마 영내로 진입하여 버마북부 공격작전을 개시했다.

연합군이 본격적으로 버마반격작전을 시작하고 있을 때, 일본군은 역으로 인도 임팔에 대한 반격작전을 계획하고 있었다. 버마 전역을 점령했던 1942년 8월 일본 대본영은 버마 전역의 전세를 이용, 인도 동부로의 진격작전을 준비할 것을 남방군에 지시했었다. 그러나 과달카날 전장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중지되었다. 그러나 현지군은 인도로의 진격을 구상하고 있었다. 버마의 북부와 중부를 담당하고 있던 제15군 사령관 무다구치 렌야(牟田口廉也) 중장은 노구교사변 당시 연대장으로 중일전쟁을 확대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공세작전을 주장했다. 일본 대본영은 애초 인도로의 진격작전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나 현지 지휘관들이 강력히 주장하자 전면적으로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일본 대본영이 인도 진격작전을 지지한 또 다른 이유는 태평양 방면의 전국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버마 방면의 승리를 내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 효과도 고려하고 있었다. 1943년 9월 작전 승인이 나자 무다구치 렌야는 제15군의 3개 사단을 친드윈(Chindwin)강을 도하한 다음, 인도와 버마 국경지대의 산악지역을 넘어 임팔 분지로

66) Don Moser, op. cit., p.120.

67) Ledo Road: 미 공병대는 1943년부터 인도 레도로부터 중국 곤명까지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공식적으로 'Stilwell Road'라 불렀고, 공사는 1945년 1월에 완공되었다.

진격하려는 계획을 작성하였다.⁶⁸⁾

스틸웰이 지휘하는 중국군 제38사단은 버마로 진격한지 얼마 안 되어 정예 일본군 제18사단의 전초부대와 전투를 치르게 되었고, 양측은 대치는 예상외로 길어졌다. 스틸웰이 제22사단을 증원시킨 후인 3월 5일에 야 후캉계곡을 점령할 수 있었다. 후캉계곡전투 이후 중국군과 일본군은 모가웅에서 대치하였다. 이때 스틸웰은 미치나를 점령하여 석유 파이프라인을 수중에 넣기 위해 중미 특공대를 미치나에 침투시켜 미치나비행장을 점령하려 했다.⁶⁹⁾ 중미 특공대는 5월 17일 모가웅 동쪽에 있는 미치나비행장을 기습하여 일본군 비행장을 점령했으나, 비행장 방어에만 치중한 나머지 증원된 일본군에 포위당하여 세 달 동안 이곳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루지 않으면 안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스틸웰이 이 작전을 영국군에게 통보하지 않고 임의로 지시함으로써 연합군의 병참선의 길이가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인(駐印) 영국군과의 거리가 너무 이격되었던 것이었다.

영국군과 중미연합군의 간격이 벌어지자 일본군 제15군 사령관 무다구치 렌야 중장은 제18사단으로 중미연합군을 견제시키는 한편, 제31사단과 제15사단을 우회시켜 인도로 진입, 임팔에 있는 주인영국군을 포위 섬멸하려고 하였다.⁷⁰⁾ 이제 스틸웰이 지휘하는 중국군이 고착되어 있는 동안, 일본군 제15군의 주력이 임팔에서 주인영국군을 격멸한다면 연합군은 다시 한 번 버마에서 패배를 당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실제 일본군은 임팔의 영국군 제17사단을 고립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아라칸(Arakan)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한 영국군은 곧바로 정예 인도군 제5사단을 임팔로 공중수송시켜 일본군을 저지시킴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임팔에서 영국군의 전력은 강화되었고 슬림이 지휘하는 제14군은

68) 歴史學研究會 編, 『太平洋戰爭史』 5, 『太平洋戰爭』 II(東京: 青木書店, 1972), pp.250~251.

69)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Stilwell's Command Problems*, p.205.

70) 郭汝瑰·黃玉章, 앞의 책, p.1267.

일본군을 격퇴시킬 수 있었다. 영국군이 임팔에서 승리하자 일본군은 전 버마전선에서 퇴각하기 시작하였고, 1944년 10월 초순 우기가 끝날 즈음 X부대는 운남성과 버마의 경계에 있는 중요거점인 바모(Bhamo)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여 12월 15일 바모를 점령하였고, 1945년 1월에는 난캉 등의 지역을 점령하여 X부대의 버마작전은 일단락되었다.

한편, 북버마작전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부대는 중국 운남에 있던 Y부대였다. 장개석은 Y부대를 중국 본토에서 있을지 모르는 일본군의 공세에 대비해 예비대로 보유하고자 했지만, 스틸웰을 포함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Y부대를 북버마작전에 투입하였다. 1943년 12월 중순부터 스틸웰이 이끄는 X부대가 일본군 제18사단과 조우하여 교착상태에 빠지자 스틸웰은 장개석에게 운남 Y부대의 즉각적인 투입을 요청했다. 장개석은 처음에 중국 전장에서 일본군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거절하였으나 4월 3일 루즈벨트가 Y부대가 버마로 진격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원조를 중단시키겠다고 경고하고, 실제 13일부터 Y부대의 물자 지원을 중단시키자⁷¹⁾, 결국 장개석은 운남부대에 버마로의 진격을 명령했다.

운남의 Y부대는 제20집단군을 우익으로 등충(騰衝) 방면을 제2집단군을 좌익으로 용릉(龍陵)·망시(芒市) 방면을 공격했다. 1944년 5월 11일 제2집단군이 혜통교(惠通橋) 상류의 노강을 도하하여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운남성 서부 산악지대를 근거로 방어하였기 때문에 Y부대는 처음부터 고전에 빠졌다. 송산(松山)은 혜통교로부터 용릉에 이르는 도로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송산전투는 운남성 서부작전의 초점이 되었다. 송산을 방어한 일본군 정예 제56사단 제113연대는 양호한 장비와 탄약을 갖추고 있었고, 수년간 견고한 진지를 구축하였으며, 또한 충분한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고 있었다. 일본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71)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310: "Memorandum for the President"(13 April 1944), George C. Marshall, *Aggressive and Determined Leadership*, pp.408, 414.

4개월 동안 송산을 사수하였다. 중국은 제2집단군의 2개군(제71군·제8군)을 추가로 투입하고 나서야 9월 8일 송산을 점령할 수 있었다. 11월 3일에는 5개월간 포위한 용릉을 점령했고 11월 20일에는 망시를 점령했다. 12월 하순에 Y부대는 일본군과 원정(畷町)에서 격전을 벌여 1945년 1월 20일 원정을 점령하였고 이후 버마로 진입하여 일본군을 추격하였다.⁷²⁾ 1월 27일 Y부대의 주력이 망우(芒友)에서 승리 속에 X부대와 합류하였다. 이로써 인도-중국의 지상교통로는 연결되었고, 1942년 봄에 처참한 패배로 버마를 상실했던 연합군은 2년이 약간 못되는 시점에서 버마를 다시 탈환하였다.⁷³⁾ 지금까지 미국 역사학자들은 버마 탈환의 성공을 스틸웰의 영웅적인 지휘로 그려왔다.⁷⁴⁾ 하지만 실제 버마 반격작전의 성공은 스틸웰의 미치나 공격작전의 공훈에 있었다기보다는 임팔에서 영국군의 승리와 운남 Y부대의 선전에 있었다. 스틸웰은 오히려 X부대를 미치나에 깊숙이 투입시켜 연합군의 실패를 자초할만한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다.

연합군의 북버마 탈환작전은 성공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고 있었다. 연합군이 버마 탈환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에 중국 본토에서는 일본군이 대규모로 공세작전을 실시하여 중국 본토의 중국군이 거의 괴멸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1943년 12월 7일 지나 파견군은 ‘대륙철도 종관작전 지도대강’(1호작전)을 제정했고 1944년 1월 24일 일본 천황은 이 작전계획을 재가하였다.⁷⁵⁾ 일본의 ‘1호작전’은 군사적 목적이 중요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외교적 목적도 중요하였다. 일본은 전쟁후기 절망적인 상황에서 버마와 중국 본토의 군사적 성공을 바탕으로 유럽에서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영국과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72) 劉大年·白介夫 編, 『中國復興樞紐—抗日戰爭的八年』(北京: 北京出版社, 1997), p.408.

73) 북버마 반격작전의 내용은 기세찬, “태평양전쟁시기 미국의 종결전략과 중국”,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2013.3), 162~166쪽의 내용을 요약하였음을 밝혀둔다.

74) *ibid.*, pp.118~133; Charles F. Romanus and Riley Sunderland, *op. cit.*, pp.204~256.

75) 森山康平, 앞의 책, p.167.

내려 했던 것이다.

일본군의 ‘1호작전’은 1944년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에 걸쳐 실시되었다.⁷⁶⁾ 일본 대본영은 8월 하순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를 사령관으로 제6방면군(제11·제23·제34군)을 조직하였고, 제6방면군은 11월 중순에 계림(桂林)과 유주(柳州)를, 11월 24일 남녕을 점령한 후, 12월 10일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주둔군과 연결하였다. 일본군의 이 작전으로 인해 국민정부는 하남·호남·광서·광둥 등 각 성 대부분 및 100여개의 도시를 상실하였고, 약 6,000만 명의 중국 국민이 일본군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장사·형양을 상실함으로써 국민정부는 중요한 식량 공급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 전역들에서 국민정부군은 약 50여만의 병력을 상실하였으며 빼앗긴 공군 기지는 7개소, 비행장은 36개소에 달했다.⁷⁷⁾ 중국 본토가 일본군에게 유린당하고 있을 때 중국군의 최정에 부대인 운남의 Y부대는 전략적으로 그리 중요할 것 같지 않은 버마에서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5. 결 론

이 글은 인도-버마전역에서 연합국의 대일전략과 전투상황의 분석을 통해 중국원정군의 역할을 재평가해보고자 하였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태평양전쟁은 중일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전쟁자원의 부족과 미국의 대일경제제재가 근본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 일본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전시경제체제의 난관을 일거에 해결하고자 남진정책을 추진하였다.

76) 일본군의 ‘1호작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기세찬, “태평양전쟁시기 미국의 종결전략과 중국”, 앞의 책, 167~169쪽 참조.

77) 劉大年·白介夫 編, 앞의 책, p.330.

특히 일본군은 예난자웅에 매장되어 있는 막대한 석유와 그 밖의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1942년 4월 버마를 본격적으로 침공하였다. 중국도 제5군과 제6군을 투입하여 연합군의 대일방어전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연합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항공기 등 연합군의 전력 부족, 연합군 군사지도자들의 협조체제 부족, 그리고 스틸웰의 제1차 세계대전식의 무모한 공세전략 때문이다.

버마를 상실한 연합국은 1943년부터 유럽과 태평양상에서 연합군에게 전세가 유리하게 전개되자 버마를 수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최종적인 방안은 미·영·소의 테헤란 회담 이후 결정되었는데, 영국과 미국은 먼저 유럽의 독일에 전력을 집중하고, 인도-중국 전장에서 대일작전은 미국의 전략폭격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중·인 도로 확보차원으로 제한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그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스탈린의 대일전 참여 결정이었다. 장개석은 이같은 미·영의 선유럽중심의 전략이 일본에게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공세작전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루즈벨트와 처칠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국의 동남아작전에 대한 최종계획은 몇 차례 바뀌었지만, 버마 반격작전을 위한 중국원정군 X·Y부대의 창설과 훈련은 스틸웰의 주도 하에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병력 보충은 중국이 책임졌으며 부대의 무장과 훈련은 미국이 책임졌다. 1944년 1월까지 대일 반격작전을 수행할 X부대와 Y부대의 재편과 재무장은 완료되었으며, 랍가르 훈련소에 훈련을 받은 중국 병력들은 미국에서 온 신식장비로 무장하였다. 개편된 중국원정군의 편성과 무장은 질적·양적 모두 중국 내의 어떤 부대보다 뛰어났으며, 심지어 일본군과 비등할 정도였다. 이들 부대들은 버마 반격작전의 주요부대로 운용되었다.

버마 반격작전은 1943년 12월부터 실시되었으며, 1년 후인 1945년 1월 27일 Y부대의 주력이 망우에서 승리 속에 X부대와 합류함으로써 북버마 반격작전은 종결되었다. 1942년 봄에 처참한 패배로 버마를 상실했던

연합군은 2년이 약간 못되는 시점에서 버마를 다시 탈환하였고, 이 승리에 중국원정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북버마 반격작전은 중요한 전략적 문제점을 들어냈다. 먼저 스틸웰 단독의 미치나작전이 영국군과 협조되지 않은 채 실시되어 영국군이 일본군에게 고립당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다음으로 일본군과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고자 미국의 압력행사로 중국의 최정예 예비부대인 Y부대가 북버마작전에 투입됨으로써 예비대가 부족한 중국본토는 일본군의 1호작전으로 거의 괴멸되는 상황에 직면했던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과거 미국의 역사학자들은 버마 탈환의 성공을 스틸웰의 영웅적인 지휘로 그려왔다. 그러나 실제로 승리의 결정적인 원인은 중국원정군의 용감한 투지와 임팔에서 영국군의 승리에 있었다. 또한 연합군의 북버마작전은 전략적으로 실패는 아니었으나 중국군의 불필요한 전력의 낭비를 가져와 이후 중국본토 반격작전과 제2차 국공내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쟁당시 버마에 근무하였던 루이스 알렌(Louis Allen)이 “만약 스틸웰이 1944년 중순에 미치나를 점령하고 중국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 장개석이 전투경험이 있는 그의 부대를 1944년 안에 북버마에서 귀국시킬 수 있었다면 1945년 중국공산당군을 막는데 예측할 수 없는 기여를 했을 것”⁷⁸⁾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이 글에 매우 시사적이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인도-버마전역, 태평양전쟁, 국민정부, 중국원정군, 스틸웰, 중일전쟁, 장개석, 제2차 세계대전, 미국, 연합국

78) Louis Allen, op. cit., p.364.

<ABSTRACT>

India-Burma Campaigns and the Chinese Expeditionary Fo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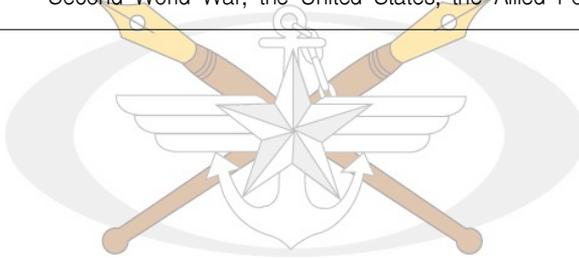
Ki, Se-chan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the military alliance was formed among the U.S, China and the U.K. However, the three countries imposed different strategic purposes. As a result, due to strategic differences to counter Japan among those countries and the appointment of Stilwell caused the total defeat of the allied power at Burma less than two months of their engagement against Japan. After 1943 when the war started to turn in favor of the allied forces through the Europe and the Pacific, the U.S., China, and the U.K. made a final decisions that was to concentrate its power on Germany first, and then on Japan. Meanwhile, the initiation and the training of Chinese expeditionary forces, X and Y forces for the allied forces' counterattack in the Southeast Asia, progressed rather quickly under the command of General Stilwell. The formation of X force was superior to any of the Chinese troops in terms of the quality and quantity. The troop's combat power was comparable to that of Japan and it was to be used as the main force for the counter attack in Burma.

The counter operation in Northern Burma started in December 1943 and ended in victories by using Y force as main force in support of X force in January 27, 1945. However, the prior strategic focus on Europe by the U.S. and the U.K. and the Northern Burma operation yielded a serious consequence. Due to the Japan's No. 1 operation, China lost most of its eastern territory and the Chinese force was on the verge of collapse. When the Japanese main troops attacked the Chinese mainland, the China's most powerful troops were fighting in Burma. It was no doubt that the Teheran

agreement of Europe centric strategy made the war in Europe to end more quickly. However, this strategy eventually caused a great disaster in Northeast Asia. In North Eastern Asia, the Soviet Union could expand its influence in Manchuria while the three countries focused their efforts on Burma. This caused a decisive impact on the Chinese civil war after the war ended.

Key Words : India-Burma Campaigns, the Pacific War, the National Government, Chinese Expeditionary Forces, Joseph W. Stilwell, the Sino-Japanese War, Chiang Kaishek, the Second World War, the United States, the Allied Powers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과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

이기덕* · 이선규**

1. 서 론
2. ‘국민의 의지’ 중요성
3.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상황
4.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5. 결 론

1. 서 론

전쟁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여러 요인들이 승패에 영향을 미쳤다. 일반적으로는 군사력의 우위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제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력의 우위 못지않게 경제력의 우위가 중요한 승패의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그 이유는 고가의 장비와 탄약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전쟁의

* 경희대학교 석사과정 졸(육군대령)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교신저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있고 국가의 경제력은 전쟁의 결과에 있어 승패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유형적인 요소이지만, 무형적인 요소로서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과학기술력, 정치와 외교력, ‘국민의 의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를 바탕으로 하는 군사력의 우위는 물론 더불어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있어야 하며, 여기서 ‘국민의 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총력전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전의 특성에서 국민의 의지는 다른 어느 것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이다.

전쟁은 어느 나라 어느 국민에게든지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수많은 고통을 준다. 전쟁기간 중 식량이 부족하여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가 하면 집이 파괴되어 한 겨울에도 천막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연료가 충분하여 난방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전장에서 폭격 등으로 희생되기도 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터로 혹은 군수시설로 동원되기도 한다. 이렇게 수많은 고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 국민들은 끝까지 정부를 믿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승리를 위해 싸웠는가 하면, 어느 나라 국민들은 그런 고통을 참지 못하고 파업과 폭동을 일으키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함으로써 끝내 전쟁에서 패하였던 사례가 있다. 전자가 제1차 세계대전시 영국이라면 후자는 독일과 러시아가 대표적인 국가이다.

우리도 6·25전쟁시 300만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산업시설을 포함하는 수많은 시설들이 파괴됐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 1,000만여 명의 이산가족도 발생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싸웠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현재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남 적화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군의 군사전략과 전술, 노동당의 대남적화

전략, 그동안 김정은의 발언 등으로 볼 때 언제라도 작은 충돌이 확대돼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된다면 6·25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파괴가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를 억제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때 군사력과 경제력 등의 우위는 물론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정치와 외교력 등과 더불어 ‘국민들의 의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강조도 하지 않고 있고, 전문적인 연구도 미흡하다.¹⁾ 오히려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들이 정치권엔 진출해 있는 등 도처에서 공공연하게 활동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이 되면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것이 아니라 분열의 핵(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전쟁사에서 나타났던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을 연구하고 교훈을 찾아서 만에 하나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러한 교훈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당시 연합국의 핵심이었던 영국과 동맹국의 핵심이었던 독일에서 각국의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를 함에 있어서 먼저 ‘국민의 의지’란 무엇인지 그 논거를 기술하고 이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어떤 원인으로 발발해서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결과로 끝났는지 간략히 기술하였다. 다음은 전쟁기간 중 양국의 국민들이 당면한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서 이를 극복하였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1) 현재 ‘국민의 의지’에 관해서 합동참모본부의 「합동기본교리」에 국가방위요소로서 ‘국민의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서울: 합동참모본부), 그 외에 국민의 의지와 관련된 자료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박원규, 「국민안보의지 통합에 관한 연구」(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년); 이성근, “국민의 전쟁참여 의지에 대한 국가별 영향요인 분석”, 「정책연구」 통권 161호(2009년 여름), 97~133쪽;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서울: 북코리아, 2012.

난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어떻게 표출됐는지를 분석해서 교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전쟁기간 중 ‘국민들의 의지’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담이 됐던 각종의 의무와 동원, 조세부담과 전비조달, 식량문제 등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중점적으로 기술하였다.

2. ‘국민의 의지’ 중요성

1) ‘국민의 의지’란 무엇인가?

중국의 고대 병법가인 손자(孫子)는 『손자병법』 제1편 始計에서 ‘故經之以五事，校之以計，而索其情，一日道，二日天...’라고 하였다. 또한 道者 令民與上同意也 故可與之死 可與之生 而不畏危. 즉 전쟁을 함에 있어서는 다섯 가지 요소를 근본으로 삼아 이를 판단하고 비교하며 세세한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데, 그 첫째가 ‘바른 정치를 하는 것’으로, 이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하면, 국민들은 위정자와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쟁에서는 어떤 위험일지라고 극복하여 승리를 하려는 것으로²⁾ 이는 곧 ‘국민의 의지’라 할 수 있다.

프러시아의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론』에서 ‘국민의 의지’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삼위일체론(Trinity)을 주장하면서 제1극(국민)과 제2극(군대), 제3극(정부)이 일체를 이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여기서 제1극인 국민이 바로 ‘국민의 의지’ 또는 정신력과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³⁾

2) 김광수, 『손자병법』, 서울: 책 세상, 2012, 21~24쪽.

3) 박계호, 앞의 책, 71~72쪽.

독일의 루덴도르프(Erich Von Ludendorff) 장군도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 장군의 참모와 육군의 참모차장(병참감 겸무) 및 참모총장으로서 직책을 수행하면서 독일군의 전쟁을 수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1935년 『국가총력전(Der Totale Kriege)』을 집필하였다. 여기서 그는 국가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신적 단결과 경제력, 총수 등 세 가지를 주장하였다. 그가 주장한 ‘정신적 단결’은 국민의 정신력에 영향을 주며, 이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에서 생존투쟁에 필요한 단결력을 국민과 군에 부여하고, 국민의 존망을 위하여 전쟁에서 최후를 결정짓는 것이라고 하였다.⁴⁾ 여기서 ‘국민의 정신적 단결’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국민의 의지’와 연관된다.

일본인 다카하시 하지메(高橋 甫)는 1953년 『현대총력전』을 집필하면서 역시 국민의 의지를 다른 말로 표현하였다. 그는 현대전에서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력으로 무력과 정치전력, 사상전력, 경제전력을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사상전력이 바로 국민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확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국민의 정신력을 말하는 것으로, 바로 ‘국민의 의지’와 연계되는 부분이다.⁵⁾

합동기본교리에서는 현대전이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됨을 감안하여 국가총력방위(國家總力防衛)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국가 총력 방위를 위해 ‘국민의 의지’와 노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⁶⁾

한편 김홍철은 총력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서 인구의 규모와 물질적 기반인 재정력, 무기를 3대 요체로 하여 산업과 기술역량 및 ‘국민의 전의(戰意)’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국민의 전의’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4) 루덴도르프, 최석 옮김, 『국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2, 35~37쪽.

5) 다카하시 하지메,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옮김, 『현대총력전』, 서울: 공화출판사, 1975, 87~92쪽.

6) 합동참모본부, 『합동기본교리』, 대전: 육군인쇄창, 2002, 34쪽.

‘국민의 의지’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⁷⁾

앞에서 보듯 각각의 표현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국민의 의지’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견해들을 반영하여 박계호는 국가총력전 요소로서 ‘국민의 의지’를 다수의 전·사상자가 발생하고 식량이나 생필품, 연료, 의약품의 부족 등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투 및 비전투 활동에 적극적·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무형의 정신적인 힘과 태도 및 자세⁸⁾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의지’는 연구자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의미가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 전쟁에서 ‘국민의 의지’의 역할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투원은 직접 전장에서 적들과 전투를 하였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후방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동원돼 의무, 통신, 수송, 병기 등의 다양한 전투근무지원시설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은 무기와 탄약 공장에서 전투장비와 무기, 탄약을 만들기 위해 동원되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다. 다음의 <표 1>에서 제시된 제1차 세계대전시 병력동원의 규모가 이를 입증한다.

<표 1> 제1차 세계대전시 인구대비 동원병력 비율⁹⁾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동원병력(만명)	950	820	380	1,300	1,325	900
당시인구(만명)	4,500	3,900	9,800	17,100	6,500	5,200
동원 비율	4.7 : 1	4.7 : 1	25.7 : 1	13.1 : 1	4.9 : 1	5.7 : 1

7) 김홍철, 『전쟁과 평화의 연구』, 서울: 박영사, 1987, 47~49쪽.

8) 박계호, 앞의 책, 657쪽.

9) 폴 케네디, 한국경제신문사 옮김, 『강대국의 흥망』, 서울: 한국경제신문사, 1996, 280~284쪽, 380쪽. 여기서 제시된 인구는 1913~1914년임.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됐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연합국이나 동맹국의 주요 당사자였던 각국의 전쟁비용 규모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비용이 소요됐는지 아래의 <표 2>를 보면 알 수 있다.

<표 2>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각국의 전쟁비용¹⁰⁾

구 분	영국	프랑스	미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
비용(달러)	230억	93억	171억	54억	199억	47억

이러한 비용들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채워졌다. 정부는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고자 세금을 대폭 인상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세금을 새로 만드는가 하면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졌다. 그래도 비용이 부족해지면 전시채권(War Bonds)을 발행하여 국민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면서 전쟁비용을 조달하는 한편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를 회수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비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우방국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족한 전비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전비조달 문제는 정부가 항상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가하면 전쟁이 장기화되고 해상봉쇄로 무역이 차단되면서 식량이 부족해져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면서 굶어죽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겨울에는 연료가 부족하여 냉방에서 자야만 하였다. 폭격으로 집이 파괴되면서 텐트에 거주해야만 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가족과 친지가 사망하는 등 전재민이 발생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이렇게 전쟁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되는 것이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운 국민은 승리하였고, 그렇지 못한 국민은 패한 것이다. 여기서 승리를 위한 무형적인 요소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10) 위의 책, 380쪽.

3) 한반도 전쟁양상에서 ‘국민의 의지’가 중요한 이유

한반도에서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전체를 적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그들의 인구와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119만 명(그 중 특작부대 20만)의 상비군과 770만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군단급 부대와 88개의 사단급 부대, 70여 개의 기동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¹¹⁾ 그들이 보유한 주요 전투장비는 아래와 같다.

〈표 3〉 북한군 주요 전투장비

구분	전차	야포	방사포 등	함정	잠수함	전투기	헬기
수량	4,200대	8,600문	5,100문	740여 척	70여 척	820여 대	300여 대

또한 40kg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3차례에 걸쳐 핵실험까지 하였다. 2,500~5,000톤에 이르는 화학 무기 보유 외에 탄저균, 천연두 같은 다양한 종류의 생물학 작용제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²⁾ 이와 같은 재래식 및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하여 북한군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다양한 전쟁실상이 발생할 것이다.¹³⁾

전쟁임박단계에는 북한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특수작전부대 중 일부가 지상이나 해상 등으로 은밀히 침투하여 전력, 교통, 통신, 수도 등 국가 핵심기반 시설을 마비시키고 전문해커들은 인터넷 등 국가정보통신망을 공격하여 무력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원 및 징집거부, 사이버 테러로 인한 정부기능의 마비와 주요시설 테러, 반전 시위 발생, 금융시장 혼란, 악성유언비어 확산, 불순세력의 사회혼란 조장,

11) 국방부, 『201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2, 289쪽.

12) 위의 책, 29~30쪽.

13) 비상기획위원회, 『전장실상에 부합한 비상대비훈련 사건 계획 작성 매뉴얼』, 서울: 비상기획위원회, 2007, 6~8쪽 요약.

주요 다중시설에 대한 테러 등이 발생될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이용하여 식량과 연료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들의 사재기 행위도 급증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예기치 못한 각종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개전 및 방어단계에는 170밀리 자주포 및 240밀리 방사포 등 각종 장사정포의 수도권 집중포격과 지상 및 해상·공중에서의 기습공격, 특작부대의 전·후방 지역에 대한 대량침투, 후방지역의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에 미사일과 화학탄, 생물학 무기 등의 사용이 예상된다. 이러한 적의 공격양상에 따라 동원 및 징집거부, 사이버 테러로 인한 국가기능의 마비, 금융시장의 혼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테러, 반전시위, 방송과 통신체계 마비와 대도시 피폭으로 인한 단전과 단수, 금융기관 대량인출, 대량의 피난민 및 전재민과 사상자 발생, 식량과 생필품 공급의 제한이나 사재기 등으로 인해 국민생활에 있어 극도의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은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를 좌절시키기 위한 다양하고도 집요한 각종 활동들을 행할 것이며, 이때를 이용한 사회 불순 세력들의 의도된 사회혼란도 예상된다.

반격 및 격멸 단계에는 적이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면서 후방지역의 부대들은 축차적 방어진대를 편성하고, 아 후방지역에서 작전 중인 특수부대는 한·미연합군의 반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주요시설과 병력의 증원으로 등에 공격을 지속할 것이다. 이 단계에는 적의 철수와 아군 공격준비부대의 이동, 소산 및 이동한 주민의 복귀 등으로 인해 상당한 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국가기반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가 추진되면서 물자와 인력소요가 급증할 것이다. 국민들의 의식주 생활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가 될 것이다.

전쟁이 발발하면 수많은 부대가 증편되고 창설된다. 그런가 하면 무기와 탄약 등의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군수시설에서도 많은 기술 인력들이 요구된다. 정부조직들도 전시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확대된다. 전쟁

이라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처에서 수많은 인력들이 동원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들에게는 각종의 의무가 부과된다.

전쟁을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비조달을 위해서 평시 없었던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거나 조세율이 인상될 것이고, 화폐의 발행이 확대되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 증대돼 인플레이션 현상도 발생할 것이다. 전비조달을 위한 전시채권도 발행될 것이다. 정부의 예산중 불요불급한 부분의 지출은 억제되고 국방 및 군사부분으로 대부분 전환될 것이다.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전시에는 평시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던 일들이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 때문에 검토되고 시행될 것이다.

식량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대부분의 나라가 전쟁기간 중 국민을 어떻게 먹여 살리는가 하는 것 때문에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였다. 배급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고, 노동량에 따라 배급량을 달리하는 조치도 하였다. 식량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가용한 국토를 모두 농경지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평시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5~26%에 불과하다. 평시 부족량은 수입해서 먹고 살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이 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갑자기 수요량이 폭증하고 사재기 현상이 빈발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강력한 통제가 부족하여 식량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기아자가 발생할 것이고 이런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면 사회에 대한 불만세력들은 이때를 호기로 이용하여 반정부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승리를 위해 국민적 노력을 통합해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다.

석유 등 난방원료도 전시 등 국가비상시에 대비하여 상당량을 비축하고 있기는 하나 수요량의 대부분을 해외도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서는 석유수송로가 어떤 이유로든 차단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되면 군사작전은 물론 국민생활의 안정에도 많은 불편을 줄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에서 이와 비슷한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양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 없이 부대의 전투원으로서 또는 무기와 탄약 공장의 생산인력으로 동원임무가 부여되었다. 영국이나 독일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세금의 인상과 전시채권을 발행하여 전비를 조달하면서 국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됐다.

양국 모두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비슷한 상황이 양국에서 모두 발생하였지만 영국은 이를 극복한데 반하여, 독일은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는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전쟁환경에서 양국의 ‘국민의 의지’는 전쟁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탄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 어떤 전쟁에서보다도 예측하지 못한 피해발생이 불가피해 보인다.¹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국민의 불굴의 의지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독일의 상황

1) 전쟁의 발발과 전개, 결말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 6월 28일 세르비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

14) 1993년 북핵위기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계획을 세울 당시 미국은 약 4개월의 고강도 전쟁이 요구되며 60만여 명의 한국군과 40만여 명의 미군 증원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미연합사령관을 역임한 바 있는 럭(Gary Luck) 장군은 월남전과 걸프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국민의 다수가 도시생활을 많이 하고 있음을 볼 때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재발할 경우 최신무기의 어마어마한 성능으로 인해 8~10만 명의 미국인을 포함해 100만여 명 이상의 인명피해와 미국은 전비로 1,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어야만 하고 주변국들까지 1조 달러 이상의 전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였다.(Don Oberdorfer, 이중길 옮김, 두 개의 한국(The Two Koreas), 고양시: 도서출판 길산, 2002, 474~475쪽)

하던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트(Franz) 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 청년에 의해 암살됨으로써 발발되었다.¹⁵⁾ 당시 유럽에서는 먼저 영국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식민지를 개척하고 뒤를 이어 뛰어난 독일과 서로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돌이 심화되고 있었고, 프랑스는 보불전쟁의 패배 등으로 독일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과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삼국동맹(Triple Alliance)¹⁶⁾과 영국과 프랑스 및 러시아 등 삼국협상(Triple Entente)¹⁷⁾의 대립, 발칸반도에서의 범게르만주의와 범슬라브주의 대립 등 유럽에서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렇게 대립과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보스니아를 방문하다가 암살된 것이다.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가 암살되자 오스트리아 제국은 세르비아에게 10가지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¹⁸⁾ 이러한 10가지 요구사항에 대하여 세르비아는 9가지는 받아들였으나 황태자 암살사건 재판에 오스트리아 대표 참석을 요구

15)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분석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역사학자들은 1914년 프랑스나 러시아는 전쟁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프랑스나 러시아는 그들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국가이익에 대하여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며,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 전쟁에 호소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는 데 동의한다. 세르비아에서도 마찬가지로 군대를 징집하거나 훈련을 하는 일이 없었다. 독일의 세계정책(팽창주의)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발칸정책이 원인이 된 황태자 암살사건으로 전쟁이 발발하였다는 데 동의를 하는 것이다.(Ruth Henig, The Origins of The First World War(UK: Clay Ltd, 1994, p.50)

16) 비스마르크 시절인 1882년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이탈리아가 체결한 조약으로 비밀의 군사동맹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사이에 체결된 삼국협상과 대립하여 제1차 세계대전의 중요한 한 원인이 되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탈리아는 동맹국으로부터 탈퇴하였으며 뒤에 삼국협상국으로 가입하였다.

17)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유럽의 열강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상호간에 대립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였다. 당시 독일은 비스마르크시대로 해외식민지 건설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비스마르크를 축출하고 등장한 빌헬름 2세는 해외식민지 건설에 대단히 관심이 많았으며 이를 위해 해군력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가 이에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독일을 고립시킬 필요성을 느껴 1894년에 프랑스와 러시아, 1904년에는 영국과 프랑스, 1907년 영국과 러시아가 각각 협정을 맺음으로써 삼국협상을 완성하였다. 협상국에는 뒤에 미국을 포함하는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였다.

18) 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5, 192쪽.

하는 사항은 세르비아의 주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부하였고, 오스트리아 제국은 이를 이유로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수도 베오그라드를 폭격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한 것이다.¹⁹⁾

이에 같은 슬라브족으로서 세르비아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던 러시아가 부분동원령을 선포하자 독일이 8월 1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총동원에 들어갔다. 2일에는 프랑스를 침공하기 위하여 중립국 룩셈부르크를 침공하였고, 3일에는 프랑스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벨기에를 침공하였다.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이번에는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5일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도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이 상호 선전포고를 하면서 전쟁이 유럽 전 지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²⁰⁾

그 동안 누적되어왔던 아시아-아프리카 식민지를 둘러싼 팽창주의와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비경쟁, 삼국협상과 동맹국의 대립 등이 누적돼 갈등이 악화되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암살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돼 1914년 7월 28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미국 등 28개 국가는 협상국, 독일과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 및 터키, 불가리아 등 4개 국가는 동맹국으로 각각 진영화하여 치른 역사상 최초의 대전쟁(Great War)²¹⁾으로 많은 나라들이 처음 예상하였던 단기전과는 달리 4년 3개월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전쟁에 참여한 각국은 총력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동원 가능한 인적·물적자원 등 전쟁지속능력에서 동맹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취약하였던 불가리아(1918. 9. 26)와 터키(1918. 10. 30)가 먼저 이탈하였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도 평화협정에 서명(1918. 11. 3)하였다. 마지막으로

19) 위의 책, 192쪽.

20)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강민수 옮김,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제1차 세계대전 1914~1918』,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 미디어, 2010, 48~50쪽.

21)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유럽지역에서 발발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던 전쟁을 일컬어 하는 말

독일이 항복(1918. 11. 11)하고 전투행위를 중지하고 베르사유조약을 체결(1919. 6. 28)함으로써 종전되었다.

2)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영국의 국력의 비교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고, 18~19세기에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많은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른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성장해 있었다.

독일은 프랑스와 전쟁(보불전쟁, 1870~1871)에서 승리한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가 독일을 통일하고 뒤늦게 산업혁명에서 성공하여 영국보다 늦기는 하였지만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국력의 변화를 반영하듯 1860년부터 1900년까지 당시 주요 열강들의 경제력을 비교해 보면 1900년을 기점으로 독일이 영국이나 프랑스를 앞서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갖는 국가로 성장하고 있음을 다음의 <표 4>는 보여준다.

<표 4> 1860~1900년 기간 중 영국과 독일의 경제력 변화²²⁾

구 분	1860	1870	1880	1890	1900
1 위	영국	영국	미국	미국	미국
2 위	프랑스	미국	영국	영국	독일
3 위	미국	프랑스	독일	독일	영국
4 위	독일	독일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독일의 이러한 경제력의 확대와 더불어 군사력의 확장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국력은 이미 프랑스와 러시아를 훨씬 앞서는 영국마저 능가하면서 유럽대륙에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있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독일의 통일에 따른 급속한 인구 팽창과 잘 훈련된 기능공을 배출해 내는 학교 교육제도와 교육 수준 등이 어우러진 결과가 있었다.²³⁾

22) Fritz Sternberg, *The Coming Crisis*(London: Victor Gollancz, 1947), p.102.

23) 폴 케네디, 앞의 책, 293쪽. 당시 독일의 교육수준을 나타내는 말로 이탈리아 신병

독일의 경제력 성장은 필연적으로 군사력의 확장을 가져와 뒤늦게 해외 식민지 건설에 뛰어들면서 영국과의 충돌은 불가피하였고 이를 위해 영국과 독일은 해군력 건설을 치열하게 전개하였다. 이러한 충돌은 이른바 영국의 3C정책(Calcutta-Cairo-Capetown)과 독일의 3B(Berlin-Byzantium-Baghdad)정책으로 나타나면서 양국간 대립이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전통적으로 주장하였던 ‘명예로운 고립정책(Splendid Isolation Policy)’을 포기하고 유럽대륙의 세력균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일본과는 영일동맹(1902년), 프랑스와는 해군협정을 체결(1904년)하였다. 그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던 러시아와도 협상 끝에 영국-프랑스-러시아를 연결함으로써 독일을 견제하기 위한 삼국협상의 틀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독일도 프랑스를 견제하고자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이탈리아를 연결하여 동맹국으로서 틀을 완성하였다. 이렇게 협상국과 동맹국의 틀이 완성되면서 유럽에서는 힘의 대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당시 독일과 영국의 국력을 보면 어느 일방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5〉 1913~1914년 독일과 영국의 국력의 비교²⁴⁾

구분	인구 (만명)	국민총생산액 (억\$)	1인당 소득(\$)	군사력 (만명)	철강생산 (만톤)	군함 (만톤)
독일	6,500	120	184	89.1	1,760	130.5
영국	4,500	110	244	53.2	770	271.4
비교	1 : 0.69	1 : 0.9	1 : 1.33	1 : 0.6	1 : 0.44	1 : 2.08

1,000명 가운데 문맹자가 330명,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은 220명, 프랑스는 68명이었는데 독일은 단지 1명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독일의 교육수준이 높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24) 위의 책, 280~284쪽, 339쪽. 독일의 철강생산량 1,760만 톤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의 철강생산량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양이다.

3) 독일의 상황

(1) 전쟁의 발발과 독일의 조치

영국과 독일의 대립과 경쟁이 악화되다가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의 황태자 암살사건이 직접적 원인이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시작됐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인 독일에 전쟁이 발발할 시 지원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냈고, 독일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 없이 오스트리아제국이 세르비아에 취하는 조치를 무조건 지지하면서 원치 않게 전쟁에 휘말려 들었다.²⁵⁾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하기 전 이미 수립돼 있었던 쉐리펜계획(Schlieffen Plan)에 따라 서부전선에서 전투는 시작됐다. 이에 프랑스도 17계획(Plan-XVII)에 따라 독일군에 대응함으로써 전쟁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전쟁은 독일과 프랑스 국경선 지역에서 주요 전장이 형성되면서 베르덩전투(1916. 2. 21~12. 18)와 솜므공세(1916. 7. 1~11. 13) 등 주요 전투를 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전으로 미국도 1917년 4월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전쟁이 장기화되자 전쟁지속능력에서 취약한 독일은 많은 전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과확대할 수 있는 예비병력은 물론 무기 및 탄약과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당시 독일은 전쟁이 길어야 1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전쟁을 준비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예측을 벗어나 장기화 되면서 인적자원이나 경제능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것이다.

독일은 무역이 대서양에서 영국의 해상봉쇄에 의해 차단되면서 전쟁에 필요한 원자재와 식량 등의 공급이 불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4년 넘게 지속되고 여기에 미국마저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병력과 물자를 대량으로 지원하면서 연합국 전력은 나날이 강화되는데 비해 독일은

25) 피터 심킨스 · 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48~49쪽.

하루가 다르게 약해져 갔다. 여기에서 국민들 사이에서의 전쟁에 대한 염증의 확산과 파업, 사회주의 확산 등 반정부 활동, 해군에서의 반란으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휴전협정과 베르사유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은 독일의 패배로 끝났다.

(2) 전쟁기간 중 부과된 의무와 국민의 상황

전쟁이 처음 시작되던 1914년 8월 독일 국민들은 독일군이 전쟁에서 곧 승리를 하면서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생각하였다. 독일국민들은 베를린역에서 서부전선으로 출동하는 부대들을 환송하면서 파리에서 그해 크리스마스를 맞을 것을 기대하였다. 그들의 바람대로 초기단계는 독일군이 많은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하게 전쟁을 이끌었다. 그러나 전쟁이 예상과는 달리 그해를 넘기고 이듬해가 되어도 승리의 전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부전선에서 고착돼 이른바 ‘참호전투’로 장기화되면서 전쟁을 지속하는데 따른 많은 부담들이 국민에게 부과되기 시작하였다.

전쟁이 중반기에 접어들고 전황이 독일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시 황제인 빌헬름 2세를 무시하면서 실권을 행사하던 힌덴부르크와 군부는 전황을 유리하게 전개시킬 목적으로 1916년 이른바 ‘힌덴부르크계획(Hindenburg's Program)’을 만들어 사회전반에 걸쳐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²⁶⁾ 이러한 조치에 따라 병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에 입대하지 않은 남자들을 징집할 목적으로 지원군법(Auxiliary Service Law)을 제정해서 17~60세의 남자들을 동원하였다.²⁷⁾ 이 법령으로 당시 독일의 총인구 6,500만여명 가운데 1,325만 명이 동원되었다.²⁸⁾ 국민 5명 가운데 1명이 동원된

26) Hew Strachan, "Economic Mobilization: Money, Munition, and Machine",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 pp.142~143; Richard Bessel, "Mobilizing German Society for War", *Great War, Total War*(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2000), pp.444~445.

27) Richard Bessel, op. cit., p.444.

28) 폴 케네디, 앞의 책, 380쪽.

것이다.²⁹⁾

또한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자 여자들도 예외 없이 동원하여 무기와 탄약을 만들기 위한 공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였다.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고전쟁청(Supreme War Office)을 만들었으며, 각종의 금속 자원은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는 것 이외에 사용을 통제하였다.³⁰⁾ 당시 무기를 제조하였던 크루프(Krupp)사나 지멘스(Siemens)회사 같은 곳에서는 남자들이 동원되고 남은 빈자리에 여자들로 채워져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였다.

전비를 조달하는 것도 전쟁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우선 전쟁이 시작되면서 세금을 인상하다보니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전비조달에 어려움이 닥치자 정부는 전시채권을 발행하였다.

사실 전쟁초기 단계에 독일은 국제금융시장에서 배척을 받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독일은 미국의 월가(War Street)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오로지 국내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연방의회에서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시채권을 발행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이렇게 발행된 전시채권은 5%의 이율에 10년의 기간을 거쳐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전시채권은 회사와 은행 등에서 주로 구입하고 개인들도 구입을 하였으며, 이렇게 정부는 전시채권을 판매하여 1,000억 마르크화의 전비를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쟁기간 중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였다.³¹⁾ 이렇게 해서 독일이 당시 총 사용한 전비의 규모는 199억 달러에 달한다.³²⁾

다음은 식량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은 국토가 비교적 위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가 척박하여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국가이다.

29)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54쪽. 이렇게 동원된 사람 가운데 180만 8천여 명의 사망자와 424만 7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전사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산업 활동에 왕성한 연령의 나이였다.

30) Richard Bessel, op. cit., p.445

31) 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검색일: 2013.6.17)

32) 폴 케네디, 앞의 책, 380쪽.

따라서 밀을 생산하기는 하지만 수요량을 완전히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여 부족한 양은 주로 중남미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주식으로 감자를 많이 먹을 정도로 감자 생산이 많은 나라이다. 이러한 국토의 상황으로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도 독일은 많은 양의 식량과 육류를 수입하였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연합국의 해상봉쇄로 식량수입이 차단됐다.

이렇게 되자 정부는 제국곡물청(Imperial Grain Office)을 만들어 식량수급에 대한 임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식량부족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자 제국곡물청을 확대하여 전쟁식량청(War Food Office)을 설치하고 식량공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여기서는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령과 노동조건, 남녀 성별 등을 감안하여 식량배급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지급토록 하였다.

이들테면 군수공장이나 탄광 같은 곳에서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량이 필요함을 감안하여 많은 양의 식량을 배급하고 사무원이나 학생, 노인들에게는 적은 양을 배급하였던 것이다. 1915년부터 빵의 배급제를 도입하였고, 곧이어 고기·우유·버터 등도 배급되기 시작하였다. 1916년 겨울을 예로 들면, 어른 한 사람의 1주일분 배급량은 빵 1,900g, 감자 2,500g, 버터 80g, 고기 250g, 설탕 180g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평상시 소요량의 1/3에 불과하였다.

국가의 자원이 힌덴부르크 계획에 의해 무기와 탄약을 제조하기 위해 대부분 사용되고 엄격히 통제됐다. 농업부분에 사용돼야 할 인력이나 연료, 심지어는 말까지 군수품을 생산하거나 운반하기 위하여 전용됐다. 이렇게 국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농업분야에서 가용자원의 사용이 통제되자 곡물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식량의 수입마저 연합국의 해양봉쇄로 차단되면서 가격이 급등하여 국민들의 생활을 위협하였다.

1916~1917년에는 생산량마저 급감하면서 주식 대용으로 순무와 감자를 주로 먹어야 하였으며, 감자의 생산량마저 줄어들면서 순무만을 먹는

소위 ‘순무의 겨울’을 보내야만 하는 상황도 발생하였다.³³⁾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학자는 “군수품 생산에만 편중함으로써 군부의 경제운용자들은 1918년 말에 나라를 기아직전에까지 몰고 갔다”라고까지 혹평을 하였다.³⁴⁾

1918년이 되면서 식량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식량생산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가격은 폭등하였고,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식량문제가 악화되자 독일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탈한 이후 유럽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우크라이나에서 100만여 톤의 식량을 제공받기로 하는 등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³⁵⁾ 그런가 하면 루마니아로부터는 소맥과 석유를 조직적으로 약탈하기도 하였다.³⁶⁾

이렇게 식량수급 상황이 어렵게 되자 식량배급에 있어서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권력자나 부유층은 암시장을 통해 많은 양을 구입하는가 하면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식량을 배급받는 등으로 여기서 제외된 국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처음에 심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국민들을 동원하였다. 이 방법은 전쟁 초기단계에 국민적 열정을 모아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도 1916년 이후 정부의 전시경제 관리 부실과 식량부족 해결 미흡, 전사자와 부상자 가족들에 대한 관리부실 등이 겹치면서 악화되었다.³⁷⁾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의 누적과 함께 국민들의 하루하루 삶이 고단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는 사라지고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희망과 함께 전쟁에 염증을

33) B. J. C. Mekercher, “Economic Warfare”, *The Oxford Illustrated History of The First World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 p.125.

34) 폴 케네디, 앞의 책, 375~376쪽.

35) 피터 제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498쪽.

36) 폴 케네디, 앞의 책, 374쪽.

37) Richard Bessel, op. cit., p.450.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전쟁에 대한 염증은 처음에는 산업현장에서 파업(Strike) 등의 분규로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베를린이나 라이프치히 같은 곳에서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파업양상이 점차 격화되고 대규모화되면서 베를린에서는 계엄령(Martial Law)이 선포되었다.³⁸⁾

식량의 부족이 심화되고 파업마저 확산되면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좌파언론들은 사회주의 인민정권 수립을 주장하였고, 길거리에서는 시위들이 빈발하는 등 국민들의 반발이 확대되면서 혁명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18년 11월 4일 마침내 영국해군과의 일전을 위해 출동명령을 받은 킬(Kiel) 군항의 해군들이 출동명령을 거부하면서 폭동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각료들은 빌헬름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연합국에 휴전협상을 제의하였다.

이 무렵 동맹국의 일원이었던 불가리아가 9월에 전투를 포기하였고, 터키는 10월말 적대행위를 멈추었으며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도 11월초 항복하면서 독일이 단독으로 전쟁하기에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독일은 연합국에 휴전을 제의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연합국이 이를 받아들여 1918년 11월 11일 휴전이 되었다가 1919년 6월 28일 베르사유조약을 체결하면서 완전히 종전된 것이다.

이렇게 독일은 휴전을 제의하였지만 당시 독일육군은 아직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만 보아서는 독일이 휴전을 제의할 정도로 전투에서 열세한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동맹국들이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국내에서는 식량의 부족으로 야기된 파업이 폭동과 혁명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마저 생기는 한편 해군의 반란마저 발생하면서 더 이상 전쟁의 수행이 어렵게 됐기 때문인 것이다. 독일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사라진 것이 휴전을 제의하는 중요한

38)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325~326쪽.

한 가지 이유가 된 것이다.

힌덴부르크는 자신의 이름을 모방한 계획으로 많은 국가의 자원들을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데 동원하면서 승리를 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계획은 국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보다는 군수산업의 확대만을 고려하였다. 결국 힌덴부르크계획은 독일사회를 모두 동원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였던 애초 계획의 의도와는 달리 막대한 동원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으로 저항을 야기시켜 국민들은 독일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말든지어서 빨리 전쟁을 끝냈으면 하도록 마음을 갖게 만들었을 뿐이다.³⁹⁾ 국가의 전시 정책이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키기 위한 활동을 소홀히 한 채 군사적 목적만을 달성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전략사상가인 앙드레 보프르(Andre Beafre)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요원과 국민의 사기를 고도로 진작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독일은 군인이 황제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국민들은 전쟁의 승리는 고사하고 염증을 느끼게 만든 것이다.

4) 영국의 상황

(1) 전쟁의 발발과 영국의 조치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암살되고 긴장이 고조되던 1914년 7월까지만 해도 영국의 태도는 중립적이었다. 영국은 당시 발생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중립적 입장에서 국제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오스트리아 제국이 거절함에 따라 무산되었다. 독일은 영국이 중립을 지켜주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영국은 분쟁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된다면 방관적 입장을 취하겠으나 독일과 프랑스가 개입한다면 결코 방관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영국주재 독일대사에게 알렸고 이러한 사항들은 독일로 보고됐다.⁴⁰⁾ 이러한 보고를 받은 독일정부는 영국이 중립을

39) Richard Bessel, op. cit., p.446.

40)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574~578쪽.

지킬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당황하였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당시 영국이 벨기에를 반드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839년 영국이 벨기에의 독립과 중립을 보장한다는 조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조약당사국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국이 벨기에를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독일군이 영불해협을 장악한다면 힘의 균형이 파괴되면서 영국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개입을 시작하였다.

전쟁당시 영국의 수상은 애스퀴스(Herbert Asquith)였다. 독일이 해군력을 확장하고 군비를 증강할 당시 영국도 적절히 군사력을 정비하면서 준비를 해야만 되었으나 영국은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 독일군의 군비증강에 대응하는 해군력 강화계획은 의회에서 부결됐으며, 병기나 탄약은 국방비 절약을 이유로 소량만 생산하도록 요구됐다.

이러한 상황으로 프랑스 전선에 파견된 원정군 부대는 한동안 심각한 탄약위기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징병제 도입도 한때 논의되다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전쟁초기 단계에 영국은 애스퀴스 내각의 무능한 전쟁지도로 논의만 무성한 가운데 결과가 없는 상황이 한동안 계속됐다. 애스퀴스 내각에 이어 등장한 로이드 조지(David Lloyd George)가 영국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시작하였다.

(2) 국민에게 부과된 각종의 요구와 국민의 상황

전쟁이 발발하자 1914년 8월 영국 정부는 국토방위법(Defense of the Realm Act)을 제정하여 국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법에 따라 정부는 전쟁을 위해 사유재산 징발, 군사 및 산업목적을 위한 징집실행, 비애국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 및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⁴¹⁾ 전쟁물자법(War Material Act)을 제정

41)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43쪽.

하여 물자생산을 위해 정부가 어떤 조치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는 곧 총력전을 실시한다는 의미였다.

전쟁이 발발하자 영국은 당시 6개의 사단 가운데 2개 사단을 영국에 잔류시키고 4개 사단을 원정군(British Expeditionary Forces)으로 편성해 프랑스에 파견하였다.⁴²⁾ 전쟁이 진행되면서 손실이 발생돼 병력 보충이 요구되면서 정부는 징병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자유당 정부는 이에 반대하였다. 따라서 지원병제도로 1단계에 10만여 명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조국은 그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포스터를 발행하여 애국심에 호소하였다.⁴³⁾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모병제만으로는 병력을 충원할 수 없게 되자 징병제 채택소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1915년 7월에는 국민등록법(National Registration Act)을 제정하여 15~60세의 인구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217만여 명이 등록하였다. 그 결과 500만여 명의 남성이 군에 입대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징병제가 채택되기는 하였으나 실효성은 다소 부족하였다.⁴⁴⁾

프랑스에서 진지교착전이 전개되면서 더 많은 부대와 병력이 필요하게 돼 병력을 모집하고 부대를 편성한 결과 1916년 초에 영국군은 38개 보병사단에 5개 기병사단까지 부대를 확장하면서 프랑스에 파견된 영국원정군도 대폭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⁴⁵⁾

병력의 문제와는 별도로 영국군이 당면한 커다란 문제는 탄약의 부족이었다. 영국이 국방비 절감을 이유로 투자를 소홀히 한 결과로 1916년에 이르러서는 탄약위기(Ammunition Crisis)가 발생하여 영국군 전투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로이드 조지에 이어서 처칠(Winston Churchill)이 탄약성장관으로 탄약생산 책임을 맡고 미국으로부터

42) 육군본부, 『영국육군사』, 대전: 육군인쇄창, 1982, 365쪽.

43)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위의 책, 177쪽.

44) 위의 책, 176~177쪽.

45) 육군본부, 앞의 책, 377쪽.

새로운 기계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등으로 당면한 탄약위기를 극복하였다.

전쟁과 더불어 여성들의 동원도 확대되었다. 전쟁발발 직전인 1914년 7월에 전쟁과 관련되는 부문에 종사하였던 여성의 숫자는 21만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었으나 1년 뒤에는 25만 6,0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탄약위기가 촉발된 1916년 이후에는 다시 52만여 명으로 확대되었다.⁴⁶⁾ 마침내 전쟁이 절정에 이를 무렵인 1918년 7월에 가서는 여성 731만여 명이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중 탄약생산 공장에서 일하는 여성은 94만 7천여 명으로 이는 전체 탄약생산 노동자들의 90%에 해당하는 숫자일 정도로 탄약생산에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은 막중하였다.⁴⁷⁾ 또한 많은 여성들은 제복을 입고 정비사나 운전수 등으로 일을 하였으며, 여군도 창설돼 왕립해군이나 공군 같은 부대에서 주어진 일을 했다.

영국에게 전비조달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 영국은 당시 금본위제도를 택하고 있었다. 영국은행은 전쟁선포가 은행의 인출상황으로 확대될까 두려워 화폐와 은행 관련 법령을 통과시키는데 필요한 3일간 은행을 폐업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금을 준비함이 없이 30억 파운드의 은행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14년 11월에 처음으로 1923~1925년 상환을 조건으로 연이율 3.5%의 전시채권이 35억 파운드의 가치를 갖는 전시채권을 액면가 5% 할인하여 33.25억 파운드 발행하였다. 이어서 1915년 6월에는 90.1억 파운드의 전시채권이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전쟁기간 중 영국정부는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전시채권을 발행하였다.⁴⁸⁾

미국은 1915년 당시에는 아직 중립국이었지만 심정적으로는 연합국으로 영국에 재정적·물질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비조달이 어려워지자 영국은 당시 미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모건(J. P. Morgan) 은행을 영국의 대항은행으로 지정하고 이 은행을 통해서 전쟁에

46)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178쪽.

47) 위의 책, 321쪽.

48) http://en.wikipedia.org/wiki/war_bonds(검색일: 2013.6.17)

필요한 탄약이나 물자를 구입하였다. 이 은행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영국에게 필요한 신용거래도 하게 만들어 주었다. 1916년 가을에는 영국의 대금 지불능력이 부족하여 미국으로부터 물자유입이 거절되자 12월 영국 정부는 보유하고 있었던 금과 유가증권을 미국에 양도함으로써 해결하기도 했다.⁴⁹⁾

이렇게 영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쟁기간 중 지원을 받거나 빌린 돈은 총 68.75억 달러(1915: 9.12, 1916: 18.87, 1917: 20.08, 1918: 20.6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⁰⁾

1916년 9월, 이 무렵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대포나 탄약, 금속, 유류 및 식량, 기계 등을 수입하느라고 전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었던 한동안은 매월 2억 달러를 지불하면서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케인즈는 이를 두고 “전비조달을 위해 재무성은 매일 500만 파운드화를 구해야 하고 그중에 200만 파운드화는 미국에서 구하고 있다.”고 하였는데⁵¹⁾, 영국 재무성과 잉글랜드 은행은 영국 증권을 미국의 모건은행으로 보내 달러로 바꿔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다음은 영국의 식량부족에 관한 문제이다. 독일이 식량이 부족하여 결과적으로는 전쟁의 중요한 패배요인을 제공하였지만 영국은 이를 극복하였다. 섬나라인 영국도 전쟁기간 중 내내 예외는 아니어서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특히 영국은 당시만 해도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생산된 물자를 해외에 판매하고 식량을 수입해서 먹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고 수입이 차단되면서 식량부족은 심하였다.

1915년 2월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인해 그해 4월에만 86만 6,000여 톤의 선박이 격침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확대되기 시작

49) Elisabeth Glaser, “Better Late than Never”, *Great War, Total War*,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p.392; L. L. Farrar, Jr., “The Strategy of the Central Powers, 1914~1917”(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62.

50) Elisabeth Glaser, op. cit., p.391.

51) Kathleen Burk, *The Mobilization of Anglo-American Finance during World War I*(Ontario: Wilfried Laurier University Press, 1981), pp.30~31.

하여 많은 상선이 침몰되었다.⁵²⁾ 이로 인하여 주곡인 밀의 자급률이 2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식량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쟁빵(War Bread)이라는 새로운 용어도 등장하였다.

이 당시 식량분배가 무계획적으로 이뤄지면서 가격이 폭등하여 극빈층이 기본적인 식량문제마저 해결하기 힘들게 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밀가루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단위중량당 밀가루 추출량을 늘려 회색빵을 만들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였다.⁵³⁾

1917년 4월, 당시 영국에는 식량은 6주분, 석유는 8주분에 해당되는 비축량만 있어서 독일군의 무제한 잠수함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영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지 예측할 수 없었다.⁵⁴⁾

따라서 영국은 국내에서 식량생산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식량생산성(Ministry of Food)’을 설치하고 전국의 정원이나 운동장, 철도와 도로변 등 곳곳에서 가용한 곳을 최대한 개발하여 300만 에이커의 농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여성들도 농작물 생산에 투입하여 활용하였으며⁵⁵⁾, 정부가 나서서 식량의 유통과 가격을 강력하게 통제하였지만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1918년 식량배급제도를 실시하였다.⁵⁶⁾ 시민들은

52) 독일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침몰된 상선은 1914년에 100척(31만여 톤)이었으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시작된 1914년 이후에는 급증하기 시작하여 그해에만 516척(130만여 톤), 1916년에 1,157척(234만여 톤), 1917년에 2,676척(623만여 톤), 1918년에 1,209척(266만여 톤) 등 총 5,658척(1,286만여 톤)에 달하였다. 이 기간 중 독일군 U보트는 1914년 5척, 1915년 19척, 1916년 22척, 1917년에 64척, 1918년에 68척 등 총 178척이 활동하였다(폴 그레이브 맥밀런, 『지도로 보는 제1차 세계대전, p.146).

53)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642쪽.

54) 육군대학, 『세계전쟁사(상)』, 대전: 육군인쇄창, 2004, 4-76쪽.

55) 이와 같은 현상은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에서도 있었다. 스위스가 독일군에 의해 국경이 차단되면서 식량수입이 막혀 국내의 식량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자 취리히 대학의 발렌(F. T. Wahlen) 박사가 입안한 “발렌 계획(Wahlen Plan)”에 따라 전국의 정원이나 운동장, 알프스의 산지와 습지 등의 삼림과 물을 제거하여 농지로 개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 적이 있다.(Howard, Constance, “Switzerland, 1939~1946”, *The War and The Neutral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218)

56) 피터 심킨스·제프리 주크스, 앞의 책, 322~324쪽. 영국은 자유무역을 중시하면서 식량을 수입해 먹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1846년 곡물법을 폐지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독일군의 잠수함 전으로 많은 선박이 손실되면서 식량수급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수많은 선박들이 대서양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일정량의 쿠폰을 받아서 정해진 양의 식품을 받으면서 쿠폰을 제출해야만 하였으며, 식품을 배급받기 위해서는 긴 줄을 서야만 하였다.

영국에서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산업현장에서 파업이 발생하였고 염전사상이 확산되기도 하였지만 독일에 비하면 그 정도는 매우 약하였다. 식량배급량이 1주일에 설탕 1파운드, 고기 1파운드, 마가린은 몇 온스 등으로 줄어들었지만 이는 다른 동맹국들에 비하면 그래도 사정은 좋은 편이었다.⁵⁷⁾

전쟁을 하면서 전쟁지속능력을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예비전력의 동원과 함께 무기 및 탄약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금속, 특히 철강을 얼마나 많이 생산하는가의 문제로, 당시 영국은 독일의 1/2에도 못미치게 철강을 생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철강생산량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당면 문제였다. 당시 탄약장관직을 맡고 있었던 처칠(Winston Churchill)은 “이 전쟁은 철강전쟁이다. 전쟁의 승패는 철강의 생산량에 달려 있다.”는 말로 철강생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 국민은 철강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가정에서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금속들을 수거해서 공장으로 보냈으며, 유명한 런던의 하이드 파크 공원의 철제난간도 수거됐다. 이렇게 획득한 철강이 화포와 탄약을 만들거나 전함을 건조하는데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아무리 전쟁기간이라고 해도 국가는 국민의 의지를 결집시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삶을 보장하면서 전쟁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을 해야 함을 영국의 사례는 보여준다.

이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영국은 지금은 식량 자급률이 100%를 넘어 일부 품목은 수출까지 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25~26%에 불과한 우리로서는 깊이 새겨두어야 할 일이다.

57) 위의 책, 646~647쪽.

4. ‘국민의 의지’가 전쟁의 결과에 미친 영향

1) 독일의 경우

전쟁초기단계에 독일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황제나 국민들 모두 목전에 승리를 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었다.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던 전쟁이 서부전선에서 참호전과 교착전으로 진행되고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가면서 독일은 예비전력이나 식량과 석유같은 전략자원에서의 전쟁지속능력 문제에 결정적인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해소하고자 힌덴부르크계획으로 가용한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무기와 탄약을 배로 생산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투입하였지만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국가자원의 사용이 왜곡되고 농업부분이 소홀히 돼 곡물생산이 급감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굶주리고 기아자가 발생되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기 시작하였고 도처에서 파업도 발생하였다.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혁명적인 양상으로 발전해 갔다. 해군들도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되자 정부각료들은 황제를 퇴위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결국 황제는 네덜란드로 망명하면서 전쟁이 끝난 것이다.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해군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육군은 프랑스 영토 내에서 전투를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내에서 상황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항복한 것이다. 등 뒤에서 칼을 맞은 독일군이 전쟁을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전쟁초기단계의 독일국민의 전승에 대한 의지는 강했다. 그러나 전쟁이 진행되면서 정부의 부적절한 국민생활 안정대책으로 국민들의 삶은 악화돼 갔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도 악화됐고, 결국 독일은 패배한 것이다.

2) 영국의 경우

전쟁초기단계 영국은 독일과는 달리 전쟁에 대한 승리를 위한 노력이 결여돼 있었다. 영국이 독일군의 공격에 직접 노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안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병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징병제도 도입을 의회가 거부하였는가 하면, 국민들도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여 병력을 충원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무기와 탄약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도 미흡하였다.

독일군이 벨기에를 공격하자 영국은 프랑스에 부대를 파병하도록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규모의 원정군 부대를 파견하였다. 그들은 당시 잘 훈련된 부대로 이름난 부대였으며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동안 탄약의 부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기면서 전투를 해야만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16년도 로이드 조지(이어서 처칠)가 탄약성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기계장비를 도입하고 탄약생산량을 확대하면서 해결되었다. 이렇게 탄약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탄약공장으로 동원돼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독일해군의 잠수함 작전으로 수많은 상선들이 대서양으로 사라지면서 영국도 심각한 식량위기에 직면하였다. 이에 영국은 정부가 나서서 가용한 토지를 개간해서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강력한 유통통제와 배급제를 실시하였다. 전비를 조달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국민들도 동참하였다.

영국은 독일처럼 전쟁초기 단계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의지가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독일 국민이 전쟁에 지쳐서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동안 그들은 수많은 동원과 식량의 부족 등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오히려 승리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켜 나갔으며, 마침내 승리를 한 것이다.

3) 분석 및 교훈

전쟁에서 승리는 어떤 한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되지는 않는다. 국가(군사)지도자의 전쟁지도와 군사력과 경제력 같은 유형적 요소의 우위, 정치와 외교력 등의 무형적 요소 등이 어우러졌을 때 가능한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협상국의 영국과 동맹국 독일의 전쟁에서 협상국인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국민의 의지’ 관점에서만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승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전쟁에 임하였던 국민들의 자세이다. 전쟁초기단계에는 독일 국민의 전쟁에 참여하는 정신이 우월하였다. 그들은 독일군이 전선으로 출병하는 것을 환송하면서 승리가 독일의 목전에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였다. 그러나 서부전선에서 전투가 교착되고 장기전으로 가면서 독일 국민들의 생활, 특히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의는 상실되고 어서 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하였다. 파업이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혁명의 분위기가 저 발생하다가 해군에서의 반란이 전쟁을 결정적으로 기울게 만들었다.

반면에 영국에서는 전쟁초기단계에 병력의 모병제로 병력의 충원이 안 돼 징병제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였으나 의회의 반대로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력을 모집하여 프랑스 전선으로 보냈으며, 여성들도 수많은 인원들이 동원돼 무기와 탄약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였다. 이와 같이 전쟁에 임하는 국민들의 자세에는 차이가 있었다.

두 번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국민들의 지원활동이다. 전쟁기간 중 영국이나 독일 모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또는 각종의 군수 및 방위산업 시설 등을 운영 및 유지하기 위해서 동원되었다. 영국에서는 특히 탄약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필요한 인력의 90%가 여성일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방위산업 시설에서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전비를 조달하고자 정부가 발행하였던 전시채권을 구입해서 전비를 조달하는 역할도 하였다. 그러나 영국이 주로 국민들이 전시채권을 구입하였다면 독일에서는 주로 기업이나 은행같은 곳에서 구입하였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직접 구입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전쟁에 참여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고, 국민들이 직접 전쟁의 주체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 번째, 국민생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이다. 전쟁기간 중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관련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상황은 이를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전쟁초기단계에는 양국이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커다란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장기화되면서 영국은 독일군의 잠수함 공격으로 수많은 상선들이 침몰되면서 식량의 부족에 시달렸다. 영국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유통의 통제와 더불어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였다. 독일도 영국의 해상봉쇄로 무역이 중단되면서 식량문제가 커다란 문제로 대두됐다. 그렇지만 독일에서는 식량이 부족해지자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점증하면서 마침내 파업과 폭동이 일어나고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점차 혁명양상으로 번져나갔다. 이런 가운데 해군의 폭동마저 발생하면서 전세는 결정적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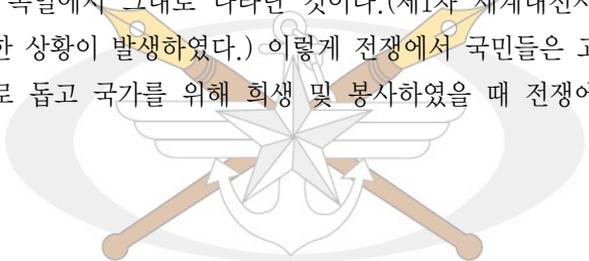
양국이 모두 비슷하게 식량의 부족현상이 발생하였지만 영국은 정부가 이 상황을 주도하여 해결해 나갔다면 독일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양성됐고 마침내는 정권의 퇴진까지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결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민들의 자세이다. 전쟁은 피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고통을 준다. 이러한 고통을 어느 국민이 이겨내면서 전쟁에 참여하는가에 따라 전쟁의 결과는 달라진다. 북한이 대규모의 재래식 전력과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와 고통이 발생할 것이다. 그럼에도 승리를 위한 우리들의 정신적 자세는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대한 적극적 호응이다. 전쟁기간 중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병력동원의 의무로부터

다양한 각종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흔히 있는 일이다. 전비조달을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전시채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부담되는 다양한 의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한편 평소 국민으로 누리는 권리를 유보하는 것은 승리를 위한 국민 의지의 표현이다.

세 번째는 전시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이다. 전쟁사에서 나타난 양상을 보면 전쟁기간 중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을 때 국민들도 극한의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끝까지 싸웠다. 여기서 국민들의 생활안정의 핵심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이었다. 그렇지 못하여 굶주릴 때 국민들은 정부에 대항하였고 그러한 대항이 이념과 결합되었을 때 정권은 망하였다. 그러한 사례가 독일에서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제1차 세계대전시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렇게 전쟁에서 국민들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로 돕고 국가를 위해 희생 및 봉사하였을 때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5. 결 론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당사국이었던 영국과 독일만을 놓고 보았을 때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상대적인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해군력에서는 영국이 앞섰으나 전체적인 국력에서는 비슷하거나 일부에서는 독일이 앞서고 있었다. 단순히 수치 비교만으로는 영국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영국이 승리하였다.

영국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어느 것 하나로 딱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미국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전쟁

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영국 국민들의 의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영국의 남성들은 영국이 아닌 프랑스 전선에 원정군부대의 전투원으로 참전하여 전투를 하였으며, 수많은 여성들은 무기 및 탄약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영국군이 당면하는 탄약 부족량을 생산해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일군의 폭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도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면서 연합국 주력이 되어 프랑스를 지원하였다. 부족한 식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배급제는 기본이었고, 전국의 이용 가능한 모든 곳을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해서 곡물 생산량을 늘렸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전쟁초기의 승리에 대한 희망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라지고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발생되기 시작하다가 식량의 부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면서 파업과 반정부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면서 독일이 패망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원인이 되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수많은 인명의 손실과 재산상의 피해가 동반될 것이다. 어떤 경우로든 전쟁의 발발을 억제해야만 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때 우리 국민들의 의지는 영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전쟁의 결과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국가지도자는 국민들의 항전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되도록 전쟁지도를 해야 한다. 여야정치권도 국민들의 의지가 한곳으로 결집될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국민들의 의지가 한곳으로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며, 특히 식량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평시 일정량의 비축, 전시 긴급도입, 필요에 따라 배급제 시행, 전시 농작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대책, 사재기의 강력한 통제 등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쟁기간 소요될 전비규모를 판단하여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연구해

두어야 한다. 조세율은 얼마나 올릴 것인지, 어떤 명목으로 세금항목을 신설할 것인지, 전시채권을 발행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각종의 연기금이나 외환보유액을 전비로 사용할 것인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검토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전쟁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투원이나 비전투원으로 동원되게 마련이다. 정부는 국민적 총동원에 따른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소수의 권력층이나 부유층의 해외 도피와 같은 일탈은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여 국민의 의지를 굳건히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단결을 저해케 만드는 행동이 된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단속도 국민의 의지 고양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조치들이 시행돼서 전쟁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국민들의 삶이 보장되어야만 그들은 승리를 위해 싸울 것이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국민의지, 전쟁, 영국, 독일, 동원, 총력전, 전비, 조세부담, 식량, 국민생활

<ABSTRACT>

How the Will of Citizens Influenced the Result of War:
Based on the cases from Great Britain and Germany
During the World War One

Lee, Gi-deuk

In the modernized warfare, all the forces are being integrated to win the war. victories in any war can no longer be achieved merely by a variable or two. There are certain types of variables that are defined as archetypical tangible elements such as the national leader's war leadership, military power, economic power, reserve forces, and mobilization capabilities, etc. In addition to those tangible elements, there are intangible elements -- such as politics, science, technology, and social cultures -- these are also considered as the vital variables that would determine victory in war. Another factor that would determine the result of war i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he "will of the people", which is another type of intangible element.

War causes significant damages to the people directly involved in it, and the damages are catastrophic. For instance, many people will nearly starve to death, and vast majority of people will lose their shelters because their houses will be destroyed. Moreover, heating system will fail to keep people warm. While there will be numerous displaced civilians, blackouts and lack of water supply will cause a great difficulties to the peo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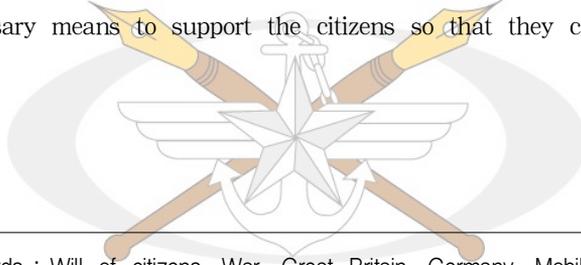
The government will increase taxes, and issue war bonds to provide funding during the war. Many men will be conscripted to fight the war, and women, on the other hand, will be sent off to the factories to manufacture weapons and ammunition.

In the mix of helter-skelter, some nation have overcame its suffering

and achieved victory. While other nations could not overcome the suffering from war, and thus conducted anti-government activities that led to losing the war.

If war breaks out i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o doubt that the war will cause national calamities. Whatever the cause, the war must be avoided. It is vital to achieve victory if war breaks out. In order to achieve such a task, the citizens will have no choice but to serve in the military with various military tasks assigned to them, while they limit the citizen's right. Hence, throughout this process of fighting the war, the result of war will be significantly determined by the will of Korean people.

As a conclusion, it is exigent to argue that the citizens must show their determination to win victory in war, and the government must use any necessary means to support the citizens so that they can fight for victory.



Key Words : Will of citizens, War, Great Britain, Germany, Mobilization, A total war, War funds, Burden of taxation, Ration, Citizen's life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의 침공을 억제한 스위스 방위전략의 특징과 교훈*

김 용 빈**

1. 서 론
2.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3.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 방위전략
4. 독일군 침공 억제의 실효성
5. 결론 : 한국에 주는 교훈

1. 서 론

중부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스위스는 북쪽은 독일, 서쪽은 프랑스, 남쪽은 이탈리아, 동쪽은 오스트리아 및 리히텐슈타인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면적은 41,293km²로 한국(9.9만 km²)의 42%에 해당되는 작은 내륙 국가로 국토의 약 60%가 산지이다. 2011년 인구는 764만여 명으로 독일계 65%, 프랑스계 18%, 이탈리아계 10%, 기타민족으로 구성

* 이 연구는 201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해병대군사학과 부교수

되어 있다. 언어도 독일어 63.7%, 프랑스어 20.4%, 이탈리아어 6.5%, 그 외 로망슈어가 있다. 종교는 가톨릭 41.8%, 개신교 35.3%, 이슬람교 4.3% 등이다.¹⁾

이러한 환경의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영세중립국(Permanent Neutral State) 정책을 구사하여 주변국으로부터 침공을 억제하였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 당시 교전당사국인 독일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침공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이를 억제하면서 스위스연방의 독립을 보존하였는데, 이는 단지 중립국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에 부족하다. 국제사회가 스위스를 포함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등 여러 국가들을 중립국이라고 인정하였어도 전시 같은 개념으로 중립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의 유명한 종군기자였던 쉬러(William L. Shirer)는 “네덜란드군은 독일군의 쉬운 먹이가 될 정도로 약하다. 그러나 스위스는 부수기 어려운 호두같은 상태이지만, 독일군은 침공을 시도할 것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²⁾라고 하여 중립국 스위스가 침공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독일, 때로는 이탈리아까지 눈앞에 가시같은 스위스를 침공하기 위해 수차례 공격계획을 수립하면서 은연중에 정보를 흘려보냈다. 이러한 움직임을 인지했던 스위스는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지를 천명하며 억제전략(Deterrence Strategy)을 구사하여 독일군이 스스로 침공을 포기하게 만들었다.³⁾ 그것은 스위스가 병력이 많고 자원이 충분해서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위스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비하여 인구는 물론 상비군사력도 대단히

1) 외교통상부, 『2011 세계각국편람』, 서울: 마스타 상사, 2011, 374쪽.

2) Stephen H. Halbrook, *Target Switzerland: Swiss Armed Neutrality in World War II*(MA: Da Capo Press, 2003), p.vii.

3) 히틀러의 침공야욕을 꺾은 스위스의 전략을 안성호는 ‘고슴도치 국방’으로 표현하고 있다.(안성호, 「읍·면·동 풀뿌리자치와 향방전력 강화방안: 스위스의 2차대전 ‘고슴도치 국방’의 교훈」,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24권 제1호(통권 77호), 2012, 50~54쪽.

작은 국가이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군대인 민병군(Militia)제도를 갖고 있고, 외부세력이 침공하면 그들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승리하였던 전통이 있으며, 주변국들은 이러한 스위스를 쉽지 않은 상대로 간주하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알프스(Alps)산이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 야포진지가 위장상태로 구축되어 있고, 정상에는 위장된 방공진지와 병력이 배치될 진지도 있으며, 지하에는 탄약고와 정비공장, 민방위시설 등이 있다. 고속도로변에는 콘크리트로 설치된 대전차 장애물도 있다. 동원된 민병군은 전차는 물론 헬기와 전투기도 조종한다.⁴⁾ 정부가 승인한 가정에는 개인화기와 실탄이 합법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사격은 전 국민의 스포츠라고 할 정도로 대중적이며, 수많은 사격클럽이 전국에 있어 주말에는 사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영세중립국임에도 항시 전쟁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며 교전국으로부터 침공을 억제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인 것이다. 그러나 영세중립국 스위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문화, 관광분야와 동원 및 예비군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던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사례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전쟁에 대비하는 교훈을 도출하고 우리의 방위전략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4) Diesbach, Roger de. *L'Esercito(Army): É una Creazione Delle Edizione Mondo*(Bern: Buri Druck SA, 1988). 이 책자는 이탈리아어로 작성돼 있으며, 스위스 민병군의 훈련과 동원, 전투준비관련 내용을 기사와 사진 등 다수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음.

2. 스위스의 무장중립과 방위체제

1) 스위스의 중립국 기원과 발전

국제법에 의하면 교전국이 중립국을 침공해서도 안 되지만 중립국도 교전국에 유리하게 병력과 장비를 통과시켜서는 안 되고, 어느 교전국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반 활동도 제한하고 있다.⁵⁾ 중립국은 조약에 의하여 자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구히 다른 국가의 전쟁에 참가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타 국가에 의하여 자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이 보장된다.

이탈리아의 피초니(Camille Piccioni)는 중립을 “전시에 다른 국가들과의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의 상태”라고 하고 있고⁶⁾, 『전쟁의 연구(A Study of War)』의 저자인 라이트(Quincy Wright) 교수는 “전쟁이 발발하면 이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 택하는 특별한 정책”⁷⁾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국이 중립국으로 선언하고 국제사회가 특정한 조약으로 중립국임을 인정해도 자위를 위한 국방력을 갖추지 못하면 강대국의 이익 판단 결과에 따라 희생양이 될 수 있다. 1940년 4월 독일군이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였으며, 5월에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침공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특히 제1·2차 세계대전에서 두 번씩이나 독일군에게 침공당한 경험이 있는 벨기에는 힘없는 중립이 국가의 독립을 보장해주지 못

5) Dietrich Schinder,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War on Land*, “Convention Respecting the Right and Duties of Neutral Powers and Persons in Case of War on Land”, *The Laws of Armed Conflict*(Dordrecht: Martinus Nijhoff, 1988), pp.942~944.

6) Jean F. Freymond, “Neutrality and Security Policy as Components of the Swiss Model”,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p.177~178.

7)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3), pp.135~136.

한다는 인식하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창설시 가입하였으며, 수도 브뤼셀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다.

스위스가 중립국을 선택한 이유는 경제적 요인과 지정학적 환경, 열강들의 국제정치 논리 등 종합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토가 작고 대부분이 산악과 호수 등 농경지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여 역사적으로 식량부족에 시달렸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중세 유럽의 각 지역에 많은 용병(傭兵, Mercenary)을 파견하였다. 지정학적인 환경은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열강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 또한 국가구성도 민족은 독일계, 프랑스계 및 이탈리아계로 다양하고, 종교 역시 이슬람, 구교(Catholic)와 신교(Protestant) 등 다양하게 구성된 국가이다. 이러한 종교와 민족구성은 발칸반도의 유고연방 사태가 보여주듯 어떠한 원인만 주어지면 언제라도 내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중립제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여건과 종교, 언어 및 민족의 다양성을 극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었다.

스위스의 중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1515년 이탈리아의 마리냐노(Marignano) 전투에서 프랑스군에게 대패한 후 프랑스와 영구적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립을 채택하면서 그 기원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이후 1798년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침공하여 15년간 통치하였다. 당시 나폴레옹은 “나의 앞에 스위스 중립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나폴레옹 자신이 스위스의 중립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스위스도 외세가 침공하였을 시 신뢰할 만한 자체 방위력이 없는 상태에서 중립이란 오로지 이웃하는 강대국의 자비와 인정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⁹⁾

8) Christian Muhlethaler, *Switzerland and its Tradition of Promoting Peace*, *Journal of Islands Studies*, Vol.IV. 2001, p.11.

9) Kurt R. Spillmann, “Swiss Security Policy in a Changing Environments”,

1815년 나폴레옹 패배이후 유럽질서를 재편하기 위해 개최된 비엔나 회의에서 영국, 프로이센,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등은 스위스를 영세중립국으로 합의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인정하였다.¹⁰⁾ 이것은 스위스가 중립국이 되기를 원하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당시 유럽 열강들의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을 추구하는 국제정치논리가 영향을 미친 결과이기도 하다.¹¹⁾

1848년에 제정된 연방헌법은 스위스가 중립국임을 명시하였으며, 이후부터 연방헌법은 19~20세기 유럽에서 발생하였던 전쟁에서 스위스가 중립국으로서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렇게 중립국이 되었지만 스위스가 원하는 형태는 인접국이 ‘중립국 스위스’를 존중해서 침공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소극적 중립국이 아니라 이른바 ‘무장중립국(Armed Neutrality)’이다. ‘무장(Armed)’의 의미는 동원준비태세와 강력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대를 편성하고 장비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스위스의 4대 방위체제

스위스는 중립국이지만 총력방위 개념아래 민병군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군사방위 외에 민방위, 경제방위, 정신방위의 4대 방위를 기본으로 한다.¹²⁾

첫째 군사방위는 민병군(Militia)이 주축이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직전 미국의 윈게이트(George Wingate) 장군은 “스위스에는 정규군이 없고,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208.

10) Kate Morris and Timothy J. White, *Neutrality and the European Union: The Case of Switzerland*, *Journal of Law and Conflict Resolution*, Vol.3(7), September 2011, p.108.

11) Freymond, *op. cit.*, p.180.

12) 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세계동원의 역사』, 서울: 전광인쇄정보, 2004, 833쪽; 육군본부, 『서독, 스위스, 스웨덴, 네덜란드 동원제도』, 서울: 육군인쇄공창, 1986, 77~78쪽.

국방은 동원된 민병군이 주축이 된다. … 인구는 420만여 명에 불과하지만 전국의 3,656개 사격협회와 21.8만여 명의 회원은 매년 2,100만여 발의 실탄을 사격한다.”¹³⁾라고 하였다. 연방헌법은 직업군대의 보유를 금지하며 원칙적으로 민병군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민병제도를 발전시키게 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1291년 최초로 스위스가 연방을 시작하였을 당시 식량이 부족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1420~1700년 기간 약 200만여 명의 용병이 유럽각지에 파견되었다.¹⁴⁾ 모든 남성은 병역의무를 지며¹⁵⁾,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법에 의해 다른 의무를 부과한다.¹⁶⁾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병역을 수행할 수 있다. 스위스는 현재 합동군 25,620명이 공군부대와 국경경비 등으로 보직되어 있고, 전시에는 민병군 17.1만여 명이 국가방위 임무를 수행한다.¹⁷⁾ 평시 합동군 중 3,700여 명은 현역으로 알프스요새지 경계와 초계비행대대 조종사, 훈련교관, 국방성 참모부에서 근무하고, 21,900여 명은 방공대와 훈련병이다. 민병군의 주축은 예비군으로 171,000여 명이며, 동원 시는 합동군을 포함해서 19.7만여 명으로 완전 편성된다. 지상군(육군)은 122,000여 명으로 평시 현역은 없다. 공군은 대공 및 기지방호부대 포함 26,000여 명의 민병군으로 편성되며, 그 외

13) Halbrook, *op. cit.*, p.18.

14) Marko Milivojevic, “The Swiss Armed Forces”,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14.

15) 2011년 한국을 방문한 스위스 국방장관은 “사병의 경우 직장에서 일하면서 만 34세까지 군복무를 하는데 21주의 입소 기본훈련을 마친 후 매년 3주간 새벽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동원훈련을 받고, 매주 1~2회는 야간전투훈련을 하며, 사격명중률 목표를 달성해야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효율적인 군사훈련과 유사시를 위해 200만여 명의 실전용 총을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 스위스군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였다.(chosun.com, 2011.7.26)

16) 개인적, 종교적 사유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사를 통하여 민간공익사업에 투입하는 공익근무제도를 운용한다. 이들은 난민보호, 청소년 선도, 민방위업무 지원, 자연재해 복구지원, 해외파견근무 등을 수행한다.(국무총리 비상기획위원회, 앞의 책, p.834)

17) IISS(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1*(London: Arundel House. 2011), p.150.

군수·지원조직 23,300여 명이 있다.¹⁸⁾ 민병군 장비는 비록 수량은 많지 않으나 신예장비로 다음과 같다.

〈표-1〉 스위스군의 주요 전투장비

구분	전차	장갑차	포병화기	미사일	항공기	헬기
수량	344	446	498	110	158	59
비고	Leopard II	Eagle II	자주:200	TOW	전투기 54 지상공격기 33	

출처: IISS, *The 2011 Military Balance*, pp.150~151.

민병군에 대하여 1927~1937년간 주 스위스 대사를 지냈던 미국인 윌슨(Hugh Wilson)은 “스위스 국민들은 가정에 군복과 총을 갖고 있으며 즉시 동원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들은 일요일 외국인들이 골프나 낚시로 휴식하는 동안, 많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특등사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연습하면서 보낸다.”고 하였다.¹⁹⁾ 정부는 사격 시 염가로 실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20만여 명이 주말 사격대회에 참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회가 열리기도 한다.²⁰⁾

스위스에서는 냉전종식 이후 한때 일부 조직들이 군대폐지를 주장하였었지만 수차례의 찬반논의와 국민투표 끝에 다수 국민들의 반대로 폐기되었다.²¹⁾ 여전히 국민들 다수가 무장중립을 선호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움직임과 (구)소련 해체 등 전략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스위스군은 2004년부터 ‘Army XXI’이라는 군 개혁으로 부대와 민병군의 규모를 조정하면서²²⁾ 21세기의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다.

18) *ibid.*, pp.150~151.

19) Halbrook, *op. cit.*, p.27.

20) http://en.wikipedia.org/wiki/Gun-Politics_in_Switzerland(검색일: 2012.7.4)

21) http://en.wikipedia.org/Group_for_a_Switzerland_without_Army(검색일: 2012.7.19). ‘군 없는 스위스를 만들기 위한 그룹’은 1982년에 조직되어 스위스에서 군대를 폐지하기 위한 국민투표 제안과 무기획득 반대, 파병금지 등 다양한 활동을 수차례 하였다. 그러한 활동 결과 1989년 국민투표에서 35.6%(105만 명)의 투표자가 이에 찬성하였지만 부결되었다.

22) http://en.wikipedia.org/Military_of_Switzerland(검색일: 2012.7.20)

둘째, 민방위(Civil Defence)의 중요성이다. 민방위는 1950년대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는 핵을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을 위하여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은 냉전시대로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대립되어 시민보호 대책으로 시작된 것이다.²³⁾ 민방위를 위하여 정부는 3가지 의무사항을 규정하였다.²⁴⁾

첫 번째는 민방위 시설설치로, 주택이나 건물을 대규모로 신축하거나 재건축할 시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두 번째는 26개주²⁵⁾에 있는 3,000여 개의 지역사회가 민방위조직을 갖추고 장비를 준비하며 훈련을 통하여 재해와 재난, 재래식이나 핵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구호와 구조, 치료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세 번째는 민방위대 편성으로 20~60세의 남성 가운데 병역의무가 없으면 의무적으로 편성된다.

2011년 한국을 방문한 국방장관은 “스위스에 있는 모든 주택과 빌딩 가운데 95%는 지하 방공호가 설치되어 있고, 핵 공격과 핵 오염에 수개월간 버틸 수 있는 축구장 크기의 지하 방공호가 3만 5,000개가 넘는다. 전국에 공공 대피소도 27만여 개가 있다”고 하였다.²⁶⁾ 이렇게 준비된 대피시설은 전 국민의 114%를 수용할 수 있으며, 지하에 병원은 물론 지휘시설들도 있다.²⁷⁾

셋째, 유사시 전시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방위(Economic Defence)의 준비와 역량 강화이다. 내륙·산악국가인 스위스는 평시 식량의 자급자족이 곤란하여 수입에 많은 의존을 하며 석탄과 석유 등 부존자원도 부족하다.

23) Hans Mumenthaler, “Civil Defence: Means for Disaster Relief”, *Swiss Neutrality and Security: Armed Forces, National Defence and Foreign Policy*(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p.49.

24) *ibid.*, pp.52~54.

25) 스위스는 26개주(Kanton)가 있고 그중 6개는 반주(Halbkanton)이다. 반주는 원래 하나의 주에서 역사적 이유 등으로 분리된 주를 말한다.

26) chosun.com(2011.7.27일자) “스위스 힘의 비결은 중립과 국방력”(검색일: 2012.7.11)

27) http://en.wikipedia.org/wiki/Military_of_Switzerland(검색일: 2012.6.20)

1930년대 당시 자원과 식량의 수입은 매년 750만 톤에 달하였으며, 그 중 120만 톤은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할 정도로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²⁸⁾ 이런 취약점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2년 전인 1937년부터 경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제반 준비를 시작하였다.

1938년 1월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수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하였으며, 전시 긴요한 품목이면서 국가와 국민경제에 필요한 특정한 물품들은 회사가 수입해서 6개월분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⁹⁾ 이는 전시 경제붕쇄, 국내정세의 혼란 등에 대비하여 정부와 군, 민간이 일정 기간 동안 수입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비축된 물자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평소보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³⁰⁾ 특히 전시에는 주변상황에 따라 무역이 중단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경제에서 중립이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비상상황에 대비, 정부, 기업, 가정에는 식량과 석유 등 전략물자(戰略物資, Strategic Materials)를 비축하도록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며 유사시 신속히 전시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넷째, 다양한 민족을 단결시키는 정신방위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 중 스위스에는 몇몇의 나치 전위조직들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가장 큰 조직은 나치독일식 복장과 완장을 차고 행동하는 국가전선(National Front)으로, 1939년 약 4만여 명이 활동하였다.³¹⁾ 그중에는 학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나치와 은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선전전파 스파이 활동, 국가 전복활동 등을 촉진시킬 수 있는 온상이 되어, 전쟁이 발발하면 파업을 하거나 국가전복 활동을 하는 친독일 조직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28) Urs Schwarz, *The Eye of the Hurricane: Switzerland in World War Two* (Colorado: Westview Press, 1980), p.67.

29) Costance Howard, "Switzerland 1929~1946", *The War and The Neutral*(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6), p.204.

30) 황재국, 『세계각국의 비축제도』, 서울: 비상기획위원회, 2000, 108쪽.

31) Schwarz, *op. cit.*, p.7.

또한 독일은 전쟁기간 스위스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하여 신문과 방송, 나치 전위조직을 이용하여 다양한 선전전을 하였다. 스위스로서는 이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하였으며, 이를 위해 정신방위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신방위(Spiritual Defence)’는 ‘나치에 대항하여 스위스의 독립과 민주헌법을 지키기 위한, 스위스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졌던 정치적 의지’를 의미한다.³²⁾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살고 있는 스위스로서는 단결과 조화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필요하며 이를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필요하였는데, 정신방위는 이런 환경에서 출발하였다.

국민들의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스위스의 탄생기원과 독립을 보여주는 기념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정신방위를 강조하는 상징물도 설치되어 국민들의 희생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언론가와 역사가, 법률가 등 저명인사들도 스위스의 전통적 가치를 지적하면서 정신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현재도 스위스에서 정신방위는 여전히 국가방위의 중요한 요소이다.

3. 제2차 세계대전시 스위스 방위전략

1)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스위스에 대한 군사위협

1929년 미국 뉴욕시장의 주가폭락을 계기로 시작된 대공황으로 전 세계 경제는 극심한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이를 시작으로 1930년대 공황이 한창일 무렵, 독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베르사유 체제에 대한 불만을 이용하여 1933년 선거에서 히틀러(Adolf Hitler)가 주도하는 나치

32) <http://wikipedia/Swiss History of Military>(검색일: 2012.5.20)

(NAZI)당이 제1당이 되었다.

정권을 잡은 히틀러는 국제연맹 탈퇴(1933.10), 징병제 부활 및 재무장 선언(1935.3) 등으로 서서히 긴장을 조성하였다. 히틀러는 앞으로 “4~5년 동안 국방력 증강을 위하여 온 힘을 쏟겠다.”고 1933년 2월 공약을 한 바 있는데³³⁾, 후속된 조치들이 국방군(Wehrmacht) 전투력으로 나타나면서 베르사유조약의 군비조항 통제로 위축되어 있었던 독일군의 전투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기 시작하였다.

히틀러의 이러한 조치에 영국과 프랑스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히틀러는 이른바 잠식전술(Piece Meal Tactics)을³⁴⁾ 구사하여 오스트리아를 독일과 인종, 언어, 문화가 같다는 이유로 합병(1938.3)하였고,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란트(Sudetenland)에도 300만여 명의 독일인이 거주한다는 이유로 합병(1939.3)하였다. 이는 1938년 9월 28일, 영국 수상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이 독일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독일의 히틀러, 이탈리아의 무솔리니(Benito Mussolini), 프랑스의 달라디에(Edouard Daladier)와 함께 뮌헨에서 4자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체코 영토의 1/3에 해당되는 수데텐란트를 독일에 넘겨주는 대신 히틀러로부터 “앞으로 모든 국제적 분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라는 뮌헨협정(Munich Agreement)에 기인한 결과이다.

1939년 8월 30일, 독일은 폴란드에 침공할 구실을 찾기 위해 13개 조항의 최후통첩을 보냈으며, 9월 1일 전격적으로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폴란드를 점령한 독일군은 1940년 4월, 중립국인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침공하여 점령하였고, 5월에는 전격적으로 프랑스를 침공하면서 마지노선(Maginot Line)을 최고의 방위선으로 자부하였던

33) 이언 커쇼 지음, 이희재 옮김, 『히틀러II: 몰락 1936~1945』, 서울: 교양인, 2010, 22~24쪽.

34) 목표를 일괄적, 급진적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제한된 소규모의 무력이나 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성과를 계속적으로 획득, 누적함으로써 기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 전술(육군사관학교, 『세계전쟁사』, 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7, 270쪽)

프랑스마저도 개전 6주 만에 허무하게 항복하였다.

유럽대륙에서 독일군의 승승장구와는 달리 영국이 처칠 수상의 지도 아래 끝까지 항전하자 독일군의 전선은 영국 본토에 대한 폭격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영국과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도 전에 이를 중단하고 이른바 ‘생활권(Lebensraum)’을 실현하고자 1941년 6월 22일 바바루사 작전(Barbarossa Operation)으로 소련을 공격하였다.

독일군은 소련침공 작전을 단기간에 끝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정벌에서 왜 패배하였는지 그 교훈(冬將軍, 진흙將軍)과 유명한 학자인 조미니(Anthonie H. Jomini)가 말한 바 있는 “러시아는 들어가기는 쉬운 나라이나 나오기는 힘든 나라”라는 지적도 잊은 채 겨울피복은 물론 윤활유, 부동액 같은 동계작전 준비도 소홀히 하였다.³⁵⁾

개전초기 독일군은 동부전선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으나 스탈린그라드 전투(1942. 8~1943. 2)의 패배가 공세 종말점이 되었으며, 히틀러의 예상과는 달리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보급도 제대로 받지 못한 가운데 장병들은 혹한에 노출되어 수많은 병력이 동사 또는 동상으로 전투력을 상실하였고, 장비는 동파되면서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급속한 전력손실을 가져왔다.

연합군이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성공하여 독일을 향해 진격하고, 1943년 8~9월 이탈리아에 상륙한 연합군도 북쪽을 향해서 진격하는 한편, 소련군도 반격으로 나오면서 동·서·남 3방면으로부터 협공을 받아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나치는 선전상 게벨스를 ‘총력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 국민돌격대(Volkssturm)를 창설하고³⁶⁾ 국민전투기(He-162, Salamander)를 제작해서 가미가제(神風)식 자살특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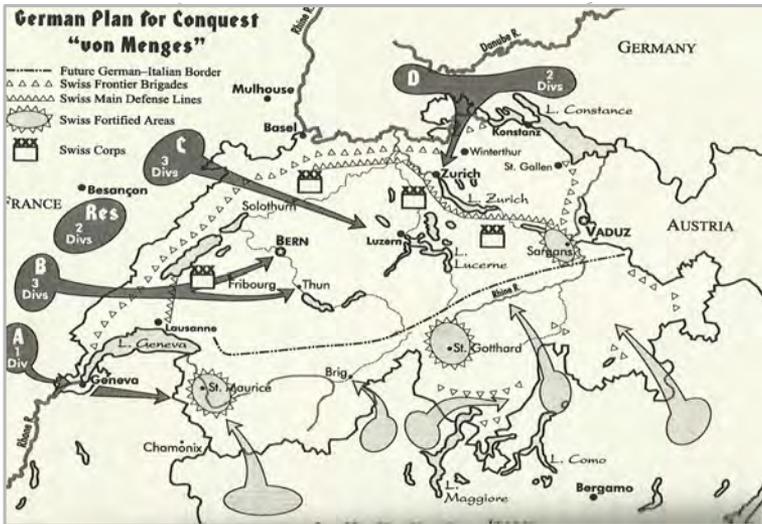
35) Jurgen Foster, From “Blitzkrieg” to “Total Wa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Washington D.C.: Cambridge University, 2010), p.98.

36) 끌로드 다비드 지음, 홍순호 옮김, 『제3제국의 전체주의』, 서울: 학문과 사상사, 1981, 144쪽.

전술을 구사하는 등 총력적 저항을 시도하였다.³⁷⁾ 그러나 연합군이 베를린을 포위·압박하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었던 히틀러가 자살(1945.4.30)하고, 독일이 무조건 항복(1945.5.8)함으로써 유럽지역의 전쟁은 끝났다.

전쟁기간 내내 독일군의 스위스 침공 가능성은 지속되었다. 육군참모총장 할더(Franz Halder) 장군에 의하면 “스위스 침공을 강력히 요구하는 히틀러의 노여움어린 소리를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하였다”고 할 정도로 히틀러는 전쟁기간 내내 스위스 침공계획을 요구하여³⁸⁾ 실제로 수차례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림-1〉 독일군의 스위스 침공계획(멩게스 계획)



첫 번째 침공계획은 1940년 6월 멩게스가 작성한 것으로, 독일군은 스위스 북부와 서부에서, 이탈리아군은 남부에서 스위스를 전격적으로 침공하는 것이었다. 그는 스위스가 6개 보병사단, 3개 산악사단, 3개 산악

37) 존 콘웰, 김형근 옮김. 『히틀러의 과학자들』, 서울: (주)웅진 싱크리, 2008, 472~473쪽.

38)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on-Tannenbaum>(검색일: 2012.7.25)

여단, 1개 국경수비여단과 1개 대대로 방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³⁹⁾ 그러나 이 계획은 시행되지 않았다.

두 번째 침공계획은 '타넨바움 작전(Tannenbaum Operation)'으로, 독일과 프랑스가 휴전한 이후부터 암호명 '타넨바움'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여 1940년 10월 7일 완성된 계획이다.⁴⁰⁾ 이 계획은 독일군 21개 사단과 소수의 이탈리아군 사단이 동원되므로 독일군 참모본부에서 비현실적이라 판단하여 규모를 반으로 줄인 계획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도 실행되지는 않았으며, 그 후에도 몇 가지 계획이 추가적으로 수립되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한편, 독일군의 스위스 영공침입은 개전초기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스위스군은 총 210여 대의 항공기와 300여 명의 조종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개전초 독일군과 프랑스군 전투기들이 프랑스 영공에서 공중전을 벌이면서 가끔 스위스 영공을 침범하였다. 5월에는 113회, 6월에는 84회 영공침범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1940년 12월 바젤과 취리히에, 1941년 9월에는 국경의 작은 부락에, 1943년 5월에는 취리히와 바젤에 연합공군의 폭격이 가해졌다. 독일과 이탈리아를 폭격하러 가는 도중에 오폭을 한 것이다. 이후 스위스 영공침입은 더욱 빈번해졌다. 1944년 4월 1일 50여 대의 미 공군 폭격기가 실수로 독일과 인접해 있는 국경도시인 샤프하우젠市에 420톤의 폭탄을 투하하는 중대한 사태도 발생하였다.⁴¹⁾ 당시 스위스 외무장관은 이 폭격이 '잘 계획된 정밀폭격'이라고 항의하였지만, 연합군은 흐린 날씨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⁴²⁾

이와 같이 독일군의 지상공격은 물론 독일공군과 연합공군의 스위스 영공침입과 스위스 영토에 대한 폭격은 전쟁기간 내내 발생하였다.

39) Halbhook, *op. cit.*, p.133.

40) <http://en.wikipedia.org/wiki/Operation-Tannenbaum>(검색일: 2012.7.25); Schwarz, *op. cit.*, p.61; Halbhook, *op. cit.*, p.136.

41) Denis J. Foder, *The Neutrals*(Virginia: Time Life Books Inc, 1981), p.57;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Swiss_Air_Force. (검색일: 2012.6.30)

42) Howard, *op. cit.*, pp.224~225.

2) 스위스의 대응전략

1933년 히틀러 집권 당시 나치 이론가 중의 한 명이었던 반세(Ewald Banse)는 만약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한다면 북쪽에서는 중립국 네덜란드와 벨기에, 남쪽에서는 스위스를 경유하여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스위스는 쉽게 이길 수 있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하였다.⁴³⁾

이러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스위스는 외교전략과 군사방위 및 경제방위, 정신방위 등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사하였다.

첫 번째 외교전략이다. 스위스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인 8월 31일,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이라고 40개국에 통보하였다.⁴⁴⁾ 이에 대해 영국은 스위스의 중립을 존중하고 유지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들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였다. 베른주재 독일공사도 스위스 외무장관을 방문하여 독일은 스위스의 중립을 보장할 것이라고 하였다.⁴⁵⁾

그러나 스위스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립국 벨기에가 독일군에 침공을 당하였던 기억을 상기하여 인접한 프랑스와 비밀리에 군사교류를 하고 있었다. 스위스군의 고급지휘관과 참모들이 프랑스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하여 고급장교를 만났으며, 군사협정도 맺었던 것이다.

스위스군 당국은 독일군이 공격을 한다면 독일과 프랑스의 중부 국경선지역은 이미 마지노선이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방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남부의 스위스 국경지대와 북부의 벨기에 국경지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프랑스군과의 군사협력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독일군에게 노출되면 스스로 중립국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43) Halbrook, *op. cit.*, pp.23~24.

44) Schwarz, *op. cit.*, p.11.

45) Howard, *op. cit.*, p.208.

있는 중요한 정치·외교적 문제이므로 신중을 기하면서 보안을 유지해야만 하였다.

4월에 프랑스군의 초청으로 스위스군의 공식 대표단이 마지노선을 방문하였다. 스위스군 대표단은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서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군의 전투준비태세가 미흡한데 대하여 우려를 표하였다. 당시 프랑스군은 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고급장교들의 전력증강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차이로 집행하지 못하여 그대로 남다보니 노후화되었고, 훈련수준은 저조하였다. 노동현장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노동자들의 이적행위도 발생하였다. 항공기 제작사에서는 항공기가 이륙할 시 추락하도록 연료공급장치를 고장나게 만들었는가 하면, 막 생산된 전차가 운반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발생되도록 다른 부품을 끼워 넣기도 하였다.⁴⁶⁾

이러한 사항은 영국이나 미국의 대표단들에게도 그대로 관찰이 되었다. ‘가짜 전쟁기간(Phony War)⁴⁷⁾ 동안 프랑스 정부와 군은 미국과 영국의 고위관료는 물론 파리주재 무관까지 마지노선에 초청하여 프랑스의 방위가 굳건함을 보여주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영국군 브룩(Alan Brooke) 장군은 프랑스군의 군기와 사기가 형편없고 긴장감이 해이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⁴⁸⁾ 이러한 프랑스군의 준비태세는 스위스에 경각심을 주어 전쟁이 임박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선언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국경지대의 방위력을 갖추고 민병군을 동원하는 등 대응전략을

46) 알란 세퍼드 지음, 김홍래 옮김, 『프랑스 1940』, 서울: 도서출판 플래닛 미디어, 2006, 39~40쪽.

47) Richard A. Preston & Sydney F. Wise, *MIN IN ARMS*(New York: Prager Publisher, 1970), pp.296~297. 미국의 한 기자가 한 말로, 독일군이 1939년 9월 1일, 폴란드를 침공하자 2~3일 뒤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국이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점령된 그해 9월부터 프랑스를 침공하는 1940년 5월까지 8개월 동안 서로 대치하여 전투는 하지 않고 ‘눈싸움(Eye War)’만 하고 있었던 기간을 말한다.

48) J. E. Kaumann and H. W. Kaufmann, *Fortress France: The Maginot Line and French Defence in World War II*(Connecticut: Prager Security International, 2006), pp.151~152.

구사할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군사방위전략이다.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부터 스위스는 군사적인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었다. 8월 28일 국경경비대원들이 소집되었고 연방의회는 바로 전날 기상(Henri Guisan) 장군을 헌법에 따라 스위스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기상 장군은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현재의 상황을 직시하고 독립이 중립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였다. 독립이 없으면 보호할 중립도 없다고 하면서 스위스의 독립유지에 대한 위협은 독일로부터 올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⁹⁾ 또한 “국민이 군대이고, 군대가 국민이다, 군복을 입으면 사회적인 차이 없이 모두가 동등하며, 가난한자와 부자, 노동자와 고용주, 도시와 농촌의 거주 구분도 없이 모두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만 있다”⁵⁰⁾고 하면서 저항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였으며, 이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1938년 독일군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하는 것을 보면서 경제부장관은 “우리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살도록 하는 사람들은 친구이지만 우리의 독립과 정치적 통합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여 그들의 군은 결의도 보여주었다.⁵¹⁾

1939년 8월 31일,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전날 연방정부는 총동원을 시작하여, 1940년 여름 기상 장군의 통제아래 무려 전 인구 420만여 명 가운데 50만여 명에 가까운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있었다.⁵²⁾ 이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25년 만에 내려진 총동원 명령으로,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36시간 전,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기 41시간 전에 이미 완전 동원한 것이었다.⁵³⁾

49) Peter Calvo-coressi and Guy Wint, *Total War: Cause and Courses of the Second World War*(New York: Penguin Books, 1979), p.248.

50) Halbrook, *op. cit.*, p.61.

51) Edgar Bonjour, *Swiss Neutrality: Its History and Meaning*(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52), pp.119~120.

52) Milivojevic, *op. cit.*, pp.15~16.

53) Foder, *op. cit.*, p.47.

독일군이 프랑스를 공격할 당시, 로마주재 스위스 국방무관은 이탈리아군의 고위직에 있는 친구로부터 독일군 침공 가능성을 경고받았다. 스위스군 정보국은 30여 개의 독일군 사단들이 라인강 북부 독일과 스위스 국경 사이에 집결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강의 북부 언덕에서는 교량건설용 자재들도 관찰되었다.⁵⁴⁾ 이런 움직임으로 스위스군은 독일군이 라인 강을 건너 스위스와 마지노선을 우회하여 프랑스를 공격할 것으로 파악하였다.⁵⁵⁾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43만 5천여 명의 민병군 3개 군단과 기타 부대들이 국경선의 방어진지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기상 장군은 독일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어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북동 및 북서지역에 국경수비대 민병군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였다. 10만여 명의 국경수비대 민병군은 국경선 참호진지에서 대부분의 민병군들이 동원되는 시간까지 독일군 공격속도를 지연시키는 전략도 구상되었으며⁵⁶⁾, 그들은 라인 강의 교량, 독일, 스위스를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통로는 거부를 위하여 폭파할 준비를 하고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⁵⁷⁾ 동시에 독일에서 스위스를 경유하여 이탈리아에 이르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알프스의 3개 통로에 접근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하였다.⁵⁸⁾

연방정부와 군은 전 민병군들에게 독일군의 기습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행동요령도 하달하였으며, 모든 장교와 준사관들은 가까운 부대에 소집되어 소총과 실탄을 휴대하라고 지시하였다. 아울러 36~48세 남자들을 소집해서 6일간 훈련을 하도록 승인하였고, 2개월분의 비상식량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현대화된 포병장비가 부족하여 1882년 이후 사용된 적이 없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장비들을 정비한 후 재배치하였다.⁵⁹⁾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전투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3주간의

54) Schwarz, *op. cit.*, p.26.

55) Foder, *op. cit.*, p.49.

56) *ibid.*, p.30.

57) Schwarz, *op. cit.*, p.3.

58) *ibid.*, p.4.

59) Schwarz, *op. cit.*, p.9.

훈련코스가 만들어지고, 유능한 스키어와 등산전문가들이 교관으로 임명되어 훈련을 지도하였으며, 산악지역 숙영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악천후에서 무기를 조작하는 방법, 산악에서 생존하면서 침투한 적을 격멸하는 전술도 배웠다.⁶⁰⁾

또한 민병군 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후방지역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부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940년 4월 29일, 기상장군은 여분으로 남아 있는 구식총기를 이용하여 민병군 외의 지원자들로 구성된 20만여 명의 지역방위대(Ortswehren)를 창설하였으며⁶¹⁾, 전 지역에서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지역방위대 편성과 동시 정부도 약 2.5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여 철조망 등의 장애물과 기관총 진지, 벙커 등을 구축하였다.⁶²⁾

이러한 모습에 대해 「뉴욕 타임즈」는 “수천~수만의 노년층과 여성, 어린이들이 지역방위를 위하여 총과 40발의 실탄을 휴대하고 배치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며, 당시 중군기자 쉬러는 “스위스는 전 국민의 1/10을 넘는 인원들이 무장하고 있고, 그들은 조국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으며...”⁶³⁾라고 스위스의 전국적인 동원상황을 보도하였다.

프랑스가 독일군에 항복하고 휴전에 들어간 이후 히틀러는 영국정부에 평화제의를 하였으나 처칠이 거절하자 영국을 폭격할 목적으로 ‘바다사자 작전(Sea Lion)’을 준비하고 있었다.(영국본토에 대한 폭격은 8월 10일 시작되었다.) 따라서 지상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육군은 언제라도 스위스를 침공할 가능성이 있었던 시기인 7월 25일, 기상 장군은 비밀리에 군단장으로부터 대대장에 이르기까지 650여 명의 장교를 집결시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⁶⁴⁾

60) Foder, *op. cit.*, p.42.

61) Halbrook, *op. cit.*, pp.106~107.

62) Foder, *op. cit.*, p.36.

63) Halbrook, *op. cit.*, p.82.

64) Schwarz, *op. cit.*, p.53.

“나는 오늘 스위스 독립의 상징적이자 역사적인 장소인 이곳 뤼틀(Rütli)에서 스위스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위중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였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있으며, 스위스의 생존은 경각에 달려 있다.”⁶⁵⁾ “1939년 연방의회는 군에 수백 년이나 된 국가의 독립을 지키도록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 독립은 지금까지 존중되어 왔지만, 우리의 이웃이 우리의 독립을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있다. (중략) 우리 모두가 강철과 같은 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 자신들을 성공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우리의 힘을 신뢰하자.”⁶⁶⁾

기상 장군은 뤼틀에서 장교들에게 나치 독일의 정치와 경제, 군사 및 심리적 압력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치 및 심리전이 군사방위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총력방위를 요구하였다.⁶⁷⁾

또한 독일군 침공 가능성에 대비하여 새로운 방위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스위스 산악지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동쪽의 사르간스(Sargans) 요새로부터 서쪽의 생 모리스(St. Maurice)까지 산악 진지를 점령하는 것이다. 동시에 남부부터 북부의 방어선이 알프스 둘레를 감쌀 수 있는 형태를 만들고, 중앙의 산. 고타르트(St. Gotthard) 지역에 구축되어 있던 지하시설들은 연료와 탄약저장소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이 계획은 알프스 산악의 이점을 이용하여 방어하면서 국토의 반과 인구의 3/4, 연방 수도인 베른과 취리히, 바젤 같은 대도시를 과감히 포기한다는 것이다.⁶⁸⁾ 알프스 요새화를 위해 높은 지대에 중화기를 설치하였고, 병력과 장비, 탄약을 운반하기 위해 100회선 이상의 케이블도 설치되었다. 바위틈 공간에는 식량, 무기, 탄약을 비축하였으며, 독일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주요교량과 터널 등은 필요시 폭파할 준비도 하였다.⁶⁹⁾

65) Halbrook, *op. cit.*, p.1

66) Schwarz, *op. cit.*, pp.53~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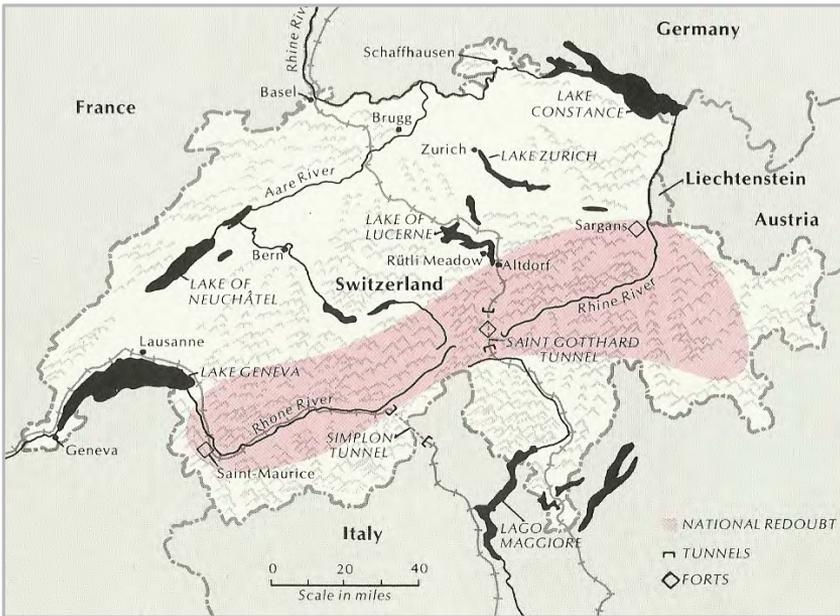
67) Milivojevic, *op. cit.*, p.16.

68) Schwarz, *op. cit.*, p.49.

69) Foder, *op. cit.*, p.40.

이렇게 준비된 계획은 알프스 ‘요새화 계획(National Redoubt)’이라고 불렸다. 여기서 ‘Redoubt’ 의미는 적의 공격 또는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만든 보루(堡壘) 또는 요새(要塞)란 의미로, 알프스 산악을 이용하여 구축한 방어지역을 말한다.⁷⁰⁾

〈그림-2〉 알프스 요새화 계획



출처: Foder, *The Neutrals*, p.50

기상 장군은 알프스 산악지역에서 동굴과 빙하 등의 공간이나 탄약고 등에 식량과 탄약을 비축하고 특별히 훈련된 산악부대들을 이용한다면 장기간 저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⁷¹⁾

세 번째는 경제방위 전략이다. 1940년 6월 중순이후, 완전히 추축국으로 둘러싸여 수입이 차단되면서 식량사정이 악화되자 두 달 동안 거래를

70) Bonjour, *op. cit.*, p.122; Halbrook, *op. cit.*, pp.121~122.

71) Foder, *op. cit.*, p.50.

금지하면서, 10월 초부터 쌀과 밀가루 등 생활필수품을 배급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평시에 식량을 비축하여 전시 및 비상시기에 배급하더라도 장기화되면 국민의 생존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으므로,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자급자족 대책을 강구하였다. 1939년 4월, 식량생산 증대를 위하여 정부관료와 취리히 대학의 발렌(F. T. Wahlen) 박사 등의 학자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 끝에 1940년 11월 ‘발렌 계획(Wahlen Plan)’이 수립되었다.⁷²⁾

이 계획이 시행되면서 4년간 농지가 두 배로 확대되어 감자 재배용 농지는 100% 늘어났고 밀과 채소용 경작지도 증가되었다. 경지면적의 확대는 습지대 물 제거와 삼림 벌목으로 가능해졌으며⁷³⁾, 시민들은 학교 운동장, 축구장, 공원, 도로가, 철길제방, 정원 등 이용 가능한 모든 토지에 감자, 콩, 토마토, 채소 등을 재배하였다.⁷⁴⁾

〈표-2〉 품목별 배급제 적용시기

품 목	배급제 적용시기
설탕, 파스타, 쌀, 밀가루, 일부 육류, 옥수수, 식용유 등	1939.10.30
신발, 비누, 피복류, 세정제	1940.12.1
치즈	1941.8.31
계란, 계란관련제품	1941.12.3
육류	1942.3.
벌꿀, 잼, 저장과일류	1942.4.4.
신선한 우유: 성인5dl(1942.1.1), 어린이: 7dl(1942.12.1)	

스위스는 고 정밀도의 기계, 시계, 봉제제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발전시켰지만, 모든 재료와 연료는 수입에 의존하였는데 대부분

72) Howard, *op. cit.*, p.218.

73) Schwarz, *op. cit.*, p.71.

74) Howard, *op. cit.*, p.218.

독일에서 수입하였다. 당연히 전쟁 상황에 따른 수입량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를 위하여 대책이 강구되었다.

먼저 금속재료 생산량을 확대하기 위해 부존자원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였다. 무기제작에 긴요한 망간을 알프스 산지에서 탐사하여 채굴하였고, 폐기된 광산을 재개발하여 고품질의 망간도 24,000톤 생산할 수 있었다.⁷⁵⁾ 아울러 정부는 간판이나 가옥건축 등 전쟁과 관련 없는 부분에서 철강의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절약된 철강이 많지는 않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연료를 절약하였다. 겨울에 난방용 유류 할당량을 대폭 줄였고, 개인이 보유하는 자동차는 긴급목적 외 사용을 강력히 통제하였으며, 군 작전도 가급적이면 말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새로운 자원도 개발하였다. 연료가 부족해지자 공군이 후원하여 비행기용 화학추진제를 개발하였고, 석탄과 석회암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연료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전쟁기간 중 10만여 톤을 생산하여 그 양이 많지 않았으나 절대적으로 연료가 부족하였던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는 군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⁷⁶⁾

네 번째는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후에 스위스에는 나치의 지원을 받는 조직이나 자생적 조직 등 나치의 전위조직과 공산당 조직들이 활동하면서 스위스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었다. 그들은 공공연하게 연방정부를 비난하고 세력을 확장하면서 스위스 전복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1938~1939년의 오스트리아와 체코 합병, 그리고 폴란드 침공을 지켜본 연방정부는 당시 나치독일에 대한 공포심으로 오랫동안 나치 전위조직들의 활동을 묵인하고 있었다.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 일부는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면서 그들이 선전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모임과 선전간행물 발간 허용, 체포된 조직원의 석방과 그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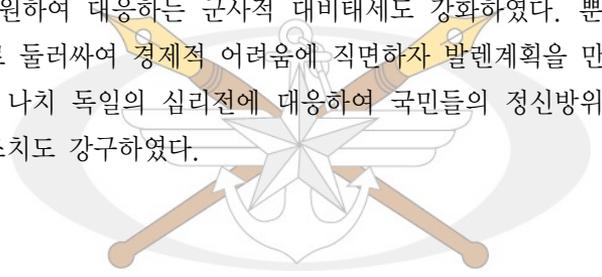
75) Schwarz, *op. cit.*, p.74.

76) *ibid.*

요구에도 정부는 한동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였다.⁷⁷⁾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마침내 연방정부는 나치 전위조직들을 해산하고 출판물 발간을 중지시켰으며, 활동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1939~1940년 문제가 되었던 분열상을 극복하기 시작하였다.⁷⁸⁾ 1940년 5월 28일 공포된 법령에서는 모든 형태의 파업을 하는 사람들은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조치하였다. 군사기밀을 폭로하는 행위, 반란죄는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전쟁기간임을 감안하여 그 절차는 대폭 간소화되었다.⁷⁹⁾

이와 같이 스위스는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자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표방하면서도 비밀리에 프랑스와 교류를 통해 대비하였으며, 민병군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군사적 대비태세도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추축국으로 둘러싸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자 발렌계획을 만들어 극복하였으며, 나치 독일의 심리전에 대응하여 국민들의 정신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였다.



4. 독일군 침공 억제의 실효성

나치독일의 스위스 침공 가능성은 여러 차례 있었고, 이를 위한 계획도 수차례 검토되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것은 없으나 스위스가 전쟁의 발발을 억제하면서 독립국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방위전략의 가시적인 성과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77) Howard, *op. cit.*, p.214.

78) Schwarz, *op. cit.*, p.8.

79) Howard, *op. cit.*, p.21.

1) 중립국 제약을 극복한 정치·외교적 성과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전쟁은 정치의 연장선이라고 하면서 정치와 군과 국민의 역할을 구분하고, 전쟁의 목적은 정치인이 정하지만 전쟁의 수행은 군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히틀러가 군 지휘부의 건의를 무시하고 시종일관 직접 전쟁을 지휘하면서 무적 독일국방군의 신화가 무너지고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소련의 스탈린도 집권초기에는 자신이 정치와 군사를 모두 간섭하였으며, 군 지휘관을 대량으로 숙청하였고, 전쟁초기단계에는 군사작전을 일일이 간섭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과오를 인식하면서 추이코프 장군에게 전쟁지휘를 일임하여 스탈린그라드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결국은 승전국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국가(군사)지도자의 전시 역할은 중요하다.

스위스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기간 중 전시 중립국의 취약한 입장을 경험한바, 전쟁발발 이전부터 적극적으로 각 분야에서 대비하면서 동시에 외교활동에도 전념하였고, 전쟁이 발발하자 총사령관으로 임명된 기상 장군이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군(軍), 정(政)을 철저히 분리하여 효율적인 억제 전략을 수행하였다.

히틀러가 집권하면서부터 위협을 느낀 정부는 1933년부터 점진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방비 소요가 확대되자 1936년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국민들은 정부가 요청하였던 금액(2억 Sfr)보다 많은 3.32억 스위스프랑을 모았다. 경제부장관은 1939년 4월 30일 특별 국방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수년간 이미 10억 스위스프랑을 사용하였다고 하였다.⁸⁰⁾

프랑스와의 비밀 군사협력은 상호 군사적 대응협력의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스위스 대응전략에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프랑스 군의 저조한 훈련수준, 전력증강 우선순위 견해차이로 인한 장비노후,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태업은 스위스군 방위준비의 우선적인 과제를

80) Foder, *op. cit.*, p.202.

제시한 것이다.

또 다른 외교적인 성과는 전쟁이 종반기에 접어들 무렵 스위스가 중재하여 이탈리아에 주둔한 독일군의 항복을 연합군에 중재한 것이다. 전쟁 기간 중 미군이 스위스 국경지역에 최초로 도달한 것은 1944년 8월 28일로 1940년 6월 프랑스 패배이후 계속 추축국에 포위된 상태에 있다가 4년이 지나면서 비로소 외부 국가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⁸¹⁾ 이 무렵인 1944~1945년도, 독일군이 연합군에 의해 제압되면서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었던 독일군과 스위스군의 정보책임자, 미국의 스위스 주재 전략정보국(OSS)의 책임자 덜레스(Allen Dulles) 사이에서는 이탈리아 주둔 독일군의 항복을 위한 접촉이 비밀리에 진행되었다.⁸²⁾ 당시 이탈리아에는 독일군 서남집단군이 케셀링(Albert Kesselring) 장군의 지휘아래 연합군과 전투를 하고 있었다.

1945년 3월 5일, 독일군이 항복하기 두 달 전, 케셀링 원수와 친위대 사령관 볼프 장군 등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연합군과 항복협상을 위해 볼프 장군을 협상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회담 동기는 이탈리아에서 무의미한 파괴를 막으면서 소련군이 미·영 연합군과 함께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함이었다.⁸³⁾ 볼프는 덜레스를 만나 협상 끝에 케셀링 원수에게 무조건 항복을 제안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얼마 뒤 케셀링의 뒤를 이어 비에팅호프(Heinrich von Vietinghoff) 장군이 부임하였다. 4월 23일, 비에팅호프 장군은 연합군에 끝까지 저항하라는 독일군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항복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

81) Howard, *op. cit.*, p.225.

82) Calvo Coressi and Wint, *op. cit.*, p.533. 스위스는 중립국이자 국제기구가 다수 위치하고 있으며, 추축국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여건으로 수도 베른을 포함한 제네바 등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각국으로부터 온 스파이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무대였다. 또한 국민의 다수가 독일계통의 주민이라 나치 스파이들의 활동이 많았으며 친위대 고위급 장교들의 활동도 빈번하였다. 이들은 심지어 스위스군의 최고지휘관들과도 회담을 갖기도 하였는데 스위스는 이러한 기회를 통해 외교활동을 하였다.

83) B. H. Liddel Hart, *History of the Second World War II*(London: Williams Clowes and Sons, 1970), p.674.

하면서 볼프 장군을 다시 스위스로 파견하였다. 협상단은 여러 차례 협상 끝에 4월 29일 오후 2시, 서남집단군이 무조건 항복하기로 하는 서명식이 개최되었으며, 5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기로 하였다.

그 무렵 히틀러가 자살(4.30)하였으며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서쪽에서는 연합군이 독일군과 마지막 전투를 하고 있었다. 6일 뒤, 5월 8일에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도 항복하였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2개월의 시간이 지나갈 무렵인 1945년 10월, 나치독일의 전시 위협에 대한 인식과 스위스의 비밀활동을 밝히는 장소에서 연방의회 의장은 스위스의 비밀정보요원들이 독일국방군 최고사령부에서 활동하면서 독일군의 비밀계획을 입수하여 보고하였다고 밝혔다.⁸⁴⁾ 독일군 최고사령부에 중요 정보원을 숨겨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던 것이다.

중립국 스위스는 외교적으로는 중립국을 유지하였지만 스위스의 자국 방위를 위해서는 정치·외교적인 노력을 철저히 하였으며 이러한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것이다.

2) 최고사령관의 전쟁지도와 전 국민의 방위태세 동참

아무리 지도자가 훌륭하고 그 역량이 출중하여도 국민이 지도자를 따르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특히 스위스와 같이 국력이 크지 않은 국가에서 그것도 추축국과 같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가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국민은 민족적 구성이나 언어의 사용이 다르다면, 그래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경우라면 이야기는 더욱 달라진다. 그런 스위스에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사령관 기상 장군의 굳은 신념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기상 장군은 프랑스가 항복하자 독일군의 침공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여 뤼틀에서 장교들을 집합시켜 스위스 정신을 일깨워주면서 군이 나가야

84) Halbrook, *op. cit.*, p.235.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전 국민에게는 어떠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강력하게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사기를 고양시키고 의지를 결집시켰다. 스위스 군 장병은 누구도 독일군에 항복할 수 없으며,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한 발의 실탄이 떨어지면 총검으로라도 싸우라고 하였다. 그것은 스위스 국민에게는 총력적 저항을 강조하는 한편, 독일군에 대해서는 침공 시 막대한 피해를 각오하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였다.⁸⁵⁾

그는 독일군의 의도를 간파하여 독일과 접하고 있는 북부의 평야지대는 희생하더라도 알프스 산악지역을 요새화하고 게릴라전과 장기전으로 국토를 지켜낼 것이며 독일군이 침공하면 알프스를 통과하는 주요 철도와 교량, 터널을 폭파하여 독일군 작전계획을 저지하겠다고 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이 스위스를 침공해서 얻는 득보다 잃는 것이 더욱 많을 것이라고 인식케 하여 침공의도를 단념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독일군이 스위스를 침공하면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와 더불어 길고 값비싼 전쟁이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실제로 기상 장군은 독일군과 연합군의 스위스 영공침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1940년 6월 초 스위스 영공을 침범한 독일군 폭격기 1대가 프랑스와 국경지역에서 가까운 노이샤텔 부근에서 스위스 공군기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1대는 피격 후 프랑스 영내로 추락하였다. 이렇게 우연적이든 의도적이든 독일과 연합군은 전쟁기간 중 총 6,501회에 걸쳐 스위스의 영공을 침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스위스 공군에 의해 268대의 공군기가 강제착륙을 당하였고, 16대는 격추되었다.⁸⁶⁾

공군기를 상실한 독일은 격노하였는데, 특히 스위스군이 독일에서 구입한 전투기를 사용해서 독일군 폭격기들을 격추시켰기 때문이었다. 독일은 폭격기들이 실수로 스위스 영공을 침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과와 동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만약 스위스 공군이 계속 공격하면

85) Halbhook, *op. cit.*, p.103.

86) Foder, *op. cit.*, pp.30, 57.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협박도 하였다.⁸⁷⁾ 히틀러는 스위스가 독일 공군 기지를 격추시키는 것을 보고받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공군기지와 탄약 생산시설 등을 폭파하라고 지시하였다.⁸⁸⁾ 이를 위하여 공군기지와 탄약고 폭파임무를 수행할 팀을 비밀리에 파견하였지만, 기차로 이동 중 스위스 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기상 장군의 적극적인 대응은 히틀러나 독일군 최고사령부가 결코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상장군의 통제아래 무려 전 인구 420만여 명 가운데 1/10이 넘는 인원인 50만에 가까운 대규모의 인원이 동원되어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은 전격전(Blitzkrieg)으로 많은 신화를 남기면서 승리하였으나 이러한 전격전은 스위스로 하여금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게 만들면서 ‘전격(번개) 동원’(Lightning Mobilization)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이것은 독일군이 선전포고 없이 전격적으로 스위스를 기습 공격할 경우, 방송으로 동원령을 전파하면 민병군들이 가정에 보유하고 있는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가까운 진지로 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개념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사격협회에서는 평시 사격연습을 통해 동원 시 별도 사격연습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이렇게 동원된 민병군들이 항공기를 조종하고 야포를 사격하며 철조망과 지뢰지대를 설치하였다. 그들은 국경수비대의 초병으로부터 조종사, 참모 본부의 장교 등 평시 일부의 현역을 유지하는 부대를 제외하고는 어느 부대에서든지 주력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독일군은 1940년 5월, 벨기에 침공 시 공정부대원 80명이 벨기에군 1,200여 명이 수비하고 있었던 에벤 에마엘(Eben Emael) 요새에 낙하 침투해서 항복을 받은 적이 있었다.⁸⁹⁾ 프랑스 침공 시 마찬가지로 여러

87) http://en.wikipedia.org/wiki/History_of_the_Swiss_Air_Force(검색일: 2012.6.20)

88) Halbrook, *op. cit.*, p.109; Foder, *op. cit.*, p.53.

89) 폴 콜리어 외, 강만수 옮김, 『제2차 세계대전: 탐욕의 끝, 사상 최악의 전쟁』, 서울: 도서

차례 공정부대들이 먼저 낙하해서 특정목표를 점령하였다. 따라서 스위스도 독일군 침공 시 공정부대가 먼저 낙하 침투할 것으로 우려되었지만, 민병군이 모든 후방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병력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60세를 넘는 노인들과 청소년, 여자들은 자진하여 동원을 주장하였고, 정부도 이에 호응하여 부대를 편성하고 총과 탄약을 지급하였으며, 그들은 총을 들고 지역방위에 나섰다. 이 부대가 20만여 명의 지역방위대(Ortswehren)로⁹⁰⁾, 그들은 전 지역에서 구식소총을 휴대하고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렇게 스위스가 최고사령관의 효율적인 지휘아래 전 국민이 동참하여 총력적인 대응태세를 갖추자 독일은 민병군과 지역방위대의 총력적 저항으로 발생될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여 스위스 침공을 강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3) 경제방위를 통한 전시 경제 안정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스위스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식량부족이 예견되는 문제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먼저 식량을 포함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들은 단계적인 배급제를 통하여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엄격한 통제를 하였으며, 아울러 배급제도가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스위스가 추축국에 둘러싸여 해외교역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식량부족 문제에 직면하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렌 계획’에 따라 전국적으로 경작 가능한 곳은 모두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간하였으며, 해외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영국으로부터는 해상통행증을 발급받고, 독일군 잠수함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고자 선박의 항해위치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해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출판 플래닛 미디어, 2008, 120~121쪽.

90) Halbrook, *op. cit.*, pp.106~107; 안성호, 앞의 논문, 52쪽.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요 항구에는 스위스 관리를 파견하여 수입물자들이 차질 없이 하역되도록 하였고, 운송과정에서 독일에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교량파괴나 매복 같은 활동으로 차질이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면서 국내로 수송하였다.

스위스는 석유는 한 방울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이며, 그 외에 석탄과 철광석 같은 지하자원도 거의 없어서 모두 수입을 해야만 하였다. 따라서 독일과 무역협정을 통해 부족한 철강을 확보하면서 국내에서도 소비와 사용처를 통제하였다. 또한 생산성이 낮아서 폐기되었던 광산을 재개발하였으며, 석탄을 이용하여 합성석유를 생산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스위스는 식량을 포함한 주요 자원에 대해 해외의존도가 커서 취약하였으나 전쟁기간 내내 추축국에 의해 포위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변국, 특히 나치독일에 자신의 강력한 의지만을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때로는 유연하게 대응하여 스위스가 필요로 하는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때로는 강경하게 대응하여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여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스위스는 전시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전쟁기간 중 독일이 스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하려 할 가능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당시 독일 마르크화는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사용이 불가능하였지만, 스위스 프랑화는 당시 국제적으로 통화가 가능할 정도로 안정된 화폐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던 스위스 프랑화를 이용할 목적과 스위스 은행에 맡겨진 약탈자산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활용하고자 침공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다.⁹¹⁾

4) 정신방위로 불법 활동 무력화 및 치안유지

연방정부는 나치 전위조직들과 공산당 조직의 불법적 활동을 초기단계

91) Foder, *op. cit.*, pp.62~63.

에서는 나치독일을 의식하여 강력한 제재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정도를 벗어나자 정부는 법을 제정하고 과감한 통제를 시작하였다.

연방경찰은 나치 전위조직들의 활동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도시의 본거지를 급습해서 각종 전단을 압수하고 100여 명을 체포하였다. 또한 전쟁기간 중 군사기밀 절취 등 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17명은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이 가운데 15명은 스위스, 1명은 프랑스, 1명은 리히텐슈타인 사람이었다. 죄수를 수감하고 있는 육군에게는 재판결과가 통보되면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지시되었다.⁹²⁾

사형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3명의 장교(최고 계급은 소령)와 11명의 준사관도 있었다. 이러한 사형의 집행은 스위스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던 사람들에게 눈에 띄만한 예방효과를 가져와 한때 스위스의 안보를 위협하였던 나치 전위조직과 제5열들의 국가에 반하는 활동이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나치와 공산당의 활동을 무력화하면서 치안질서를 확립하였다.

정부가 나치 전위조직이나 공산당 활동을 금지시키자 이에 반발하였던 움직임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반국가적 행위를 하였던 군인이나 민간인, 외국인 등의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신속한 재판을 거쳐 처형한 것은 그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그만큼 당면하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려던 적극적인 방위태세에 기인하는 것이다. 나치 선전전에 독립과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조한 정신방위(Spiritual Defence)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국민들은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나치의 위협을 극복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또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던 시기 독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스위스 군 중견장교와 사회적으로 저명한 5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하여 국가 저항행동대(L'Action de Resistance Nationale)가 조직된 바 있다.

92) Foder, *op. cit.*, p.53, Schwarz, *op. cit.*, p.117.

이 단체는 독일군이 침공하여 정부의 고위관리나 고위급 장교들이 저항하기를 거부하고 항복하면 그들을 체포하고, 전쟁이 불리하게 전개되면 빨치산이나 게릴라가 되어 독일군에게 끝까지 저항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에 위협을 주는 세력을 법적으로 제제하였고, 국민은 국민대로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민병군 장교들도 독일군 침공 시 끝까지 저항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바탕에는 스위스인의 정신방위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이다.

2차대전시 무장중립국 스위스의 방위 전략 중 적극적인 정치·외교적인 노력과 군사지도자의 확고부동한 의지로부터 국민들의 적극적 저항의 지 및 민병군의 동원과 준비태세 유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정신방위전략은 독일의 침공을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5. 결론 : 한국에 주는 교훈

스위스가 제2차 세계대전시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억제하고 독립의 보존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성공한 사례는 지도자로부터 국민에 이르기까지 총력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⁹³⁾

첫 번째, 전시 지도자 역할의 중요성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헌법의 규정에 따라 기상 장군을 최고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그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민과 군을 지도하였다. 독일에게는 침공 시

93) 안성호 교수는 스위스가 제2차대전시 독일군의 침공을 억제할 수 있었던 국방력의 비밀을 ① 지방분권적 연방제와 직접 민주제를 특징으로 하는 헌정에 대한 애국심 ② 민병제를 바탕으로 하는 무장중립제도 ③ 국민의 군에 대한 사랑과 정부의 국민에 대한 사랑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안성호, 앞의 논문, 54~59쪽)

막대한 희생을 각오하라는 경고도 하였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독일군 침공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금의 한반도 안보현실은 위중하다. 한때 북한과 정치와 경제, 관광 등 교류와 협력이 진행된 적이 있지만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끊임없는 도발로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일부 중북주의자에 의한 국가정체성을 훼손시키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우리가 처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억제하고, 여러 억제노력에도 불구하고 억제에 실패하여 전쟁이 발발한다면 모든 국력의 요소들을 통합하여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도자의 건전한 사고와 판단 및 결심 등 강력한 지도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위기관리를 위한 정치역량의 결집이다. 스위스의 정치권은 민족과 언어, 종교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국민의지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강화하였고 법령을 제정하여 정부가 전쟁에서 취할 조치들을 지원하였다.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다른 의사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6·25전쟁과 같이 국가적 비상사태가 되면 정치권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국민의 의지를 집결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전쟁수행의지를 법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어려운 때일수록 정치권이 선도하여 국민의지 결집을 위한 단결과 행동, 법적 지원은 중요한 것이다.

세 번째, 국가비상사태 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지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민들이 국방헌금을 목표액보다 초과하여 모금하였고, 민병군으로서 동원의무를 수행하였는가 하면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여성은 지역방위대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어느 나라든지 어떤 원인으로 전쟁의 위협이 높아지거나 발발하였다면 국민들에게 많은 의무가 부과되고 권리는 제한되며, 인적·물적 손실로 시련도 있게 마련이다. 수많은 고통이 동반되는 전쟁에서 국민들의 의지는 승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스위스와 같이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스위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전쟁을 억제하였듯이,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총력전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전쟁양상에서 우리 국민의 적극적 참여의지는 승패의 관건이 될 것이다.

네 번째, 전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제의 중요성이다. 전쟁사를 보면 국민생활의 안정은 전쟁의 승패와 직접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위스는 전쟁발발 시 당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상하여 미리 식량을 준비하도록 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되자 식량생산 증대계획은 물론 각종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해외서도 수입을 계속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시에 대비하여 가정은 가정대로 물자를 준비해 놓도록 충무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수많은 종류의 물자를 품목별로 선정하고 비축해서 국가가 비상상황에 처할 경우 이에 대비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전시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비상대비 차원에서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비축해 놓아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전략물자의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비축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비상시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비축물자는 어떤 기준으로 개인에게 공평하게 분배가 되도록 할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많은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 번째, 이적활동 억제이다. 스위스는 전쟁을 전후하여 나치 전위조직이나 공산당 활동이 지나치자 이를 억제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과감히 제재하였다. 반국가 및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은 간단한 절차를 거쳐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도 스위스의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서 전시 반국가 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여섯 번째, 예비전력의 조직화와 동원역량 강화이다. 스위스는 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자 수많은 민병군을 동원하여 대비하였다. 그 결과 독일군의 침공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제하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현재 스위스는 자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지만 강한 국가(強小國)로서 무장중립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방에 한치의 소홀함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68년 1·21사태와 푸에블로(Pueblo)호 나포사건을 계기로 예비군을 창설하여 지금은 300만여 명을 조직하였으며, 전·평시 군부대 확장과 향토방위 임무를 수행한다. 북한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117만여 명의 상비군 외에도 무려 770만여 명의 예비전력을 조직하고 훈련시키며 한반도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도 스위스의 민병군처럼 예비전력의 조직적 동원준비와 전투역량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평화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힘으로 평화를 지킬 수 없을 때 그것은 진정한 평화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스위스는 보여주고 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격언처럼 힘을 갖추지 않으면 자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쟁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평시부터 항재전쟁(恒在戰爭)의 자세로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위스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고투고일 : 2013. 7. 1, 심사수정일 : 2013. 8. 9, 게재확정일 : 2013. 8. 22)

주제어 : 제2차 세계대전, 무장중립국, 전쟁억제, 방위전략, 군사방위, 민방위, 경제방위, 정신방위

<ABSTRACT>

A Study on the Switzerland defense strategy in the Second World War: It's peculiarities and lessons learned

Kim, Yong-bin

Located in the middle of Europe, a small, mountainous and landlocked nation, Switzerland deterred the First World War and the Second World War by maintaining neutrality. Since Switzerland was surrounded by the Axis powers when the Second World War broke out, German army planned to invade Switzerland several times. In spite of the political and economic weaknesses, however, Switzerland overcame such obstacles and effectively managed to defend the nation so that she could maintain the neutrality.

The reason why Switzerland was able to maintain the neutrality among various nations was that Switzerland was a nation having not only a special policy of neutrality, but also military forces for the total defense with the strong national leaders.

As the Second World War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out, Switzerland clandestinely formed a military entente with France, divided politics and military forces and appointed general Henri Guisan as a supreme commander. The supreme commander inspired the spirit of resistance in military troops by reminding them of the spirit of the founding fathers of the nation. Over one-tenth of people were recruited to defend the national border. Senior citizens over 60, women and the young were encouraged form local militia to protect their areas. The Alps was nominated for a base of resistance by Switzerland. Ammunition and food were also prepared for the prolonged war.

The distribution system was operated and the most of territory was cultivated to increase productivity of agricultural crops. Resources under the

Alps were developed. The organizations which acted to benefit the enemy were strictly punished by law and the rebels were promptly executed. Confrontation strategies which were to deter a war made Switzerland maintain her neutrality and discouraged the Germans to invade Switzerland.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opinion that the military system should be abolished due to the stabl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but the majority insist that the nation should take selective service based on armed neutrality. Government is enforcing the civil defense facilities to be constructed and the military forces to continue training maintaining national conscription system. The Switzerland civil defense system is the most developed system in the world and 7 million people can be evacuated to those civil defense facilities.

Switzerland, an armed neutral nation, and her strategies on deterring a war can be a lesson to Korean people. Given that the Korean Peninsula has always been exposed to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and possibility that a local conflict can be expanded to the total war, the effort of Switzerland to deter a war can certainly be a lesson to South Korea.

Key Words : The Second World War, Armed neutrality, Deterrence of a war, Defense strategy, Civil defense system, Military defense, Economic defense, Spiritual defense system

연구소 동정

1. 연구소 대외교류 및 활동

- 숙명여대 학생 연구소 방문
 - 방문일정 : 2013. 6. 4
 - 방문인원 : 숙명여대 학군단 및 정치외교학과 학생 10명
 - 방문성과 :
 - ① 연구소 일반현황 소개
 - ② 연구소 자료실 견학
- 연구소 안보현장 견학
 - 일 정 : 2013. 6. 25
 - 답사지역 : 판문점, 도라전망대, 제3땅굴
 - 방문성과 : 연구소 전 직원의 국가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안보 현장학습과 연구의욕 촉진을 위한 단결활동

2. 인사이동

- 연구소 직원 신규 임용
 - 이신재 : 전쟁사부(2013. 6. 1)
- 전직 지원 교육
 - 광병철 중령 : 2013. 7. 1

자료기증은 군사사 연구의 생명입니다.

〈정보자료실 제공〉

군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 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연구소는 최적의 자료 보존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분이 제공한 자료는 생생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료기증 안내〉

◇ 수집대상자료

- 전사자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에 관한 피아 작전관계 문서, 지도, 사진 등 전사자료와 참전증언 자료
- 군사사 자료 : 군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군사문헌, 고증 사료

◇ 수집방법

- 소장자료를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시거나, 전화 또는 서신으로 소장 자료 제공 의사를 알려 주시면 출장 방문하여 수령하겠습니다.
(비제공 자료는 복제 후 반환)
- ※ 기증해 주신 자료는 영구 보존되며 장병 및 국민들에게 공개 활용됩니다.

◇ 연락처

- 주 소 :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 1가 8번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
- 전 화 : (일반) 02)709-3188, 3199
(군) 900-1686, 1688

〈자료이용 안내〉

◇ 공개자료 종류

- 장 서 : 역사, 군사도서 등
- 사 료 : 한국전쟁, 월남전쟁, 국방, 군사사, 수기 등
- 기 타 : 학술논문, 수기, 회고록, 간행물 등

◇ 장 소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정보자료실(전쟁기념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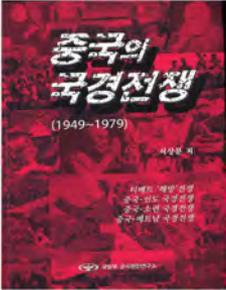
◇ 이용시간

- 평 일 : 09:30~17:3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

◇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주 소 : www.imhc.mil.kr
- 주요내용 : 소장도서목록, 연구소 역대발간서적 원문서비스,
거제도포로수용자/호국전몰용사공훈록 DB 검색 등

신간도서 소개

구 분	내 용
<p>기효신서(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사부 • 신국판 • 2013. 6. 20. 	<p>『기효신서(하)』는 연구소의 전통 병서 및 군사문헌에 대한 역간사업의 성과물이다. 2011년 발간된 『기효신서(상)』에 이어지는 후속 간행물로 조선후기의 군사교리서인 척계광의 『기효신서』(朝鮮本, 1644년 간행)를 번역·간행한 것임, 조선후기의 군사사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됨.</p>
<p>중국의 국경전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사부 • 신국판 • 2013. 6. 25. 	<p>한국과 중국은 지정으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숙명적 관계로 양국의 공동 번영·발전을 위해서는 상호 이해·소통이 필요함.</p> <p>이번에 발간한 『중국의 국경전쟁』은 현대 중국이 치른 주요 전쟁 가운데 티베트, 인도, 소련, 베트남과의 전쟁을 분석하여 중국이 어떠한 경우에 전쟁이라는 무력수단을 취하는지, 또 전쟁결행 전 중국은 어떤 징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쟁 예방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음.</p> <p>향후 중국 관계사 연구와 국방정책 발전에 활용되기를 기대함.</p>

구 분	내 용
<p>아이티 재건지원단 단비부대증언록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분쟁사부 • 신국판 • 2013. 8. 13. 	<p>『단비부대증언록②』는 아이티 지진사태에 따라 2010년 2월부터 아이티 레오간에 파병되어 MINUSTAH의 작전통제 아래 공병지원, 의료지원, 인도주의적 지원 등을 실시한 단비부대 제1진과 제2진 장병들의 증언을 청취하여 발간한 ①집에 이어 2011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현지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복귀한 제3진부터 제6진까지 장병들의 생생한 증언을 청취하여 발간하였음.</p> <p>향후 해외파병에 대비한 정책수립 및 부대 운영, 해외파병사 연구에 활용되고, 후세들이 한국군 파병의 교훈적 사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p>

『軍史』誌 投稿案内

1. 원고 내용 및 범위

- 가. 국내외 군사정책/전략·군사제도·전쟁/전투에 관한 역사적 내용
- 나. 한국의 국방 및 안보와 유관한 정치사·외교사·軍事史 분야에 관한 내용
- 다. 가·나항과 관련된 연구논문, 서평, 연구동향, 자료소개, 연구논문 번역 등
- 라. 기타 군사편찬연구소 연구활동과 부합되는 글
※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함.

2. 원고 작성 요령

- 가. 원고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과 원어는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표기함.
- 나. 원고 분량은 각주를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 다. 註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각주 번호는 반괄호 안에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함. 각주의 표기는 저자, 「논문」, 『계재지 또는 저서』, 발행처, 발행연도, 페이지의 순서로 함.
예 : 홍길동, 「00에 관한 연구」, 『군사』 제80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1, 99~101쪽
- 라. 외국어로 된 경우 각주의 표기는 저자,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행연도, 쪽수의 순서로 하고 서명은 이탤릭체, 쪽수는 'p', 'pp'로 표기한다.

예 : Hong Gildong, "History of Republic of Korean Army",
Military History, Vol.82(2012.3), p.40.

Hong Gildong, *Korean Military History*(New York:
 Mcgrow-Hill, 2010), pp.100~110.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존 『軍史』誌를 참조하기 바람.

3. 투고 요령

가. 원고는 그대로 게재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글 파일(000.hwp)이
 어야 하며 원고 제출은 E-mail로 전송하여야 함. 단, 외국어로 작
 성할 경우는 MS워드 사용 가능

(군사지 편집위원회 E-mail : imhc2@mnd.go.kr)

나. 전송시 인적사항, 연락처, 논문 초록(국문·영문, 각 A4지 2매 이내),
 주제어(Key Word) 10단어(국문·영문) 등이 명기된 '투고신청서'와
 '저작물이용허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양식은 연구소 홈페이지
 '연구소 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사용)

※ 영문초록은 250~300단어 내외로 작성

다. 공동집필의 경우, 대표집필자 명의로 '투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집필자는 각주에 표기함.

4. 원고 심사 및 고료

가. 원고의 게재 여부는 당 연구소에서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함.

나. 접수된 원고는 게재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음.

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함.

※ 국방부 본부 및 산하기관의 공무원, 군인, 군무원에게는 원고료, 심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음.

라.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당 연구소에 귀속됨.

5. 발간시기 및 원고 접수기간

연간 4회 발간(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12월 15일)함. 따라서 1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3월에, 4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6월에, 7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9월에, 그리고 10월 1일까지 접수된 원고는 12월에 게재함.

6. 문의 / 연락처

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우편번호 : 140-02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軍史』誌 편집위원회

- 전화 : 02-748-1667(한환구)
- FAX : 02-709-3111
- E-Mail : imhc2@mnd.go.kr

나.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

www.imhc.mil.kr

내용 : 연구소 소개, 소식, 정보자료실(소장도서, 인명DB 검색 등), 신간안내, 회원모집

연구윤리예규

군연-예16

제정 2007. 7. 1

부분개정 2008. 12.1

부분개정 2009. 11.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예규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본 연구소 내 연구편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 의한다.

제 4 조(용어의 정의)

- ① 연구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사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사료·사진·증언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를 한 연구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연구자와 동등하거나 유사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②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연구소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③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본 연구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⑥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 5 조(운영위원회 및 기능)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③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④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⑤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 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 6 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① 제보자는 기획운영실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에 한하여 허용한다.
-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 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 ①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제4조 제1항의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 ③ 예비조사는 기획운영실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8 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 ① 예비조사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연구지원 기관과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 9 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 ① 본조사는 운영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 ① 조사위원회는 소장이 임명(위촉)하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조사위원회 위원은 부·실장 또는 해당 분야 전공 연구원으로 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 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소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② 소장은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 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 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 ③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판정)

-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②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 ① 조사위원회는 판정 후 10일 이내에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 보고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3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연구지원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 ① 최종 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과제를 지원한 기관에 제출하며, 상급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선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을 위반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7조(결과에 대한 조치)

- ①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운영위원회는 소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기획운영실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최종 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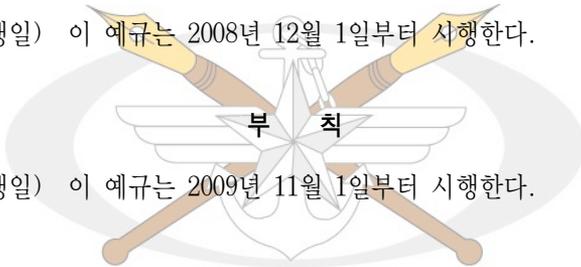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軍史誌』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입니다.
(’08년 선정)

□ 편집위원장

양영조(군사편찬연구소)

□ 편집위원 (가나다순)

기광서(조선대학교)

김영관(제주대학교)

김종수(군산대학교)

김창석(강원대학교)

김태국(연변대학교)

남정옥(군사편찬연구소)

박영준(국방대학교)

서상문(군사편찬연구소)

신명호(부경대학교)

손규석(군사편찬연구소)

오영섭(연세대 이승만연구원)

이명환(공군사관학교)

이민웅(해군사관학교)

이상호(군사편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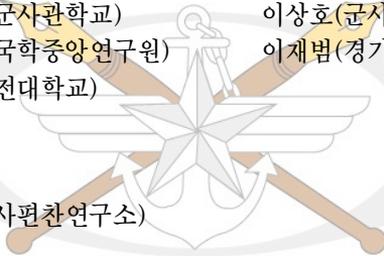
이완범(한국학중앙연구원)

이재범(경기대학교)

진석용(대전대학교)

□ 편집간사

한환구(군사편찬연구소)



軍 史 2013/09 (第88號)

2013年 9月 5日 印刷

2013年 9月 15日 發行

發行處 國防部軍史編纂研究所

(우편번호: 140-02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TEL : 748-1667 FAX : 709-3111

發行人 李 陽 九

印刷處 國 軍 人 쇄 창(13088631)

本誌에 실린 論文內容은 當 研究所의 公式見解가 아님.

- Kim, Jong-soo Establishment of Six Guards and the Operation of the Military System during the time of King Taejo of the Goryeo Period
- Lee, Gang-soo Form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rmed Forces and Their Historical Implications
- Jo, Soo-ryong North Korea's Wartime Production and Support from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 KMAIR·Kim, In-soo South Korean Armed Forces' Peace Operation and Scheme for Improving Stability Operation Capacity
- Son, Seung-ho A Study on the future development plan through the analysis of transition process of the ROK NCOs Recruiting systems
- Kim, Eung-jong The End of the Mediterranean Civilization
- Focusing on the Battle of Lepanto -
- Lee, Nae-joo A Study on the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British Gallipoli Campaign in 1915
- Focusing on the Imperialistic Prejudices of the British High Command and the Reality of the Turkish Army -
- Ki, Se-chan India-Burma Campaigns and the Chinese Expeditionary Force
- Lee, Gi-deuk How the Will of Citizens Influenced the Result of War: Based on the cases from Great Britain and Germany During the World War One
- Kim, Yong-bin A Study on the Switzerland defense strategy in the Second World War: It's peculiarities and lessons learned

Published by Institute for Military History Compilat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eoul, Korea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140-021 서울시 龍山區 梨泰院路 29